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능검 요약노트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 빈출 선지 분석 · 인물사·지역사 · 한국사 연표

공부돼지 요약노트 · 77회 전전전야제 노트 · 이익쌤 연표 자료집 · 한국사달인 합격족보 · 고려 문화사 사진자료 · 68~79회 기출 빈출 선지를 바탕으로 정리

1.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 3
흐름 정리

2. 삼국과 가야 6
흐름으로 보는 삼국 항쟁 · 왕별 업적표 ① 고구려 · 백제 · 왕별 업적표 ② 신라 · 통일 신라 · 발해

3. 통일신라 · 발해 · 후삼국 10
흐름 정리

3. 고대의 탑 · 불상 · 문화재 12

1~3. 고대 13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사진 · 내용) · 별채우기 보충 (2)

4. 고려 15
정치 · 왕별 업적표 · 흐름 정리 ① 정치 · 대외 관계 · 흐름 정리 ② 경제 · 사회 · 문화 · 대외 관계 · 무신 정권 · 원 간섭기 · 경제 · 사회 · 문화 · 건축 · 탑 · 불상 · 공예 ·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사진 · 내용)

5. 조선 전기 23
건국 · 왕별 업적 · 통치 체제 · 왕별 업적표 · 흐름 정리 · 정치(통치 기구 · 사화 · 붕당 · 양난) · 사림 · 사화 · 왜란 · 호란 · 사회 · 경제 · 문화 · 문화재 사진 · 빈출 선지

6. 조선 후기 29
정치 · 왕별 업적표 · 경제 · 사회 · 흐름 정리 ⓪ 경제 큰 그림 · 흐름 정리 ① 수취 체제의 변화 · 흐름 정리 ② 토지 · 농업 · 수공업 · 광업 · 흐름 정리 ③ 상업 · 무역 · 문화 · 문화재 사진 · 빈출 선지

5·6. 조선 38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사진 · 내용)

7. 개화기 39
흥선대원군 · 개항 · 개화 정책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동학 농민 운동 · 갑오개혁 · 독립협회 · 대한제국 · 국권 피탈과 저항 · 흐름 정리 ① 흥선대원군 ~ 갑신정변 · 흐름 정리 ② 동학 농민 운동 ~ 국권 피탈 · 사진 · 인물 · 빈출 선지 ·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내용)

8. 일제강점기 46
통치 방식 · 경제 수탈 · 1910년대 독립운동 · 3·1 운동 · 임시 정부 · 무장 투쟁 · 의열 투쟁 · 실력 양성 · 사회 운동 · 국학 · 흐름 정리 ① 통치 · 수탈 · 임시 정부 · 흐름 정리 ② 무장 투쟁 · 민족 운동 · 국학 · 사진 · 빈출 선지 ·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사진 · 내용)

9. 현대 53
광복 · 정부 수립 · 6·25 전쟁 · 이승만 정부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이후 · 통일 정책 · 경제 · 정부별(대통령별) 업적표 · 흐름 정리 · 사진 · 빈출 선지 · 합격족보 · 별채우기 보충 (내용)

부록 1. 단원별 빈출 선지 분석 60

부록 2. 한국사 지역사 74
북한 지역 · 충청도

부록 2. 인물사 76
근현대

부록 3. 한국사 연표 77
선사 · 고대 77
고려 81
조선 전기 86
조선 후기 88
조선 후기 · 개항 90
1860~1880년대 91
1890년대 95
대한제국 · 국권 피탈 98
국권 피탈 · 1910년대 100
1910년대 101
1920년대 102
1930~40년대 104
광복 · 정부 수립 (1945~1947) 107
정부 수립 · 제헌 국회 (1948~1949) 108
6·25 전쟁 · 이승만 정부 (1950~1954) 109
1950~60년대 (4·19 혁명 · 박정희 정부) 110
1960년대 후반 (1966~1969) 111
1970년대 112
1980년대 이후 113

■ 구석기 ~ 철기

구석기	뗀석기(주먹도끼, 찍개, 슴베찌르개), 사냥·채집, 이동 생활, 동굴·막집, 무리 사회(평등)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청원 두루봉 동굴(흥수 아이)
신석기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뼈바늘(옷·그물), 갈돌·갈판 농경·목축 시작(조·피·수수), 정착 → 움집(반지하·원형, 가운데 화덕) 씨족 사회(평등), 조개껍데기 가면·치레걸이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청동기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반달 돌칼(추수), 민무늬 토기·미송리식 토기 벼농사 시작, 계급 발생 → 군장 등장, 지배자 무덤 고인돌 직사각형 움집(지상 가옥화, 화덕은 벽 쪽) 부여 송국리, 여주 흔암리 / 고인돌: 강화·고창·화순
철기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철제 농기구·철제 무기(정복 활동 활발) 중국 화폐 명도전·반량전·오수전 → 중국과 교류 창원 다호리 붓 → 한자 사용 / 널무덤·독무덤

※ 철기 시대 설명은 오답 선지로 자주 쓰인다. 유물 사진 = 대표 유물 2~3개로 시대 판별.

■ 고조선

- 단군왕검이 건국(BC 2333) → 건국 이야기 수록: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 세력 범위 = 비파형 동검 · 탁자식 고인돌 · 미송리식 토기
- 부왕·준왕 때 왕위 세습, 왕 아래 상·대부·장군 관직
- 연과 맞설 만큼 강성 →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으로 서쪽 땅 상실
- 범금 8조(8조법) — 3개 조항만 전함
  살인 → 사형 / 상해 → 곡식 배상 / 도둑질 → 노비(속죄하려면 50만 전)
  ⇒ 생명 중시, **사유 재산**, **계급(노비)** 사회, 화폐 사용

■ 위만 조선 (BC 194)

- 위만이 무리 1,000여 명과 들어와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 (준왕은 남쪽 진국으로)
- 철기 문화 본격 수용, 진번·임둔 복속
- 한과 남쪽 진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이익
- 한 무제 침입 → 우거왕 피살, 왕검성 함락(BC 108)
  →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과 뜻이 달라 진국으로 내려감
  → 멸망 후 한 군현 설치, 법 조항 60여 개로 늘어남

■ 헷갈리는 짝

청동기	철기
비파형 동검	세형동검(한국식 동검)
거친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고인돌(지배자 무덤)	널무덤·독무덤

■ 여러 나라의 성장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사료로 출제

■ 부여 : 만주 쑹화강 유역 평야, 농경·목축

- 5부족 연맹: 왕 아래 마가·우가·저가·구가 → 각자 사출도 다스림 (왕권 약함)
-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함
- 영고(12월), 우제점법 → 소 발굽으로 길흉 점침
- 순장, 형사취수제, 1책 12법 → 훔친 물건 12배 배상

■ 고구려 : 졸본 지방(압록강 지류 동가강 유역), 산간 지대

- 5부족 연맹: 계루부·소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
- 왕 아래 상가·고추가 등 대가 → 사자·조의·선인 관리 거느림
- 제가 회의(중대 범죄자 처벌), 약탈 경제, 창고 부경
- 동맹(10월), 국동대혈(제사 동굴)
- 서옥제 → 신랑이 신부 집 뒤 작은 집(서옥)에 살다 자식이 크면 돌아감, 형사취수제, 1책 12법

■ 옥저 : 함경도 동해안

- 왕 없음 → 군장 읍군·삼로가 다스림 (동예도 같음)
- 어물·소금 풍부 → 고구려에 공납, 뒤에 고구려에 복속
- 민며느리제 → 어린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키운 뒤 혼인
- 가족 공동 무덤(골장제) → 가매장 후 뼈만 추려 한 목곽에

■ 동예 : 강원도 동해안(옥저 남쪽)

- 왕 없음 → 읍군·삼로, 명주·삼베 짜는 방직 기술
- 특산물: 단궁(활)·과하마(작은 말)·반어피(바다표범 가죽)
- 무천(10월), 책화 → 남의 부족 땅을 침범하면 노비·소·말로 갚음
- 족외혼 →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지 않음

■ 삼한 : 마한·진한·변한 (한강 이남)

- 대족장 신지·견지, 소족장 부례·읍차
- 제정 분리: 제사장 천군이 신성 지역 소도 관리 (죄인이 도망쳐도 못 잡음)
- 벼농사 발달 → 저수지(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 변한: 철 생산 → 낙랑·왜에 수출, 철을 화폐처럼 사용
- 계절제: 5월 수릿날, 10월 계절제

■ 빈출 선지 체크 — 틀린 선지는 빨간 글씨가 정답 나라

- □ 주먹도끼·슴베찌르개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O
- □ 가락바퀴·뼈바늘로 옷을 지었다. 신석기 O
- □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O (신석기 X)
- □ 거푸집으로 세형동검을 만들었다. 철기 O
- □ 범금 8조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고조선 O
- □ 사출도를 다스리는 가(加)가 있었다. 부여 O (고조선 X)
- □ 제가 회의에서 중대한 범죄자를 처벌하였다. 고구려 O
- □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 고구려는 서옥제
- □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한 목곽에 안치하였다. 옥저 O
- □ 읍락 경계를 침범하면 책화를 물렸다. 동예 O
- □ 천군이 소도를 관리하였다. 삼한 — 동예·부여 X
- □ 철을 낙랑·왜에 수출하였다. 변한 O

※ 참고: 공부돼지 요약노트, 77회 전전전야제 노트를 대조해 새로 정리함.

■ 시대별 유물 / 유적지

구석기


뗀석기(주먹도끼)


슴베찌르개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 동굴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유적


단양 금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 뼈바늘
실 뽑기·옷 짓기


갈돌 / 갈판
곡식 갈기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반지하·원형)


조개 가면 / 치레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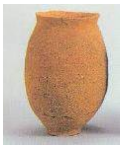

평양 용곡 동굴

청동기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벼 이삭 따기


거친무늬 거울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 세력 범위


간돌검
부여 송국리


고인돌(탁자식)
강화 부근리


고인돌
고창


부여 송국리 유적
집터·환호

철기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청동기 틀


명도전


반량전


독무덤


널무덤


다호리 붓
창원 · 한자 사용

■ 여러 나라 위치 — 위치도 꼭 확인할 것



■ 사진으로 가르는 헷갈리는 짝


비파형 동검
청동기 · 고조선

vs


세형동검
철기 · 한국식 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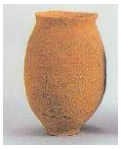

거친무늬 거울
청동기

vs


잔무늬 거울
철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 바닥 뾰족

vs


민무늬 토기
청동기 · 바닥 평평

■ 삼한의 저수지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장생거(수문 돌기둥)

- 벼농사 발달 → 저수지 축조: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

※ 철제 농기구 보급 → 농업 생산력 증가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전곡리 주먹도끼, 거친무늬·잔무늬 거울, 강화·고창 고인돌, 송국리 유적, 간돌검, 의림지) / 우리역사넷(다호리 붓) · 디지털김제문화대전(벽골제 장생거). 출처 목록: 사진/1단원/출처.json, 웹사진/보충/출처.json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대표 유물 · 핵심

선사 시대의 흐름

도구	**구석기** 뗀석기 주먹도끼 · 찍개 · 슴베찌르개 →	**신석기** 간석기 ·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 뼈바늘 →	**청동기** 비파형 동검 · 거친무늬 거울 반달 돌칼 · 민무늬 토기 →	**철기** 세형동검 · 잔무늬 거울 · 거푸집 철제 농기구·무기
먹고 살기	**사냥 · 채집** 이동 생활 →	**농경 · 목축 시작** 조 · 피 · 수수 정착 생활 →	**벼농사 시작** 반달 돌칼로 이삭 따기 →	**농업 생산력 ↑** 철제 농기구 저수지(벽골제·의림지)
집 · 무덤	**동굴 · 막집** 연천 전곡리 · 공주 석장리 →	**움집** 바닥 둥근 반지하 서울 암사동 →	**지상 가옥화** 바닥 네모난 움집 부여 송국리 · 환호 →	**독무덤 · 널무덤** (무덤 양식)
사회	**평등한 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 이끎 →	**부족 사회 · 평등** 애니미즘 · 토테미즘 샤머니즘 →	**계급 발생 · 군장** 사유 재산 · 고인돌 → 국가 등장(고조선) →	**중국과 교류** 명도전 · 반량전 다호리 붓(한자)

고조선의 흐름

단군 조선	**단군왕검 건국** 기원전 2333 · 『삼국유사』 제정 일치 →	**기원전 4C** 왕 칭호 · 연과 대립 →	**기원전 3C** 부왕·준왕 세습 상 · 대부 · 장군 →	**연 진개 침입** 서쪽 땅 잃음	
위만 조선	**위만 집권** 기원전 194 준왕 몰아냄 →	**철기 본격 · 정복** 한 ↔ 진(남쪽) 중계 무역 →	**한 무제 침입** 우거왕 피살 →	**왕검성 함락 · 멸망** 기원전 108 →	**한 군현 설치** 범금 8조 → 60여 조

범금 8조(3조만 전함): 살인 → 사형 / 상해 → 곡식 / 도둑 → 노비(50만 전으로 면함) → 생명·노동력·사유 재산 중시, 노비 있는 계급 사회

여러 나라 한눈에

나라	정치	제천 행사	풍습 · 법	경제 · 특산물
부여	왕 + 사출도(마가·우가·저가·구가)	영고(12월)	1책 12법 · 순장 · 형사취수 · 우제점법	반농반목 · 말 · 주옥 · 모피
고구려	5부족 · 제가 회의 · 상가·고추가	동맹(10월)	서옥제	약탈 경제 · 부경(창고)
옥저	군장: 읍군 · 삼로	—	민며느리제 · 가족 공동 무덤	해산물 · 소금
동예	군장: 읍군 · 삼로	무천(10월)	책화 · 족외혼	단궁 · 과하마 · 반어피
삼한	신지 · 읍차 / 제사장 천군(소도) → 제정 분리	수릿날(5월) · 계절제(10월)	소도(신성 구역)	벼농사 · 저수지 · 변한 철 수출

	고구려	백제	신라
1C	**유리왕**: 졸본 → 국내성 천도 **태조왕**: 옥저 복속, 계루부 고씨 왕위 세습		■ **삼국의 통치 체제** - **고구려**: 제가 회의 / 5부, 지방관 욕살·처려근지 - **백 제**: 정사암 회의 / 수도 5부·지방 5방, 22담로(무령왕) - **신 라**: 화백 회의(만장일치) / 상대등 / 골품제 백제 관제: 6좌평·16관등, 지배층 = 왕족 **부여씨** + 8성 귀족 / 신라 17관등
2C	**고국천왕**: 왕위 부자 상속, 행정적 5부 개편, 진대법(을파소) → 빈민 구제(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음)	백제 관직: 6좌평 / 16관등제 (시대 불명확)	
3C	**동천왕**: 서안평 공격 →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 → 환도성 함락	**고이왕**: 한강 장악, 율령 반포, 관제 정비·6좌평·공복 제정 → 마한 목지국 복속	
4C	**미천왕**: 서안평 점령, 낙랑군·대방군 축출 **고국원왕**: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 **소수림왕**: 불교 수용(전진), 태학 설립, 율령 반포	**근초고왕**: 마한 전 지역 복속, 평양성 공격(고국원왕 전사), 요서·산둥·규슈 진출 (칠지도 → 왜에 하사) → 왕위 부자 상속, 고흥 『서기』 편찬 **침류왕**: 불교 수용(동진 마라난타)	**내물 마립간**: 김씨 왕위 독점, 마립간 칭호 왜 침입 → 광개토대왕 도움으로 격퇴 → 고구려군 신라 주둔(호우명 그릇)
5C	★ **광개토대왕**: '영락' 연호, 요동·만주 정복,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 (광개토대왕릉비) ★ **장수왕**: 평양 천도(남진 정책), 한성 함락·개로왕 전사 → 한강 장악 (충주 고구려비), 지방에 경당(한학·활쏘기)	**비유왕**: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 **개로왕**: 북위에 국서(고구려 공격 요청) → 장수왕 공격으로 한성 함락·전사 **문주왕**: 웅진(공주) 천도 **동성왕**: 신라와 결혼 동맹, 탐라 복속	**눌지 마립간**: 백제와 나·제 동맹, 왕위 부자 상속 **소지 마립간**: 결혼 동맹, 6부 행정 개편, 우역 설치
6C	● 신라·백제 연합에 한강 유역 상실 (온달의 한강 회복 시도) *부경: 집집마다 있던 작은 창고	**무령왕**: 22담로에 왕족 파견, 중국 남조 양과 교류 (무령왕릉 = 벽돌무덤) ★ **성왕**: 사비(부여) 천도, 국호 '남부여', 22부 실무 관청 ① 나·제 동맹으로 한강 하류 회복 → ② 진흥왕 배신(한강 빼앗김) → ③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지증왕**: 국호 '신라', '왕' 칭호, 순장 금지, 우경 장려, 우산국 복속(이사부), 동시전(시장 감독 관청) 설치 ★ **법흥왕**: 율령 반포, 17관등·공복, 병부·상대등 설치, 불교 공인(이차돈), '건원' 연호, 금관가야 병합(532) ★ **진흥왕**: 화랑도 국가 조직화, '개국' 연호, 거칠부 『국사』, 한강 차지(신주) → 대가야 정복(562) → 함경도 진출 → 순수비: 북한산·창녕·황초령·마운령 / 단양 적성비(순수비 아님, 적성 점령 공로 포상)
7C	● 수 양제 침입 → 을지문덕 살수대첩 (612) ● 당 대비 천리장성 축조 → 연개소문 정변 (영류왕 제거, 보장왕 옹립) ● 당 태종 침입 → 안시성 전투(645) 승리 → 연개소문 사후 권력 다툼 →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668)** ● 부흥 운동: 검모잠·고연무, 왕족 안승 추대 →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	**무왕**: 익산 미륵사 창건(639) **의자왕**: 신라 대야성 함락(642) → 황산벌(계백) 패배 **백제 멸망(660)** ● 부흥 운동: 복신·도침(주류성), 흑치상지(임존성), 왕자 부여풍 추대 → 왜 지원군과 백강 전투 패배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 석탑,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자장), 비담·염종의 난(김유신 진압) **진덕여왕**: 김춘추 나·당 동맹(648), 집사부(장관 중시) **무열왕(김춘추)**: 최초 진골 왕, 김유신 황산벌 승리 → 사비성 함락 **문무왕**: 고구려 멸망 → 나·당 전쟁(당: 안동도호부·웅진도독부·계림도독부) → 매소성(675) → 기벌포(676) 승리 → **삼국 통일**

■ 가야

- **전기**: 김해 금관가야 중심(김수로왕), 우수한 철기 → 낙랑·왜에 덩이쇠 수출
- **후기**: 고령 대가야 중심, 소국이 각자 독자 정치 → 세력 집중 X
- **멸망**: 금관가야(법흥왕, 532), 대가야(진흥왕, 562) → 중앙 집권 국가로 못 가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
- 유물: 금동관, 철갑옷·판갑옷, 수레바퀴 모양 토기, 기마인물형 뿔잔



전기·후기 가야 연맹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김해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 백제·고구려 부흥 운동 / 순서 단골



부흥 운동 근거지

- 전성기: 백제(근초고왕, 4C) → 고구려(광개토·장수, 5C) → 신라(진흥왕, 6C)
- 대야성 함락 → 나·당 동맹 → 백제 멸망 → 고구려 멸망(8년 뒤) → 나·당 전쟁

※ 나당 전쟁 순서: 매소성 → 기벌포 ('매·기')

- 한강 차지 순서: 백제 → 고구려 → 신라

■ 한강을 둘러싼 다툼 (4~6세기)

371 백제 **근초고왕** 평양성 공격 →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

▼

400 고구려 **광개토대왕**,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 (호우명 그릇)

▼

427 ★ 고구려 **장수왕** 평양 천도 → 남진 정책

▼

433 나·제 동맹 — 백제 비유왕 + 신라 눌지 마립간

▼

472 백제 **개로왕**, 북위에 국서 → 고구려 공격 군사 요청

▼

475 장수왕 **한성** 함락 → 개로왕 전사 → 고구려 한강 장악 (충주 고구려비)

▼

475 백제 **문주왕** **웅진(공주)** 천도

▼

493 결혼 동맹 — 백제 동성왕 + 신라 소지 마립간

▼

538 백제 **성왕** **사비(부여)** 천도, 국호 '남부여'

▼

551 나·제 연합 → 한강 유역 되찾음 (백제 = 하류 / 신라 = 상류)

▼

553 신라 **진흥왕** 한강 하류까지 차지(신주) → 나·제 동맹 깨짐

▼

554 관산성 전투 → 백제 성왕 전사

▼

562 진흥왕 대가야 정복 → 가야 연맹 소멸

■ 삼국 통일 과정 (7세기)

598 고구려 영양왕 요서 공격 → 수 문제 침입 격퇴

▼

612 수 양제 침입 → 을지문덕 살수대첩

▼

642 연개소문 정변 — 영류왕 죽이고 보장왕 세움 (천리장성 쌓는 중)

▼

642 백제 의자왕, 신라 대야성 함락 → 김품석(김춘추의 사위) 죽음

▼

642 **김춘추**, 고구려에 군사 요청 → 연개소문 거절

▼

645 당 태종 침입 → 안시성 전투 승리

▼

648 김춘추, 당과 나·당 동맹 (진덕여왕 때)

▼

660 황산벌 전투(계백 vs 김유신) → 사비성 함락 → **백제 멸망**

▼

660 ~663 **백제 부흥 운동**: 복신·도침(주류성), 왕자 부여풍 / 흑치상지(임존성)

▼

663 백강 전투 — 왜 지원군 패배 → 부흥 운동 실패

▼

668 연개소문 죽은 뒤 아들들 다툼 → 평양성 함락 → **고구려 멸망**

▼

670 **고구려 부흥 운동**: 검모잠·고연무, 안승 추대 → 신라가 보덕국왕으로

▼

670 나·당 전쟁 — 당이 웅진도독부·계림도독부·안동도호부로 한반도 노림

▼

675 매소성 전투 승리 (육지)

▼

676 기벌포 전투 승리 (바다) → 삼국 통일(문무왕, 대동강~원산만 남쪽)

■ 한 줄 총정리

4~6세기 근초고왕 평양성 공격(고국원왕 전사) → 광개토대왕 왜 격퇴 → **장수왕 평양 천도·남진** → 나·제 동맹 → 개로왕 북위에 군사 요청 → **장수왕 한성 함락(개로왕 전사)** → 웅진 천도 → 결혼 동맹 → 사비 천도 → 나·제 연합 한강 회복 → **진흥왕 한강 독차지** → **관산성 전투(성왕 전사)** → 대가야 정복

7세기 수 침입 → **살수대첩** → 연개소문 정변 → **대야성 함락** → 김춘추 고구려에 군사 요청(거절) → **안시성 전투** → **나·당 동맹** → 백제 멸망 → 백제 부흥 운동 → 백강 전투 → **고구려 멸망** → 고구려 부흥 운동 → **나·당 전쟁** → 매소성 → 기벌포 → **삼국 통일**

※ 한강 차지: 백제(4C) → 고구려(5C) → 신라(6C) / 전사한 왕: 고국원왕(371) → 개로왕(475) → 성왕(554) / 대야성(642)이 안시성(645)보다 먼저 / 나·당 전쟁 '매 → 기'

■ 고구려

태조왕	• 옥저 복속 • 계루부 고씨가 왕위 세습
고국천왕	• 왕위 부자 상속, 5부를 행정 구역으로 개편 • 진대법(을파소) —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함
동천왕	• 서안평 공격 → 위 관구검의 침입(환도성 함락)
미천왕	• 서안평 점령, 낙랑군 축출(313)
고국원왕	•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371)
소수림왕	• 불교 수용(전진 순도) • 태학 설립, 율령 반포
광개토 대왕	• '영락' 연호 • 요동·만주 정복, 백제 공격 •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400) → 호우명 그릇
장수왕	• **평양** 천도(427) → 남진 정책 • 백제 **한성** 함락, **개로왕 전사**(475) • 충주 고구려비, 지방에 경당
문자명왕	• 부여 완전 복속
영양왕	• 수 양제 침입 → 을지문덕 살수대첩(612) • 이문진『신집』편찬
영류왕	• 당 대비 천리장성 쌓기 시작 • 연개소문 정변으로 죽음(642)
보장왕	• 연개소문 집권, 안시성 전투(645) • 평양성 함락 → **고구려 멸망**(668)
부흥 운동	• 검모잠·고연무, 왕족 안승 추대 •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삼음

■ 백제

온조왕	• 백제 건국(한성)
고이왕	• 6좌평·16관등제 정비, 율령 반포 • 관리의 복색 제정(공복제), 한강 유역 장악
근초고왕	• **고구려 평양성 공격 → 고국원왕 전사** • 마한 정복, 요서·산둥·규슈 진출 • 『서기』 편찬(고흥), 왜에 칠지도 하사
침류왕	• **동진에서 불교 수용**(마라난타)
비유왕	•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433)
개로왕	• 북위에 사신 파견: 고구려 공격 요청 • 장수왕에 의해 **한성** 함락, 전사(475)
문주왕	• **웅진(공주)** 천도
동성왕	• 신라와 결혼 동맹(493) — 나·제 동맹 강화
무령왕	• **22담로: 지방에 왕족 파견** • 중국 남조 양과 교류 • 무령왕릉: 벽돌무덤, 지석으로 묻힌 사람이 밝혀짐
성왕	• **사비** 천도, 국호 남부여, 22부 정비 • 일본에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 한강 하류 회복 → 진흥왕에게 빼앗김 →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554)
무왕	• 금마저(익산)에 미륵사 창건
의자왕	• 신라 대야성 함락(642) • 황산벌 전투(계백) 패배 → **멸망**(660)
부흥 운동	• 주류성: 복신·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 • 임존성: 흑치상지 / 백강 전투(663) 패배

■ 신라 (삼국 시대)

내물 마립간	• 김씨 왕위 독점, 마립간 칭호 • 왜 침입 → 광개토대왕 도움으로 격퇴
눌지 마립간	• 백제와 나·제 동맹(433) • 왕위 부자 상속
소지 마립간	• 백제와 결혼 동맹(493) • 6부를 행정 구역으로 개편, 우역 설치
지증왕	• 국호 '신라', '왕' 칭호 • 우산국 복속(이사부, 512) • 동시전 설치, 순장 금지, 우경 장려
법흥왕	• 율령 반포, 17관등·공복, 병부·상대등 설치 • 불교 공인(이차돈 순교) • '건원' 연호, 금관가야 병합(532)
진흥왕	• 화랑도 국가 조직으로 개편, 거칠부 『국사』 • 한강 유역 차지(신주) → 관산성 승리 • 대가야 정복(562), '개국' 연호 • 순수비: 북한산·창녕·황초령·마운령 / 단양 적성비
진평왕	• 위화부 설치 • 원광 — 세속 5계, 수에 걸사표
선덕여왕	• 분황사,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자장) • 비담·염종의 난(김유신 진압)
진덕여왕	• 김춘추 나·당 동맹(648) • 집사부 설치

■ 통일 신라

무열왕 김춘추	• 최초의 **진골** 출신 왕 • 백제 멸망(660)
문무왕	• 고구려 멸망(668) • 나·당 전쟁: 매소성(675) → 기벌포(676) → 삼국 통일
신문왕	• 김흠돌의 난 진압 → 왕권 강화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국학 설립, 9주 5소경, 9서당 10정
성덕왕	• 백성에게 정전 지급(722)
경덕왕	• 녹읍 부활(757) • 불국사·석굴암 짓기 시작(김대성)
혜공왕	• 성덕 대왕 신종 완성 • 귀족들 반란 속에 피살 → **신라 하대** 시작
원성왕	• 독서삼품과 실시(788)
헌덕왕	• 김헌창의 난(822)
흥덕왕	• 장보고 청해진 설치(828)
진성여왕	• 원종·애노의 난(889) • 최치원 시무 10여 조 건의

■ 발해

고왕 대조영	• 고구려 유민 + 말갈 → **동모산**에서 건국(698)
무왕 대무예	• '인안' 연호, 북만주 차지 • 장문휴가 당 산둥(등주) 공격, 일본과 교류
문왕 대흠무	• '대흥' 연호, 당과 친선, 3성 6부·주자감 • **상경** 천도, 신라도(신라와 교류)
선왕 대인수	• 최대 영토 → '해동성국' • 5경 15부 62주
대인선	• 거란(요)에 멸망(926)

■ 통일 신라 ※ 촌락 문서: 서원경(청주) 4개 촌 → 조세 수취 목적,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

무열왕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 왕, 시중(집사부) 기능 강화 → 상대등 억제 *강수: 외교 문서 작성 →「청방인문표」
문무왕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후 삼국 통일, 외사정 파견(지방관 감찰)
★신문왕	김흠돌의 난 진압 → 진골 숙청, 왕권 강화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국학 설립(유교 교육) 9주 5소경, 9서당 10정, 감은사 완성, 만파식적 설화 설총「화왕계」· 이두 정리
성덕왕	백성에게 정전 지급
경덕왕	왕권 약화, 녹읍 부활, 국학 → 태학감 개칭, 불국사·석굴암 창건
혜공왕	귀족 반란 속에 피살 → 신라 하대 시작(왕위 쟁탈전)
원성왕	독서삼품과(국학 학생 유교 경전 성적 3등급) → 귀족 반대로 실패
헌덕왕	김헌창의 난(822, 웅천주) — 아버지 김주원의 왕위 계승 실패에 반발
흥덕왕	장보고: 완도 청해진, 산둥 법화원 → 장보고의 난(846) 국제 무역항: 울산항·당항성·영암
진성여왕	원종·애노의 난(889, 사벌주·상주), 적고적의 난 최치원 시무 10여 조 건의 → 시행 X /『삼대목』(향가집) 최치원: 6두품,『계원필경』,「토황소격문」

*녹읍 = 조세 + 노동력 수취(귀족 기반) / 관료전 = 조세만 → 녹읍 폐지는 귀족 경제력 약화

■ 신라 말 동요 → 후삼국

- 지방 호족 성장(성주·장군 자칭) / 선종·풍수지리설(도선)·미륵 신앙 유행
- **후백제(900, 견훤)**: 완산주(전주) 도읍, 중국 후당·오월과 외교 → 신라 수도 공격, 경애왕 죽임
- **후고구려(901, 궁예)**: 송악 → 철원 천도, 국호 마진 → 태봉, 중앙 관부 광평성 / 미륵 신앙으로 실정
- **통일 순서**: 공산 전투(927, 견훤 승) → 고창 전투(930, 왕건 승) → 견훤 귀순·신라 항복(935) → 일리천 전투(936) 암기: 공·고·신·일

■ 발해 (698 ~ 926)

- 건국: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 말갈족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진국)
- 고구려 계승: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 온돌·연꽃무늬 기와·굴식 돌방무덤

무왕	연호 '인안', 흑수말갈 공격 / 장문휴가 당 산둥 등주 공격
문왕	연호 '대흥', 당과 친선, 3성 6부 정비, 주자감, 신라도 개설, 중경 → 상경 천도
★선왕	연호 '건흥', 5경 15부 62주, 해동성국 칭호
멸망	거란(요)의 침입으로 멸망(926) → 왕자 대광현 고려로 망명

* 3성: 정당성(장관 대내상)·선조성·중조성 / 중정대(감찰)·문적원(서적)·주자감(교육)
* 특산품 솔빈부의 말 / 교통로: 거란도·영주도·일본도·신라도

■ 종교·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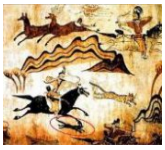
원효	일심 사상, 화쟁 사상(『십문화쟁론』,『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 아미타 신앙(나무아미타불), 무애가 → 불교 대중화
의상	화엄 사상(「화엄일승법계도」, 하나가 곧 전체), 관음 신앙, 영주 부석사 건립
혜초	인도·중앙아시아 순례 →『왕오천축국전』
원광	세속 5계(화랑 규범), 수에 군사 요청 걸사표(진평왕)

- 선종: 신라 말 유행, 참선 강조 → 9산 선문, 승탑·탑비 유행, 호족과 결합
- 도교: 고구려 사신도(강서대묘), 백제 산수무늬 벽돌·금동 대향로, 무령왕릉 매지권

■ 고대 국가의 고분

고구려	돌무지무덤: 장군총 → 굴식 돌방무덤: 벽화, 모줄임 천장, 도굴 쉬움 강서대묘(사신도), 무용총(무용도·수렵도), 각저총(씨름도), 안악 3호분
백제	한성: 돌무지무덤(석촌동, 고구려 계통) / 웅진: 송산리, 무령왕릉 = 벽돌무덤(남조 양 영향, 지석·진묘수) / 사비: 굴식 돌방무덤(능산리)
신라	돌무지덧널무덤 — 도굴 어려움 → 껴묻거리 많음 (천마총·황남대총·호우총)
통일신라	굴식 돌방무덤, 둘레돌에 12지 신상(김유신 묘)
발해	정혜공주 묘: 굴식 돌방·모줄임 천장(고구려 영향) / 정효공주 묘: 벽돌무덤(당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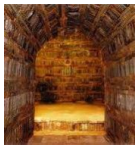

장군총
고구려 돌무지무덤


수렵도
무용총


씨름도
각저총


무용도
무용총


사신도(현무)
강서대묘 · 도교


무령왕릉 내부
벽돌무덤 · 남조 양


진묘수(석수)
무령왕릉


칠지도
백제 → 왜


금동 대향로
부여 능산리 · 도교


산수무늬 벽돌
백제 · 도교


천마도
천마총


금관
신라 금관총


호우명 그릇
신라-고구려 관계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 벽화


기마인물형 토기
신라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통일 신라 — 중대(왕권 강화) → 하대(혼란)

중대	**무열왕** 654 · 최초 진골 왕 중대 시작	→	**문무왕** 676 · 삼국 통일	→	**신문왕** 김흠돌의 난 진압 관료전 · 녹읍 폐지 · 국학	→	**성덕왕** 722 · 백성에게 정전	→	**경덕왕** 757 · 녹읍 부활 불국사·석굴암
하대	**혜공왕 피살** 780 · 하대 시작 진골 왕위 다툼	→	**원성왕** 788 · 독서삼품과	→	**김헌창의 난** 822 · 헌덕왕 (아버지 왕위 못 오름)	→	**장보고 청해진** 828 · 흥덕왕	→	**원종·애노의 난** 889 · 진성여왕 최치원 시무 10여 조
토지	**녹읍** 귀족이 세금 + 노동력	→	**관료전 지급** 687 · 신문왕 세금만	→	**녹읍 폐지** 689 · 신문왕	→	**정전 지급** 722 · 성덕왕 백성에게	→	**녹읍 부활** 757 · 경덕왕 귀족 힘 회복
하대 사회	**중앙 혼란 · 수탈** 농민 봉기	→	**호족 등장** 성주·장군 자칭 + 6두품 반신라	→	**선종 유행** 9산 선문 · 호족 후원	→	**풍수지리설** 도선 · 지방 중시		

통일 신라 통치 체제: 집사부 시중 권한 ↑ (상대등 ↓) / 지방 9주 5소경 · 외사정 / 군사 9서당 10정 / 지방 세력 견제 상수리 제도

발해의 흐름

발해	**고왕(대조영)** 698 · 동모산 건국 고구려 유민 + 말갈	→	**무왕** '인안' · 북만주 장문휴 당 산둥 공격	→	**문왕** '대흥' · 3성 6부 상경 천도 · 신라도	→	**선왕** '건흥' · 5경 15부 62주 해동성국	→	**멸망** 926 · 거란

고구려 계승 증거: 일본에 보낸 국서 '고려 국왕' · 온돌 · 굴식 돌방무덤(정혜 공주 묘 모줄임천장) · 연꽃무늬 기와 / 당 영향: 3성 6부(정당성 · 이름은 독자적) · 정효 공주 묘(벽돌무덤) · 주작대로

후삼국 → 고려의 통일

건국	**후백제** 900 · 견훤 완산주(전주)	→	**후고구려** 901 · 궁예 · 송악	→	**마진 · 태봉** 철원 천도 광평성 · 미륵 신앙	→	**고려 건국** 918 · 왕건 이듬해 송악 천도		
통일	**공산 전투** 927 · 후백제 승 신숭겸 전사	→	**고창 전투** 930 · 고려 승(안동)	→	**견훤 고려 투항** 935 · 신검에게 금산사 유폐 뒤	→	**신라 항복** 935 · 경순왕	→	**후백제 멸망** 936 · 일리천 전투 후삼국 통일

한 줄 총정리 — 무열왕(진골 왕) → 통일 → 신문왕 왕권 강화(관료전·녹읍 폐지) → 경덕왕 녹읍 부활 → 혜공왕 피살(하대) → 김헌창의 난 → 장보고 → 원종·애노의 난 → **후백제(900) · 후고구려(901)** → 고려 건국(918) → 공산 → 고창 → 신라 항복(935) → **후백제 멸망(936)** / 발해: 고왕 → 무왕 → 문왕 → 선왕(해동성국) → 거란에 멸망(926)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무왕 · 현존 가장 오래된 석탑 · 금제 사리봉안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소정방이 백제 정벌 공적 새김

신라



분황사 모전 석탑
선덕여왕 · 돌을 벽돌처럼 쌓음

발해



영광탑
벽돌로 쌓은 5층 전탑



발해 석등
상경성 · 연꽃무늬

통일신라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
신문왕 · 쌍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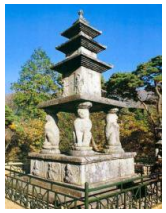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옆 · 독특한 모양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기단에 8부신중 조각



구례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사자 4마리가 탑을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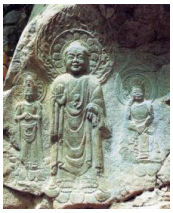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말 선종 · 승탑

불상



금동 연가 7년명 여래입상
고구려 · 연호 새김



서산 마애여래 삼존상
백제 · '백제의 미소'



경주 배동 석조여래 삼존 입상
신라 · 은은한 미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삼국 · 일본에 영향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입상
통일신라



이불병좌상
발해 · 고구려 양식 계승

비석 · 기타 문화재



광개토대왕릉비
장수왕이 세움 · 왜 격퇴 기록



충주(중원) 고구려비
장수왕 남진 · 국내 유일 고구려비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한강 차지 · 김정희 고증



경주 첨성대
선덕여왕 · 천문 관측



석굴암 본존불
경덕왕 때 김대성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 혜공왕 때 완성

■ 빈출 선지 체크 — 삼국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파란 글씨 = 정답 왕·나라, 빨간 글씨 = 헷갈리는 오답)

- ☐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소수림왕
- ☐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을파소)
- ☐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미천왕
- ☐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 ☐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 (성왕 = 사비 천도)
- ☐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 ☐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 ☐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
- ☐ 우산국을 복속하고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지증왕
- ☐ 병부를 설치하고 '건원'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흥왕
- ☐ 대가야를 정복하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
- ☐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철을 수출하였다. 금관가야
- ☐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경덕왕 = 녹읍 부활)
- ☐ 9주 5소경, 9서당 10정을 정비하였다. 신문왕
- ☐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장보고(흥덕왕)
- ☐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진성여왕
- ☐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무왕
- ☐ '대흥' 연호, 상경 천도, 신라도 개설 발해 문왕
- ☐ 5경 15부 62주, 해동성국 발해 선왕
- ☐ 「화엄일승법계도」를 짓고 부석사를 세웠다. 의상 (원효 = 일심·화쟁·아미타)
- ☐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 ☐ 후당·오월에 사신을 보냈다. 후백제 견훤
- ☐ 광평성을 두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후고구려 궁예

백제 · 신라



서울 석촌동 고분
백제 한성 시기 · 돌무지무덤(고구려 계통)



부여 사택지적비
백제 말 귀족 사택지적 · 세월의 덧없음 한탄 → 불당·탑 건립



임신서기석
신라 두 청년이 유교 경전 공부를 맹세 · 유학 보급



황룡사 9층 목탑(복원 모형)
선덕여왕 · 자장 건의 → 몽골 침입 때 소실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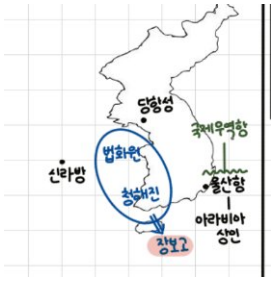
철제 갑옷
가야 · 철 풍부



덩이쇠
가야 철 → 낙랑·왜 수출



가야 토기 → 스에키 토기
가야 토기 기술이 일본에 전해짐



통일신라 무역 지도
당항성·울산항(아라비아 상인) · 청해진·법화원(장보고) · 신라방



돌사자상
발해 정혜공주 묘 · 굴식 돌방무덤(고구려 계승)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신석기**: 애니미즘 —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음 (빗살무늬 토기·가락바퀴와 함께 신석기 키워드)
- **고조선**: 제정 일치 — 단군왕검 = 단군(제사장) + 왕검(정치 지배자) ↔ 삼한은 제정 분리(소도·천군)
- **삼한**: 두레 — 함께 일하는 공동 노동 조직
- **백제 무왕**: 익산 미륵사 창건 — 서동·선화공주 이야기와 이어짐
- **신라**: 황룡사 창건은 진흥왕 → 9층 목탑은 선덕여왕(자장 건의)
- **가야**: 가야 토기 →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

나라별 최고 교육 기관
고구려 태학 → 통일신라 국학 → 발해 주자감 → 고려 국자감 → 조선 성균관

- **발해 수도**: 상경 용천부 — 주작대로(당 장안성을 본뜬 큰길)
- **발해관**: 당이 산둥 등주에 둔 발해 사신 숙소 (솔빈부의 말·신라도와 함께 대외 교류 키워드)
- **발해 6부**: 이름은 유교식 충·인·의·지·예·신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 선사 · 가야 · 삼국 정치

- **신석기 유적 더**: 봉산 지탑리, 제주 고산리 (+ 서울 암사동·양양 오산리·부산 동삼동)
- **신석기 원시 신앙**: 애니미즘(자연물 영혼) · 토테미즘(특정 동물 숭배) · 샤머니즘(무당) · 영혼 숭배
- **거푸집은 청동기부터**: 청동기 =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 / 철기 = 거푸집으로 세형동검
- **철기 중국 화폐**: 명도전 · 반량전 · 오수전 + 화천
- **금관가야**: 낙랑과 왜를 잇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
- **가야 연맹 재편**: 광개토대왕의 공격(신라 구원) → 금관가야 약화 → 고령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후기 가야)

삼국의 역사서
고구려 영양왕 — 이문진이 『유기』를 간추려 『신집』 5권
백제 근초고왕 — 고흥 『서기』 / 신라 진흥왕 — 거칠부 『국사』

광개토대왕	후연을 공격 → 요동 차지
장수왕	중국 남북조 사이 균형 외교
안시성(645)	당 태종 침입 → 요동성·백암성 함락 → 안시성에서 격퇴
의자왕	★ 장군 윤충이 신라 대야성 함락(642)
내물 이전	박·석·김씨가 번갈아 왕위 계승 → 내물 이후 김씨 독점
법흥왕	금관가야 병합 → 그 왕족을 진골로 편입 (김유신 가문)
진흥왕	단양 적성비 + 4개 순수비(북한산·창녕·황초령·마운령) ※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님
김춘추	고구려와 동맹 실패 → 당으로 건너가 나·당 군사 동맹

■ 통일 신라 — 정치 · 사회

- **신문왕**: 왕권 강화 위해 집사부 시중(중시) 권한 강화 (무열왕에 이어)
- **5소경**: 수도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
- **골품제**: 정치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규제한 폐쇄적 신분제
- **화랑도**(진흥왕 때 국가 조직): 계층 간 갈등 완화 · 원광의 세속 5계
- **6두품**: 골품제 비판 → 새 사회 추구 → 신라 말 호족과 연계해 사회 개혁 추구
- **최치원**(6두품, 도당 유학생): 당 빈공과 합격 → 귀국 후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

■ 경제 · 대외 교류

- **수도 시장**: 동시(지증왕, 감독 관청 동시전) → 통일 후 서시·남시 추가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산둥반도 등지 신라인 **집단 거주지**	당에 사는 신라인을 관리하는 **관청**	신라인을 위한 **절** (예: 장보고 법화원)

- **발해 수출품**: 모피·인삼·자기·담비 가죽 + 특산 솔빈부의 말

■ 학문 · 인물

- **김대문**(진골): 『화랑세기』 · 『고승전』 · 『한산기』

■ 문화재 더 알기

- **백제 금동 대향로**: 도교 +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
-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목탑 → 석탑 과도기 모습
-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목탑 구조를 띤 석탑, '평제탑'이라고도 불림 (소정방 공적 새김)
-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신라식 석탑의 전형 — 간결, 비례미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석가탑에서 발견, 현존 세계 最古 목판 인쇄물 ★
- **불국사·석굴암**: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염원
- **동궁과 월지**: 통일 신라 별궁 터 = 안압지
- **고구려 천문도** → 조선 태조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영향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통일 신라 성덕왕 · **현존 가장 오래된** 범종	에밀레종 · **현존 가장 큰** 범종

■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 아스카 문화

고구려	담징: 종이·먹 제조 기술, 호류사 금당 벽화 혜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 수산리 고분 벽화 ↔ 일본 다카마쓰 고분 벽화(닮음)
백제	왕인: 『천자문』 · 『논어』 전파
신라	축제술(둑 쌓는 기술) → '한인의 연못'
가야	토기 제작 기술 → 스에키 토기
삼국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 일본 목조 반가 사유상(닮음)

■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 ① **발해 멸망(926)**: 거란에 멸망 → 왕자 대광현이 유민 이끌고 고려로 귀순
- ② 공산 전투(927): 견훤이 경주 습격(경애왕 죽음) → 구원 간 왕건 대패(신숭겸 전사)
- ③ 고창 전투(930): 고려가 후백제군 크게 격파 (안동 차전놀이 유래)
- ④ **견훤 귀순(935)**: 넷째 금강에게 왕위 주려다 맏아들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 → 탈출해 고려로
- ⑤ **신라 항복(935)**: 경순왕 항복 → 경주 사심관에 임명
- ⑥ 일리천 전투(936): 왕건·견훤 합동 공격 → 후백제 멸망

■ 고려 왕 업적

★태조	- 민생: 취민유도(세율 1/10), 흑창(빈민 구제) - 왕권: 『정계』·『계백료서』, 훈요 10조, '천수' 연호 - 회유: 역분전, 호족과 혼인 정책, 사성 정책(왕씨 성 하사) - 견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 신라 상수리 제도) - 북진 정책: 서경(평양) 중시, 만부교 사건(거란 낙타 굶겨 죽임)
혜종	왕규의 난 → 왕권 불안
정종	광군 30만 조직, 광군사 설치(거란 대비), 서경 천도 시도
★광종	- 왕권 강화: 노비안검법, 과거제(쌍기 건의), 황제 칭호, '광덕'·'준풍' 연호 - 백관의 공복 제정, 제위보(빈민 구제 기금), 귀법사(균여)
경종	시정 전시과(관품 + 인품, 전·현직)
★성종	- 최승로 시무 28조 → 유교 정치 이념 (연등회·팔관회 축소) - 중앙 2성 6부, 지방 12목에 지방관 파견, 향리 제도 - 국자감 정비, 경학·의학박사 파견, 흑창 → 의창, 상평창(물가 조절) - 건원중보(최초 철전), 서희 외교 담판 → 강동 6주
목종	개정 전시과(관품만) / 천추태후·김치양 →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
현종	5도 양계 정비, 주현공거법 / 거란 3차 침입 귀주대첩(강감찬) → 나성, 천리장성, 초조대장경
문종	경정 전시과(현직만), 공음전 정비, 남경 설치, 최충 9재 학당

■ 중앙 정치 조직 (2성 6부 + 고려만의 독자 기구)

중서문하성	최고 관서: 재신(정책 심의) + 낭사(간쟁·봉박)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 통솔, 정책 집행
중추원	추밀(군사 기밀) + 승선(왕명 출납) cf. 조선 승정원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탄핵 ★ 조선 사헌부
삼사	화폐·곡식 출납 회계 ★ 조선 삼사(언론)와 다름!
도병마사	독자 기구 — 국방 회의 → 원 간섭기 도평의사사로 확대
식목도감	독자 기구 — 법·제도 제정

☆ 대간 = 어사대 + 낭사 → **간쟁·봉박·서경권**

■ 지방 행정 조직

- **5도**(일반 행정): 안찰사 파견, 주·군·현 → 속현이 더 많아 실무는 향리가
- **양계**(북계·동계, 군사 구역): 병마사 파견
- 향·부곡·소: 특수 행정 구역, 양민이지만 차별(세금 多, 거주 이전·과거 제한) → 조선 때 소멸
- 3경: 개경·서경(평양)·동경(경주) → 문종 때 남경(한양)

■ 군사 조직 / 관리 등용

- 중앙군: 2군(국왕 친위대) + 6위(수도·국경 방어) / 지방군: 주현군·주진군
- 특수군: 광군(정종), 별무반(숙종, 여진), 삼별초(최우, 몽골)
- 과거: 광종 때 쌍기의 건의 / 제술과·명경과·잡과·승과 (무과는 거의 X)
- 음서: 5품 이상 관리 자손 → 시험 없이 관직 → 문벌 귀족 세습 기반(+ 공음전)

■ 문벌 귀족 사회 (호족 + 신라 6두품 → 대대로 고위직·왕실과 혼인)

숙종	해동통보·삼한통보·은병(활구) → 주전도감(의천 건의), 별무반(윤관 건의), 서적포
예종	윤관 동북 9성(→ 여진에 반환), 국학 7재, 양현고(장학 재단), 청연각·보문각, 혜민국·구제도감
인종	금에 사대,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김부식 『삼국사기』
의종	보현원 사건 → 무신 정변(1170)

■ 1) 이자겸의 난 (1126)

- 이자겸: 예종·인종에게 딸을 시집보낸 외척 → 금의 사대 요구 수용
- 인종이 제거 시도 → 이자겸·척준경 반란 → 인종이 척준경을 이용해 이자겸 제거

→ 왕실 권위 추락, 궁궐 불탐

■ 2)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

개경파 (개경)	서경파 (평양)
김부식 (보수)	**묘청·정지상** (개혁)
사대적 유교 사상	자주적 전통 사상, 풍수지리설
금에 사대	서경 천도, 금국 정벌, 칭제건원
신라 계승	고구려 계승

- 서경 천도 실패 →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국호 '대위') → 김부식의 관군이 진압

신채호: "조선 역사상 일천 년래 제1대 사건"

■ 고려 시대 구분 (공부돼지 표)

초기	문벌 귀족	무신 집권	원 간섭기	말기
918~	1018~	1170~	1270~	1351~1392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신흥 무인
거란(요)	여진(금)	몽골(원)		홍건적·왜구

■ 고려 전기 (건국 ~ 문벌 귀족)

태조 왕건	• **북진 정책**: 서경(평양) 중시, 청천강~영흥만 • 호족 통합: 혼인·사성(왕씨 성), 사심관·기인 제도 • 민생: 세금 1/10(취민유도), 흑창 • 훈요 10조, 『정계』·『계백료서』, 역분전
혜종	• 왕규의 난
정종	• 광군 조직(거란 대비)
광종	• 노비안검법(956) • 과거제 실시(958, 쌍기 건의) • 백관의 공복 제정(자·단·비·녹) • 칭제건원: '광덕'·'준풍' 연호
경종	• 시정 전시과(976)
성종	• 최승로 시무 28조 받아들임 • 2성 6부, 12목에 지방관 파견, 향리 제도 • 국자감 설치, 건원중보 • 거란 1차 침입 → 서희 외교 담판(강동 6주)
목종	• 개정 전시과(998) •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 → 거란 2차 침입 구실
현종	• 거란 2·3차 침입 → 강감찬 귀주 대첩(1019) • 5도 양계 정비, 개경 나성 • 초조대장경 조판 시작
문종	• 경정 전시과(1076) • 최충 9재 학당 → 사학 융성
숙종	• 윤관 건의로 별무반 조직(여진 대비) • 주전도감 → 해동통보
예종	• 윤관 동북 9성 축조(1107) • 국학 7재, 양현고(장학 재단)

■ 고려 중기 ~ 후기 (문벌 동요 ~ 멸망)

인종	• 이자겸의 난(1126)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 김부식 진압 • 김부식 『삼국사기』(1145)
의종	• 무신 정변(1170, 정중부·이의방)
명종	• 무신 집권기 반란: 망이·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 • 최충헌 집권 시작(1196)
신종	• 만적의 난(1198, 개경 노비)
고종	• 몽골 침입 → 최우 **강화도** 천도(1232) • 김윤후 처인성 승리(1232) •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조판
원종	• **개경** 환도(1270) • 삼별초 항쟁(강화도 → 진도 → 제주도)
충렬왕	• 원 간섭기 시작: 정동행성,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 일연 『삼국유사』
충선왕	• 원 연경에 만권당(이제현 등 교류) • 소금 전매(의염창)
공민왕	• **반원 정책**: 기철 등 친원파 제거,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쌍성총관부 공격 → 철령 이북 수복(1356) • 몽골풍 폐지, 관제 복구 • **왕권 강화**: 정방 폐지, 신돈 전민변정도감, 성균관 정비
우왕	• 최무선 진포 대첩, 이성계 황산 대첩(1380) • 『직지심체요절』 인쇄(1377) • 요동 정벌 → 이성계 위화도 회군(1388)
공양왕	• 과전법 실시(1391) → 고려 멸망(1392)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정치의 흐름

체제 정비

태조 호족 통합 · 북진 정책 훈요 10조 → **광종** 노비안검법 · 과거제 공복 · 칭제건원 →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 2성 6부 · 12목 → **현종** 5도 양계 거란 격퇴 → **문종** 문벌 귀족 전성 경정 전시과

문벌 동요

문벌 귀족 사회 음서 · 공음전 왕실과 혼인 → **이자겸의 난** 1126 · 인종 금 사대 받아들임 → **묘청 서경 천도 운동** 1135 · 칭제건원·금 정벌 김부식이 진압 → **무신 정변** 1170 · 의종 정중부 · 이의방

무신 정권

이의방 · 정중부 중방 중심 → **경대승** 도방 → **이의민** 천민 출신 → **최충헌** 교정도감 · 봉사 10조 도방 확대 → **최우** 정방 · 서방 · 삼별초 강화 천도(1232) → **최항 → 최의** → 김준 · 임연 개경 환도(1270)로 끝

무신 집권기 봉기: 망이·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 · 김사미·효심의 난 · 만적의 난(최충헌의 노비, 개경) / 조위총의 난(서경) · 김보당의 난(무신 정권 반대)

원 간섭 → 멸망

충렬왕 정동행성 도평의사사 → **충선왕** 사림원 · 만권당 → **공민왕** 반원 개혁 · 쌍성총관부 수복 신돈 전민변정도감 → **위화도 회군** 1388 · 우왕 때 이성계 → **과전법** 1391 · 공양왕 → **조선 건국** 1392

대외 관계의 흐름

거란

1차 침입 993 · 소손녕 서희 담판 → 강동 6주 → **2차 침입** 1010 · 강조의 정변 구실 현종 나주 피난 · 양규 → **3차 침입** 1018 · 소배압 강감찬 귀주 대첩(1019) → **방비 강화** 개경 나성 · 천리장성 (압록강 ~ 도련포)

여진

별무반 숙종 · 윤관 건의 신기군·신보군·항마군 → **동북 9성** 1107 · 예종 · 윤관 → **9성 돌려줌** 1109 → **금 건국** 1115 · 고려에 사대 요구 → **금에 사대** 1126 · 이자겸이 받아들임

몽골

저고여 피살 1225 · 몽골 사신 → **1차 침입** 1231 · 박서 귀주성 항전 → **강화 천도** 1232 · 최우 → **처인성 전투** 1232 · 김윤후 살리타 사살 → **팔만대장경** 1236~1251 대장도감 → **충주성 전투** 1253 · 김윤후 →

개경 환도 · 삼별초 1270 · 강화 → 진도 → 제주(1273)

원 간섭 이후

일본 원정 동원 정동행성 → **땅 빼앗김** 쌍성총관부 · 동녕부 탐라총관부 → **쌍성총관부 수복** 1356 · 공민왕 → **홍건적 침입** 공민왕 안동 피난 → **왜구 격퇴** 최영 홍산 · 최무선 진포 이성계 황산 · 박위 쓰시마

한 줄 총정리 — 태조 → 광종 → 성종(체제 정비) → 거란 1·2·3차(서희 → 강감찬) → 별무반·동북 9성 → **이자겸의 난 → 묘청 → 무신 정변** → 최씨 정권 → 몽골 침입·강화 천도 → 개경 환도·삼별초 → 원 간섭 → **공민왕 개혁** → 홍건적·왜구 → **위화도 회군 → 과전법 → 조선 건국**

경제

토지

역분전 (태조 · 공로·인품) → 시정 전시과 (경종 · 관품 + 인품 전·현직) → 개정 전시과 (목종 · 관품만 전·현직) → 경정 전시과 (문종 · 현직만 지급량 ↓) → 녹과전 (원종 · 경기 8현) → 과전법 (공양왕 · 경기)

전시과 = 땅(전지) + 땔감 땅(시지)의 **세금 걷을 권리(수조권)** / 공음전(5품 이상 · 세습) · 한인전 · 군인전 · 외역전(향리) · 구분전(유가족)

수취

조세: 토지 비옥도 3등급 · 수확의 1/10 / **공물**: 상공(정기) · 별공(임시) / **역**: 16~60세 정남 — 군역 · 요역

화폐

건원중보 (성종 · 철전) → 해동통보 · 삼한통보 · 활구(은병) (숙종 · 주전도감(의천 건의)) → 쇄은 (충렬왕) → 저화 (공양왕 · 종이돈)

화폐는 잘 안 쓰임(곡식·삼베로 거래) / 무역: 벽란도(예성강) — 송·아라비아 상인 → '고려(Corea)' 이름 서양에 알려짐

불교 · 사상

불교

의천 (문종의 아들 · 해동 천태종 교관겸수 · 교종 중심 통합) → 지눌 (수선사 결사 · 조계종 정혜쌍수 · 돈오점수) → 혜심 (유불일치설) → 요세 (백련사 결사 법화 신앙) → 보우 (원 간섭기 임제종)

유학 · 교육

국자감 (성종) → 사학 12도 (문종 · 최충 9재 학당 → 관학 위축) → 관학 진흥 (예종 7재 · 양현고 인종 경사 6학) → 섬학전 · 성리학 (충렬왕 · 안향) → 성균관 개편 (공민왕 · 이색)

역사서

『삼국사기』 (인종 · 김부식 기전체 · 유교 사관) → 『동명왕편』 (이규보 · 고구려 계승) → 『해동고승전』 (각훈) → 『삼국유사』 (충렬왕 · 일연 단군 · 불교사) → 『제왕운기』 (이승휴 · 단군 우리·중국 역사 대등) → 『사략』 (이제현 · 성리학)

인쇄

초조대장경 (현종 · 거란 격퇴 기원 몽골 침입 때 불탐) → 교장 (의천 · 교장도감) →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 · 대장도감 합천 해인사) → 『상정고금예문』 (1234 · 기록상 첫 금속 활자) → 『직지심체요절』 (1377 · 청주 흥덕사 현존 최고 금속 활자)

사회 · 지배층의 변화

지배층

호족 (건국 세력) → 문벌 귀족 (음서 · 공음전) → 무신 (무신 정변(1170)) → 권문세족 (원 간섭기 · 친원 대농장 · 도평의사사) → 신진 사대부 (성리학 · 과거 + 신흥 무인 → 조선 건국)

사회 제도: 의창 · 상평창 · 제위보 · 동서 대비원 · 혜민국 · 구제도감 / 향도(불교 신앙 조직 → 공동체) / 여성: 재산 균분 상속 · 호주 가능 · 재가 자유

■ 무신 정변 (1170)

- **[배경]** 무신 차별, 하급 군인 불만(군인전 미지급)
- **[경과]** 보현원에서 정중부·이의방 등 문신 제거 → 의종 폐위, 명종 옹립 → 중방 중심 권력 장악

> 이의방·정중부(중방) → 경대승(도방) → 이의민(중방) → 최충헌(교정도감) → 최우 → 최항 → 최의

★ 반무신의 난: **김보당의 난(1173)** 의종 복위 시도 / **조위총의 난(1174)** 서경 유수

■ 최씨 무신 정권 (60여 년)

- 최충헌: 봉사 10조(개혁안), 교정도감(최고 권력 기구), 도방(사병)
- 최우: 정방(인사권, 자기 집에), 서방(문신 등용), 삼별초 조직, 강화도 천도, 대장도감 → 팔만대장경

※ 삼별초 = 좌별초 + 우별초 + 신의군(몽골 포로 탈출자)

■ 농민·천민 봉기



주요 봉기 발생지

-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명학소 — 소 차별에 반발
- 김사미·효심의 난(1193): 운문·초전, 신라 부흥 외침
- 만적의 난(1198): 최충헌의 사노비, 개경에서 신분 해방 시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 최광수의 난(고구려 부흥), 이연년 형제(백제 부흥)

■ 거란(요)의 침입 — 10~11C

- ① **1차(993)**: 소손녕 — 고려·송 단교, 옛 고구려 땅 요구 ⇒ 서희의 외교 담판 → 강동 6주 획득
- ② **2차(1010)**: 강조의 정변 구실 → 양규 활약, but 개경 함락·현종 나주 피난
- ③ **3차(1018)**: 소배압 10만 ⇒ 강감찬 귀주대첩(1019)

⇒ 결과: 개경 나성, 압록강~도련포 천리장성, 초조대장경(부처 힘으로 격퇴 기원)

■ 여진(금)과의 관계 — 12C

- 숙종: 여진에 패배 → 윤관 건의로 별무반(신기군·신보군·항마군)
- 예종: 동북 9성 축조(1107) → 방어 어려워 반환
- 여진이 **금** 건국(1115) → 군신 관계 요구 → 이자겸이 수용(인종)

■ 몽골(원)의 침입 — 13C

- **1차(1231)**: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구실 → 박서의 귀주성 전투 → 강화 후 최우 강화도 천도(1232)
- **2차(1232)**: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용인, 처인부곡민) → 적장 살리타 사살 / 초조대장경 소실
- **3차**: 황룡사 9층 목탑 소실 →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 **5차**: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 승리(노비 문서 불태움)
- **6차**: 충주 다인철소 주민 항전 → 익안현 승격
- **[결과]** 몽골과 강화, 개경 환도(1270) → 최씨 정권 몰락

★ **삼별초의 항쟁(1270~1273)**: 개경 환도 거부 → 강화도(배중손) → 진도 용장성(배중손) → 제주도 항파두리성(김통정) ⇒ 여·몽 연합군에 진압

★ 여·몽 연합군 일본 원정(1274·1281): 김방경 참전, 태풍으로 실패 → 정동행성 설치

■ 원 간섭기

-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화주), 동녕부(서경), 탐라총관부(제주)
- 격하: 2성 → 첨의부, 6부 → 4사 / 중추원 → 밀직사 /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 왕 칭호 '충○왕', '조·종' → '왕'
- 내정 간섭: 정동행성(일본 원정 기구 → 간섭 기구), 이문소, 다루가치(감찰관)
- 수탈: 결혼도감(공녀), 응방(매) / 풍속: 몽골풍(변발·호복·족두리·연지), 고려양(원에 퍼진 고려 풍속)
- 권문세족 득세(친원, 도평의사사 장악, 대농장) / 충렬왕 수시력 도입
- 충선왕: 만권당(이제현 교유), 사림원 / 충목왕: 정치도감(폐정 개혁)

■ ★ 공민왕의 개혁

- **반원 정책**: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관제 복구(2성 6부), 몽골풍 금지, 쌍성총관부 공격(철령 이북 수복)
- **왕권 강화**: 정방 폐지, 신돈 등용 → 전민변정도감(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노비 되돌림), 성균관 정비 → 신진사대부 진출
- **[결과]** 권문세족 반발, 신돈 제거, 홍건적·왜구 침입, 공민왕 시해 → 개혁 실패

■ 14C 홍건적·왜구 → 조선 건국

- **홍건적**: 2차 침입 때 개경 함락, 공민왕 안동 피난 → 정세운·이성계 격퇴
- **왜구**: 최영 홍산 대첩(1376) · 최무선 진포 대첩(화통도감·화포, 1380) · 이성계 황산 대첩(1380) · 정지 관음포 대첩 · 박위 쓰시마 정벌(1389)
- **조선 건국 과정**: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 → 최영 요동 정벌 → 이성계 위화도 회군(1388)(4불가론) → 우왕 폐위·창왕·공양왕 → 과전법(1391) → 정몽주 피살(선죽교) → 조선 건국(1392)

※ 신진사대부: 급진파(정도전·조준, 역성혁명) vs 온건파(정몽주·이색, 고려 유지)

■ 경제 정책

- 개경에 시전 설치, 경시서(시전 감독), 관영 상점(서적점·다점)
- 양안(토지 대장, 20년마다) / 호적(3년마다)
- 수취: 조세(생산량 1/10), 공물(상공·별공), 역(16~60세 정남)

■ 토지 제도

- 역분전(940, 태조): 공로·인품 기준, 개국 공신에게
- 전시과: 전지(곡물) + 시지(땔감)의 수조권 지급 → 소유권 X, 사후 반납

> ★ **시정 전시과**(경종) → **개정 전시과**(목종) → **경정 전시과**(문종)
> 관품+인품, 전·현직 → 관품만, 전·현직 → 현직만, 지급량 감소

- 민전: 농민 사유지(매매·상속 가능)
- ① 공음전: 5품 이상, 세습 가능(문벌 귀족 기반) ② 한인전: 6품 이하 자제 ③ 군인전: 군역 대가(세습) ④ 구분전: 하급 관리·군인 유가족 / 내장전·공해전·외역전(향리)·사원전

토지 흐름: 역분전 → 전시과 → (무신) 녹과전 → 과전법(고려 말)

■ 농업·상업·대외 무역

- 전기: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시비법 발달 → 휴경 단축, 밭농사 2년 3작
- 후기: 이암이 원의 『농상집요』 소개, 문익점 목화씨, 남부 일부 모내기법
- 화폐: 성종 건원중보(철전) → 숙종 삼한통보·해동통보·은병(활구) ※ 주전도감(의천 건의) → 널리 유통 X
- 벽란도(예성강 하구): 국제 무역항, 아라비아 상인 왕래 → 'Corea' 서양에 알려짐
- 송: 비단·서적·약재 수입 / 종이·인삼·먹 수출 · 거란·여진: 은 수입 / 농기구·식량 수출 · 일본: 수은·유황 수입
- 여관 겸 휴식처 혜음원(파주), 팔관회 때 외국 상인 조공

■ 신분 제도

- 문벌 귀족: 호족 + 6두품, 음서·공음전, 왕실과 혼인
- 권문세족: 원 간섭기 친원 세력, 도평의사사 장악, 대농장, 음서
- 신진사대부: 지방 향리 출신, 과거로 진출, 성리학 수용
- 중류층: 남반·서리·향리·군반 / 양민: 백정(일반 농민!), 향·부곡·소민
- 천민: 공노비·사노비(솔거·외거 노비 → 독립 경제)

★ **향도**: 매향(향나무 묻기) 활동 →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

★ **여성 지위**: 자녀 균분 상속,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 딸도 제사, 여성 호주, 사위·외손 음서, 재가 자유

★ **사회 제도**: 의창·상평창, 제위보, 동·서 대비원, 혜민국, 구제도감

■ 역사서

- 전기: 『7대 실록』(태조~목종) → 현존 X
- 중기: 『삼국사기』(김부식, 인종) —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 기전체, 신라 계승
- 무신 집권기: 『동명왕편』(이규보) 고구려 계승 / 『해동고승전』(각훈)
- 원 간섭기: 『삼국유사』(일연) 불교사·설화, 단군 이야기 / 『제왕운기』(이승휴) 단군~충렬왕, 중국사와 대등
- 말기: 이제현 『사략』(성리학적 사관)

> **기전체**: 본기·열전·지 등 인물 중심 ▷ 『삼국사기』, 『고려사』
> **편년체**: 연·월 순서 ▷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조선왕조실록』
> **기사본말체**: 사건 원인·결과 ▷ 『연려실기술』(이긍익)

■ 유학·교육

- 관학: 국자감(성종, 국립대) / 지방 향교
- 사학: 최충 9재 학당(문헌공도) 등 사학 12도 융성 → 관학 위축
- 관학 진흥: 숙종 서적포 / 예종 국학 7재·양현고·청연각·보문각 / 인종 경사 6학 / 충선왕 성균관 개칭 / 공민왕 성균관 순수 유교 교육 기관으로
- 성리학: 충렬왕 때 안향 소개 → 이제현(만권당) → 이색 → 정몽주·정도전 (『불씨잡변』)

■ 불교

- 균여: 귀법사, 보현십원가(향가), 성상융회(교종 내 화엄·법상 대립 해소) / 광종 승과·국사·왕사
- 의천(대각국사, 문종 아들): 해동 천태종(국청사) →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교관겸수, 흥왕사 교장도감 → 교장(속장경) 『신편제종교장총록』
- 지눌(무신 집권기): 수선사 결사(순천 송광사), 정혜쌍수·돈오점수, 조계종 → 선 중심 교 포용
- 혜심: 유불일치설 → 성리학 수용 바탕 / 요세: 백련 결사(법화 신앙)

■ 인쇄술

- 목판: ① 초조대장경(현종, 거란 격퇴 기원 → 몽골 2차 때 소실) ② 교장(의천) ③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고종, 강화도 대장도감) → 해인사 보관
- 금속: 『상정고금예문』(기록만) / 『직지심체요절』(우왕, 청주 흥덕사) — 현존 세계 最古 금속 활자본,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지심체요절』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판
해인사



은병(활구)
숙종

■ 건축

- 주심포 양식(고려 전기): 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흘림 기둥
- 다포 양식(고려 후기, 원 영향): 공포가 기둥 사이에도 → 조선 궁궐로 이어짐



팔작지붕 · 맞배지붕 · 우진각지붕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 · **맞배지붕** ·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 **팔작지붕** · 배흘림 · 옆면에 아미타여래 불상 · 공민왕 때 화재 → 우왕 때 재건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심포 · **맞배지붕** · 충렬왕 34년(건립 연도 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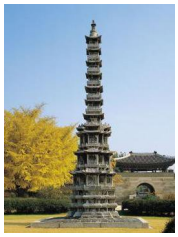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다포 양식

■ 석탑

- 전기: 다각 다층탑(송 영향) → 후기: 원 영향, 대리석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 · 송 영향 다각다층탑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 · 원 영향 · 대리석 → 조선 원각사지 탑에 영향



여주 고달사지 승탑
고려 전기 · 8각 신라 양식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공 모양 탑신

■ 불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신라 양식 계승



하남 하사창동 철불
(광주 춘궁리 철불) 철로 만든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거대 · 비례 불균형 · 지역색



안동 이천동 석불
인자한 미소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대형 · 지역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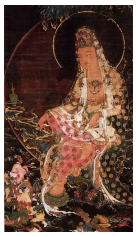


석조 보살 좌상
고려 · 무릎 꿇고 공양하는 모습

■ 불화 고려 후기 귀족 후원 · 섬세하고 화려



아미타래영도
아미타불이 극락으로 맞이하러 오는 모습



수월관음도
혜허(일본 소장) 등 · 물방울 관음

■ 공예 고려: 11C 순수 청자 → 12C 중엽 상감 청자 → 원 간섭기 쇠퇴 / 조선: 15C 분청사기 → 16C 백자



청자 참외 모양 병
순수 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상감 기법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청동 은입사 정병
은입사 기법



나전 칠기 염주합
자개 붙이기



청동 은입사 향완
은입사 기법 · 향로

■ 빈출 선지 체크 — 고려

- □ 훈요 10조를 남기고 사심관·기인 제도를 실시 태조
- □ 노비안검법, 과거제, '광덕·준풍' 연호 광종
- □ 최승로 시무 28조, 12목 지방관 파견 성종
- □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 거란 1차
- □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 거란 3차 (살수대첩 X)
- □ 별무반 조직 → 동북 9성 숙종 건의·예종 축조(윤관)
- □ 칭제건원·금국 정벌 주장 묘청 (김부식 X)
- □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봉사 10조를 올림 최충헌 (정방 = 최우)
- □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 김윤후
- □ 강화도 → 진도 → 제주도로 옮기며 항쟁 삼별초
- □ 전민변정도감, 쌍성총관부 수복 공민왕
- □ 교관겸수 제창, 교장도감 의천 / 정혜쌍수·수선사 지눌
- □ 화통도감에서 화포 제작 → 진포 대첩 최무선

고려의 대외 무역



벽란도(예성강 하구)
국제 무역항 · 아라비아 상인 왕래 → 'COREA' 서양에 알려짐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향약구급방』 — 현존 가장 오래된 의학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고치는 법)
- **이제현**: 『사략』에 더해 『역옹패설』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 정치 · 제도

태조	훈요 10조 — 불교 중시, 연등회·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 것
★광종	노비안검법 =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되돌림 → 공신·호족 세력 약화 공복 제정 → 관리 옷 색을 4등급(자·단·비·녹)으로

- 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 문하시중
- 재추 회의 = 중서문하성 **재신** + 중추원 **추밀**이 모여 회의 → 도병마사·식목도감
- 지방군: 주현군(5도, **예비군**) / 주진군(양계, **상비군**)
- 과거 시험관 지공거 ↔ 합격자: 좌주·문생 관계 (스승·제자처럼 평생 결속)

■ 무신 정권 · 대외

- 무신 정변 → **의종**은 쫓겨나 거제도로 추방
- **최충헌**: 교정도감의 장관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장악
- 거란 2차 침입: **양규** — 포로로 끌려가던 고려인을 구출
- 묘청 평가("일천 년래 제1대 사건")는 신채호 『조선사연구초』에 실림
- **구제 기관**: 동·서 대비원, 제위보, 구제도감, 혜민국에 더해 구급도감(재난 때 백성 구제 임시 기관)

■ 경제 · 사회

- 조세는 양안(토지 대장) 기준 / 역은 호적 기준
- 수공업: 전기 **관영·소(所)** 수공업 → 후기 민영·사원 수공업
- **노비**(천민의 대부분): 매매·증여·상속의 대상
- 향도: 매향(불교 행사) → 점차 상장제례를 맡는 마을 공동 조직
- 재가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 차별 없음

백정	고려	조선
뜻	일반 백성(농민)	도살업 종사 천민

의창	(태조 흑창 → 성종 개칭) 흉년에 곡식·종자 빌려줌 → 조선까지
동서 대비원	개경 동·서쪽, 환자 치료
혜민국	서민 병자에게 의약품 제공

■ 문화

- **국자감**: 유학부 + 기술학부(율학·서학·산학)
- 『삼국사기』 유교 사관 · 『해동고승전』 승려들의 전기 · 「동명왕편」·『제왕운기』 서사시 형태
- **혜심**: 『선문염송집』 편찬 (+ 유불 일치설)
- 고려 중기 이후 남경 길지설 — 한양(남경)을 중시
- 천산대렵도 — 원 영향의 수렵도,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함
- 경천사지 10층 석탑 → 지금 국립 중앙 박물관에 전시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팔만대장경판(해인사) · 『직지심체요절』(프랑스 국립 도서관)
- 사천대: 천문·기상 관측 관청 (원 간섭기 수시력 사용)

■ 조선의 건국

-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 → 우왕·최영 요동 정벌 → 이성계 위화도 회군(1388) (4불가론, 최영 유배·처형)
- 우왕 폐위 → 공양왕 옹립 → 과전법(1391) → 경기 지역 토지만 지급, 신진사대부 경제 기반
- 이방원이 온건파 정몽주 살해(선죽교) → **조선 건국(1392)** → 한양 천도(1394)

신진사대부의 분열

급진 개혁파(정도전·조준)	온건 개혁파(정몽주·이색)
관학 중시 → 계유정난 주도 → 훈구	사학 중시 → 계유정난 반대 → 사림

■ 조선 왕 업적

★태조 (1392~)	- 정도전: 『조선경국전』·『경제문감』(재상 중심 정치), 『불씨잡변』(불교 비판) - 지방 8도(관찰사), 도첩제(승려 수 제한),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피살
★태종	- 도평의사사 폐지 → 의정부, 6조 직계제, 사간원 독립, 사병 철폐 - 호패법, 신문고, 양전 사업, 서얼차대법 - 주자소 → 계미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현존 동양 最古 세계지도)
★세종 (1418~)	-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경연 활성화 (보고: 6조 → 의정부 → 왕) - 공법: 전분 6등법·연분 9등법 - 4군(최윤덕)·6진(김종서) / 쓰시마 정벌(이종무) → 3포 개항(부산포·제포·염포), 계해약조(무역량 제한) - 과학: 측우기, 자격루, 양부일구, 혼천의, 갑인자 / 조선통보 - 편찬: 『농사직설』, 『칠정산』(내·외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훈민정음(1446)
문종	『고려사』 완성, 『고려사절요』
단종	수양대군 계유정난(1453) → 김종서·황보인 제거
★세조 (1455~)	- 왕권 강화: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경연 폐지, 직전법(현직 관리만 수조권) - 사육신(단종 복위 운동) 처형 / 이시애의 난(함경도) → 유향소 폐지 - 『경국대전』 편찬 시작, 인지의·규형(토지 측량), 오가작통법 - 숭불: 간경도감(불경 한글 번역), 『월인석보』, 원각사지 10층 석탑
★성종 (1469~)	- 『경국대전』 완성·반포, 홍문관(집현전 계승), 경연 부활, 관수관급제 - 김종직 등 사림 등용, 유향소 부활 - 『동국여지승람』(지리), 『동국통감』(고조선~고려), 『삼국사절요』, 『동문선』(시문), 『악학궤범』(성현, 음악), 『국조오례의』(의례), 『금양잡록』(강희맹), 『해동제국기』(신숙주, 일본)

■ 중앙 정치 조직

의정부	국정 총괄, 재상 합의(영·좌·우의정)
6조	이·호·예·병·형·공조 — 행정 집행
승정원	왕명 출납(비서 기관), 장관 도승지 (은대·후원) → 『승정원일기』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 기구(중대 범죄, 반역)
사헌부	감찰 기구, 관리 비리·풍속 교정 (대사헌)
사간원	간쟁·논박 (대사간)
홍문관	경연·자문, 궁중 도서 관리 (옥당) (대제학)
기타	한성부(수도 행정·치안), 춘추관(실록 편찬), 성균관(최고 교육), 사역원(통역), 관상감(천문·지리)

왕권 강화 기구: 승정원 + 의금부
삼사(언론·권력 견제):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
대간(양사): 사헌부 + 사간원 → 간쟁·봉박·서경권 (5품 이하 임명 동의)

■ 지방 행정 조직

- 전국 8도(관찰사) — 부·목·군·현 → 향·소·부곡 소멸(일반 군현으로)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행정·사법·군사권) / 향리는 수령 보좌 세습 아전으로 격하
- 유향소: 지방 양반 자치 기구(좌수·별감) — 수령 보좌, 향리 감찰 (이시애의 난 후 폐지 → 성종 부활)
- 경재소: 서울에서 유향소 통제(중앙-지방 연락)
- 오가작통법(세조), 면·리·통 편성

■ 군사·교통

- 양인 개병제(16~60세 정남) / 중앙군 5위, 지방 영진군
- 방어 체제: 진관 체제(세조) → 제승방략 체제(16C, 을묘왜변 후) → 임진왜란 뒤 속오군
- 교통: 역원제(역·원), 조운제(세곡 운반), 봉수제

■ 관리 등용

문과	소과(생원시·진사시) → 대과(초시·복시·전시) ※ 서얼·재가녀 자손 응시 X
무과	무관 선발, 문과와 같은 3단계
잡과	역과·의과·음양과·율과 → 해당 관청 주관, 주로 중인
기타	음서(2품 이상, 고려보다 축소), 천거(현량과), 취재

■ 건국 ~ 체제 완성

태조 이성계	• **한양** 천도(1394) • 정도전 『조선경국전』, 경복궁
태종	• 6조 직계제, 사병 혁파 • 호패법, 사간원 독립, 신문고 • 주자소 → 계미자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세종	•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 **훈민정음** 창제·반포 • 4군 6진(최윤덕·김종서), 이종무 쓰시마 정벌, 계해약조 • 공법: 전분 6등법·연분 9등법 • 『농사직설』, 『칠정산』, 측우기·앙부일구, 『삼강행실도』
세조	• 계유정난으로 즉위, 6조 직계제 부활 • 집현전·경연 폐지, 유향소 폐지 • 직전법(현직 관리만), 이시애의 난 • 『경국대전』 편찬 시작
성종	• **『경국대전』** 완성·반포 • 홍문관, 김종직 등 **사림** 등용 • 관수 관급제 • 『동국통감』·『국조오례의』·『악학궤범』·『동국여지승람』

■ 사화 ~ 양난

연산군	• 무오사화(1498, 조의제문) •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중종	• 중종반정으로 즉위 • **조광조 개혁**: 현량과,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향약 보급 • 기묘사화(1519) • 삼포왜란 → 비변사 임시 설치 • 주세붕 백운동 서원
명종	• 을사사화(1545) • 을묘왜변 → 비변사 상설 • 임꺽정의 난
선조	• 사림 집권, 동인·서인 분당(이조 전랑 다툼) • 임진왜란(1592) → 훈련도감
광해군	• 중립 외교(강홍립 파견) • 대동법(경기도 처음) • 허준 『동의보감』 • 인조반정으로 폐위
인조	• 친명배금, 이괄의 난 • 정묘호란(1627) → 병자호란(1636), 삼전도 항복 • 영정법(토지 1결당 4~6두)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붕당·호란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서 정리)

통치 기구 · 군사 제도의 변화

정치 기구

6조 직계제
태종 · 왕권 강화
→ **의정부 서사제**
세종 · 재상 중심
→ **6조 직계제**
세조 · 다시 왕권
→ **비변사 설치**
중종 · 삼포왜란 임시 기구
→ **비변사 상설**
명종 · 을묘왜변
→ **비변사 최고 기구**
임진왜란 뒤 의정부 힘 잃음
→

비변사 혁파
흥선 대원군
의정부·삼군부 부활

군사

5위 · 진관 체제
세조 · 지역 단위 방어
→ **제승방략 체제**
16C · 유사시 한곳에 모음
→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 · 유성룡
삼수병 · 직업 군인
→ **속오군**
지방 · 양반~노비
→ **5군영 완성**
어영청·총융청·수어청
→ 숙종 금위영
→

장용영
정조 · 친위 부대

사화 → 사림 집권

사화

훈구 vs 사림
성종 · 김종직 등 사림 등용
→ **무오사화**
1498 · 연산군
김종직「조의제문」
→ **갑자사화**
1504 · 연산군
폐비 윤씨 사건
→ **기묘사화**
1519 · 중종
조광조 위훈 삭제
→ **을사사화**
1545 · 명종
외척 대윤 vs 소윤
→

사림 성장
서원 · 향약
→ 선조 때 집권

붕당 정치 → 탕평 → 세도

분열

동인 · 서인 분당
1575 · 선조
이조 전랑 자리 다툼
→ **남인 · 북인 분열**
정여립 모반(기축옥사)
정철 건저의 사건
→ **북인 집권**
광해군 · 중립 외교
→ **인조반정**
1623 · 서인 주도
서인 + 남인 공존

대립

예송
현종 · 상복 입는 기간
기해(서인 승) → 갑인(남인 승)
→ **환국**
숙종 · 경신 → 기사 → 갑술
한 당이 몽땅 바뀜
→ **노론 · 소론**
서인이 나뉨
→ **탕평**
영조 완론 탕평 · 탕평비
정조 준론 탕평
→ **세도 정치**
순조 · 헌종 · 철종
안동 김씨 · 풍양 조씨

양난(왜란 · 호란)

임진왜란

부산진 · 동래성 함락
1592 · 정발 · 송상현
→ **충주 탄금대 패배**
신립 · 선조 의주 피난
→ **수군·의병 활약**
이순신 옥포·한산도
곽재우·조헌·고경명·휴정·유정
→ **진주 대첩**
1592 · 김시민
→ **평양성 탈환**
1593 · 조·명 연합
→

행주 대첩
1593 · 권율

휴전 협상
훈련도감 설치
→ **정유재란**
1597
→ **명량 해전**
1597 · 이순신 13척
→ **노량 해전**
1598 · 이순신 전사
→ **전쟁 뒤**
일본과 국교 재개(기유약조)
통신사 파견

호란

중립 외교
광해군 · 강홍립
→ **인조반정 · 친명배금**
1623
→ **이괄의 난**
1624
→ **정묘호란**
1627 · 정봉수·이립
형제 관계
→ **병자호란**
1636 · 남한산성
삼전도 항복 · 군신 관계
→ **북벌론**
효종 · 송시열
나선 정벌
→

북학론
18C · 청 문물 배우자

한 줄 총정리 — 태종 6조 직계 → 세종 의정부 서사 → 세조 6조 직계 → 성종『경국대전』→ **무오 → 갑자 → 기묘 → 을사사화** → 사림 집권 → **동서 분당** → **임진왜란**(한산도 · 진주 · 행주 → 명량 · 노량) → 광해군 중립 외교 → 인조반정 → **정묘 → 병자호란** → 북벌 → **예송 → 환국 → 탕평 → 세도**

■ 사림의 등장과 사화 → 훈구·사림 대립 속 사림이 입은 화

① 무오사화 (연산군, 1498)	김종직「조의제문」(김일손이 사초에 수록) → 훈구가 문제 삼음 ⇒ 김일손 등 사림 피해
② 갑자사화 (연산군, 1504)	폐비 윤씨(연산군 생모) 사사 사건 → 관련자 처벌, 훈구·사림 모두 피해
★ 중종반정(1506): 연산군 폭정 → 신하들이 몰아내고 중종 즉위	
③ 기묘사화 (중종, 1519)	조광조의 급진 개혁 → 훈구 반발 (주초위왕 사건) ⇒ 조광조 제거 개혁: 현량과, 위훈 삭제(중종반정 가짜 공신), 소격서 폐지, 『소학』 보급, 향약 실시, 방납 폐단 시정
④ 을사사화 (명종, 1545)	외척 다툼: 소윤(윤원형) vs 대윤(윤임) → 대윤·사림 피해 → 양재역 벽서 사건(정미사화) / 임꺽정의 난 배경

순서: 무·갑·기·을 (연산군 2번, 중종 1번, 명종 1번)

■ 붕당 정치

- 선조 때 사림 집권 →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김효원) vs 서인(심의겸) 분열(1575)
- 동인: 이황·조식 학파 / 서인: 이이·성혼 학파
- 정여립 모반 사건(기축옥사, 1589) → 동인 피해 → 정철 건저의 사건 →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분열

■ 임진왜란 (1592)

- 배경: 삼포왜란(중종) → 비변사 설치(임시 기구) → 을묘왜변(명종) → 비변사 상설화
- **[침입]** 부산진(정발)·동래성(송상현) 함락 → 충주 탄금대 전투(신립, 배수진) 패배 → 한성 함락 → 선조 의주 피난, 평양성 함락
- **[반격]** 옥포 해전 → 한산도 대첩(1592.7, 이순신 학익진) → 진주성 전투(진주 대첩, 1592.10, 김시민) →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1593.1) → 행주 대첩(1593.2, 권율) → 휴전 협상
- 의병: 곽재우(홍의장군), 조헌(금산, 칠백의총), 김천일, 정문부(북관), 휴정·유정(사명대사)
- 군사 개편: 훈련도감(유성룡 건의) → 삼수병(포수·사수·살수), 급료 받는 직업 군인 / 지방 속오군(속오법)

■ 정유재란 (1597)

- 휴전 협상 결렬 → 이순신 명량 해전(1597)(13척) → 노량 해전(1598) 승리·이순신 전사
- 결과: 재정 궁핍 → 납속책·공명첩 → 신분제 동요 / 비변사 기능 강화 / 일본에 성리학·도자기 전파
- ⇒ 기유약조(1609, 광해군): 부산포 왜관, 제한 무역 / 통신사 파견

■ 광해군의 정치 (1608~1623)

- 중립 외교: 명·후금 사이 → 강홍립 파병(사르후 전투) 후 후금에 투항
- 전후 복구: 대동법(경기도, 이원익 건의, 선혜청), 양안·호적 정리, 성곽 수리
- 허준『동의보감』완성 / 5대 사고 정비
- 폐모살제(인목대비 유폐·영창대군 죽임) → 서인 반발

★ **인조반정(1623)**: 서인이 광해군·북인 축출 → 인조 즉위, 친명배금 → 공신 책봉 불만으로 이괄의 난(인조, 공주 공산성 피난)

■ 호란 (인조)

■ ① 정묘호란 (1627)

- 친명배금·이괄 잔당이 후금에 들어가 자극 → 후금 침입
- 의병: 정봉수(용골산성), 이립(의주) / 인조 강화도 피난 → 형제 관계 맺고 화의

■ ② 병자호란 (1636)

- 후금 → **청**으로 국호 변경, 군신 관계 요구
- 주화론(최명길) vs 주전론·척화론(김상헌·윤집·3학사) → 주전론 우세
- 청 태종 침입 → 인조 남한산성 항전 (김준룡 광교산 전투, 임경업 백마산성, 김상용 강화도 순절)
- ⇒ 삼전도 굴욕(1637) → 소현세자·봉림대군 볼모, 삼학사 처형 / 삼전도비

■ 효종의 북벌

- 북벌 운동: 송시열(기축봉사)·송준길·이완, 어영청 중심 군비 확충
- 나선 정벌: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 공격 (1차 변급, 2차 신류) — 조총 부대, 흑룡강
- 북학론: 연행사(청 사신) → 박지원·홍대용 등 청 문물 수용 주장

■ 대외 관계 정리

명	사대(조공) → 실리적 문화·경제 교류 / 사신 숙소 태평관
여진	교린: 회유(무역소 — 경성·경원, 북평관) + 강경(4군 6진)
일본	교린: 쓰시마 정벌(세종·이종무) → 3포 개항 → 계해약조 → 삼포왜란(중종) → 을묘왜변(명종) → 임진왜란 → 기유약조(광해군) → 초량 왜관(숙종) / 동평관
기타	류큐·시암·자와와 교류 / 회답 겸 쇄환사: 임란 후 국교 재개 응답·포로 송환

■ 신분 구조 (법적: 양천제 / 실제: 양반·중인·상민·천민)

- 양반: 문반 + 무반 → 지배 신분, 군역 면제
- 중인: 기술관(역관·의관, 직역 세습)·서리·향리 / 서얼(첩의 자식, 문과 응시 X → 한품서용)
- 상민: 농민·수공업자·상인 / 신량역천(양인이지만 천역)
- 천민: 노비(공노비·사노비), 재산 취급·매매·상속, 일천즉천(부모 중 하나라도 천민이면 천민)

★ 여성 지위(전기): 아들·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로 호적, 자녀 균분 상속, 돌아가며 제사(윤회 봉사)

■ ★ 토지 제도

과전법 공양왕	전·현직 관리에 경기 토지 수조권, 수신전·휼양전(유가족) 지급
직전법 세조	현직 관리만 수조권, 수신전·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 성종	국가가 조세를 거둬 관리에게 지급 → 관리의 직접 수취 금지
직전법 폐지 명종	수조권 지급 소멸 → 녹봉만 / 지주 전호제 확대

■ 수취 체제

- **전세**: 세종 공법 — 토지 비옥도 전분 6등법 + 풍흉 연분 9등법 (1결당 20~4두)
- **공납**: 집집마다 토산물 → 16C 방납의 폐단(대신 내고 비싸게 받음) → 조광조·이이 수미법 주장 → 광해군 대동법
- **역**: 16~60세 양인 남자 — 군역·요역 → 대립·방군수포 성행 (포를 내고 군역 면제)

*조운제: 지방 세곡을 조창 → 경창(한양)으로 운반

■ 경제 활동

- 농업: 『농사직설』·『금양잡록』, 밭농사 2년 3작, 남부 모내기(일부), 목화 재배 확대
- 수공업: 관영 수공업(장인을 공장안에 등록)
- 상업: 시전(왕실·관청에 물품 공급 대가로 독점 판매권), 경시서, 장시(15C 후반 전라도 → 16C 전국, 5일장)
- 화폐: 저화(태종), 조선통보(세종) → 쌀·무명이 실제 화폐

■ 사회 제도

- 빈민 구제: 의창·상평창(물가 조절) → 환곡제 / 사창제
- 의료: 혜민국, 동서 대비원, 동서 활인서(빈민 치료), 제생원(태조)
- 법: 『경국대전』 + 대명률, 반역·강상죄 엄벌, 수령이 재판

■ ★ 향약 · 서원 (사림의 향촌 지배 기반)

- 향약: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 → 이황(예안 향약)·이이(해주 향약)로 확산
  4대 덕목: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 약정(도약정·부약정)
- 서원: 주세붕 백운동 서원(중종, 안향 제사) → 이황 건의로 소수서원 사액(명종) → 선현 제사 + 유학 교육, 사림 여론 형성

■ 성리학의 융성

- 주리론: 이언적 → 이황 / 주기론: 서경덕 → 이이 / 조식: 경·의, 실천 중시

이황 (1501~1570)	이이 (1536~1584)
주리론 → **영남학파·동인·남인**	주기론 → **기호학파·서인**
근본적·이상적 도덕 중시	현실적·개혁적
위정척사 사상, 일본 성리학에 영향	실학·개화사상에 영향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성학집요』, 『동호문답』, 『격몽요결』, 만언봉사
예안 향약 / 도산 서당 /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	해주 향약 / 10만 양병설·수미법

■ 교육

성균관	최고 교육 기관, 생원·진사(소과 합격자) 입학 / 대성전(문묘)·명륜당(강의)·석전대제 / 대사성
향교	지방 관립 중등 교육, 모든 군현에 하나씩, 교수·훈도 파견
4부 학당	한양의 관립 중등 교육
서원·서당	사립 — 서원(중등), 서당(초등, 『천자문』·『동몽선습』(박세무)·『훈몽자회』(최세진))

■ 역사서·지리서·윤리서

- 『조선왕조실록』: 태조~철종, 실록청에서 편년체, 사초·시정기·『승정원일기』 바탕 → 사고 보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고려사』(기전체, 문종) · 『고려사절요』(편년체) · 『동국통감』(서거정, 성종, 고조선~고려)
-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태종), 팔도도, 동국지도(양성지) / 지리지: 『신찬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 윤리·의례: 『삼강행실도』(세종), 『국조오례의』(성종)

■ 과학 기술 · 예술

- 천문: 혼천의·간의, 앙부일구(해시계)·자격루(물시계, 장영실), 측우기 / 역법 『칠정산』(한양 기준)
- 의학: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 인쇄: 계미자(태종) → 갑인자(세종)
- 도자기: 분청사기(15C) → 백자(16C)
- 그림: 15C 몽유도원도(안견), 고사관수도(강희안) / 16C 사군자, 초충도(신사임당)
- 음악: 세종 정간보·아악 정리(박연) / 성종 『악학궤범』(성현)
- 건축: 궁궐·성문·종묘·해인사 장경판전(팔만대장경 보관, 통풍) / 서원 건축

과학 기술 · 기록



양부일구
세종 · 해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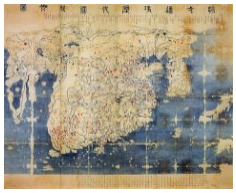
자격루(복원 모형)
세종 · 장영실 · 물시계



측우기
세종 · 강우량 측정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 천문도 각석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조 · 동양 最古 세계지도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 세계기록유산

건축 · 유교



종묘 정전
역대 왕·왕비 신주 · 세계유산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팔만대장경 보관 · 자연 통풍



영주 소수서원
최초 서원(백운동) · 최초 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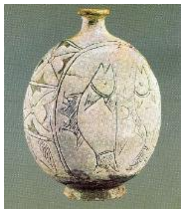


경복궁 근정전
태조 창건 · 흥선대원군 중건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세조 · 경천사지 탑 영향

공예 · 그림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15C



청화 백자 매죽문 항아리



백자 달항아리
16C 이후 백자 유행



몽유도원도
안견 · 안평대군의 꿈



고사관수도
강희안



초충도
신사임당 · 16C

■ 빈출 선지 체크 — 조선 전기

- □ 『조선경국전』을 지어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 정도전
- □ 6조 직계제, 사간원 독립, 호패법 태종 (세조도 6조 직계제 부활)
- □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 태종
- □ 의정부 서사제, 전분 6등법·연분 9등법 세종
- □ 『농사직설』·『칠정산』·『향약집성방』 편찬 세종
- □ 이종무가 쓰시마를 정벌 세종 (박위 = 고려 말)
- □ 직전법 실시, 집현전 폐지, 간경도감 세조
- □ 『경국대전』 완성, 홍문관 설치 성종
- □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 무오사화
- □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 주장 조광조 → 기묘사화
- □ 외척 윤원형·윤임의 대립 을사사화
- □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서인 분당 선조
- □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진 임진왜란
- □ 훈련도감 설치, 삼수병 편성 임진왜란 중(유성룡)
- □ 명량·노량 해전 정유재란 (한산도 = 1592)
- □ 강홍립 파병, 중립 외교, 대동법(경기) 광해군
- □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 정묘호란
- □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 남한산성 → 삼전도 병자호란
- □ 어영청 중심 북벌, 나선 정벌 효종
- □ 백운동 서원 건립 주세붕 → 소수서원 사액 이황 건의
- □ 『성학십도』 이황 / 『성학집요』·『동호문답』 이이
- □ 몽유도원도 안견 / 고사관수도 강희안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웹사진 폴더, 출처는 웹사진/출처.json)

■ 통치 체제의 변화

- 비변사: 삼포왜란(중종) 때 임시 기구 → 을묘왜변(명종) 계기 상설화 → 임진왜란 뒤 최고 정무 기구(3정승 등 고위 관료 참여) → 의정부·6조 유명무실, 세도 정치 핵심 → 흥선대원군이 축소·폐지

5군영 (중앙군, 임진왜란 이후 순차 설치)	
훈련도감 선조	유성룡 건의, 삼수병(포수·사수·살수), 급료 받는 직업 군인
어영청 인조	이괄의 난 뒤 설치 → 효종 북벌의 중심
총융청·수어청 인조	총융청: 북한산성·경기 방어 / 수어청: 남한산성 방어
금위영 숙종	국왕 호위·수도 방어 → 5군영 완성

- 지방군: 속오군(속오법) — 양반~노비까지 편제, 평소 생업·유사시 동원

■ 붕당 정치의 전개

- 선조 때 동인·서인 분당 →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분열 → 광해군 때 북인 집권 → 인조반정으로 서인 집권(남인 일부 참여, 공존)

■ 예송 논쟁 (현종) — 효종의 정통성, 자의대비 상복 기간

구분	서인	남인	결과
1차 기해예송 (1659, 효종 사후)	기년설(1년)	3년설	서인 승리
2차 갑인예송 (1674, 효종비 사후)	대공설(9개월)	기년설(1년)	남인 승리

■ ★ 환국 (숙종) — 집권 붕당이 한꺼번에 교체

경신환국 1680	허적(남인) 유악 사건·역모 → 남인 축출, 서인 집권 →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화
기사환국 1689	희빈 장씨 아들 원자 책봉 → 반대한 송시열 사사, 인현 왕후 폐위 → 남인 집권
갑술환국 1694	인현 왕후 복위, 희빈 장씨 강등 → 서인(노론·소론) 집권, 남인 몰락

결과: 일당 전제화, 외척·종실 정치 개입, 3사·이조 전랑이 자기 붕당 이익 대변 → 탕평론 대두

■ 숙종 (1674~1720)

- 환국 정치 / 금위영 설치(5군영 완성) / 대보단 설치
- 상평통보 전국 유통(법화) / 대동법 전국 확대(평안·함경 제외, 1708 완료) / 초량 왜관
- 백두산 정계비(1712): 청과 국경 확정 — "서위압록 동위토문"
- 안용복: 울릉도·독도에서 일본 어민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조선 영토임을 확인

■ 탕평 정치

★영조 (1724~1776)	- 탕평파 육성, 성균관 앞 탕평비 건립 (붕당 폐해 경계) - 이인좌의 난(1728): 소론 강경파·남인이 경종 죽음에 영조 개입 주장 - 붕당 기반 약화: 서원 대폭 정리, 산림 존재 부정, 이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통청권) 폐지 - 균역법(군포 2필 → 1필), 가혹한 형벌 폐지, 삼심제 엄격 시행 -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준천사) / 노비종모법 - 편찬: 『속대전』(법전 재정비), 『동국문헌비고』(백과사전)
★정조 (1776~1800)	- 적극적 탕평(시파·벽파), 남인 등용(채제공 등) - 규장각: 왕실 도서관 → 정책 연구 기구, 서얼 출신 검서관(박제가·유득공·이덕무) - 초계문신제: 37세 이하 당하관 문신 재교육 - 장용영: 국왕 친위 부대(내영 한양·외영 수원) - 수원 화성 축조(정약용 거중기), 수원을 정치·군사·상업 도시로 - 신해통공(1791): 육의전 제외 금난전권 폐지 - 수령이 향약 직접 주관(수령 권한 강화, 사림 영향력 약화) - 편찬: 『대전통편』, 『무예도보통지』, 『동문휘고』, 『탁지지』, 『일성록』 / 신해박해(윤지충)

■ 세도 정치 (19C)

순조	안동 김씨(김조순) / 신유박해(1801), 공노비 해방(1801), 홍경래의 난(1811)
헌종	풍양 조씨 / 기해박해(1839)
철종	안동 김씨 / 임술 농민 봉기(1862) → 삼정이정청(박규수 건의)

- 소수 외척 가문이 권력 독점 → 비변사 중심 권력 행사, 의정부·6조 유명무실
- 과거제 문란, 매관매직 → 수령·향리 수탈 →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

■ 대외 관계

청	- 효종 북벌론(송시열 『기축봉사』, 어영청) → 청에 반감, 오랑캐로 봄 - 18C 북학론: 연행사로 청 왕래 → 청 문물 수용 주장(홍대용·박지원·박제가) - 나선 정벌(효종, 조총 부대) / 백두산 정계비(숙종) - 간도: 토문강 해석 차이로 귀속 분쟁 → 1909 간도 협약(청·일)으로 청 영토화
일본	- 기유약조(1609, 광해군): 국교 재개, 부산포 왜관 → 초량 왜관(숙종) - 통신사: 1607~1811년 12회 파견, 조선 문화 전파(일본은 국빈 대우) - 안용복(숙종): 울릉도·독도 수호

■ 호란 이후 ~ 환국

효종	• 북벌 추진(송시열), 어영청 강화 • 나선 정벌(조총 부대)
현종	• 예송: 기해예송(서인 승) → 갑인예송(남인 승)
숙종	• 환국: 경신 → 기사 → 갑술 • 상평통보 전국 유통 • 백두산 정계비(1712) • 대동법 전국 확대, 금위영(5군영 완성) • 안용복, 울릉도·독도 지킴
경종	• 신임옥사(노론·소론 다툼)

■ 세도 정치

순조	• 안동 김씨 세도 정치 • 공노비 해방(1801), 신유박해(1801) • 홍경래의 난(1811, 평안도 차별)
헌종	•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김대건)
철종	• 최제우 동학 창시(1860) • 임술 농민 봉기(1862, 진주, 백낙신) • → 삼정이정청 설치
고종	• 흥선 대원군 집권 → **7단원 개화기**에서 정리

■ 탕평 정치

영조	• 탕평책, 성균관에 탕평비 • 균역법(1750, 군포 2필 → 1필) • 이인좌의 난(1728) • 서원 대폭 정리, 산림 부정, 이조 전랑 권한 축소 •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정조	• 규장각, 초계문신제 • 장용영(왕의 친위 부대) • **수원 화성** 축조(정약용 거중기) • 신해통공(1791, 금난전권 폐지) • 서얼 등용(검서관: 박제가·유득공·이덕무) • 『대전통편』, 『무예도보통지』

순서 단골

- 법전: 『경국대전』(성종) → 『속대전』(영조) → 『대전통편』(정조) → 『대전회통』(고종)
- 수취: 영정법(인조) · 대동법(광해군 → 숙종 전국) · 균역법(영조)
- 천주교 박해: 신해(정조) → 신유(순조) → 기해(헌종) → 병인(고종)

■ ★ 수취 체제의 개편

영정법 인조, 1635	**전세**: 풍흉 관계없이 1결당 쌀 4~6두 고정 → 부가세 늘어 농민 부담 여전
대동법 광해군, 1608	**공납**: 방납의 폐단 해결 —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 기준 쌀(1결당 12두)·옷감·동전 - 이원익 건의, 선혜청 담당, 경기 → 100년 걸쳐 전국 확대(숙종) - 공인 등장(관청에 물품 조달)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별공·진상은 남음
균역법 영조, 1750	**군역**: 군포 2필 → 1필, 균역청 - 부족분: 결작(지주에게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일부 상류층 1필), 어장세·선박세·염세 → 결작을 소작농에 전가, 군적 문란(인징·족징·백골징포·황구첨정)

■ 농업의 변화

- 모내기법(이앙법) 전국 확대 → 벼·보리 이모작, 노동력 절감 → 광작(경작지 확대) 유행 → 농민 계층 분화
- 밭농사: 견종법(밭고랑에 파종)
- 상품 작물: 인삼·담배·면화·고추·생강 / 구황 작물: 고구마(일본)·감자(청)
- 지대: 타조법(정률, 수확 1/2 · 지주가 농사에 간섭 → **신분적 예속 관계**) → 도조법(정액 · **계약 관계** → 농민이 자유롭게 경작) 확대 → 소작농에 유리
- 농서: 전기 『농사직설』(세종, 정초) · 『금양잡록』(성종, 강희맹) → 후기 『농가집성』(신속, 효종), 『색경』(박세당), 『산림경제』(홍만선), 『임원경제지』(서유구)

■ 수공업 · 광업

- 민영 수공업 발달(장인세) / 선대제: 상인이 원료·자금 미리 대고 제품 받음 → 18C 후반 독립 수공업자 등장
- 광업: 효종 설점수세제(민간 채굴 허용, 세금 징수) → 18C 후반 덕대(광산 경영 전문가, 물주에게 자본 받음) / 잠채(몰래 채굴) 성행

■ ★ 상업의 발달

- 공인: 대동법 이후 관청 물품 조달하는 어용 상인 → 도고로 성장
- 사상(민간 상인) 성장 → 시전 상인과 대립 → 신해통공(정조)으로 육의전 외 금난전권 폐지
- 도고: 독점적 도매 상인 출현

송상 개성	전국에 송방(지점), 인삼 재배·판매, 대외 무역
만상 의주	대청 무역 (책문 후시 등)
내상 동래	대일 무역 (왜관)
유상 평양	평양 중심 활동
경강상인	한강 중심, 곡물·소금 선박 운송, 조선업

- 장시 전국 1,000여 개 → 일부는 상설 시장 / 보부상이 장시 연결
- 포구: 상업 중심지 → 객주·여각(중개·보관·숙박·금융)
- 대외 무역: 청 — 개시(공무역)·후시(사무역, 중강·책문) / 일본 — 왜관 개시
- 화폐: 상평통보(인조 주조 → 숙종 때 전국 유통) → 세금·지대 동전 납부 / 전황(동전 부족 → 돈 가치 ↑ · 물건값 ↓) → 이익 폐전론 / 환·어음 사용

■ 신분제의 동요

- 양반 증가·상민 감소: 공명첩·납속, 족보 위조 → 몰락 양반(잔반) 증가
- 서얼: 서얼 통청 운동(상소) → 정조 규장각 검서관 등용 → 철종 때 청요직 허용(신해허통)
- 중인: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실패) / 시사 조직(위항 문학) / 역관은 청 문물 수용
- 노비: 노비종모법(영조) → 공노비 해방(순조, 1801) → 노비 세습제 폐지(1886), 신분제 폐지(1894 갑오개혁)
- 향촌: 부농층(신향)이 구향과 향전 → 수령·향리 권한 강화, 향회는 수령 자문 기구로 / 동족 마을·문중
- 가족: 친영 제도, 장자 중심 상속·제사, 양자 입양 일반화

■ 사회 변혁 사상

- 천주교(서학): 이승훈 세례(1784) → 정조 신해박해(1791, 윤지충 진산 사건) → 순조 신유박해(1801)(이승훈·정약종 처형, 정약용 유배, 황사영 백서 사건) → 기해박해(헌종) → 병인박해(1866)
- 동학: 최제우 창시(1860, 경주) — 유·불·선+민간 신앙, 시천주·인내천 → 혹세무민으로 처형(1864) → 최시형 『동경대전』·『용담유사』
- 『정감록』 등 예언 사상, 미륵 신앙 유행

■ ★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순조, 1811	서북민(평안도) 차별·세도 정치 수탈 → 몰락 양반 홍경래 + 영세 농민·광산 노동자·상인 → 청천강 이북 장악 → 정주성에서 진압
임술 농민 봉기 철종, 1862	경상 우병사 백낙신 수탈 → 진주 농민 봉기(유계춘) → 전국 확산 → 안핵사 박규수 파견 → 삼정이정청 설치(곧 폐지)

임진왜란 · 병자호란(양난) ——▶ 이앙법 확산 · 생산량 폭증 ——▶ 교환 · 상인 · 수공업 · 광업 활발 ——▶ **상품 화폐 경제** + 임노동자 등장

양난 이후 무엇이 어떻게 이어졌나

농업	**양난 뒤 복구** 농토 회복 → **이앙법(모내기) 전국 확산** 김매기 줄어듦 → **생산량 폭증 · 노동력 ↓** 이모작 → **광작** 1명이 넓은 땅 경영 → **일거리 잃은 농민** 남는 인력 발생 → **임노동자 등장** 품 팔아 삶 · 광산·도시로
상업 · 수공업	**남는 곡식·상품 작물** 생산량 ↑ → **교환 활성화** 장시 · 상평통보 → **상인 활발** 공인 · 사상(거상) → **도고 성장** 큰 자본으로 독점 → **민영 수공업자 등장** 관영 수공업 쇠퇴 → **선대제** 상인이 돈·원료 먼저 줌 → **독립 수공업자** 스스로 만들어 팜
광업	**관영 광업 → 민영화** 부역제 해이 → **설점수세제** 효종 · 민간 채굴 + 세금 → **은광 개발 활발** 청과 무역 · 은 수요 ↑ → **정부가 억제** 농민이 농사 버리고 광산으로 몰릴까 봐 → **잠채** 몰래(潛) 캐기 성행 → **덕대 경영** 거상 자본 + 노동자 고용



★ 도고 — 조선 후기 상업의 핵심

뜻	물건을 **대량으로 몰아 사서(매점)** 쌓아 두고 값을 올려 파는 독점 도매 상인 · 그런 상행위
누가	공인(대동법 뒤 관청 납품으로 큰돈) · 사상(송상 · 경강 상인 · 만상 · 내상) · 시전 상인 → 큰 자본을 모아 **도고로 성장**
예	박지원『**허생전**』— 허생이 과일·말총을 몽땅 사들여 값을 올려 큰돈을 벎 (매점매석 비판)
결과	물가 상승 · 영세 상인 몰락 · 시전의 독점(금난전권) 문제 → 정조 신해통공(1791, 육의전 빼고 금난전권 폐지)으로 독점 억제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제도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숫자

전세 (토지세)

과전법 공양왕(1391) · 1결당 최대 30두 수확량의 1/10 → **공법** 세종 · 전분 6등법(토지 비옥도) 연분 9등법(풍흉) · 1결당 20~4두 → **흉년·풍년 관계없이** 16C 이후 등급 무시하고 최저 세율(4~6두)로 걷는 관행 → **영정법** 인조(1635) · 1결당 4~6두 고정

결과: 지주 부담 ↓ / 땅 없는 농민은 여러 부가세·수수료 때문에 부담 그대로

공납 (특산물)

특산물 납부 집(호) 단위 지역 특산물 → **방납의 폐단** 관리·상인이 대신 내고 몇 배를 받아 냄 → **수미법 주장** 이이 · 유성룡 (특산물 대신 쌀로 걷자) → **대동법** 광해군(1608) · 이원익 건의 경기도부터 · 선혜청 → **충청·전라 확대** 효종 · 김육 → **전국 실시** 숙종(1708) 평안·함경 제외

대동법: 집 단위 → 토지 1결당 쌀 12두(쌀·옷감·동전) → 땅 많은 지주 부담 ↑ (진상·별공은 남음)

돈의 흐름: 선혜청이 쌀·돈을 걷음 → 공인에게 물건값(공가)을 미리 줌 → 공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삼 → 장시·수공업 활발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역 (군역·요역)

양인 개병제 16~60세 양인 남자 정군 + 보인 / 요역(성종: 8결당 1명, 1년 6일) → **대립 · 방군수포** 남 대신 보내기 · 군포 받고 집에 돌려보내기 → **군적수포제** 중종 · 1년에 군포 2필 →

군포 부담 폭증 인징 · 족징 · 백골징포 · 황구첨정 → **균역법** 영조(1750) · 2필 → 1필 → **호포제** 흥선 대원군 · 양반도 군포

균역법 모자란 돈 메우기: 결작(지주에게 1결당 쌀 2두) · 선무군관포(일부 상층 양인 1필) · 어장세·선박세·소금세 → 균역청 관리

환곡 (빈민 구제)

의창 · 상평창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둠 상평창 = 물가 조절 → **환곡의 고리대화** 16C 이후 이자(모곡) 늘어남 19C 가장 큰 폐단 → **사창제** 흥선 대원군 · 마을이 운영

결말

삼정의 문란 전정 · 군정 · 환곡 (세도 정치 시기) → **임술 농민 봉기** 철종(1862) · 진주 백낙신 수탈 → **삼정이정청** 박규수 건의 · 곧 폐지

후기 큰 흐름

① **전세화**(세금이 땅으로 몰림): 전세 영정법(1결 4~6두) + 공납 대동법(1결 12두) + 군역 결작(1결 2두) → 사람·집이 아니라 **토지 기준**으로 걷음 (19C 도결 = 여러 세금을 땅에 한꺼번에)

② **금납화**(돈으로 냄): 대동법 쌀 대신 옷감·동전도 받음 · 군포도 돈으로 · 상평통보 전국 유통 → 세금·소작료를 동전으로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용어 풀이 — 이 쪽에 나온 말

결작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를 메우려고 **땅 주인(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또는 돈 5전)를 더 걷은 것
선무군관포	돈 있는 일부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그 대신 1년에 군포 1필을 걷은 것
어장세 선박세 염세	**어장세** = 고기 잡는 터(어장)에 매긴 세금 / **선박세** = 배에 매긴 세금 / **염세** = 소금 만드는 곳에 매긴 세금 → 원래 왕실·관청이 따로 걷던 것을 나라(균역청)가 가져와 군사비로 씀
균역청	균역법을 맡은 관청. 결작·선무군관포·어장세 등 관리 (뒤에 선혜청에 합쳐짐)
결 · 두	**결** = 땅 넓이 단위(넓이가 아니라 **거둘 수 있는 곡식 양** 기준이라 기름진 땅 1결은 좁음) / **두** = 말(곡식 부피) — 15두 = 1석
정군 · 보인	**정군** =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 / **보인** = 정군이 복무하는 동안 비용(베)을 대 주는 사람

방납	관리·상인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농민에게 몇 배 값을 받아 낸 것 → 대동법이 나온 이유
대립 · 방군수포	**대립** = 돈 받고 남의 군역을 대신 서 주는 것 / **방군수포** = 군대가 군포를 받고 군인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
군포 폐단	**인징** = 도망간 사람 몫을 **이웃**에게 / **족징** = **친척**에게 / **백골징포** = **죽은 사람**에게 / **황구첨정** =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매김
선혜청 · 공인	**선혜청** = 대동법을 맡은 관청 / **공인** = 선혜청에서 값을 받아 관청 물건을 **사서 바치던 상인** → 큰손 구매자 → 상업 발달
모곡	환곡을 갚을 때 붙는 **이자**(원래 1/10) → 19C 고리대로 변함
수신전 · 휼양전	과전법에서 죽은 관리의 **아내(수신전)·어린 자식(휼양전)**에게 주던 땅 → 대물림돼 직전법 때 없앰
진상 · 별공	대동법 뒤에도 남은 공납 — **진상** = 왕실에 바치는 특산물 / **별공** = 그때그때 걷는 임시 공물

관리에게 주는 땅 (수조권) — 토지 제도의 변화

고려

역분전 태조 · 공로·인품 → **시정 전시과** 경종 · 관품 + 인품 → **개정 전시과** 목종 · 관품만 → **경정 전시과** 문종 · 현직만 → **녹과전** 원종 · 경기 8현

조선

과전법 공양왕(1391) · 경기 땅 전·현직 관리 · 수신전·휼양전 → **직전법** 세조(1466) · 현직만 수신전·휼양전 없앰 → **관수 관급제** 성종(1470) · 나라가 걷어 관리에게 나눠 줌 → **직전법 폐지** 명종(1556) 녹봉만 지급 → **지주 전호제 확대** 지주 + 소작농

흐름 한 줄: 관리의 수조권이 **점점 줄어들고**(전·현직 → 현직 → 나라가 대신 걷음 → 폐지) 대신 땅을 직접 소유하는 **지주**가 늘어남

농업

농사 방법

전기: 2년 3작(밭) 밭농사 · 시비법 → 휴경 사라짐 → **직파법(논)** 볍씨를 논에 바로 뿌림 전기에 일반적 → **모내기법(이앙법)** 전기엔 남부 일부 · 나라가 금지 (가뭄 때 위험) → **후기: 모내기 전국 확산** 노동력 ↓ · 수확 ↑ →

벼·보리 이모작 보리는 소작료 안 냄 → **광작** 한 사람이 넓은 땅 경작 → **농민 층 분화** 부농 ↑ / 땅 잃은 농민 → 임노동·도시

밭농사: 견종법(고랑에 씨 뿌리기) / 상품 작물: 인삼 · 담배 · 면화 · 고추

소작료: **타조법**(수확의 1/2 · 지주가 농사에 간섭 → **신분적 예속 관계**, 땅 주인 대부분 양반) → 도조법(미리 정한 액수 · **계약 관계** → 농민이 자유롭게 경작, 남는 만큼 이익) 확대

농서

『농사직설』 세종 · 정초 우리 실정에 맞는 첫 농서 → **『금양잡록』** 성종 · 강희맹 → **『농가집성』** 효종 · 신속 모내기법 보급 → **『색경』** 박세당 → **『산림경제』** 홍만선 → **『임원경제지』** 서유구 · 농촌 생활 백과

수공업 · 광업

수공업

전기: 관영 수공업 공장안에 등록된 장인 (관청에 매여 일함) → **부역제 해이** 16C 이후 · 임진왜란 뒤 무너짐 → **후기: 민영 수공업** 장인이 세금(장인세) 내고 직접 생산 · 납포장 → **선대제** 상인이 돈·원료 먼저 주고 제품을 받음(상인 자본 지배) →

독립 수공업자 18C 후반 · 직접 생산·판매

광업

전기: 관영 광업 농민 부역으로 채굴 → **부역제 해이** 강제 동원 어려워짐 → **설점수세제** 효종 · 민간 채굴 허용 세금만 받음 → **민영 광업 · 은광 ↑** 청과 무역에 은 수요 ↑ → **잠채** 몰래 캐기 성행 →

덕대 광산 경영 전문가(CEO)

덕대 구조: 물주(거상) → 덕대에게 **자본** 대 줌 → 덕대가 **노동자(채굴꾼)를 고용**해 분업으로 채굴 → 임금 노동 등장

한 줄 총정리 — 과전법 → 공법 → **영정법** / 공납 → 방납 폐단 → **대동법**(광해군·이원익 → 김육 → 숙종 전국) / 군역 → 방군수포 → 군적수포제 → **균역법**(영조) → 호포제 / 모내기 확산 → 광작 → 농민 층 분화 / 공인·사상 성장 → **신해통공** / **상평통보** 전국 유통 → 전황 / 관영 수공업 → 부역제 해이 → **선대제** → 독립 수공업 / 설점수세 → 잠채 → **덕대** ⇒ 조선 후기 수취의 큰 흐름 = 전세화(토지로) · 금납화(돈으로)

조선 전기 = 중농억상(농업 중시 · 상업 억제, 나라가 상업 통제) —— **임진왜란(1592)** 뒤 부역제 해이 · 대동법 ——▶ **조선 후기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상업

관허 상인

전기: 시전 상인
한양 종로 · 육의전
나라에 물건 대고 독점 판매권
→ **금난전권**
허가 없는 상인(난전) 단속
→ **후기: 공인 등장**
대동법 이후 · 관청 물품 조달
→ 큰손 · 도고로 성장
→ **신해통공**
정조(1791) · 채제공
육의전 빼고 금난전권 폐지

보부상

전기: 보부상
봇짐·등짐장수
지방 장시를 돌며 연결
→ **후기: 전국적 유통망**
장시와 장시를 이음
→ **혜상공국**
1883 · 보부상 보호 조직
→ **황국 협회**
1898 · 보부상 중심
독립 협회 습격

사상

전기: 난전
허가 없는 영세 상인
금난전권으로 단속
→ **후기: 거상 성장**
송상 → 지점 '송방' 설치
→ **객주 · 여각**
객주 = 중개 · 여각 = 숙박
(보관·운송·금융도)
→ **도고**
물건을 몰아 사서 독점 판매
박지원 『허생전』(매점매석)

사상 짝: 송상(개성 · 인삼 · 송방 · 중계 무역) / 경강 상인(**선상** · 한강 · 운송·선박 건조) / 만상(의주 · 청과 무역) / 내상(동래 · 일본과 무역) / 유상(평양)

장시

경시서
시전 감독 → 평시서(세조)
→ **장시 등장**
15C 말 전라도 · 처음엔 금지
→ **장시 1,000여 개**
18C 중엽 · 5일장
보부상이 연결
→ **큰 장시**
송파장 · 원산장 · 강경장
→ **포구 상업**
객주 · 여각 활동

대외 무역

개시 (공적 무역)
나라가 연 시장
중강 · 회령·경원(6진 지역)

·

후시 (사적 무역)
몰래 연 시장
책문 · 중강

·

일본: 왜관
부산

·

상인 짝
의주 만상(청) · 동래 내상(일본)
개성 송상(중계 · 인삼)

화폐

저화(지폐)
태종 · 유통 안 됨(X)
→ **조선통보**
세종
→ **(전기엔 쌀·옷감이 돈)**
화폐 잘 안 쓰임
→ **상평통보**
인조 때 처음 · 숙종 때 전국 유통
→

전황
지주·상인이 동전을 쌓아 둠 → 동전 부족
→ 돈 가치 ↑ · 물건값 ↓(디플레이션)
→ **폐전론**
이익 · 동전 없애자



조선 후기 무역지 · 큰 장시 약도(위치는 대략)

- **빨강** = 사상(거상) — 의주 **만상**(청) · 개성 **송상**(인삼 · 중계) · 동래 **내상**(일본) · 한강 **경강 상인**(선상)
- **파랑** = 청과 무역하던 곳 — **개시**(공) 중강 · 회령 · 경원(6진) / **후시**(사) 책문 · 중강
- **검정** = 큰 장시 — 송파장 · 원산장 · 강경장

※ 송상은 만상(청) ↔ 내상(일본) 사이를 잇는 **중계 무역**으로 큰돈

한 줄 총정리 — 중농억상(시전·보부상) → **임진왜란(1592)·부역제 해이·대동법** → 공인·사상(송상·경강 상인·만상·내상) 성장 → 객주·여각·**도고** → **신해통공(1791)** / 장시 1,000여 개(송파·원산·강경) / **상평통보** → 전황

■ ★ 실학

중농학파 (경세치용) — 토지 제도 개혁, 자영농 육성	
유형원	『반계수록』, 균전론(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
이익	『성호사설』, 한전론(영업전 매매 금지), 『곽우록』, 6좀(노비·과거·양반 문벌·사치·승려·게으름), 성호학파
정약용	여전론(마을 공동 소유·공동 경작) → 정전론 / 『목민심서』(지방관), 『경세유표』(중앙 정치), 『흠흠신서』(형벌) / 거중기(『기기도설』 참고)·배다리 / 『마과회통』, 「탕론」·「원목」
중상학파 (이용후생, 북학파) — 상공업 진흥, 청 문물 수용	
유수원	『우서』, 사농공상 직업 평등·전문화, 상공업 진흥
홍대용	『의산문답』: 지전설·무한 우주론 → 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 / 『임하경륜』, 혼천의 제작
박지원	『열하일기』: 수레·선박 이용, 화폐 유통 / 『과농소초』·한전론 / 「양반전」·「허생전」·「호질」(양반 풍자)
박제가	『북학의』: 수레·선박, 절약보다 소비 권장(우물론) / 규장각 검서관

*선구: 이수광 『지봉유설』(백과사전), 한백겸 『동국지리지』

■ 국학 연구

역사서	- 안정복 『동사강목』: 고조선~고려, 독자적 정통론 - 유득공 『발해고』: '남북국' 용어 처음 사용 - 이긍익 『연려실기술』: 조선 정치·문화, 기사본말체 - 한치윤 『해동역사』: 외국 자료 540여 종 인용 - 이종휘 『동사』(고구려 중시) / 김정희 『금석과안록』(북한산비 = 진흥왕 순수비 고증)
지리서·지도	- 이중환 『택리지』: 인문 지리, 살기 좋은 곳(가거지) - 정상기 「동국지도」: 최초로 100리척 사용 - 김정호 「대동여지도」: 10리마다 눈금, 목판, 분첩절첩식(22첩)
국어	신경준 『훈민정음운해』, 유희 『언문지』
백과사전	『지봉유설』(이수광), 『성호사설』, 『청장관전서』(이덕무),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동국문헌비고』(영조)

■ 양명학

- 성리학의 형식화 비판, 지행합일(앎과 행동 일치) → 18C 초 정제두가 강화학파 형성

■ 과학 기술

- 서양 문물: 연행사 통해 전래 — 「곤여만국전도」(마테오 리치 세계 지도) → 세계관 확대 / 벨테브레이·하멜 표류
- 역법: 시헌력(효종, 김육 건의, 아담 샬 제작)
- 천문: 김석문·이익·홍대용 지전설
- 의학: 『동의보감』(허준, 광해군) / 『마과회통』(정약용, 홍역·종두법) / 『동의수세보원』(이제마, 사상 의학, 1894)
- 기술: 정약용 거중기 → 수원 화성 축조, 한강 배다리(주교)

■ 서민 문화

- 한글 소설: 『홍길동전』(허균), 『춘향전』, 『심청전』 / 한문 소설: 박지원 「양반전」·「허생전」
- 사설시조: 서민 감정 솔직하게 표현, 형식 파괴
- 판소리: 창과 사설, 서민·양반 모두 즐김 → 신재효가 정리
- 탈춤·산대놀이: 양반·승려 비판·풍자
- 위항 문학: 중인·서민의 시사 조직

■ ★ 회화 · 서예 · 공예

진경산수	정선: 「인왕제색도」·「금강전도」 —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풍속화	- 김홍도: 서민 생활 — 「씨름」·「서당」·「무동」 - 신윤복: 양반·부녀자 생활·남녀 애정 — 「미인도」·「단오풍정」·「월하정인」 - 김득신 「파적도」 / 강세황 「영통골 입구도」(서양화 기법)
민화	서민의 소원, 생활 공간 장식 — 까치와 호랑이, 문자도, 책거리
서예	김정희: 추사체, 「세한도」(제주 유배 중) / 이광사: 동국진체
공예	청화 백자 유행(흰 바탕에 푸른 안료) / 서민은 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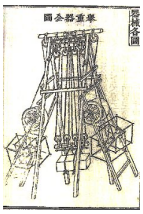
■ 건축

17C	양반·부농 지원 → 규모 큰 다층 불교 건축 - 보은 법주사 팔상전: 현존 유일 5층 목탑 - 구례 화엄사 각황전(숙종) / 김제 금산사 미륵전(3층)
18C	부농·상인 지원 → 장식성 강한 사원 / 수원 화성(정조, 거중기, 동서양 축성술 융합, 세계 유산)
19C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근정전·경회루)

정치 · 건축



수원 화성(팔달문)
정조 · 세계유산



거중기
정약용 · 『기기도설』 참고



탕평비(비각)
영조 · 성균관 앞



상평통보
숙종 때 전국 유통



보은 법주사 팔상전
유일한 5층 목탑



구례 화엄사 각황전
숙종 · 17C 중층 건물



김제 금산사 미륵전
17C · 3층 불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17C · 2층 불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17C · 2층 불전



백두산 정계비
숙종(1712) · 서위압록 동위토문

진경산수화 · 풍속화



인왕제색도
정선 · 진경산수화



금강전도
정선



씨름
김홍도 · 서민 풍속



서당
김홍도



미인도
신윤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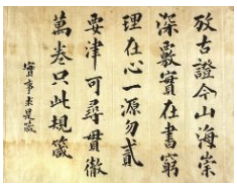


단오풍정
신윤복 · 여인 풍속

서예 · 지도 · 공예



세한도
김정희 · 제주 유배



추사체
김정희 글씨



대동여지도
김정호 · 10리 눈금



곤여만국전도
마테오 리치 · 세계관 확대



청화 백자
운룡문 항아리



민화(책거리)
서민의 소망·장식

■ 빈출 선지 체크 — 조선 후기

- □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비변사
- □ 이괄의 난 / 정묘호란 때 강화도 피란 인조
- □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 효종
- □ 상복 기간을 두고 예송이 발생 현종 (환국 = 숙종)
- □ 경신환국 등 환국, 금위영 창설, 백두산정계비 숙종
- □ 탕평비 건립, 『속대전』·『동국문헌비고』 편찬 영조
- □ 결작 부과, 군포 1필로 감면 균역법(영조)
- □ 초계문신제 실시, 장용영 창설 정조
- □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 출신 등용 정조
- □ 육의전 제외 금난전권 폐지 신해통공(정조)
- □ 공노비 해방, 신유박해, 홍경래의 난 순조
- □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등장 대동법 (균역법 X)
- □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현 조선 후기
- □ 송상·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 조선 후기
- □ 담배·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 □ 진주 농민 봉기 → 삼정이정청 설치 철종(임술 농민 봉기)
- □ 『성호사설』에서 한전론 주장 이익
- □ 『기기도설』 참고해 거중기 설계 정약용
- □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 홍대용
- □ 『열하일기』에서 수레·선박 필요성 /「양반전」 박지원
- □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 권장 박제가
- □ 양명학 연구, 강화학파 형성 정제두
- □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 고증, 세한도 김정희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웹사진/u6 폴더, 출처는 웹사진/u6/출처.json) / 우리역사넷(백두산 정계비, 웹사진/보충/출처.json)

조선 전기 16C 문화



사군자(매·난·국·죽)
16C 문화 · 선비의 절개를 담은 그림 (초충도와 함께)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영조**: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음 →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
- **정약용** 1표 2서 = 『경세유표』 + 『흠흠신서』·『목민심서』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 조선 전기

■ 정치 · 건국

- 정도전: 한양 도성 축조 계획, 경복궁·주요 전각 이름을 지음 / 태조와 요동 정벌 추진 → 명과 관계 약화
- 이방원: 두 차례 왕자의 난(1398·1400)으로 반대파 제거 → 태종 즉위
- 태종: 문하부 폐지 →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 / 호패법 목적 = 호구 파악·백성 유망 방지
- 『경국대전』 =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 체제

승정원	도승지를 비롯한 6승지
성균관	대사성 + 좨주·직강 등
장례원	노비 호적·소송 관장 → 노비를 국가가 관리
수령 7사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의무
향리	단안(향리 명부)에 등재
잡색군	유사시 향토방위를 맡는 예비군 (군사 = 양인 개병·농병일치 의무병)

■ 대외

- 4군 6진 개척 뒤 사민 정책(백성 이주) + 토관 제도(토착민을 관리로)
- 정묘호란: 후금이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침입

■ 사회

- 백정: 고려 = 일반 농민 / 조선 = 도축업 천민
- 의창 = 춘대추납(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둠) / 명종 『구황촬요』(기근 대비)
- 조선의 향도: 상장제례를 돕는 농민 공동체 / 두레: 공동 노동 작업 공동체

■ 문화

- 사액 서원: 왕에게 편액·서적을 하사받은 서원 (첫 사액 = 소수 서원)
-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고구려 천문도를 참고해 제작
- 경복궁 = 법궁 → 임진왜란 뒤 창덕궁이 법궁 역할 / 경복궁 동쪽 종묘(왕·왕비 신주), 서쪽 사직단(토지·곡식 신)
- 분청사기: 회색 태토 위를 백토로 꾸미고 유약을 씌워 구움
- 『성학십도』(이황) =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 『삼강행실도』 = 충신·효자·열녀를 글+그림으로
- 문학: 김시습 『금오신화』(최초 한문 소설) / 서거정 『동문선』 / 정철 「관동별곡」·「사미인곡」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 조선 후기

- 경신환국: 허적·윤휴 등 남인 축출
- 천주교: 조상 제사 거부 → 탄압 / 신유박해 때 황사영 백서 = 외국 군대 출병 요청
- 김장생 『가례집람』 = 예학 정리 / 박세당 『사변록』 = 경전 독자 해석
- 김정희 『금석과안록』: 북한산비 + 황초령비 = 진흥왕 순수비 고증
- 곤여만국전도: 선조 때 전래 / 김홍도 「타작」도 풍속화
- 한백겸 『동국지리지』: 삼한의 위치 고증
- 정약용 『아방강역고』: 우리 역사 지리 정리
- 이종휘 『동사』: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로 확대
- 정약전 『자산어보』: 유배지 흑산도 수산 생물 조사
- 청화백자 안료: 회회청·토청(코발트)

■ 흥선대원군의 개혁 (1863 고종 즉위 → 섭정)

왕권 강화	- 세도 정치 타파, 인재 고루 등용 - 비변사 혁파 → 의정부(행정)·삼군부(군사) 기능 부활 - ★경복궁 중건 → 비용 마련: 원납전(강제 기부금)·당백전 발행(물가 폭등)·도성 문세·결두전, 양반 묘지림 벌목·백성 부역 동원 → 민심 이반 - 법전: 『대전회통』·『육전조례』 편찬
민생 안정	- ★호포제: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호 단위) - 사창제: 환곡 폐단 시정, 마을 단위 운영 - 양전 사업, 삼정의 문란 시정
서원 정리	만동묘 철폐 → 전국 47개 서원만 남기고 철폐 (양반·유생 반발, 최익현 탄핵 상소 → 1873 하야)

■ 통상 수교 거부 정책

병인박해 1866.1	러시아 남하 견제 위해 프랑스 선교사 접촉 → 실패 → 천주교 탄압(프랑스 선교사 9명·신자 처형)
제너럴 셔먼호 1866.7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서 통상 요구·행패 → 평양 관민이 불태움 (평안 감사 박규수) ⇒ 신미양요 구실
★병인양요 1866.9	병인박해 구실로 프랑스(로즈 제독) 강화도 침략 -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승리 - 철수하며 외규장각 도서(의궤) 약탈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묘(덕산) 도굴 시도 → 서양 배척 강화
★신미양요 1871	제너럴셔먼호 구실로 미국(로저스) 강화도 침략 → 초지진·덕진진 점령 - 어재연 광성보 전투 → 전사, 수자기 빼앗김
척화비 1871	신미양요 후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 건립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

■ 위정척사 운동 (성리학 수호, 서양·일본 배척)

1860년대	이항로·기정진 — 통상 반대, 척화 주전론 → 흥선대원군 정책 지지
1870년대	최익현 — 왜양일체론(일본 = 서양), 개항 반대 (도끼 들고 상소)
1880년대	이만손 영남 만인소 —『조선책략』유포 반발, 미국 수교 반대 / 홍재학 만언척사소
1890년대	을미사변·단발령 → 을미의병(유인석·이소응) —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

■ ★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1876)

- 배경: 고종 친정·민씨 정권, 박규수·오경석 통상 개화론 / 운요호 사건(1875)
- 내용: 조선은 자주국(청의 종주권 부인 → 일본 침략 발판) / 부산·원산·인천 개항 (부산 1876 → 원산 1880 → 인천 1883) / 해안 측량권 /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 성격: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수호 조규 부록	개항장 일본인 거류지(조계) 설정(10리 이내 활동), 일본 화폐 유통
조일 무역 규칙	양곡 무제한 유출, 무관세, 일본 선박 항세 면제
개정 통상 장정(1883)	관세 설정, 방곡령 규정(1개월 전 통보), 최혜국 대우 → 1889 함경도(조병식)·황해도 방곡령 → 일본이 배상 요구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 배경: 2차 수신사 김홍집이 황쭌셴의 『조선책략』 들여옴 (러시아 견제 → 친중국·결일본·연미국) + 청(이홍장) 알선
- 내용: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 거중 조정,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최초), 관세 조항(관세 자주권 최초 인정)
- 결과: 보빙사 파견(1883, 민영익·홍영식·유길준)

■ 기타 조약

조약	내용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	임오군란 후, 청 상인 내지 통상권,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명시
조영·조독(1882~83) 조러(1884)	청 알선(영·독) / 러시아는 직접 수교
조프(1886)	천주교 포교 인정

■ 개화 정책 (1880년대 민씨 정권)

기구	★통리기무아문(1880, 개화 총괄) + 12사
군사	5군영 → 2영(무위영·장어영) / 별기군(1881, 신식 군대, 일본인 교관)
수신사 일본	1차 김기수(1876, 강화도 조약 후) / 2차 김홍집(1880,『조선책략』)
조사 시찰단 일본	1881, 박정양·어윤중·홍영식 등 — 위정척사 반발로 비밀리 파견(신사 유람단)
영선사 청	1881, 김윤식 — 톈진에서 무기 제조 기술 학습 → 임오군란으로 조기 귀국 → 기기창(1883)
보빙사 미국	1883, 민영익·홍영식·유길준 → 유길준 미국 유학 →『서유견문』

■ ★ 임오군란 (1882)

- 원인: 구식 군인 차별 대우(별기군과 차별, 13개월 밀린 급료·겨 섞인 쌀)
- 전개: 선혜청·일본 공사관 습격, 민씨 세력 공격 → 도시 하층민 합세 → 흥선대원군 재집권(별기군·통리기무아문 폐지) → 청군 개입으로 진압, 흥선대원군 톈진 압송
- 결과: 민씨 재집권, 청의 내정 간섭 심화 (마젠창·묄렌도르프 고문, 위안스카이 군대 주둔)
  제물포 조약(조-일): 배상금,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청 상인 내지 통상권 허용

■ ★ 갑신정변 (1884)

- 배경: 청의 간섭·온건 개화파 득세, 청군 일부 철수(청프 전쟁), 일본 지원 약속
- 주도: 급진 개화파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재필 (박규수의 제자들)
- 전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 → 개화당 정부 → 14개조 정강 → 청군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 김옥균 등 일본 망명

> **14개조 정강**: 청에 대한 사대 폐지(흥선대원군 귀국) / 문벌 폐지·인민 평등권 / 지조법 개혁 / 호조로 재정 일원화 / 혜상공국 혁파 / 내각 중심 정치(입헌 군주제 지향)

- 결과: 한성 조약(조-일): 배상금, 일본 공사관 신축비 부담
  톈진 조약(청-일): 양국 군대 철수, 파병 시 서로 통보 → 동학 농민 운동 때 일본 파병 근거
- 한계: 일본에 의존, 민중 지지 부족 / 의의: 최초의 근대 국가 수립 시도

■ 갑신정변 이후

- ★거문도 사건(1885~1887): 조러 비밀 협약설 → 영국이 러시아 견제 위해 거문도 불법 점령 → 청 중재로 철수
- 한반도 중립화론: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유길준
- 청·일 상인 경쟁 심화 → 조선 상인 타격 / 일본 곡물 유출 → 방곡령(1889)

■ 을미사변 · 아관 파천

- 청일 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삼국 간섭(러·프·독, 요동 반환) → 조선 친러 정책
- 을미사변(1895): 일본 공사 미우라가 명성 황후 시해 → 을미개혁 → 을미의병
- 아관 파천(1896):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 옮김 → 친러 내각, 단발령 철회 / 열강 이권 침탈 심화

■ ★ 동학 농민 운동 (1894)

고부 농민 봉기 1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수세) → 전봉준 고부 관아 습격 →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1차 봉기 3~5월	- 무장 봉기 → 백산 집결, 4대 강령·격문 (보국안민·제폭구민) - 황토현 전투(전라 감영군)·황룡촌 전투(경군 홍계훈) 승리 - 전주성 점령 → 정부 청에 원병 요청 → 청군 아산 상륙 + 일본군 인천 상륙(톈진 조약)
전주 화약 5월	- ★전주 화약 → 농민군 자진 해산 - 농민군: 전라도에 집강소 설치 → 폐정 개혁안 실천 - 정부: 교정청 설치(자주적 개혁 기구)
2차 봉기 9~11월	- 일본군 경복궁 점령 → 청일 전쟁 발발 - 삼례 재봉기, 목표 = 반외세(일본군 축출) - 남접(전봉준) + 북접(손병희) 논산 집결 →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 전봉준 체포·처형(1895)

> **폐정 개혁안**: 탐관오리·횡포한 부호 엄징 / 노비 문서 소각 / 칠반천인 대우 개선·백정 평량갓 폐지 / 과부 재가 허용 / 무명잡세 폐지 / 왜와 통하는 자 엄징 / 토지 평균 분작
> → 반봉건(1차 중심)·반외세(2차 중심) /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 잔여 세력은 을미의병·활빈당·영학당으로

■ ★ 갑오 · 을미개혁 비교

1차 갑오개혁 (1894.6)	2차 갑오개혁 (1894.12)	을미개혁 (1895.8, 3차)
군국기무처 주도 김홍집 내각, 흥선대원군 섭정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군국기무처 폐지	을미사변 후 친일 김홍집 내각
- 개국 기년 사용 - 궁내부·의정부 분리 - 6조 → 8아문 - 과거제 폐지 -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 은 본위제, 도량형 통일, 조세 금납화 - 공사 노비법 혁파 -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연좌제·고문 폐지	- 홍범 14조 반포(고종, 종묘 독립 서고문) - 의정부 → 내각, 8아문 → 7부 - 8도 → 23부(337군) - 재판소 설치(사법권 분리) - 훈련대 설치 - 교육 입국 조서 → 한성사범 학교	- 단발령 - '건양' 연호 - 태양력 사용 - 친위대(중앙)·진위대(지방) - 종두법 실시 → 아관 파천으로 중단

★ 홍범 14조: 청 의존 관계 청산, 왕실 사무와 국정 분리, 탁지아문 재정 일원화, 조세 법률화, 문벌 폐지·인재 등용

■ ★ 독립 협회 (1896~1898)

-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1896) → 독립 협회 창립
- 독립문 건립(영은문 자리) / 독립관(모화관 고쳐 토론회장)
- ★만민 공동회(1898): 러시아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 은행 폐쇄, 러시아 군사·재정 고문 철수
- 관민 공동회: 헌의 6조 결의 → 고종 재가 (외국 이권 계약 시 대신·중추원 합의, 재정 탁지부 일원화 등)
- 중추원 개편 → 의회 설립 추진(입헌 군주제 지향)
- 해산: 보수 세력이 공화정 수립 모함 → 황국 협회(보부상) 공격 → 1898 해산

■ ★ 대한 제국 · 광무개혁

- 고종 경운궁 환궁(1897) →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 국호 대한 제국, 연호 광무(1897)
- 대한국 국제(1899): 황제권 무한(전제 군주제) 명시
- 원칙: 구본신참(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
- 군사: ★원수부(황제가 군대 직접 통솔), 시위대·진위대 증강
- 경제: 양지아문 → ★지계아문 — 지계 발급(근대적 토지 소유권 증명) / 상공업 진흥, 실업 학교, 한성 전기 회사
- 영토: 간도 관리사 이범윤(1903), 칙령 제41호(1900, 울릉도 → 울도군, 석도(독도) 관할)

■ ★ 국권 피탈 과정

한일 의정서 1904.2	러일 전쟁 중 — 군사 요지 임의 사용
1차 한일 협약 1904.8	고문 정치: 메가타(재정)·스티븐스(외교)
열강 승인: 가쓰라-태프트 밀약(미) → 2차 영일 동맹(영) → 포츠머스 조약(러)	
을사늑약 1905.11	(2차 한일 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이토 히로부미)
헤이그 특사 1907.6	이준·이상설·이위종 → 만국 평화 회의 → 고종 강제 퇴위(순종 즉위)
정미 7조약 1907.7	(한일 신협약) 차관 정치 + 부속 밀약 → 군대 해산(1907.8)
기유각서 1909	사법권·감옥 사무 박탈 → 경찰권 박탈(1910.6)
한국 병합 1910.8	국권 피탈(경술국치) → 조선 총독부

■ 항일 의병 운동

을미의병 1895	을미사변·단발령 → 유생 중심(유인석·이소응) → 아관 파천 후 고종 해산 권고로 해산
을사의병 1905	을사늑약 → 최익현(태인, 쓰시마 유배 순국), 민종식(홍주성), 신돌석(평민 의병장, 태백산 호랑이)
정미의병 1907	고종 강제 퇴위·군대 해산 → 해산 군인 합류(전투력 강화) ★13도 창의군(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 서울 진공 작전(1908), 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 교전 단체 인정 요구 →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1909) → 만주·연해주로

의거: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1909) / 장인환·전명운 스티븐스 사살(1908) / 을사늑약 반대 — 민영환 자결, 나철·오기호 5적 암살단

■ 애국 계몽 운동

보안회 1904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헌정 연구회 1905	입헌 정체 수립 목표
대한 자강회 1906	교육·산업 진흥,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 해산
신민회 1907	안창호·양기탁, 비밀 결사, 공화정체 목표 - ★대성 학교(평양)·오산 학교(정주), ★태극 서관·자기 회사 - 남만주 삼원보 독립운동 기지(신흥 강습소) - 105인 사건(1911)으로 해체

■ 경제 침탈과 구국 운동

- 방곡령(1889): 함경도·황해도, 곡물 유출 막음 → 일본 배상 요구
- ★황국 중앙 총상회(1898): 시전 상인, 상권 수호 운동
- 화폐 정리 사업(1905): 메가타, 백동화 → 일본 제일 은행권 → 국내 상인 타격
- ★국채 보상 운동(1907): 대구, 서상돈·김광제 발의 →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지원 → 통감부 방해(양기탁 횡령 누명)
- 동양 척식 주식회사(1908): 토지·자원 수탈

■ 간도 · 독도

- 간도: 백두산정계비(숙종) '토문강' 해석 분쟁 → 이범윤 파견 → 간도 협약(1909, 청-일): 일본이 안봉선 부설권 받고 청에 넘김
- 독도: 칙령 제41호(1900) → 러일 전쟁 중 일본 시마네현 고시(1905)로 불법 편입

■ 근대 문물

교육	원산학사(1883, 최초 근대 사립) / ★육영 공원(1886, 최초 근대 관립, 헐버트·길모어) / 배재 학당·이화 학당(선교사) / 교육 입국 조서(1895)
언론	★한성순보(1883, 박문국, 순한문, 열흘) / 한성주보(국한문, 최초 상업 광고) / 독립신문(1896, 서재필, 한글·영문) / 황성신문(1898, 국한문,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 제국신문(순한글) / 대한매일신보(1904, 베델·양기탁, 국채 보상 지원) / 만세보(천도교)
시설	박문국(인쇄) · 전환국(화폐, 당오전·백동화) · 기기창(무기, 영선사 후) · 우정총국(1884) · 광혜원(1885, 알렌) → 제중원
교통·통신	전차(1899, 한성 전기 회사, 서대문~청량리) / 철도 경인선(1899) → 경부선(1905) → 경의선(1906) / 전신·전등(경복궁)
기타	명동 성당·덕수궁 석조전 / 원각사(1908, 「은세계」) / 국문 연구소(1907, 주시경·지석영)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 **순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

흥선 대원군 · 양요

대원군

고종 즉위
1863 · 흥선 대원군 집권
→ **왕권 강화**
비변사 혁파 · 경복궁 중건
(당백전·원납전) · 『대전회통』
→ **민생 개혁**
서원 정리 · 호포제 · 사창제
→ **병인박해**
1866 · 천주교 탄압 →

제너럴셔먼호
1866 · 평양 · 박규수
→ **병인양요**
1866 · 프랑스 · 한성근·양헌수
외규장각 의궤 약탈
→ **오페르트 도굴**
1868 · 남연군 묘
→ **신미양요**
1871 · 미국 · 어재연
광성보 · 수자기
→ **척화비 건립**
1871 · 통상 수교 거부

개항 · 개화 정책 · 위정척사

개항

대원군 하야
1873 · 고종 친정
→ **운요호 사건**
1875
→ **강화도 조약**
1876 · 부산·원산·인천
해안 측량권 · 치외 법권
→ **부록 · 무역 규칙**
일본 화폐 · 양곡 무제한
무관세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 『조선책략』 영향
최혜국 대우 · 거중 조정 →

영·독·러·프와 조약
1883~1886

개화 정책

1차 수신사
1876 · 김기수
→ **2차 수신사**
1880 · 김홍집
『조선책략』 들여옴
→ **통리기무아문 · 별기군**
1880~1881
→ **조사 시찰단**
1881 · 일본 · 비밀리
→ **영선사**
1881 · 청 · 김윤식
→ 기기창 →

보빙사
1883 · 미국 · 민영익

위정척사

1860s 통상 반대
이항로 · 기정진
→ **1870s 개항 반대**
최익현 · 왜양일체론
→ **1880s 개화 반대**
이만손 영남 만인소
(『조선책략』 반발)
→ **1890s 항일 의병**
을미의병

임오군란 → 갑신정변

임오 군란

임오군란
1882 · 구식 군대 차별
(별기군과 비교)
→ **흥선 대원군 재집권**
→ 청군이 납치
→ **제물포 조약**
일본 · 공사관 경비병 주둔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청 상인 내륙 진출
청 간섭 심해짐

갑신 정변

갑신정변
1884 · 김옥균 · 우정총국
14개조 정강
→ **3일 만에 실패**
청군 개입
→ **한성 조약 · 톈진 조약**
조↔일 배상 / 청↔일
군대 동시 철수·파병 통보
→ **거문도 사건**
1885~1887 · 영국
(러시아 견제)
→ **한반도 중립화론**
부들러 · 유길준 →

방곡령
1889 · 함경도 조병식
일본 쌀 유출 막기

한 줄 총정리 — 흥선 대원군 → 병인박해 → 제너럴셔먼호 → **병인양요** → 오페르트 → **신미양요** → 척화비 → 운요호 → **강화도 조약(1876)** → 수신사 → 『조선책략』 → **조미 조약·임오군란(1882)** → 제물포 조약·조청 장정 → **갑신정변(1884)** → 톈진 조약 → 거문도 사건 → 방곡령(1889)

동학 농민 운동 → 갑오개혁 → 대한 제국

동학 농민 운동

교조 신원 운동 (삼례 · 보은 집회) → 고부 봉기 (1894.1 · 조병갑 수탈) → 1차 봉기 (백산 격문 · 황토현 · 황룡촌 승리) → 전주성 점령 (→ 청·일 군대 들어옴) → 전주 화약 (집강소 설치) →

일본 경복궁 점령 (→ 청일 전쟁) → 2차 봉기 (남접 + 북접 논산 집결) → 우금치 패배 (→ 전봉준 체포)

개혁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 과거제·신분제 폐지 · 공사 노비법 혁파) →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 8도 → 23부 · 재판소 · 교육 입국 조서) → 삼국 간섭 (1895 · 러·프·독) → 을미사변 (1895 · 명성 황후 시해) → 을미개혁 (단발령 · 태양력 · '건양' 연호) →

을미의병 (유인석 · 이소응) → 아관 파천 (1896 · 러시아 공사관)

독립 협회 · 대한 제국

독립 협회 (1896 · 서재필 『독립신문』 · 독립문) → 대한 제국 (1897 · 환구단 · '광무') → 만민 · 관민 공동회 (1898 · 헌의 6조 · 중추원 개편(의회식)) → 독립 협회 해산 (1898 · 황국 협회 습격) → 대한국 국제 (1899 · 황제권 무한) →

광무개혁 (구본신참 · 양전·지계 · 원수부)

국권 피탈 과정 (조약 순서)

조약

러일 전쟁 (1904.2) → 한일 의정서 (1904.2 · 군사 요지 사용) → 1차 한일 협약 (1904.8 · 고문 정치 · 메가타(재정)·스티븐스(외교)) → 일본 독점 인정 (1905 · 가쓰라·태프트 밀약 · 2차 영일 동맹 · 포츠머스) → 을사늑약 (1905.11 · 외교권 박탈 · 통감부(이토)) →

헤이그 특사 (1907 · 이준·이상설·이위종 → 고종 강제 퇴위)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 차관 정치 · 군대 해산) → 기유각서 (1909 · 사법권) → 경찰권 박탈 (1910.6) → 국권 피탈 (1910.8)

국권 수호 운동

의병

을미의병 (1895 · 을미사변·단발령 · 유인석 · 이소응) → 을사의병 (1905 · 민종식 · 최익현 · 신돌석(평민 의병장)) → 정미의병 (1907 · 해산 군인 합류 → 전투력 ↑) → 서울 진공 작전 (1908 · 13도 창의군 · 이인영 · 허위) → 남한 대토벌 (1909) →

만주 · 연해주로 (독립군 기반)

애국 계몽

보안회 (1904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 헌정 연구회 (1905 · 입헌 정치) → 대한 자강회 (1906 · 고종 퇴위 반대로 해산) → 신민회 (1907 · 비밀 결사 · 안창호·양기탁 · 대성·오산 학교 · 공화정) → 105인 사건 (1911 · 신민회 해체)

경제 구국

방곡령 (1889) → 황국 중앙 총상회 (1898 · 시전 상인 상권 수호) → 이권 수호 (독립 협회 · 절영도 조차 저지) → 국채 보상 운동 (1907 · 대구 · 서상돈 · 대한매일신보 후원)

한 줄 총정리 — 고부 봉기 → 전주 화약 → **1차 갑오개혁** → 2차 봉기·우금치 → 홍범 14조 → 삼국 간섭 → **을미사변** → **을미개혁** → **아관 파천(1896)** → 독립 협회 → **대한 제국(1897)** → 대한국 국제(1899) → 러일 전쟁 → 한일 의정서 → 1차 한일 협약 → **을사늑약(1905)** → 헤이그 특사 → **정미 7조약(1907)** → 기유각서 → **국권 피탈(1910)**

흥선대원군 · 개항 · 개화



척화비
1871 · 신미양요 후



강화 광성보
신미양요 · 어재연



어재연 수자기
1871 · 미군이 빼앗음



운요호
1875 · 강화도 조약 계기



우정총국
1884 · 갑신정변



원산학사
1883 · 최초 근대 사립

동학 · 독립 협회 · 대한 제국



압송되는 전봉준
1895 · 동학 농민 운동



독립문
독립 협회 · 영은문 자리



『독립신문』
1896 · 서재필 · 한글판



환구단(황궁우)
1897 · 황제 즉위



덕수궁 석조전
대한 제국 · 서양식 건물



제중원
1885 · 광혜원 → 제중원

국권 피탈과 저항 · 근대 문물



헤이그 특사
1907 · 이준·이상설·이위종



정미의병
1907 · 매켄지 촬영



『대한매일신보』
1904 · 베델·양기탁



전차
1899 · 한성 전기 회사



경복궁 근정전
흥선대원군 중건

개화기 인물



박규수
통상 개화론



최익현
왜양일체론·을사의병



박정양
조사 시찰단·초대 주미 공사



김옥균
갑신정변



전봉준
동학 농민 운동



서재필
독립신문·독립 협회



이상설
헤이그 특사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신민회

■ 빈출 선지 체크 — 개화기

- □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 위해 원납전 발행 흥선대원군
- □ 호포제 시행,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흥선대원군
- □ 외규장각 도서 약탈, 양헌수 정족산성 병인양요
- □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움 1866
- □ 광성보에서 어재연 부대 항전 신미양요 (병인양요 X)
- □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강화도 조약
- □ 개화 정책 총괄 기구 통리기무아문 설치 1880
- □ 김윤식이 영선사로 청에 파견 1881
- □ 구식 군인 차별 대우가 발단, 청군 개입 진압 임오군란
- □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 한성 조약 갑신정변
- □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 1885
- □ 집강소 중심 폐정 개혁 실천 동학 농민 운동
- □ 군국기무처 설치, 공사 노비법 혁파 1차 갑오개혁
- □ 홍범 14조 반포, 8도 → 23부 2차 갑오개혁
- □ 건양 연호, 태양력, 단발령 을미개혁
- □ 만민 공동회, 헌의 6조, 중추원 개편 독립 협회
- □ 시전 상인이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중앙 총상회(1898)
- □ 지계아문에서 지계 발급,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 (갑오개혁 X)
-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보안회
- □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주도 대한 자강회
- □ 태극 서관·대성 학교, 105인 사건 신민회
- □ 13도 창의군 결성, 서울 진공 작전 정미의병
- □ 국채 보상 운동 확산 기여, 베델·양기탁 대한매일신보
- □ 박문국에서 순한문 발행 한성순보(1883) / 육영 공원 1886

사진 출처: 한능검 인물사·지역사(원본사진 폴더) / 위키미디어 공용(웹사진/u7 폴더, 출처는 웹사진/u7/출처.json)

족보 개화기 쪽(7~8쪽)은 손필기 흐름도뿐이라 새 사진은 없다. 우리 노트에 없던 내용만 모았다.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애국 계몽 운동의 바탕 사상

사회 진화론(약육강식·적자생존) → "힘을 길러야 산다"
→ 교육 · 언론 · 식산 흥업(산업 일으키기)으로 실력 양성

■ 경제 구국 운동 — 두 갈래

상권 수호	시전 상인 → 황국 중앙 총상회(1898)
이권 수호	독립 협회 —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 근대 시설 — 생긴 순서

한성순보(1883) → 광혜원(1885) → 한성주보(1886)
→ 경복궁 전등(1887) → 전차·경인선(1899)

우리 노트에는 「전신·전등(경복궁)」만 있고 연도가 없었다.

■ 교육

- 1895 소학교령 → 소학교 세움 (족보는 을미개혁 칸에 정리)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최태성 별채우기 28~33강 중 우리 노트에 없던 것)

■ 동학 — 농민 운동 이전

- 동학교도가 공주·삼례에 모여 교조 신원 운동 (처형된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 개혁 때 세운 학교·병원

2차 갑오개혁	교육 입국 조서 → 한성 사범 학교 + 외국어 학교 관제 마련
광무개혁	관립 실업 학교 상공 학교 / 관립 의학교 / 국립 병원 광제원

■ 국권 피탈에 맞선 저항 — 더 알 것

- 최익현: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 = 지부복궐척화의소 (왜양일체론)
- 나철·오기호: 을사오적 처단 위해 자신회 조직 (5적 암살단)
- 13도 창의군: 양주에 집결 → 서울 진공 작전
- 서울 진공 실패 뒤에도 호남 의병이 계속 싸움 → 일본군 남한 대토벌 작전

■ 경제 — 열강의 이권 침탈

러시아	압록강·두만강·울릉도 삼림 채벌권 + 절영도 조차 요구
미국	운산 금광 채굴권, 경인선 철도 부설권

아관 파천 뒤 열강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내세워 이권 침탈 본격화

■ 경제 — 우리 상인의 대응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뒤 청 상인 내지 진출 → 객주·여각 등 국내 중간 상인 위축
- 외국 상인 상권 침탈에 맞서 상회사 설립 — 대동 상회·장통 회사
- 황국 중앙 총상회: 시전 상인이 철시 투쟁(가게 문 닫기)

■ 언론 — 더 알 것

제국신문	순 한글 — 서민·부녀자가 주 독자
경향신문	천주교가 발간, 민중 계몽 (1959 폐간된 경향신문과 헷갈리지 말 것)
신문지법	1907 통감부 강요로 제정 → 언론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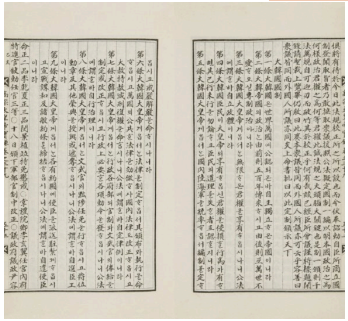
■ 근대 학교 — 세운 사람

원산학사	1883 함경도 덕원부 관민이 합심해 세움
배재 학당	선교사 아펜젤러
이화 학당	선교사 스크랜턴 — 여성 교육
오산 학교	이승훈, 평안도 정주 (대성 학교 = 안창호, 평양)

■ 문학 · 역사 · 기타

- 신소설 「금수회의록」 /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0년대 이후)
- 신채호 「독사신론」 —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최초의 합법적 이민

빠졌던 사진 — 대한 제국 · 경제 구국 운동



대한국 국제(1899)
법규교정소 · 황제권 무한(전제 군주제) 명시



국채 보상 의연금 영수증
1907 대구 · 서상돈·김광제 → 대한매일신보 후원

사진 출처: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 웹사진/보충/출처.json

■ 시기별 통치 방식 비교 (★ 시기 구분 문제 = 법령·정책 이름으로 시기 맞히기)

구분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배경	국권 피탈(1910) → 조선 총독부 설치 (총독 = 현역 육·해군 대장, 입법·사법·행정·군대 통수권) / 중추원 (자문 기구, 형식적)	3·1 운동(1919) 계기로 통치 방식 전환 → 실제로는 친일파 양성·민족 분열 통치	대공황 → 만주 사변(1931) → 중일 전쟁(1937) → 태평양 전쟁(1941) : 침략 전쟁 확대
통치	★헌병 경찰 — 헌병이 경찰 업무, 즉결 처분권(범죄 즉결례) ★조선 태형령(1912) — 한국인에게만 태형 관리·교원도 제복 착용·칼 착용 언론·집회·결사 자유 박탈, 신민회 탄압(105인 사건, 1911)	보통 경찰로 전환 → 경찰 수·장비·예산은 오히려 증가 ★치안 유지법(1925) — 사회주의·독립운동 탄압 문관 총독 임명 가능 (실제 임명 X) /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자문 기구) 조선일보·동아일보 발행 허가 (검열·정간·폐간)	내선일체·일선동조론 → 황국 신민화 정책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 신사 참배, 궁성 요배, 창씨개명(1940) 국민학교(1941, 소학교 → 국민학교),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1940)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경제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임시 토지 조사국, 기한부 신고제 → 미신고지·공공 토지 총독부 소유 →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불하, 농민 관습적 경작권 부정 ★회사령(1910) — 회사 설립 허가제 삼림령·어업령·광업령, 전매(인삼·소금·담배)	★산미 증식 계획(1920~1934) — 일본 쌀 부족 해결 → 증산량보다 많은 쌀 반출, 수리 조합비·비료 대금 농민 부담, 만주 잡곡 수입 회사령 폐지(1920) → 신고제, 일본 자본 진출 관세 철폐(1923) (일본 상품 관세 폐지 → 물산 장려 운동 배경)	병참 기지화 정책 — 북부 지방 중화학 공업·군수 공업 ★남면북양 정책(남쪽 면화·북쪽 양), 농촌 진흥 운동(1932~1940), 조선 농지령(1934) ★국가 총동원법(1938) → 인적·물적 수탈 미곡 공출·식량 배급, 금속류 회수, 애국반, 몸뻬 착용

■ 전시 인력 수탈 (1930년대 후반~)

병력	육군 특별 지원병제(1938) → 학도 지원병제(1943) → 징병제(1944)
노동력	국민 징용령(1939) → 광산·군수 공장·공사장으로 강제 동원
여성	여자 정신 근로령(1944) → 군수 공장 동원 /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 → 인권 유린, 오늘날 사과·배상 문제

시기 구분 한 줄
태형령·헌병·회사령·토지 조사 → 1910년대
보통 경찰·치안 유지법·산미 증식·회사령 폐지 → 1920년대
남면북양·총동원법·창씨개명·징용·징병 → 1930~40년대

■ 경제 수탈 결과

- 토지 조사 사업 → 총독부 최대 지주, 소작농 증가·만주·연해주 이주
- 산미 증식 → 식량 사정 악화, 쌀 단작화 → 소작 쟁의 증가
- 1930년대 농촌 진흥 운동: 농민 자력갱생 강조 → 농민 통제 목적

■ 조선 교육령 (1~4차)

1차 1911	우민화 교육 — 보통학교 수업 연한 4년, 실업 교육·일본어 교육 중심 / 사립 학교 규칙, 서당 규칙(1918)으로 민족 교육 억압
2차 1922	보통학교 6년(일본과 같게), 조선어 필수 과목, 대학 설립 규정 → ★경성 제국 대학(1924)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무산 목적)
3차 1938	황국 신민화 교육 — 조선어 선택(수의) 과목, 보통학교 → 소학교 명칭 변경 → 1941 국민학교령
4차 1943	전시 교육 — 조선어 교육 폐지, 수업 연한 단축, 학생 근로 동원

■ 1920년대 '문화 통치'의 실상

- 보통 경찰 → 경찰서·경찰 인원 증가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 신문 허가 → 검열·기사 삭제·정간
- 교육 기회 확대 → 초등·실업 교육 위주
- 참정권 허용? → 도 평의회 등은 자문 기구일 뿐, 친일 인사 선출
- 본질: 친일파 양성, 민족 분열 통치

■ 민족 말살 통치 정리

- 우리말·역사 교육 금지, 조선어 학회 사건(1942)
- 황국 신민 서사 · 신사 참배 · 궁성 요배 · 창씨개명 · 국민학교 · 내선일체
- 전쟁 동원: 공출 · 징용 · 징병 · 정신대 · 위안부 · 애국반

■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독립 의군부	임병찬(1912), 고종의 밀명 — 복벽주의(왕정 복고) /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 → 1914 발각
★대한 광복회	박상진(1915, 대구), 군대식 조직 /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목표 / 군자금 모금, 친일 부호 처단
조선 국권 회복단	1915 대구 — 경북 유생·지식인, 단군 신앙 바탕, 국외 독립운동 자금 지원 → 3·1 운동 참여
기타	송죽회(평양 여성), 조선 국민회(평양 숭실 학교) / 105인 사건(1911)으로 신민회 해체

■ 국외 독립운동 기지

서간도 (삼원보)	★신민회 이회영·이상룡 → 경학사(한인 자치, 1911) → 부민단 → 한족회 / 신흥 강습소 → 신흥 무관 학교 → 서로 군정서
북간도 (용정)	★서전서숙(1906, 이상설) · 명동 학교(1908, 김약연) / 중광단(대종교, 서일) → 북로 군정서
밀산부	한흥동(이상설·이승희)
연해주 (신한촌)	★권업회(1911, 권업신문) → 대한 광복군 정부(1914, 이상설·이동휘) → 대한 국민 의회(1919,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 개편, 손병희 대통령 추대)
상하이	동제사(신규식) / 대동 단결 선언(1917): 공화정 주장 / 신한 청년당(1918, 여운형) →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
미주	대한인 국민회(1910, 샌프란시스코), 흥사단(1913, 안창호) / 대조선 국민 군단(1914, 하와이, 박용만) / 멕시코 숭무 학교
일본	도쿄 유학생 조선 청년 독립단 → 2·8 독립 선언(1919)

■ ★ 3·1 운동 (1919)

- 배경: 윌슨 민족 자결주의, 고종 서거(독살설) / 대한(무오) 독립 선언, 2·8 독립 선언(도쿄)
- 전개: 민족 대표 33인 태화관에서 기미 독립 선언서 낭독 → 탑골 공원 학생·시민 만세 → 도시 → 농촌으로 확산, 비폭력 → 무력 저항으로 변화
- 국외 확산: 간도(용정), 연해주, 미국 필라델피아(한인 자유 대회, 서재필)
- 탄압: 제암리 학살(화성) / 유관순(천안 아우내 장터) 옥사

3·1 운동의 의의·영향

- 모든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 민족 운동
- ★일제 통치 방식 변화 → 이른바 문화 통치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계기 (조직적 독립운동 필요)
- 중국 5·4 운동, 인도 비폭력 운동 등에 영향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 수립(1919): 대한 국민 의회(연해주) + 한성 정부(서울) + 상하이 임시 정부 → 상하이 통합 정부
-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 3권 분립 /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국내 연결	★연통제(비밀 행정 조직), 교통국(통신 기관, 이륭양행) → 자금·정보 수집
자금	★독립 공채 발행, 의연금 모금
외교	파리 위원부(김규식), 구미 위원부(워싱턴, 이승만)
문화	『독립신문』 발행, 사료 편찬소 『한·일 관계 사료집』
군사	육군 주만 참의부(직할 부대), 서로·북로 군정서 관할

■ 시련과 변화

- 연통제·교통국 발각, 외교 성과 X, 이승만 위임 통치 청원 → 갈등
- ★국민 대표 회의(1923, 상하이): 창조파(임정 해체·새 정부, 신채호 등) vs 개조파(임정 개편, 안창호 등) → 결렬 → 많은 인사 이탈
- 1925 이승만 탄핵 → 박은식 2대 대통령 →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 1927 국무 위원 중심 집단 지도 체제
- 1931 김구 한인 애국단 조직 → 이봉창·윤봉길 의거
- 윤봉길 의거 후 상하이 떠나 이동 → 충칭 정착(1940)

■ 충칭 시기 (1940~)

- 한국 독립당 결성, 주석 중심제(김구) → 1944 주석·부주석(김구·김규식)
- ★한국 광복군 창설(1940) — 총사령관 지청천
- ★대한민국 건국 강령(1941) — 조소앙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 균등)
- 태평양 전쟁 발발 → 대일 선전 포고(1941)

흐름: 이승만(대통령) → 박은식(대통령) → 김구(주석)

■ ★ 1920년대 만주 무장 투쟁 순서

봉오동 전투(1920.6, 홍범도 대한 독립군 + 군무 도독부 + 국민회군)
→ 청산리 전투(1920.10, 김좌진 북로 군정서 + 홍범도, 백운평·어랑촌)
→ 간도 참변(경신참변, 1920, 한인 학살)
→ 대한 독립 군단(서일, 밀산) → 자유시 참변(1921, 러시아 적군)
→ 3부: 참의부(1923, 임정 직할)·정의부(1924)·신민부(1925)
→ 미쓰야 협정(1925, 총독부-만주 군벌) → 통합 운동
→ 혁신 의회(북만주) · 국민부(남만주)

■ 1930년대 이후 무장 투쟁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북만주(혁신 의회 → 한국 독립당) / 중국 호로군과 연합 → 쌍성보·대전자령·동경성 전투
★조선 혁명군	양세봉, 남만주(국민부 → 조선 혁명당) / 중국 의용군과 연합 → 영릉가·흥경성 전투
★조선 의용대	김원봉, 1938 우한 —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부대(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 일부 화북 이동, 나머지 한국 광복군 합류(1942)
동북 항일 연군	중국 공산당 주도 + 한인 참여 → 보천보 전투(1937, 함경도)
조선 의용군	화북 — 조선 독립 동맹(김두봉) 군사 조직(1942), 중국 팔로군과 항일전
★한국 광복군	1940 충칭, 총사령관 지청천 / 영국군 요청 인도·미얀마 전선 파견 / 미국 OSS와 국내 진공 작전 준비 → 일본 항복으로 무산

■ ★ 의열 투쟁

- 의열단(1919, 만주 지린, 김원봉) — 지침 조선 혁명 선언(1923, 신채호): 민중 직접 혁명, 외교론·준비론 비판
  - 박재혁(부산 경찰서), 김익상(조선 총독부), 김상옥(종로 경찰서), 김지섭(도쿄 궁성), 나석주(동양 척식 주식회사·식산 은행)
  - 이후 황푸 군관 학교 입교 →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난징) → 민족 혁명당(1935)
- 한인 애국단(1931, 상하이, 김구, 임정 산하) — 이봉창(1932.1 도쿄, 일왕 행렬 폭탄) · 윤봉길(1932.4 상하이 훙커우 공원)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정 지원

■ 국학 운동

국어	조선어 연구회(1921) — 가갸날, 잡지 『한글』 → 조선어 학회(1931) — 한글 맞춤법 통일안·표준어, 『조선말 큰사전』 편찬 시도 → 조선어 학회 사건(1942) 해산
민족주의 사학	신채호(『조선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 박은식(『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혼) / 정인보(얼, 조선학 운동)
사회 경제 사학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 세계사 보편 법칙, 정체성론 반박
실증 사학	진단 학회(1934, 이병도·손진태), 『진단학보』

■ 실력 양성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평양 조만식(1920) → 서울 전국화(1923) / 배경 회사령 폐지·관세 철폐 / 구호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 상품 가격 상승, 사회주의 측 비판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1923, 이상재),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 경성 제국 대학(1924)으로 무산
- 문맹 퇴치: 조선일보 문자 보급 운동(1929,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1931) → 심훈 『상록수』 소재

■ 사회적 민족 운동

농민	★암태도 소작 쟁의(1923, 신안) — 소작료 인하 성공 / 조선 농민 총동맹(1927) / 1930s 혁명적 농민 조합
노동	★원산 총파업(1929) — 외국 노동 단체도 격려 / 조선 노동 총동맹(1927) / 강주룡 을밀대 고공 농성(1931)
형평	★조선 형평사(1923, 진주) — 백정 차별 철폐
소년	방정환·천도교 소년회 — 어린이날, 잡지 『어린이』
여성	근우회(1927) — 신간회 자매 단체, 여성 지위 향상

■ ★ 6·10 만세 운동 (1926)

- 순종 인산일 — 사회주의(조선 공산당)·천도교 계획 사전 발각 → 학생 주도 만세
- 민족주의·사회주의 연대 → 민족 유일당 운동 계기

■ ★ 신간회 (1927~1931)

- 정우회 선언(1926, 사회주의 측 민족주의와 협력) → 비타협적 민족주의 + 사회주의 연합, 회장 이상재
- 일제 강점기 최대 합법 민족 운동 단체, 기회주의 배격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조사단 파견, 민중 대회 계획 → 간부 체포 → 1931 해소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

- 나주역 한·일 학생 충돌 → 성진회·독서회 중심 전국 확산, 3·1 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

■ 종교 · 문학 · 예술

천도교	잡지 『개벽』·『신여성』·『어린이』, 소년 운동
대종교	나철, 단군 신앙 / 무장 단체 중광단 → 북로 군정서
원불교	박중빈, 새생활 운동(허례허식 폐지, 저축)
불교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조선 불교 유신회
개신교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영화	나운규 「아리랑」(1926, 단성사)
저항 문학	윤동주(「서시」·「별 헤는 밤」·「참회록」, 후쿠오카 감옥 옥사) / 이육사(「광야」·「절정」) / 한용운(「님의 침묵」) / 심훈(『상록수』, 「그날이 오면」)

굵은 테두리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것 · 칸 아래 파란 글씨 = 누가 · 언제 · 핵심 · **시기 구분(1910s / 1920s / 1930s~) 문제가 가장 많음**

통치 방식의 변화

통치

무단 통치
1910s · 헌병 경찰
조선 태형령 · 교사도 제복·칼
→ **3·1 운동**
1919
→ **'문화 통치'**
1920s · 보통 경찰(수는 늘림)
한글 신문 허용(검열) · 치안 유지법(1925)
→ **민족 말살 통치**
1930s~ · 황국 신민 서사
신사 참배 · 창씨개명 · 우리말 금지

조선 교육령: 1차(1911 · 보통학교 4년) → 2차(1922 · 6년 · 조선어 필수) → 3차(1938 · 조선어 선택) → 4차(1943 · 조선어 폐지)

경제 수탈의 변화

수탈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 기한부 신고제
총독부 땅 ↑ · 동척
→ **회사령**
1910 · 회사 세울 때 허가제
→ **산미 증식 계획**
1920 · 쌀 일본으로
수리 조합비 농민 부담
→ **회사령 폐지 · 관세 철폐**
1920 신고제 · 1923
일본 자본 들어옴
→

병참 기지화
1930s · 남면북양
농촌 진흥 운동
→ **국가 총동원법**
1938 · 징용 · 징병(1944)
공출 · 배급 · 일본군 '위안부'

1910년대 독립운동 → 3·1 운동

국내

독립 의군부
1912 · 임병찬
복벽주의(왕정 복구)
→ **대한 광복회**
1915 · 박상진
공화정 목표
→ **2·8 독립 선언**
1919 · 도쿄 유학생
→ **3·1 운동**
1919 · 민족 대표 33인
도시 → 농촌 · 무력 저항으로

국외 기지

서간도
경학사 · 신흥 강습소
(→ 신흥 무관 학교) · 이회영
· **북간도**
서전서숙 · 명동 학교
중광단
· **연해주**
권업회 · 대한 광복군 정부
(1914, 이상설)
· **미주**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박용만)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흐름

임시 정부

수립
1919 · 상하이 · 3개 정부 통합
대통령 이승만 · 민주 공화정
→ **초기 활동**
연통제 · 교통국 · 독립 공채
구미 위원부 · 『독립신문』
→ **국민 대표 회의**
1923 · 창조파 vs 개조파
→ **이승만 탄핵**
1925 · 박은식 2대 대통령
→ 국무령제 → 국무위원제
→

한인 애국단
1931 · 김구
이봉창 · 윤봉길(1932)
→ **이동 · 충칭 정착**
1940
→ **한국 광복군**
1940 · 지청천 · 주석 김구
→ **건국 강령**
1941 · 삼균주의(조소앙)
→ **대일 선전 포고**
1941 · 인도·미얀마 전선
→ **국내 진공 작전**
미국 OSS와 준비
→ 일본 항복으로 못 함

한 줄 총정리 — **무단 통치**(헌병 경찰·태형·토지 조사 사업·회사령) → **3·1 운동** → 임시 정부 수립 → **'문화 통치'**(산미 증식·치안 유지법) → 국민 대표 회의 → **민족 말살 통치**(병참 기지화·국가 총동원법·창씨개명) → 한인 애국단 → 충칭 · 한국 광복군 → 건국 강령 → 국내 진공 작전 준비

무장 독립 투쟁의 흐름

1920s 만주

봉오동 전투 1920.6 · 홍범도 대한 독립군 → **청산리 전투** 1920.10 · 김좌진(북로 군정서) + 홍범도 → **간도 참변** 1920 · 일본군 보복 학살 → **대한 독립 군단** 밀산 · 서일 → **자유시 참변** 1921 · 러시아 적색군 →

3부 성립 참의부 · 정의부 · 신민부 → **미쓰야 협정** 1925 · 독립군 체포 협정 → **3부 통합** 국민부(남만주) 혁신 의회(북만주)

1930s ~ 40s

한중 연합 작전 만주 사변(1931) 뒤 → **조선 혁명군** 양세봉 · 중국 의용군 영릉가 · 흥경성 · **한국 독립군** 지청천 · 중국 호로군 쌍성보 · 대전자령 → **중국 관내로 이동** 민족 혁명당(1935) → **조선 의용대** 1938 · 김원봉 · 한커우 →

갈라짐 일부 → 화북 조선 의용군 나머지 → 한국 광복군(1942)

의열 투쟁

의열단 1919 · 김원봉 · 만주 길림 → **의거** 김익상(총독부) · 김상옥(종로서) 나석주(동척·식산은행) → **「조선 혁명 선언」** 1923 · 신채호 → **조직적 무장 투쟁으로** 황푸 군관 학교 ·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

한인 애국단 1932 · 이봉창(도쿄) 윤봉길(홍커우 공원)

국내 민족 운동의 흐름 (1920년대)

운동

물산 장려 운동 1920 · 평양 · 조만식 '조선 사람 조선 것'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1922~1923 · 이상재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 **→ 일제 방해** 경성 제국 대학(1924) → **6·10 만세 운동** 1926 · 순종 장례 → **신간회** 1927 · 민족 유일당 이상재 회장 →

원산 총파업 1929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 · 나주역 신간회 진상 조사단 → **신간회 해소** 1931

사회 운동: 조선 형평사(1923 · 백정 차별 철폐) · 소년 운동(방정환 · 어린이날) · 근우회(1927 · 신간회 자매 단체) · 농민·노동 운동(암태도 소작 쟁의 1923)

국학 운동

국어

조선어 연구회 1921 · 가갸날 · 『한글』 → **조선어 학회** 1931 ·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 『큰사전』 준비 → **조선어 학회 사건** 1942 · 강제 해산 → **『조선말 큰사전』** 광복 뒤 완성(1957)

역사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 『한국통사』·혼 신채호 『조선상고사』·낭가 → **조선학 운동** 1930s · 정인보 '얼' 문일평 · 『여유당전서』 · **사회 경제 사학** 백남운 · 정체성론 비판 · **실증 사학** 진단 학회(1934) 이병도 · 손진태

한 줄 총정리 — **봉오동 → 청산리** → 간도 참변 → **자유시 참변** → 3부 → **미쓰야 협정** → 3부 통합 → 한중 연합(쌍성보·영릉가) → **조선 의용대(1938)** → **한국 광복군(1940)** / 의열단(1919) → 조선 혁명 선언(1923) → 한인 애국단(1932) / 물산 장려 → 민립 대학 → **6·10 만세 → 신간회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신간회 해소

통치 · 3·1 운동 · 임시 정부



조선 총독부 건물
1926 경복궁 안 · 1995 철거



기미 독립 선언서
3·1 운동 · 민족 대표 33인



유관순
천안 아우내 장터 만세



임시 정부 청사(상하이)
1919 수립 · 민주 공화제



김구
한인 애국단 · 임정 주석



박은식
『한국통사』 · 임정 2대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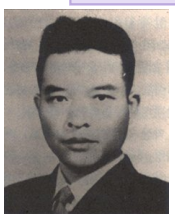
무장 투쟁 · 의열 투쟁



홍범도
대한 독립군 · 봉오동 전투



김좌진
북로 군정서 · 청산리 전투



김원봉
의열단 · 조선 의용대



이봉창
한인 애국단 · 1932 도쿄



윤봉길 선서
한인 애국단 · 훙커우 공원



한국 광복군
1940 충칭 · 지청천

독립운동가 · 국외 기지



이회영
서간도 · 신흥 강습소



이상설
서전서숙 · 대한 광복군 정부



남자현
서로 군정서 · 혈서 호소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 『조선상고사』



안창호
흥사단 · 국민 대표 회의 개조파



주시경
국문 연구소 · 『말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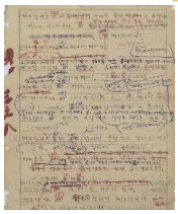
실력 양성 · 신간회 · 국학 · 문화



조선 물산 장려회
1931 회관 · '조선 사람 조선 것'



『말모이』 원고
주시경 등 · 최초 국어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어 학회



신간회 강령·규약
1927 · 민족 유일당



방정환
어린이날 · 『어린이』



한용운
「님의 침묵」 · 불교 유신



나운규
영화 「아리랑」 (1926)



이육사
「광야」 · 「절정」

■ 빈출 선지 체크 — 일제강점기

- □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승리 조선 혁명군(양세봉)
- □ 쌍성보·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한국 독립군(지청천) (영릉가 X)
- □ 독립 공채 발행, 연통제·교통국 운영 대한민국 임시 정부
- □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 3·1 운동
- □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 준비 한국 광복군
- □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조선 의용대
- □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 공포 1910년대 (폐지 1920)
- □ 간도 참변 후 자유시로 이동 대한 독립 군단 → 자유시 참변
- □ 만주 군벌과 일제의 미쓰야 협정 1925
- □ 조선 태형령, 헌병 경찰의 즉결 처분권 1910년대 무단 통치
- □ 권업회 조직, 권업신문 발간 연해주
- □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 6·10 만세 운동
- □ 한인 자치 기관 경학사, 신흥 강습소 서간도(신민회)
- □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 박은식
- □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 복벽주의 독립 의군부 (대한 광복회 = 공화정)
- □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 파견 신간회
- □ '조선 사람 조선 것' 물산 장려 운동
- □ 국가 총동원법(1938)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민족 말살 통치기

사진 출처: 한능검 인물사·지역사(원본사진 폴더) / 위키미디어 공용(웹사진/u8 폴더, 출처는 웹사진/u8/출처.json) / 우리역사넷(조선말 큰사전 원고·신간회 강령, 웹사진/보충/출처.json)

지도로 보는 독립운동



독립운동 기지 지도 (1910년대)
서간도 신흥 무관 학교 · 북간도 서전서숙 · 연해주 권업회 → 대한 광복군 정부



1930년대 이후 지도
북만주 한국 독립군 · 남만주 조선 혁명군 · 중국 관내 조선 의용대 · 여운형 건국 동맹

지도 설명 — 서간도: 신민회(이회영) → 신흥 무관 학교 → 서로 군정서 / 북간도: 중광단(대종교) · 서전서숙(이상설) · 명동 학교 → 북로 군정서 / 연해주: 권업회 → 대한 광복군 정부(이상설) → 대한 국민 의회 / 조선 의용대 = 의열단 → 황푸 군관 학교 → 조선 혁명 간부 학교 → 민족 혁명당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 조선 의용대(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조직) / 여운형: 조선 건국 동맹 → 광복 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봉오동 → 청산리 사이

봉오동 전투(홍범도) → 일본이 훈춘 사건 조작(1920)
→ 이를 핑계로 일본군 간도 출병 → 청산리 전투

- 청산리 전투: 김좌진 북로 군정서 + 홍범도 부대 + 의민단 등

■ 국학 — 책·사관 보충

- 신채호 — 『조선상고사』 + 『조선사연구초』
- 백남운 — 유물 사관(사회 경제 사학)으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 비판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 최태성 별채우기 34~37강에서 본문에 없던 것

■ 통치 · 식민 사학

- 토지 조사 사업 명분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조선사 편수회(1925) 설치 → 『조선사』 편찬 (식민 사관 역사책)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 재범 우려만으로 구금

■ 1910년대 · 임시 정부

- 대한 광복군 정부 — 정통령 이상설 · 부통령 이동휘
- 대한인 국민회(미국) — 독립운동 자금 모아 만주·연해주 지원
- 김규식 —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 제출

■ 무장 투쟁

- 조선 의용대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결성

■ 실력 양성 · 사회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단체 — 자작회 · 토산 애용 부인회
- 소년 운동 — 방정환 + 김기전
- 강주룡 을밀대 고공 농성(1931) — 임금 삭감 반대·노동 조건 개선
-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1936) → 동아일보 등 일장기 삭제

■ 국학 · 종교 · 문학

-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 낭가사상 강조
- 조선어 학회 — 한글 맞춤법 통일안·표준어 = 1933
- 정인보·안재홍 — 『여유당전서』(정약용) 간행 계기로 조선학 운동
- 원불교(박중빈) — 간척 사업 + 새 생활 운동
- 윤동주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광복 전후 건국 준비

- 조선 건국 동맹(1944, 여운형): 국내 비밀 결사 → 광복 대비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8, 여운형·안재홍): 광복 직후 치안대 조직, 전국 지부 →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1945.9) → 미군정이 인정 X
- 미군정(38도선 이남 직접 통치) — 신한공사: 일본인 재산·동양 척식 주식회사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

■ ★ 정부 수립 과정 (순서 문제 최빈출)

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임시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최장 5년 신탁 통치
② 신탁 통치 **찬반 대립**: 우익 반탁 vs 좌익 결정 지지
③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3) — 협의 대상 단체 문제로 결렬
④ 이승만 정읍 발언(1946.6): 남한만의 단독 정부 주장
⑤ 좌우 합작 운동(1946~47, 여운형·김규식 등 중도파) → 좌우 합작 7원칙(1946.10) → 여운형 암살(1947)로 좌절
⑥ 2차 미·소 공위 결렬 → 유엔 총회: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결정(1947.11),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 소련·북한 입북 거부 →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남한) 총선거
⑦ 남북 협상(1948.4, 김구·김규식 평양) ←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⑧ 제주 4·3 사건(1948) → ⑨ 5·10 총선거 → ⑩ 제헌 헌법(7.17) → ⑪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 제주 4·3 사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 vs 토벌대 무력 충돌 → 민간인 희생 → 특별법 제정(2000), 진상 보고서 발간(2003), 세계기록유산(2025)
- 5·10 총선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만 21세 이상 남녀), 임기 2년 제헌 국회의원 선출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 불참)
- 제헌 헌법: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임기 4년, 1회 중임) →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 제헌 국회의 활동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 → 반민 특위 설치 (박흥식 등 체포) → 이승만 정부 비협조, 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 → 활동 좌절
★농지 개혁	농지 개혁법(1949 제정·1950 시행): 유상 매수·유상 분배, 가구당 3정보 상한 (북한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 1946)
귀속 재산	귀속 재산 처리법(1949): 일본인 재산을 민간에 불하 → 특혜 논란

■ ★ 6·25 전쟁 (1950~1953)

애치슨 선언(1950.1, 미국 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 **북한군 남침(1950.6.25)** → 서울 함락(3일), 부산 임시 수도 → 유엔 안보리 결의 → 유엔군 파병 → 낙동강 방어선 → 인천 상륙 작전(1950.9.15) → 서울 수복(9.28) → 압록강까지 진출 → 중국군 참전 → 흥남 철수 → 1·4 후퇴(1951) → 서울 재탈환 → 38도선 부근 교착 → 휴전 회담(1951.7~) → 이승만 반공 포로 석방(1953.6) → 정전 협정(1953.7.27)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10)

- 휴전 회담 쟁점: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방식(자유 송환 vs 자동 송환)
  ※ 이승만 정부는 휴전 반대
- 전쟁 중: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1951)

■ 이승만 정부 (1948~1960) — 장기 집권

★발췌 개헌 (1952)	부산 임시 수도, 비상 계엄 속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회 간선으로는 재선 어려움)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1표 부족 부결을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
진보당 사건	평화 통일론 주장 조봉암 처형(1959), 진보당 해산
언론 탄압	2·4 파동(1958, 국가 보안법 개정 강행) / 비판적 경향신문 폐간(1959)
경제	미국 원조 경제(잉여 농산물) → 삼백 산업(밀가루·설탕·면직물) 발달

■ ★ 4·19 혁명 (1960)

- 대구 2·28 학생 시위 → 3·15 부정 선거(이기붕 부통령 당선 목적) → 마산 의거 → 김주열 시신 발견 → 4.19 전국 시위(비상 계엄)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4.25) → 이승만 대통령 하야(4.26)
- 결과: 허정 과도 정부 → 3차 개헌: 내각 책임제·양원제(민의원·참의원)

■ 장면 내각 (1960~1961)

-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 — 실권은 총리(내각 책임제)
- 지방 자치제 실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실행 못함), 통일 논의 활발(중립화 통일론, 남북 학생 회담 주장)
-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미흡·민주당 신구파 갈등 → 5·16 군사 정변으로 붕괴

■ 5·16 군사 정변 (1961)

- 박정희 등 군부 → 국가 재건 최고 회의(입법·사법·행정 장악), 혁명 공약(반공 국시), 중앙정보부 설치
- 5차 개헌(대통령 중심제·단원제) → 민주 공화당 창당 →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

■ 박정희 정부 (1963~1979)

★한일 협정 (1965)	김종필·오히라 메모(1962) → 굴욕 외교 반대 6·3 시위(1964, 비상 계엄) →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 (식민 지배 사과 X, 청구권 자금)
베트남 파병	1964~1973 / 브라운 각서(1966): 국군 현대화·경제 원조 약속 → 베트남 특수
안보	1·21 사태(1968, 북한 무장 공비) → 향토 예비군 창설
★3선 개헌 (1969)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 1971 대선에서 김대중 누르고 당선

■ ★ 유신 체제 (1972~1979)

- 닉슨 독트린·냉전 완화 → 10월 유신(비상 계엄, 국회 해산) → 유신 헌법(197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 임기 6년·중임 제한 X
- 대통령 권한 강화: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

■ 유신 반대 → 체제 붕괴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1973, 장준하) → 긴급 조치로 탄압
-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명동 성당)
- YH 무역 사건(1979,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 → 부마 민주 항쟁(1979.10, 부산·마산) → 10·26 사태(박정희 피살)

■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2차 1962~71	경공업·노동 집약, 수출 주도 / 경부 고속 도로 개통(1970) / 베트남 특수
3·4차 1972~81	중화학 공업, 포항 제철(1973) /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 1차 석유 파동(1973) → 중동 건설 붐으로 극복, 2차 석유 파동(1979) → 경제 위기

- 새마을 운동(1970): 근면·자조·협동, 농촌 환경 개선 → 도시로 확산
- 전태일 분신(1970, 평화 시장): 근로 기준법 준수 요구
- 사회: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 신군부의 등장

- 12·12 사태(1979,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권력 장악) → '서울의 봄'(1980) → 5·17 비상 계엄 전국 확대

■ ★ 5·18 민주화 운동 (1980)

- 광주, 비상 계엄 확대 반대 시위 → 계엄군 발포 → 시민군 자발적 조직 → 계엄군 무력 진압
-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2011)

■ 전두환 정부 (1980~1988)

집권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선출 → 8차 개헌(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강압	삼청 교육대(사회 정화 명분), 보도 지침, 언론 통폐합
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교복·두발 자율화, 프로 야구 출범
경제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최저 임금법 제정
남북	최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예술 공연단 교환(1985)

■ ★ 6월 민주 항쟁 (1987)

직선제 개헌 요구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1987.1) → 전두환 4·13 호헌 조치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 시위 중 이한열 최루탄 피격 → 6·10 국민 대회 → 6·29 선언(노태우) →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

■ 노태우 정부 (1988~1993)

- 서울 올림픽 개최(1988)
- 북방 외교: 7·7 선언 → 소련(1990)·중국(1992)과 수교
- 남북: 남북 고위급 회담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상호 체제 인정·불가침)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여소야대 → 5공 청문회 / 3당 합당(1990, 민주 자유당 창당)
- 지방 의회 선거(1991) —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 헷갈림: 이산가족 **고향 방문**=전두환 / 이산가족 **상봉**(6·15 이후)=김대중

■ 김영삼 정부 (1993~1998) — 문민 정부

- 금융 실명제(1993, 대통령 긴급 명령),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 하나회 해체(군부 사조직),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전두환·노태우 구속
- 지방 자치제 전면 시행(1995, 자치 단체장까지 선출)
- OECD 가입(1996),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1995)
- 말기 외환 위기(1997) → IMF 구제 금융 요청

■ 김대중 정부 (1998~2003)

- 최초의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IMF 구제 금융 조기 상환(200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1998, 해로)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첫 남북 정상 회담**) →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개성 공업 지구 조성 합의 → 노벨 평화상(2000)

■ 노무현 정부 (2003~2008)

-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개성 공단 착공(2003)
- 호주제 폐지(양성 평등)
- 한·칠레 FTA 발효(2004), 한·미 FTA 체결(2007)

■ 이후 정부

- 이명박: G20 정상 회의 서울 개최(2010)
- 문재인: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2018) → 판문점 선언(2018.4)

■ ★ 남북 관계 — 정부별

박정희	7·4 남북 공동 성명(1972):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3대 통일 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남북 적십자 회담
전두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예술 공연단 교환(1985, 최초)
노태우	7·7 선언, 남북 고위급 회담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김대중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조성 합의
노무현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개성 공단 착공
문재인	판문점 선언(2018), 9월 평양 공동 선언

■ ★ 헌법 개정 정리

개헌	정부	핵심 내용
1차 발췌 (1952)	이승만	부산 피란지, 비상 계엄 속 대통령 직선제
2차 사사오입 (1954)	이승만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3차 (1960)	허정 과도	내각 책임제·양원제 (4·19 이후)
5차 (1962)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대통령 중심제·단원제
6차 3선 (1969)	박정희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7차 유신 (1972)	박정희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6년·중임 제한 X, 긴급 조치권
8차 (1980)	전두환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9차 (1987)	전두환 말기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현행 헌법)

※ 선거 방식 흐름: 국회 간선(제헌) → 직선(발췌) → 내각제(3차) → 직선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유신) → 선거인단 간선(8차) → 직선(9차)

■ ★ 경제 발전 흐름

1950년대	농지 개혁, 귀속 재산 불하 / 미국 원조 → 삼백 산업
1960년대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경공업, 수출 주도 / 한일 협정 자금·베트남 특수 / 경부 고속 도로(1970)
1970년대	3·4차 — 중화학 공업 / 수출 100억 달러(1977) / 석유 파동 1차(1973)·2차(1979) / 새마을 운동
1980년대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 무역 흑자 / 최저 임금법
1990년대	금융 실명제(1993), 우루과이 라운드, OECD 가입(1996) → 외환 위기(1997)
2000년대	IMF 조기 상환(2001) / 한·칠레 FTA(2004) → 한·미 FTA(2007)

■ 노동 운동 흐름

전태일 분신(1970, 근로 기준법 준수) → YH 무역 사건(1979) → 최저 임금법(전두환) → 1987 노동자 대투쟁(6월 항쟁 이후)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1995, 김영삼) → 노사정 위원회(1998, 김대중)

■ 민주화 운동 한눈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1960 / 3·15 부정 선거	1980 / 신군부·계엄 확대	1987 / 4·13 호헌 조치
김주열, 교수단 선언	광주, 시민군	박종철·이한열
이승만 하야	무력 진압	6·29 선언·직선제

9. 현대 — 정부별(대통령별) 업적표

주황 칸 = 가장 자주 나오는 정부

이승만 1948~1960	• 반민 특위(1948) · 농지 개혁(유상 매입·유상 분배) • 6·25 전쟁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 발췌 개헌(1952, 직선제) → 사사오입 개헌(1954) • 진보당 사건(조봉암) · 3·15 부정 선거 → 4·19 혁명
장면 1960~1961	• 허정 과도 정부 → 내각 책임제 · 양원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세움 → 5·16으로 실행 못 함
박정희 1961~1979	• 5·16 군사 정변(1961)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경공업 → 중화학) • 한일 협정(1965, 6·3 시위) · 베트남 파병(브라운 각서) • 3선 개헌(1969) · 경부 고속 도로 · 새마을 운동(1970)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유신 헌법(1972) • 수출 100억 달러(1977) · YH 무역 사건 → 부마 항쟁 → 10·26(1979)
최규하 1979~1980	• 12·12 사태(전두환 신군부) · 서울의 봄 ·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1980~1988	• 7년 단임 ·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 3저 호황 · 프로 야구 · 야간 통행금지 해제 · 교복 자율화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 • 4·13 호헌 조치 → 6월 민주 항쟁(1987) → 6·29 선언
노태우 1988~1993	• 서울 올림픽(1988) · 북방 외교(소련·중국 수교)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 3당 합당(1990)
김영삼 1993~1998	• 금융 실명제(1993) ·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 역사 바로 세우기(옛 총독부 건물 철거) • OECD 가입(1996) → 외환 위기(1997, IMF)
김대중 1998~2003	• 외환 위기 극복 · 금 모으기 · 노사정 위원회 • 햇볕 정책 · 금강산 관광(1998) • 첫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개성 공단 합의 · 경의선 복구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노무현 2003~2008	• 개성 공단 가동(2004) · 한·칠레 FTA(2004) • 2차 남북 정상 회담 ·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 한미 FTA 체결(2007)
이명박 2008~2013	• G20 정상 회의 서울 개최(2010) • 한미 FTA 발효(2012)
박근혜 2013~2017	• 개성 공단 가동 중단(2016) • 국회 탄핵 소추 → 헌법 재판소 파면(2017)
문재인 2017~2022	• 판문점 선언(2018.4) ·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 남·북·미 정상 판문점 만남(2019)

헷갈리는 짝

- 7·4 공동 성명 = 박정희 / 기본 합의서·유엔 동시 가입 = 노태우
- 6·15 = 김대중 / 10·4 = 노무현 / 판문점 선언 = 문재인
- 금융 실명제·OECD = 김영삼 / IMF 극복·금강산 = 김대중
- 이산가족 첫 상봉(고향 방문) = 전두환(1985)

광복 → 정부 수립

정부 수립

광복 1945.8.15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여운형 · 안재홍 → **미·소 군정** 38도선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12 · 신탁 통치 → 찬탁 vs 반탁 →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6.3 · 결렬 →

정읍 발언 1946.6 · 이승만 남한 단독 정부 → **좌우 합작 위원회** 1946.7 · 여운형·김규식 좌우 합작 7원칙 → **2차 미·소 공위 결렬** 1947 · 유엔으로 넘김 → **유엔 소총회** 1948.2 · 가능한 지역만 총선 → **남북 협상 · 제주 4·3** 1948.4 · 김구·김규식 →

5·10 총선거 1948 · 제헌 국회 → **정부 수립** 1948.8.15

6·25 전쟁

전쟁

애치슨 선언 1950.1 → **북한 남침** 1950.6.25 · 서울 함락 → **낙동강 방어선** 유엔군 참전 → **인천 상륙 작전** 1950.9.15 → 서울 수복 → **중국군 참전** 1950.10 → **흥남 철수** 1950.12 →

1·4 후퇴 1951 → **정전 회담** 1951.7~ → **반공 포로 석방** 1953.6 · 이승만 → **정전 협정** 1953.7.27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10

민주화 운동 · 헌법 개정

민주화

4·19 혁명 1960 · 3·15 부정 선거 → 이승만 하야 → **5·16 정변** 1961 → **6·3 시위** 1964 · 한일 회담 반대 → **3선 개헌 반대** 1969 → **유신 반대** 3·1 민주 구국 선언(1976) →

부마 민주 항쟁 1979 · YH 사건 뒤 → 10·26 → **5·18 민주화 운동** 1980 · 광주 · 시민군 → **6월 민주 항쟁** 1987 · 박종철·이한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제헌 1948 · 국회 간선 → **발췌 개헌** 1952 · 직선제 → **사사오입 개헌** 1954 · 초대 중임 제한 없앰 → **3차** 1960 · 내각 책임제 → **5차** 1962 · 대통령 직선 → **3선 개헌** 1969 →

유신 헌법 197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 긴급 조치 → **8차** 1980 · 7년 단임 간선 → **9차** 1987 · 5년 단임 직선

통일 정책 · 경제 성장

통일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 박정희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 **이산가족 고향 방문** 1985 · 전두환 → **유엔 동시 가입 · 기본 합의서** 1991 · 노태우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 김대중 →

10·4 남북 공동 선언 2007 · 노무현 → **판문점 선언** 2018 · 문재인

경제

원조 경제 1950s · 삼백 산업 (밀가루·설탕·면직물) → **1·2차 경제 개발** 1962~1971 · 경공업 수출 주도 → **3·4차 경제 개발** 1972~1981 · 중화학 공업 석유 파동 → **3저 호황** 1986~1988 · 전두환 → **금융 실명제 · OECD** 1993 · 1996 · 김영삼 →

외환 위기 1997 → 김대중 극복 → **FTA 시대** 한·칠레(2004) · 한미

한 줄 총정리 — 광복 → 건준 → **모스크바 3상 회의** → 미소 공위 → 좌우 합작 → 유엔 → 남북 협상 → **5·10 총선 → 정부 수립(1948)** → **6·25 → 정전(1953)** → **4·19(1960)** → 5·16 → 한일 협정 → **유신(1972)** → 부마 → **5·18(1980)** → **6월 항쟁(1987)** → 서울 올림픽 → 금융 실명제 → **IMF(1997)** → 6·15(2000) → 10·4(2007)

정부 수립 · 6·25 전쟁 · 4·19



5·10 총선거
1948 · 최초 보통 선거



제헌 국회 개원
1948 · 제헌 헌법 제정



반민 특위 보도
1949 · 박흥식 체포



인천 상륙 작전
1950.9.15



정전 협정 조인
1953.7.27



4·19 혁명 기념탑
1960 · 이승만 하야

산업화 · 민주화



5·16 군사 정변
1961 · 박정희



경부 고속 도로
수원~오산 구간 개통 · 1970 전 구간



새마을 운동
1970 · 근면·자조·협동



전태일 흉상
1970 · 근로 기준법 준수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세계 기록 유산(2011)



6월 민주 항쟁
1987 · 이한열 추모 행렬

올림픽 · 개혁 · 남북 정상 회담



서울 올림픽
1988 ·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금융 실명제(1993) · OECD 가입



첫 남북 정상 회담
2000 · 6·15 남북 공동 선언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2018 · 판문점 선언

■ 빈출 선지 체크 — 현대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개최 1945.12 → 정읍 발언 이승만(1946)
- □ 여운형·김규식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 구성 1946
- □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반민 특위 설치 제헌 국회
- □ 유상 매수·유상 분배 농지 개혁법 제정 1949 (무상 몰수·무상 분배 = 북한)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953(정전 뒤)
- □ 비상 계엄 속 발췌 개헌안 통과 1952
- □ 진보당 조봉암 처형, 경향신문 폐간 이승만
- □ 원조 물자 가공 삼백 산업 발달 이승만
- □ 3·15 부정 선거 항의 → 허정 과도 정부 4·19 혁명
- □ 경부 고속 도로 개통,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 □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조절 위원회 박정희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유신 헌법
- □ YH 무역 노동자 야당 당사 농성 박정희(1979)
- □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 조직 5·18 민주화 운동
- □ 삼청 교육대, 3저 호황,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두환
- □ 호헌 철폐·독재 타도 → 6·29 선언 6월 민주 항쟁
-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서울 올림픽 노태우
- □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OECD 가입 김영삼
- □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6·15 선언 김대중
- □ 한·칠레 FTA, 10·4 선언, 호주제 폐지 노무현
- □ 판문점 선언 채택 문재인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웹사진/u9 폴더, 출처는 웹사진/u9/출처.json)

족보 현대 쪽(11쪽)은 손필기 표뿐이라 새 사진은 없다. 우리 노트에 없던 내용만 모았다.

■ 합격족보에서 더한 내용

■ 개헌 1~9차 — 차수로 묻는 문제 대비

1차 1952	발췌 개헌 — 대통령 직선
2차 1954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없앰
3차 1960	내각 책임제 · 양원제 (허정 과도 정부)
4차 1960	소급 입법 —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근거 (장면 정부)
5차 1962	대통령 직선 · 단원제
6차 1969	3선 개헌 — 3회 연임 허용
7차 1972	유신 헌법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8차 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 7년 단임
9차 1987	대통령 직선 · 5년 단임 (지금 헌법)

새로 더한 것: 4차 개헌 내용, 6차·7차 라는 차수 이름.

■ 6·25 전쟁

- 인천 상륙 작전 때 학도병이 장사리에 상륙(적의 눈을 돌리는 작전)

■ 전두환 정부 — 생활 변화

- 과외 전면 금지(1980)
- 중학교 의무 교육 시작(1985, 섬·산골 지역부터)

■ 김대중 정부 — 대북

- 정주영 소 떼 방북(1998) — 금강산 관광으로 이어짐
- 6·15 남북 공동 선언: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 노무현 정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2007)

■ 별채우기에서 더한 내용 (최태성 별채우기 38~40강 중 본문에 없던 것)

■ 광복 전후 · 정부 수립

- ★카이로 회담(1943, 미·영·중):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뒤 전국 각지에 인민 위원회 조직
- 모스크바 결정이 정식 발표되기 전 소식이 먼저 국내에 퍼짐 → 신탁 통치 반대 운동
- 좌우 합작 운동: 여운형·김규식 등 중도 세력, 미군정의 후원을 받음
- 좌우 합작 7원칙(1946.10): 토지 개혁·주요 산업 국유화 등을 담음

■ 6·25 전쟁 — 정전

- 정전 회담은 소련의 제의로 시작(1951) → 군사 분계선·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
- 정전 협정(1953.7): 군사 분계선 확정 + 비무장 지대(DMZ) 설정

■ 이승만 정부

- 한·미 원조 협정 체결(1948)
-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 국회 양원제로 규정 (참의원은 실제로는 4·19 뒤에야 구성)

■ 전두환 정부

- 언론 통폐합에 더해 언론 기본법 제정(1980) — 언론 통제

■ 노태우 정부 — 통일 정책

- 7·7 선언(1988) 정식 이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

■ 해외여행 자유화 (두 단계)

- 1983 전두환 정부: 50세 이상 관광 목적 해외여행 허용(부분 자유화) ·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 1989 노태우 정부: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 노무현 정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처음 출범(2005)

※ 별채우기 「전두환 — 해외여행 자유화」는 전면 자유화 시기(1989, 노태우)와 어긋나는 자료가 있어 넣지 않았다.

■ 선사·고대 국가 — 기출 선택지 281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21회**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 **구석기** [막집]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며 자연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으며, 불을 사용하고 사냥·채집으로 먹이를 구하였다.

2 **20회**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은 거대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계급 사회의 성립을 보여 준다.

3 **18회**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부여** [사출도]
부여의 마가·우가·저가·구가 등 여러 가(加)들은 각자의 구역인 사출도를 독자적으로 다스렸으며,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4 **18회** 신성 구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삼한** [소도]
삼한의 소도는 제사장인 천군이 관할하는 신성 구역으로, 죄인이 도망쳐도 군장이 잡아갈 수 없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5 **16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 **신석기**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에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꿰매어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원시적 섬유 제작 기술의 시작을 의미한다.

6 **14회** 주먹도끼, 찍개 등의 뗀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 **구석기** [뗀석기]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대표 유물로 주먹도끼·찍개가 있고 연천 전곡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7 **14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 **고조선** [범금 8조]
고조선의 범금 8조는 생명·재산·신체를 보호하는 법률로, 살인·상해·절도 등을 규율하였으며 사유재산 보호와 계급 사회임을 보여 준다.

8 **13회** 읍락 간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습속인 책화가 있었다. → **동예** [책화]
동예의 책화는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소·말로 변상하게 하는 풍속으로, 각 읍락이 폐쇄적으로 독립하였음을 보여 준다.

9 **11회** 명도전, 반량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 → **철기** [명도전]
철기 시대에는 중국의 명도전·반량전·오수전 등 화폐가 유통되었으며, 이는 당시 한반도와 중국 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10 **11회**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는 표면에 빗살 무늬가 새겨진 토기로, 음식 저장과 조리에 사용되었으며 정착 생활을 뒷받침하였다.

11 **10회**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의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의 간석기로, 곡물의 이삭을 따는 수확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농경의 발달을 나타낸다.

12 **10회**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옥저** [민며느리제]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데려다 키운 뒤 성인이 되면 혼인시키는 풍습으로, 매매혼의 성격을 지닌다.

13 **8회**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부여** [영고]
부여의 영고는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 온 나라가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고 죄수를 심판하는 국가적 의식이었다.

■ 선사·고대 국가 — 기출 선택지 281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4 **7회**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철기** [세형 동검]
철기 시대에 거푸집(주형)을 사용하여 제작된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을 계승한 한국식 청동 단검으로, 한국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15 **7회**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동예** [무천]
동예의 무천은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며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식이었다.

16 **6회** 한 무제가 침략하여 우거왕이 피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고조선** [왕검성]
기원전 108년 한 무제의 공격으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였으며,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17 **6회**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 **철기**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에는 쟁기·쇠스랑·호미 등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18 **6회**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고구려** [동맹]
고구려의 동맹은 10월에 전국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제천 행사로, 국왕이 주관하는 고구려 최대의 종교 의식이었다.

19 **6회**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 **동예** [단궁·과하마·반어피]
동예는 단궁(짧은 활)·과하마(작은 말)·반어피(바다짐승 가죽) 등 독특한 특산물로 유명하였으며 이를 주변 국가와 교역하였다.

20 **6회**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삼한** [신지·읍차]
삼한에서는 세력이 큰 부족장을 신지, 작은 부족장을 읍차라 불렀으며, 이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군장으로서 각 소국을 지배하였다.

21 **4회**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 **철기** [철제 무기]
철기 시대에는 철제 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국가 형성을 촉진하고 삼국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22 **4회**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였다. → **신석기** [농경·목축]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이동 생활을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식량 생산 경제가 가능해졌다.

23 **4회**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 **청동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은 악기 비파 모양의 청동 단검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분포하며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24 **3회** 단군왕검이 건국한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다. → **고조선** [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세운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과 함께 대종교 등에서 개천절로 기념하고 있다.

25 **3회**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고구려** [제가 회의]
고구려의 제가 회의는 대가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합의하는 귀족 회의체로, 부여의 사출도 전통을 잇는 초기 고구려의 정치 제도였다.

26 **3회** 삼로라 불린 우두머리가 읍락을 다스렸다. → **옥저** [삼로]
옥저에는 삼로라 불린 군장이 있었으나 강력한 왕이 없었으며, 고구려의 지배를 받아 공납을 바쳐야 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

■ 선사·고대 국가 — 기출 선택지 281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7 3회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가 줄었다. → **고조선** [진개]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으로 고조선은 서쪽 땅을 크게 잃었으며, 이후 만번한(청천강)을 경계로 연과 대치하였다.

28 3회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 **고구려** [서옥제]
고구려의 서옥제는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 뒤에 작은 집(서옥)을 짓고 살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혼인 풍습이다.

29 2회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을 두었다. → **고구려** [상가·대로·패자]
고구려는 왕 아래 상가·대로·패자·고추가 등의 대가(大加)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독자적인 신하와 가신을 거느리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다.

30 2회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 **청동기** [계급 발생]
청동기 시대에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하고, 빈부 격차와 지배·피지배의 계급 구조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31 2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지역을 다스렸다. → **부여** [가(加)]
부여의 마가·우가·저가·구가는 각각 말·소·돼지·개를 뜻하는 동물 이름을 딴 관직명으로, 각 가(加)들은 사출도를 독립적으로 통치하였다.

32 1회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삼한** [천군]
삼한의 천군은 제사를 전담하는 제사장으로 정치 지배자인 군장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제정 분리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삼국·남북국 — 기출 선택지 843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19회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하였다. → **문무왕** [안승]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의 지도자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하여 당에 대항하는 세력을 포섭하였다.

2 14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통일신라** [녹읍]
신문왕은 귀족의 경제 기반인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3 14회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궁예** [광평성]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운 뒤 광평성을 비롯한 중앙 관제를 정비하고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었다.

4 14회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 **발해** [솔빈부]
발해의 솔빈부는 말 생산으로 유명하였으며, 주변국과의 교역에서 주요 수출품으로 활용되었다.

5 13회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무왕** [미륵사]
백제 무왕은 익산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으며,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6 13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에 대승을 거두었다. → **612년** [살수대첩]
612년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청천강)에서 수 양제의 30만 별동대를 유인·섬멸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7 13회 윤충이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642년** [대야성]
642년 백제 의자왕이 보낸 장군 윤충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고, 성주 김품석 부부를 살해하였다.

■ 삼국·남북국 — 기출 선택지 843개 분석, 출제 횟수 순

8 13회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통일신라 (흥덕왕)** [청해진]
흥덕왕 때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며 동아시아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9 13회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 **신라 (선덕여왕)** [황룡사]
선덕여왕 때 승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졌으며, 주변 9개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호국 목적이었다.

10 12회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무령왕** [22담로]
백제 무령왕은 지방의 요충지 22곳에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11 12회 골품제가 실시되었다. → **신라**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구분한 제도로, 골품에 따라 관직·일상생활까지 엄격히 규제하였다.

12 12회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통일신라 (원성왕)** [독서삼품과]
원성왕은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3등급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13 12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신라 지증왕** [이사부]
지증왕 13년(512) 이사부는 나무 사자를 이용한 기략으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하여 신라 영토로 편입하였다.

14 12회 김흠돌의 난이 진압되었다. → **신문왕** [김흠돌]
신문왕은 즉위 직후 장인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를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며 전제 왕권을 확립하였다.

15 12회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법흥왕** [영락]
법흥왕은 '건원'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고, 광개토대왕은 '영락'을 사용하여 각각 자주 국가임을 표방하였다.

16 11회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 **고구려** [욕살]
고구려는 지방의 큰 성에 욕살, 작은 성에 처려근지를 두어 지방 행정과 군사를 함께 관할하게 하였다.

17 11회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 **고구려**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은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진대법을 시행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18 10회 국가 중대사를 정사암에서 논의하였다. → **백제** [정사암]
백제는 귀족 대표들이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고 국가 중대사를 합의로 결정하는 귀족 회의 전통을 가졌다.

19 10회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 **통일신라** [9서당]
통일신라는 중앙군인 9서당에 고구려·백제·말갈인을 포함시키고, 지방군인 10정을 전국 요충지에 배치하였다.

20 10회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 → **백제 근초고왕** [평양성]
백제 근초고왕은 371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 삼국·남북국 — 기출 선택지 843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1 10회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혜초** [왕오천축국전]
통일신라의 승려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그 견문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22 9회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발해** [주자감]
발해는 당의 국자감을 본받아 주자감을 설치하고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하여 관리를 양성하였다.

23 9회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 **백제** [부여씨]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진씨·해씨 등 8개 성씨의 귀족이 정치·군사·경제의 핵심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24 9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889년** [원종]
889년(진성여왕 3)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상주)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며 신라 말기 혼란의 서막을 열었다.

25 9회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 **진흥왕** [국사]
신라 진흥왕은 대아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역사서 국사를 편찬하게 함으로써 왕실 권위를 높이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26 9회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미천왕** [낙랑]
고구려 미천왕은 313년 낙랑군을, 314년 대방군을 차례로 축출하여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27 8회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 **침류왕** [마라난타]
백제 침류왕은 384년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이듬해 절을 창건하였다.

28 8회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였다. → **642년** [연개소문]
642년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킨 뒤 대막리지에 올라 실권을 장악하였다.

29 8회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 **676년** [기벌포]
676년 신라 사찬 시득이 기벌포(금강 하구)에서 당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신라의 삼국 통일이 최종 완성되었다.

30 8회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고구려** [부경]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부경이라 불리는 작은 창고가 있어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 식량과 물자를 저장하였다.

31 8회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원광** [세속5계]
신라의 승려 원광은 화랑에게 사군이충·사친이효·교우이신·임전무퇴·살생유택의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32 8회 화엄일승법계도를 작성하였다. → **의상**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은 당에서 귀국 후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집약하고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33 8회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광개토대왕** [왜격퇴]
광개토대왕은 400년 신라의 요청으로 5만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으며, 이는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었다.

34 8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법흥왕** [이차돈]
신라 법흥왕은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귀족 세력의 반발을 누르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였다.

■ 삼국·남북국 — 기출 선택지 843개 분석, 출제 횟수 순

35 8회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 **강수** [청방인문표]
통일신라의 문장가 강수는 당에 억류된 김인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여 명성을 떨쳤다.

36 8회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신라** [시장]
신라는 수도 경주에 동시·서시·남시 등의 시장을 두고 이를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여 상업 활동을 관리하였다.

37 8회 계백이 이끈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 **백제 멸망** [황산벌]
660년 백제의 계백 장군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이후 백제가 멸망하였다.

38 7회 화백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하였다. → **신라** [화백회의]
신라의 화백 회의는 진골 귀족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합의 기구였다.

39 7회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였다. → **백제 성왕** [남부여]
백제 성왕은 538년 사비(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어 부여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40 7회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었다. → **백제 부흥운동** [흑치상지]
백제 멸망 후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거점으로 부흥군을 조직하여 나당 연합군에 저항하다 끝내 당에 항복하였다.

41 7회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 **고구려** [태학]
고구려 소수림왕은 372년 태학을 세워 귀족 자제를 교육하고,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 평민 자제들도 교육받게 하였다.

42 7회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원효** [무애가]
원효는 무애가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전국을 돌아다님으로써 불교를 귀족 중심에서 일반 백성에게로 확산시켰다.

43 6회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 **근초고왕** [서기]
백제 근초고왕은 학자 고흥에게 명하여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44 6회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백제부흥운동(660~663)** [부여풍]
백제 부흥 운동의 주역 복신과 도침은 왜에 인질로 있던 부여풍을 귀국시켜 왕으로 추대하고 저항을 이어 갔다.

45 6회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 **648년** [김춘추]
648년 신라의 김춘추는 당 태종을 직접 만나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 나당 연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6 6회 당항성·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신라** [당항성]
신라의 당항성(경기 화성)은 대당 교역의 핵심 거점 항구로 기능하였으며, 영암은 서남해안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47 6회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백제 성왕** [관산성]
554년 백제 성왕은 가야와 연합하여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김무력의 군대에 기습당해 전사하였다.

48 6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진흥왕** [화랑도]
신라 진흥왕은 원래 있던 청소년 수련 조직 화랑도를 국가적인 인재 양성 조직으로 공식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 삼국·남북국 — 기출 선택지 843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9 **6회** 내신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 **백제** [6좌평]
백제는 내신좌평·내두좌평·내법좌평·위사좌평·조정좌평·병관좌평의 6좌평 체제로 중앙 행정을 분담 운영하였다.

50 **6회**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 **발해 무왕** [장문휴]
발해 무왕은 732년 수군 장수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하여 당과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다.

■ 고려 — 기출 선택지 838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30회**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고려** [벽란도]
고려의 벽란도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으로, 송·거란·여진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왕하며 활발한 대외 교역이 이루어졌다.

2 **27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 **거란** [귀주대첩]
1019년 강감찬은 귀주(구주)에서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 10만 대군을 섬멸하는 귀주대첩을 이끌어 거란의 3차 침입을 격퇴하였다.

3 **26회**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성종** [12목]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 주요 거점 12곳에 목(牧)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외관(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

4 **17회**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 **숙종** [해동통보]
고려 숙종은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삼한통보 등의 화폐를 발행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5 **15회**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몽골** [강화도]
1232년 최우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40여 년간 항전하였으며, 이는 기병 중심인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6 **15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광종** [과거제]
고려 광종은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958년 과거제를 도입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공신·호족 세력을 억제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7 **15회**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공민왕은 신돈을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삼아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8 **14회**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종** [준풍]
광종은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으며, 이는 고려가 대내적으로 황제국 의식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9 **11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 → **여진** [별무반]
윤관은 여진 정벌의 실패 원인이 기병력 부족임을 깨닫고 숙종에게 건의하여 기병(신기군)·보병(신보군)·승병(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10 **11회**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 **이제현** [만권당]
이제현은 충선왕이 원의 대도(베이징)에 세운 만권당에서 조맹부·요수 등 원의 유명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을 고려에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11 **11회**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 **원 간섭기** [변발·호복]
원 간섭기에는 고려 지배층 사이에서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과 몽골식 의복인 호복이 유행하는 등 몽골 풍속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 고려 — 기출 선택지 838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2 **10회** 재추를 중심으로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 **고려** [도병마사]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인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참여하여 변경 방어·군사 문제를 합의로 결정하였으며,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13 **10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성종** [시무 28조]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정치의 실현, 불교 행사 억제, 지방관 파견 등 고려 초기 통치 체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14 **9회**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혜심** [유불 일치설]
지눌의 제자인 혜심은 수선사 2대 사주로서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15 **9회**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여진** [동북 9성]
예종 때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하고 함주 등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아 영토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여진의 요청으로 반환하였다.

16 **9회**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 **광종** [노비안검법]
광종은 956년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전쟁 중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의 경제·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17 **9회**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지눌** [수선사]
지눌은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고 선(禪)과 교(敎)의 일치를 추구하는 돈오점수·정혜쌍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18 **8회**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 **최충헌** [교정도감]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뒤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이후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 기능하였다.

19 **8회**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의천** [천태종]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은 송에 유학한 뒤 귀국하여 국청사를 근거지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20 **8회**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예종** [양현고]
예종은 국자감의 재정 지원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고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는 등 관학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1 **8회**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 **태조 왕건** [훈요 10조]
태조 왕건은 943년 후손들에게 불교 숭상·풍수지리 존중·북진 정책 계승 등 10가지 통치 지침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22 **7회**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진도에서 항쟁하였다. → **삼별초** [삼별초]
삼별초는 1270년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봉기한 뒤 강화도·진도·제주도를 거점으로 몽골과 고려 정부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였다.

23 **6회**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 **고려** [은병]
고려는 은 1근으로 한반도 지형을 본뜬 은병(활구)을 화폐로 제작하였으나, 고액의 가치로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4 **6회**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이끌었다. → **요세** [백련 결사]
요세는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조직하여 참회·정토 신앙을 강조하는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 고려 — 기출 선택지 838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5 6회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 **균여** [보현십원가]
균여는 화엄종 승려로서 향가 형식의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어 불교 교리를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다.

26 6회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교 교육에 힘썼다. → **최충** [9재 학당]
최충은 문헌공도(9재 학당)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학(私學) 12도가 융성하는 계기가 되어 고려 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7 6회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 **태조 왕건** [흑창]
태조 왕건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방식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후에 의창으로 발전하였다.

28 5회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의천** [교장]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송·요·일본 등에서 수집한 불교 경전 주석서 4,700여 권을 모아 속장경(교장)을 편찬하였다.

29 5회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 **예종** [청연각]
예종은 궁중에 청연각·보문각 등 도서관 겸 연구 기관을 설치하고 학사를 두어 경전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문치주의와 학문 진흥을 도모하였다.

30 5회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태조 왕건** [계백료서]
태조 왕건은 정계와 계백료서를 저술하여 관리가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고려 초기 관료제 정비의 기초가 되었다.

31 5회 돈오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 **지눌** [돈오점수]
지눌은 단번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돈오) 지속적인 수행(점수)이 필요하다는 돈오점수설을 제시하여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32 4회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정리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김부식** [삼국사기]
김부식은 인종의 명으로 1145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으며, 기전체 형식으로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의 역사를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33 4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 **공민왕** [쌍성총관부]
공민왕은 1356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에 빼앗겼던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가 활약하였다.

34 4회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거란** [광군]
태조 왕건이 사망한 직후 혜종~정종 시기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 광군을 조직하였으며, 이는 고려의 최초 대규모 상비군 조직이었다.

35 4회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도모하였다. → **무신집권기** [만적]
1198년 최충헌의 노비 만적은 개경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고 외치며 신분 해방을 요구하는 노비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36 4회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 **최우** [정방]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 관리의 인사를 직접 관할하였으며, 이는 무신 정권이 행정권까지 장악한 것을 상징하는 기구이다.

37 4회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원 간섭기** [정동행성]
원은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였으나, 원정 실패 후에도 정동행성을 유지하며 고려 내정에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하였다.

38 3회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 **공민왕** [정방 폐지]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으로 원 간섭기 무신 정권의 잔재인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왕실로 되돌리고 왕권 강화를 꾀하였다.

■ 고려 — 기출 선택지 838개 분석, 출제 횟수 순

39 3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 **최충헌** [봉사 10조]
최충헌은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왕실 규모 축소·불교 행사 억제·지방관 규찰 등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으나 실제로는 권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40 2회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 **김부식** [묘청]
묘청은 서경(평양) 천도와 금 정벌을 주장하며 1135년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41 2회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 **태조 왕건** [사심관]
태조 왕건은 귀순한 호족들을 해당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 행정을 보좌하게 하였으며, 이는 호족을 통제하는 동시에 회유하는 양면적 정책이었다.

42 2회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고려** [기인 제도]
고려는 지방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그 자제를 수도 개경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43 2회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 **고려** [전시과]
고려의 전시과는 관리에게 곡물을 얻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지를 직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 제도로, 죽거나 직역이 소멸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44 2회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 **태조 왕건** [일리천 전투]
936년 태조 왕건은 충남 일리천(연산 일대)에서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45 1회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 **몽골** [팔만대장경]
최우 정권은 몽골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16년에 걸쳐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46 1회 거란의 침입에 맞서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 **거란** [초조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조판을 시작한 초조대장경은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으며, 이후 팔만대장경 제작의 계기가 되었다.

47 1회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 **의천** [교관겸수]
의천은 불교 경전의 이론적 학습(교)과 참선 수행(관)을 함께 중시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여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불교 통합 방향을 제시하였다.

48 1회 매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응방이 설치되었다. → **원 간섭기** [응방]
원 간섭기에 몽골에 공납할 매를 사육·훈련하는 응방이 설치되었으며, 응방의 관원들이 백성의 토지·재산을 침탈하는 등 많은 폐단을 낳았다.

49 1회 성상융회를 제창하여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였다. → **균여** [성상융회]
균여는 성상융회(性相融會)를 제창하여 화엄종 내의 법성종·법상종 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고려 초 교종 통합의 선구적 시도였다.

50 1회 국경 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 **고려** [양계]
고려는 북방 국경 지역인 동계·북계(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군사적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는 내지의 5도 행정 체제와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이었다.

■ 조선 — 기출 선택지 1,25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29회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문자를 쉽게 익히도록 하였다. → **세종** [훈민정음]
세종은 1443년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해례본과 함께 반포하였다.

■ 조선 — 기출 선택지 1,25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 29회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 **세종** [4군 6진]
세종 때 최윤덕이 압록강 상류에 4군을 설치하고,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여 현재의 한반도 국경선 형태를 확립하였다.

3 27회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정조** [초계문신제]
정조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문신을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함으로써 왕권 강화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4 25회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현하였다. → **조선 후기** [도고]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특정 물품을 독점 매입하고 판매하는 도고 상인이 등장하여 유통 경제를 주도하였다.

5 22회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성종** [경국대전]
성종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1485년 완성하여 반포함으로써 조선의 통치 체제와 유교적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6 22회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 **임진왜란** [의병]
임진왜란 때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으며, 곽재우(의령)·고경명(전라도)·조헌(충청도)·정문부(함경도) 등이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7 20회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 **영조** [탕평비]
영조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편당 없이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탕평 의지를 천명하고, 노론·소론의 균형 등용을 실시하였다.

8 17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세조** [직전법]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세습되던 수신전·휼양전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였다.

9 16회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 **승정원** [승정원]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왕의 비서 기관으로 은대(銀臺)라고도 불렸으며,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우승지 등 6명의 승지가 6조를 각각 분담하였다.

10 16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균역법** [균역법]
영조는 1750년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결작·선무군관포·어염세·선박세를 추가로 거두었다.

11 14회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효종** [나선 정벌]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변급(1차)·신류(2차)가 이끄는 조총 부대를 흑룡강 유역에 파견하여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인 나선 정벌에 참전하였다.

12 13회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 **홍문관** [홍문관]
성종 때 설치된 홍문관은 왕의 학문 자문·경연 담당 기관으로 옥당(玉堂)이라고도 불렸으며, 사헌부(감찰)·사간원(간쟁)과 함께 3사를 이루었다.

13 13회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 **광해군** [사르후 전투]
광해군은 명의 원군 요청에 따라 강홍립을 도원수로 1만 3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강홍립은 후금에 투항하는 중립 외교를 실행하였다.

14 13회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 **대동법** [대동법]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시행된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포·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공인이 등장하였다.

15 13회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홍대용** [의산문답]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고 무한 우주론을 전개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기술 혁신을 통한 부국강병을 역설하였다.

■ 조선 — 기출 선택지 1,25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6 12회 국왕의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 **숙종** [금위영]
숙종은 훈련도감·어영청과 함께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으며, 금위영은 왕의 호위와 도성 방어를 담당하였다.

17 12회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 **박제가** [북학의]
박지원의 제자인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수레·선박 이용과 소비 촉진을 강조하였으며,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다.

18 11회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정제두** [강화학파]
정제두는 주자학 중심의 학문 풍토에서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양명학의 실천성을 부각시켰다.

19 11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 **정조** [신해통공]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함으로써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하였다.

20 10회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태종** [계미자]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하고 동활자인 계미자를 주조하여 활판 인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서적 보급 확대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1 10회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 **태종**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종 때 권근·이회 등이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포함한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로, 한국 지도학 발전의 선구적 업적이다.

22 10회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완성하였다. → **성종** [악학궤범]
성종 때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은 음악 이론·악기·무용·의상 등 음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으로, 예악 질서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23 10회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 **조광조** [현량과]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받아 소격서 폐지·소학 보급·현량과 실시 등 도학 정치를 추진하였으나, 기묘사화(1519)로 훈구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

24 10회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세종** [농사직설]
세종은 각 지방의 농업 경험을 수집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25 10회 대사성을 수장으로 좨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 **성균관**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은 소과(생진과)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대성전(제향)·명륜당(강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6 10회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 **비변사** [비변사]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비변사는 을묘왜변(명종)으로 상설 기구가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확대되었다.

27 10회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 **인조** [이괄의 난]
1624년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때 한성을 점령하였으며, 인조가 공주로 피란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28 9회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조선 후기** [담배]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쌀 외에 담배·면화·생강·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 조선 — 기출 선택지 1,25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9 9회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 **의금부** [의금부]
의금부는 왕명으로 반역·강상의 죄를 범한 중죄인을 다스리는 국왕 직속 특별 사법 기구로, 삼성추국(의금부·사헌부·형조)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다.

30 9회 성호사설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이익** [한전론]
이익은 성호사설과 곽우록에서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 토지를 영업전으로 설정하고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여 토지 겸병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31 9회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영조** [속대전]
영조는 경국대전 반포 이후 추가된 법령을 정리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이후 정조 때 대전통편이, 고종 때 대전회통이 편찬되어 법전 체계가 완성되었다.

32 8회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정약용** [거중기]
정약용은 청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으며, 이 기계는 수원 화성 축조 시 활용되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33 8회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 **규장각** [규장각]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박제가·이덕무 등 서얼 출신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하여 탕평을 실천하였다.

34 8회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조선 후기** [송상·만상]
조선 후기에 개성 상인(송상)은 인삼 무역으로, 의주 상인(만상)은 대청 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장악하였다.

35 8회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 **정조** [장용영]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1793년 장용영을 설치하여 한성의 내영과 수원 화성의 외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정조 사후 순조 때 혁파되었다.

36 7회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 **영조**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홍봉한 등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는 역대 문물 제도를 분류·정리한 유서(類書)로, 정조 때 증보되어 이후 만기요람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37 7회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 **세종** [계해약조]
세종 때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 이후 1443년 체결된 계해약조는 세견선 50척·세사미두 200석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약이다.

38 7회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 **광해군** [동의보감]
허준이 선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한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완성·간행되었으며, 우리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39 7회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지었다. → **박지원** [양반전]
박지원은 열하일기·양반전·허생전 등을 저술하여 청의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하고 양반 계층의 허위와 무능을 풍자하였으며,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40 6회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1592년 10월 진주 목사 김시민은 불과 3,800명의 병력으로 2만여 명의 왜군을 진주성에서 격퇴하였으며, 이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이다.

41 6회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세종** [쓰시마 정벌]
세종은 1419년 삼군도체찰사 이종무에게 227척의 군선과 1만 7천 명의 병력으로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대마도)을 정벌하게 하였다.

■ 조선 — 기출 선택지 1,25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2 6회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 **박지원** [열하일기]
박지원은 1780년 청 건륭제의 칠순 연회에 동행하여 견문한 내용을 열하일기에 담았으며, 수레·선박 이용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을 역설하였다.

43 6회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정도전** [불씨잡변]
정도전은 불씨잡변에서 불교의 교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유학의 우월성을 논증하였으며, 조선경국전 편찬을 통해 조선의 통치 체계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44 6회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어 국가 의례가 정비되었다. → **성종** [국조오례의]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는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오례를 체계화한 의례서로, 조선의 유교적 국가 의례 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5 6회 왕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 **병자호란** [남한산성]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후금(청)의 군대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47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였다.

46 5회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 **숙종** [환국]
숙종 때 경신환국(남인 축출)·기사환국(서인 몰락)·갑술환국(남인 재축출)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는 왕이 붕당 간 세력 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47 5회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 **조선 후기** [공인]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한 공인은 관청으로부터 공가(公價)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 상인으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48 5회 청과 국경을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 **숙종** [백두산정계비]
1712년 숙종 때 청의 오라총관 목극등과 조선 관리들이 백두산 일대를 조사하여 압록강·토문강을 국경으로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49 5회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김정희** [진흥왕 순수비]
추사 김정희는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였으며,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창안하고 세한도 등의 작품을 남겼다.

50 5회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임진왜란**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설치된 훈련도감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조선 최초의 상비군으로, 이후 5군영 체제의 핵심 군영이 되었다.

■ 개화기 — 기출 선택지 86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17회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임오군란** [구식 군인]
1882년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 별기군과의 차별적 대우에 반발하여 봉기하였고,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된 뒤 제물포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2 17회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광무개혁** [지계]
광무개혁에서 지계아문을 통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3 15회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을 발행하였다. →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은 왕실 권위 회복을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 강제 징수와 당백전 남발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이로 인해 물가 폭등과 민심 이반이 심화되었다.

■ 개화기 — 기출 선택지 86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 13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 **갑신정변** [우정총국]
1884년 김옥균·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5 12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2차 갑오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는 청과의 사대 관계 청산, 입헌 군주제 지향, 재정 일원화 등을 담고 있으며, 고종이 종묘에서 독립 서고문을 낭독하며 반포하였다.

6 11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보안회** [황무지 개간권]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보안회가 조직되어 전국적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요구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7 11회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전주 화약 이후 동학 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탐관오리 처벌·노비 문서 소각·토지 평균 분작 등 폐정 개혁을 자치적으로 실행하였다.

8 10회 광성보에서 어재연 부대가 미국 군대에 맞서 항전하였다. → **신미양요** [어재연]
1871년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이 이끄는 수비대가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군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9 9회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 서관을 운영하였다. → **신민회** [태극 서관]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이 조직한 비밀 결사 신민회는 태극 서관(출판)·대성학교(교육)를 운영하며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도모하다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10 9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두었다. →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1894년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여 공·사 노비제 폐지·과거제 폐지·6조를 8아문으로 개편·조혼 금지·과부 재가 허용 등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11 8회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자주 국권 운동을 펼쳤다.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는 1898년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철회 등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12 8회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강화도 조약(1876)** [수신사]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김기수를 정사로 한 수신사를 파견하였으며, 이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외교 사절단이었다.

13 7회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 **1차 갑오개혁** [공사 노비법 혁파]
1차 갑오개혁에서 공·사 노비제를 폐지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하였으며, 조혼 금지·과부 재가 허용·연좌제 폐지 등 신분 제도 개혁과 사회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14 7회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병인양요** [외규장각 도서]
1866년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때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이를 격퇴하였으나, 외규장각 의궤 등 귀중한 문화재가 약탈되었다.

15 7회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신민회** [대성 학교]
신민회는 안창호가 평양에 대성 학교를, 이승훈이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적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의 핵심 사업이었다.

16 7회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 **대한자강회** [고종 강제 퇴위 반대]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자 대한자강회가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 개화기 — 기출 선택지 86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7 7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 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 공채 발행·연통제·교통국 운영으로 자금과 정보를 수집하였고,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며 외교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8 7회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 **1886년** [육영 공원]
1886년 조선 정부가 설립한 육영 공원은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미국인 교사 헐버트·길모어 등을 초빙하여 영어·수학 등 근대 학문을 가르친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이다.

19 6회 박문국을 두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1883년** [한성순보]
1883년 정부 기관인 박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는 순 한문으로 열흘마다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개화 정보와 국내외 소식을 전달하였다.

20 6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독립협회** [중추원 개편]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 헌의 6조를 바탕으로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여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려 하였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고종의 해산 명령으로 무산되었다.

21 6회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 **1907년** [국채 보상]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김광제 등이 발의한 국채 보상 운동은 일본 차관 1,300만 원을 국민 모금으로 갚자는 운동으로,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22 6회 원각사에서 신연극 은세계를 공연하였다. → **1908년** [원각사]
1908년 서울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신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은세계'가 공연되었으며,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 극장으로 신문화 공연의 중심지가 되었다.

23 6회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원수부를 설립하였다. → **광무개혁** [원수부]
광무개혁에서 고종은 황제로서 군 통수권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으며,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24 6회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채택하였다. → **을미개혁** [건양]
을미개혁에서 건양이라는 독자 연호를 채택하고 태양력을 도입하였으며, 단발령을 시행하였으나 을미사변 이후 반발이 거세져 의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25 6회 박문국에서 순 한문으로 발행된 근대 신문이었다. → **한성순보** [박문국]
1883년 설치된 박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한 정부 출판 기관으로, 갑신정변 때 파괴되었다가 이후 국한문 혼용의 한성주보를 발행하며 재개되었다.

26 6회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 **1885년** [거문도]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 해군이 전라남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으며(거문도 사건), 청의 중재로 1887년 철수하였다.

27 5회 김윤식이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 **1881년** [영선사]
1881년 김윤식을 단장으로 한 영선사가 청에 파견되어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으며, 귀국 후 기기창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임오군란으로 조기 귀국하였다.

28 5회 평양 관민이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1866년** [제너럴 셔먼호]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통상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리자 평양 관민이 배를 불태웠으며, 이 사건은 1871년 신미양요의 빌미가 되었다.

29 5회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 **1898년** [황국 중앙 총상회]
1898년 외국 상인의 침투로 위기에 처한 시전 상인들이 황국 중앙 총상회를 결성하여 외국 상인의 내지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개화기 — 기출 선택지 86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30 5회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정미의병은 조직화되었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을 편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31 5회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민씨정권 개화 정책** [통리기무아문]
1880년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으며, 이어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5군영을 2영으로 통합·영선사 파견·신사유람단 파견 등의 개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32 5회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 **을미개혁** [태양력]
을미개혁에서 서양의 태양력을 도입하여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선포하였으며, 같은 시기의 단발령 시행은 전국적인 반발과 의병 봉기를 불러일으켰다.

33 5회 독립문을 세워 자주독립 의지를 표명하였다. →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협회는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으며, 독립관을 토론·집회 장소로 활용하여 자주 국권 의식을 고취하였다.

34 4회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 **병인양요** [양헌수]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으나, 강화도에서 철수하는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의궤 등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35 4회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주도하였다. → **갑신정변** [김옥균]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으나, 청군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고 망명하였다.

36 4회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천도교** [만세보]
천도교는 동학에서 발전한 민족 종교로 기관지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으며, 3·1 운동에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5인을 배출하는 등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37 4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 **1899년** [경인선]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되었으며, 같은 해 서울에 전차도 개통되었다. 경인선 개통으로 서울과 인천의 이동이 크게 편리해졌다.

38 4회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 **독립협회** [헌의 6조]
독립협회가 주도한 관민공동회에서 외국과의 이권 계약 체결 시 의회 의결 필요, 재정의 탁지부 관할 일원화 등을 담은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고종의 재가를 얻었다.

39 4회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신민회** [105인 사건]
1911년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를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회원 등 애국지사 600여 명을 체포하고 105명을 기소하였으며, 이로써 신민회는 해산되었다.

40 4회 미국·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 **유길준** [서유견문]
유길준은 1883년 보빙사의 일원으로 도미하여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으며, 귀국 후 서유견문을 저술하여 서양의 근대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41 4회 갑신정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 **갑신정변** [한성 조약]
갑신정변 실패 후 조선과 일본은 한성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과 피해 배상을 조선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청일 간에는 톈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42 4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 **1905년** [경부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서울과 부산이 연결되었으며, 이는 러일 전쟁 중 일본의 군사·물자 수송을 목적으로 부설되어 일본의 대륙 침략을 용이하게 하였다.

■ 개화기 — 기출 선택지 86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3 4회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 **2차 갑오개혁** [23부 개편]
2차 갑오개혁에서 지방 행정을 8도에서 23부 337군으로 개편하였으며, 교육 입국 조서 반포·재판소 설치 등 사법과 교육 제도의 근대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44 4회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대한매일신보** [국채 보상 운동 지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통감부의 검열을 피해 항일 논조를 유지하며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과 의병 투쟁 보도에 적극 기여하였다.

45 4회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 **임오군란** [청군 개입]
임오군란은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으며, 청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군사 고문을 파견하는 등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여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46 3회 전주 화약이 체결되어 농민군이 자진 해산하였다. → **동학농민운동** [전주 화약]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가 청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농민군은 폐정 개혁 약속을 받은 뒤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자진 해산하였다.

47 3회 호포제를 시행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 **흥선대원군** [호포제]
흥선대원군은 종래 상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양반 특권을 축소하였으며, 서원 철폐와 비변사 혁파도 단행하였다.

48 3회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다. → **1883년** [보빙사]
1883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어 대통령을 예방하고 근대 문물을 시찰하였으며, 유길준은 이때 미국에 남아 유학하였다.

49 3회 서재필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 **독립신문** [서재필]
서재필은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순한글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자주 국권 운동을 이끌었다.

50 3회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신문이었다. → **대한매일신보** [양기탁·베델]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배설)이 창간하였으며, 베델의 외국인 신분 덕분에 일제의 검열을 피해 항일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고 의병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 일제강점기 — 기출 선택지 84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19회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의열단** [조선 혁명 선언]
1923년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행동 지침으로, 외교론·준비론을 비판하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였다.

2 12회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조선혁명군** [영릉가 전투]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며 한·중 연합 작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3 12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 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 공채를 발행하고 연통제·교통국을 운영하여 자금과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구미 위원부를 통한 외교 활동과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의 편찬 사업도 병행하였다.

4 12회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3.1운동** [문화 통치]
1919년 3·1 운동은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으로, 이를 계기로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 일제강점기 — 기출 선택지 84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5 **11회**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 작전]
한국광복군은 미국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으며,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도 파견되었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국내 진공 작전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6 **11회**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조선의용대** [최초 한인 무장 부대]
1938년 우한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 이후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군이 되었고 나머지는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7 **10회**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 **1910년** [회사령]
1910년 공포된 회사령은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여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였으며, 1920년에 폐지되었다.

8 **10회**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1920년 청산리·봉오동 전투 승리 후 일제의 간도 참변을 피해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 연합 부대는 자유시(스보보드니)에서 소련 적군과 충돌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자유시 참변, 1921).

9 **10회**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1925년** [미쓰야 협정]
1925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군벌 장쭤린 측이 체결한 미쓰야 협정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독립군을 일본 측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여 독립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10 **10회**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1924년** [경성 제국 대학]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조선인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제의 대응이었다. 조선인 입학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40%에 불과하였다.

11 **10회** 쌍성보·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 **한국독립군** [대전자령 전투]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은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대전자령·경박호 전투에서 잇달아 승리하며 한·중 연합 작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12 **9회**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고 헌병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 **1910년대 무단통치** [헌병 경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헌병이 경찰 업무를 겸하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고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가하는 등 폭압적인 식민 지배를 자행하였다.

13 **9회**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연해주** [권업회]
연해주의 한인들은 1911년 권업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1914년에는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14 **8회**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 **6.10 만세 운동** [순종 인산일]
1926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일(장례일)을 맞아 학생들과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6·10 만세 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는 신간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15 **8회**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 **신민회** [경학사]
신민회는 서간도(남만주)에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였다.

16 **8회**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박은식** [한국통사]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국권 피탈과 독립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유교구신론으로 유교 개혁을 주장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일제강점기 — 기출 선택지 84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7 **7회**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 **독립의군부** [국권 반환 요구서]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표방하며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1914년 일제에 발각되어 해산되었다.

18 **7회**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어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 **1923년** [민립 대학 설립 운동]
1923년 이상재 등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모금 운동을 벌였으나, 일제의 방해와 경성 제국 대학 설립으로 좌절되었다.

19 **7회**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운동을 지원하였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지원]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성진회·독서회의 조직적 활동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20 **6회**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1910년대 무단통치**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신고주의 원칙을 내세워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편입하고, 총독부·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토지를 대폭 늘렸다.

21 **6회**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천도교** [개벽]
천도교는 3·1 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였으며, 기관지 개벽·신여성·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고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 운동을 전개하며 민족 문화 운동에 앞장섰다.

22 **6회**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 **한국광복군** [인도·미얀마 파견]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파견하여 대일 심리전과 포로 심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OSS와의 협력으로 국내 진공 작전도 준비하였다.

23 **6회**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이어 갔다. → **1929년** [원산 총파업]
1929년 원산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에 항의하며 시작한 원산 총파업은 4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노동 쟁의로, 국내외 노동 단체의 지원과 연대를 받았다.

24 **6회**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신민회** [신흥 강습소]
신민회의 이회영·이동녕 등은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으며, 이곳 출신들이 독립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25 **6회**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거]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1932년 일왕 행렬에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같은 해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지휘부를 타격하였다.

26 **6회** 김원봉이 중국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 **의열단** [김원봉]
김원봉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창설하고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일제 식민 통치 기관 파괴와 요인 처단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27 **6회**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 **물산장려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
1920년대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한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어 '조선 사람 조선 것'을 구호로 조선 물산 애용과 소비 절약을 촉구하였다.

■ 일제강점기 — 기출 선택지 84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8 6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다. → **1941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년 공포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형기를 마친 사상범을 예방 구금할 수 있게 한 악법으로, 일제가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를 무기한 억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9 6회 간도 참변으로 간도 지역 한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되었다. → **1920년** [간도 참변]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보복으로 간도 지역 한인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간도 참변(경신참변)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독립군은 연해주로 이동하였다.

30 6회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일본 도쿄** [2·8 독립 선언]
1919년 2월 8일 도쿄 조선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재일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내 3·1 운동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31 6회 총사령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 **한국광복군** [지청천]
지청천(이청천)은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뒤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사력을 이끌었다.

32 6회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 **1938년** [국가 총동원법]
1938년 제정된 국가 총동원법은 일제가 전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후 징용·징병·물자 공출 등이 체계화되었다.

33 6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1920년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대한국민회군·군무도독부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매복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청산리 전투와 함께 무장 독립 투쟁의 쾌거였다.

34 6회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신민회** [105인 사건]
1911년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조작하여 신민회 회원과 기독교 인사 등 700여 명을 검거하고 105명을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강제 해산되었다.

35 5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배경]
신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결합한 민족 협동 전선 단체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는 등 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6 5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사살하고, 뤼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였으며, 1910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37 4회 나운규가 감독·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 **1926년** [아리랑]
1926년 나운규가 제작·감독·주연한 영화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 민족의 설움을 담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 영화 예술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38 4회 백정들의 신분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1923년** [조선 형평사]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창립된 조선 형평사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을 구호로 삼았다.

39 4회 전남 암태도에서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 **1923년** [암태도 소작 쟁의]
1923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소작농들이 고율의 소작료에 항의하여 소작 쟁의를 일으켰으며, 약 1년간의 투쟁 끝에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어 이후 소작 운동의 귀감이 되었다.

■ 일제강점기 — 기출 선택지 849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0 4회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 **1925년** [치안 유지법]
1925년 제정된 치안 유지법은 국체 변혁·사유재산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운동을 처벌하는 법률로, 일제는 이를 사회주의 운동과 한국 독립운동 탄압에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41 4회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신간회** [정우회 선언]
1926년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과 협력할 것을 천명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1927년 민족주의·사회주의가 연합한 신간회가 결성되어 일제 강점기 최대의 항일 민족 단체가 되었다.

42 4회 박상진이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 **대한광복회** [박상진]
1915년 박상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하고 공화제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43 4회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
1920년 김좌진·이범석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연합하여 청산리 일대에서 6일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을 대파하였으며, 이는 독립군 사상 최대의 전과였다.

44 4회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북간도** [서전서숙·명동학교]
북간도에서는 이상설이 서전서숙(1906)을, 이어 명동 학교(1908)가 설립되어 한인들에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광단이 결성되어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45 4회 쌍성보 전투에서 중국군과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한국독립군** [쌍성보 전투]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1932년 쌍성보 전투를 시작으로 대전자령·경박호 전투에서 연이어 일본군을 격파하며 북만주 무장 독립 투쟁을 이끌었다.

46 3회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삼균주의]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의 균등)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여 광복 후 수립할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47 3회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여 국내와 연락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통해 국내의 각 도·군·면에 조직망을 구축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정보 수집·임시정부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

48 3회 복벽주의를 표방하며 조선 왕정 복고를 추구하였다. → **독립의군부** [복벽주의]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복위와 조선 왕정의 복고를 목표로 하는 복벽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임병찬이 주도하여 전국 유생들의 조직망을 구성하였으나 1914년 일제에 발각되어 해산되었다.

49 3회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사전]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고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으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회원들이 체포되어 활동이 중단되었다.

50 3회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여운형**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은 1944년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비밀리에 결성하였으며,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후 좌우 합작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 현대 — 기출 선택지 697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 **38회**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 **박정희** [경부 고속 도로]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경부 고속 도로를 개통하여 서울~부산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경제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었다.

2 **21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노태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북방 외교의 성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한소 수교·한중 수교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3 **21회**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김영삼** [금융 실명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여 차명 계좌를 통한 비리와 탈세를 근절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문민정부 개혁의 상징적 조치였다.

4 **20회**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 **김대중** [금 모으기 운동]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어 약 227t의 금이 모아졌으며, 노사정 위원회 출범과 공공 부문 구조 조정도 함께 추진되었다.

5 **20회**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박정희** [7·4 남북 공동 성명]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 **19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 헌법이 공포되었다. → **유신헌법** [유신 헌법]
1972년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 임기 6년·중임 제한 폐지·긴급 조치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7 **18회**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노무현** [한·칠레 FTA]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발효시켰으며, 이후 한·미 FTA·한·EU FTA 등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였다.

8 **17회**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 **전두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9 **15회**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4.19혁명** [허정 과도 정부]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장면 정부가 수립되었다.

10 **14회**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 **전두환** [삼청 교육대]
전두환 정부는 1980년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구금한 4만여 명을 강제 노역·가혹 행위에 처하였으며, 이는 반인권적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다.

11 **14회**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전국적 시위가 확산되었다. → **6월 민주항쟁** [호헌 철폐·독재 타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에 분노한 시민들이 '호헌 철폐·독재 타도'를 외치며 6월 민주 항쟁을 일으켰고, 결국 6·29 민주화 선언과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12 **11회**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 **이승만** [경향신문 폐간]
이승만 정부는 1959년 비판적인 보도를 일삼던 경향신문을 폐간하였으며, 같은 시기 진보당의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는 등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였다.

13 **9회**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김대중** [6·15 남북 공동 선언]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건설 등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였다.

■ 현대 — 기출 선택지 697개 분석, 출제 횟수 순

14 **7회**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1949년** [농지 개혁법]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어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였으며, 봉건적 지주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15 **7회**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이승만** [조봉암 처형]
이승만 정부는 1959년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16 **7회**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 **5.18 민주화 운동** [시민군]
1980년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저항하였으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17 **7회**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전두환** [3저 호황]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6~1988년에는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경제가 고도 성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8 **7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다. → **노무현** [10·4 남북 정상 선언]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열어 10·4 남북 정상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설치와 개성 공단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19 **7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 **노태우** [서울 올림픽]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동서 냉전 체제하에서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20 **6회**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 **박정희**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하였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상징하는 이정표였다.

21 **6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 **전두환**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을 폭로하였으며, 이는 6월 민주 항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22 **6회**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받았다. →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집권당 대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 개헌을 약속하였으며, 이로써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23 **6회**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된 개성 공단 착공식이 열렸다. → **노무현** [개성 공단]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성 공단 착공식을 열고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였으며, 2004년 시험 가동을 거쳐 남북 합작 산업 단지로 성장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24 **6회** 여운형·김규식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946년** [좌우 합작]
1946년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여운형·김규식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이승만·김구의 반대와 미군정의 소극적 지원으로 좌절되었다.

25 **6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 **노태우** [한반도 비핵화]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남북 관계 정상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대 — 기출 선택지 697개 분석, 출제 횟수 순

26 5회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전두환** [최저 임금 위원회]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최저 임금법이 제정되고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7 5회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김영삼**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민주적 노동 운동을 지향하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노동 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다.

28 5회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 **박정희** [YH 무역 농성]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1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과 이어진 부마항쟁이 유신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

29 5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어 반민 특위가 설치되었다. → **이승만** [반민 특위]
1948년 제헌 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1949년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으로 사실상 와해되었다.

30 5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다.

31 5회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 **4.19혁명** [대통령 하야]
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시작된 민주화 운동으로,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32 5회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1952년** [발췌 개헌]
이승만은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때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발췌 결합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 재선을 꾀하였다.

33 5회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노무현** [한·미 FTA]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 분야의 교역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34 5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다. → **문재인**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35 5회 남북이 상호 체제 인정 등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노태우**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등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도 합의하였다.

36 5회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노무현** [호주제 폐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법을 개정하여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상징인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이는 성 평등 실현과 개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 개혁이었다.

■ 현대 — 기출 선택지 697개 분석, 출제 횟수 순

37 5회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시위가 시작되었다. → **4.19혁명** [3·15 부정 선거]
1960년 자유당이 이승만·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공개 투표·4할 사전 투표·투표함 바꿔치기 등 대규모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항거한 시위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38 4회 여운형·김규식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여운형** [좌우 합작 위원회]
여운형과 김규식은 1946년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좌우 대립과 미군정의 한계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39 4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 **김영삼**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자본 시장 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져 1997년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40 4회 북방 정책을 주도하여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였다. → **노태우**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을 바탕으로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헝가리(1989)·소련(1990)·중국(1992)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잇달아 수교하였으며, 남북 관계 개선의 외교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1 4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다. → **박정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공업 육성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42 4회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이승만** [삼백 산업]
이승만 정부 시기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설탕·밀가루·면화(면방직)를 가공하는 이른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취약한 원조 의존형 경제 구조를 낳았다.

43 4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반도에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좌우 대립을 심화시켰다.

44 3회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이승만** [정읍 발언]
이승만은 1946년 정읍 연설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한반도 분단을 가속화하고 단독 정부 수립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45 3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되었다. → **6.25전쟁** [유엔군 파병]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였고, 16개국이 참전하여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전세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역전시켰다.

46 3회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제주 4.3 사건** [제주 4·3 특별법]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으며,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추진되었다.

47 3회 자치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 **김영삼** [지방 자치제 전면 시행]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자치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 자치 선거를 전면 실시하여 30년 만에 지방 자치를 완전히 부활시켰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대 — 기출 선택지 697개 분석, 출제 횟수 순

48 3회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 **전두환**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전두환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49 3회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하였다. → **김대중** [IMF 조기 상환]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노력으로 IMF 구제 금융을 2001년 8월 예정보다 3년 앞서 조기 상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0 3회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김대중** [노사정 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노·사·정 3자 협의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출범시켜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정리 해고제·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 ① 평양 (서경)

- 고구려 장수왕: 평양 천도
- 고려 태조 왕건: 훈요 10조 (서경 중시)
- 고려 묘청 서경 천도 운동
- 서경 유수 조위총이 반란 (개경 위협)
- 원 간섭기 동녕부 설치
- 홍선대원군: 제너럴셔먼호 사건 (평양에서 약탈 시도 → 평양 관민이 배를 불태움)
- 신민회 안창호 대성학교
-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 추진
- 평양 고무 공장 노동자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 농성(1931)
- 정부 수립 과정 남북 협상(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김구·김규식이 평양으로
- 평양 대동문(대동강)·보통문: 고구려 시대 성문 /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



을밀대 고공 농성
강주룡 · 1931



만수대

■ ② 개성 (개경) — 소나무가 많아 송경·송악·송도로도 불림

- 송악: 궁예 후고구려의 도읍(후에 철원 천도) →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다시 송악 도읍
- 개경: 고려의 수도 / 강감찬이 거란 대비 나성 축조
- 송상: 조선 후기 개성 상인(인삼 무역, 사개치부법) / 송방: 송상의 지점
- 만적의 난(최충헌의 사노비)
- 예성강 벽란도(국제 무역항)
- 개성 공단: 조성 합의(김대중) → 착공(노무현)
- 유적: 왕건릉·공민왕릉, 만월대(고려 왕궁 터), 선죽교(이방원이 정몽주 살해), 만부교(거란 낙타 굶겨 죽임), 개성 첨성대(고려)



만월대



선죽교

■ ③ 의주

- 의주(만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 만상: 조선 후기 의주 상인(청과 무역)
- 거란 1차 침입: 서희의 담판, 강동 6주 확보
- 고려 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피난
- 경의선 부설(서울~의주, 러일 전쟁 중 군수 물자 수송) / 경의선 철도 복원(김대중)



위화도 회군



강동 6주



만상·송상·경강상인·내상

■ ④ 원산 (옛 이름 덕원부)

- 원 간섭기 쌍성총관부에 포함
- 강화도 조약 이후 두 번째 개항 (부산 1876 → 원산 1880 → 인천 1883)
- 원산 학사(1883): 관민이 함께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
- 원산 총파업(1929): 라이징 선 석유 회사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당해 시작 → 4개월 지속 → 프랑스·중국·소련 노동 단체가 격려 전문



원산 학사



원산 총파업

■ ⑤ 정주

- 신민회 이승훈 오산학교
- 홍경래의 난(1811): 서북 지역 차별, 정주성 점령, 우군칙, 청천강 이북, 평서대원수

■ 그 밖의 북한 지역 (자주 나오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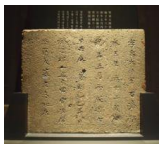
- **함경도**: 길주 — 이시애의 난(세조) / 화주 — 쌍성총관부(공민왕 수복)
- **철원**: 궁예 후고구려(태봉) 도읍 / 6·25 백마고지 전투
- **보천보**(함경남도): 동북 항일 연군의 보천보 전투(1937)

■ ① 공주 (웅진)

- 백제 웅진 문화 / 송산리 고분군(굴식 돌방무덤) → 무령왕릉(남조 영향 벽돌무덤) —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 묘지석(사마왕·영동대장군)
- 구석기 유적 공주 석장리
- 신라 하대 김헌창의 난(웅천주)
-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이의 난(무신 정권)
- 동학 농민 운동 마지막 전투 우금치 전투
- 공주 공산성: 인조가 이괄의 난 때 피난한 곳 / 마곡사 대웅보전(조선 17C)



진묘수



무령왕릉 묘지석

■ ② 부여 (사비)

- 백제 성왕: 사비 천도, 국호 남부여
- 정림사지 5층 석탑: 소정방의 백제 정벌 내용 새김
- 부소산성 / 낙화암 / 능산리 고분군·능사 터(백제 금동 대향로, 도교 영향)
- 천정대(정사암 회의 장소), 관북리 유적(백제 왕궁 터)

■ ③ 천안

- 독립기념관 / 아우내 장터(3·1 운동, 유관순 — 고향 병천)
- 망향의 동산(해외 동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묘역)

■ ④ 논산

- 황산벌 전투(백제 마지막 전투, 계백)
-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고려)
- 개태사(왕건이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세운 절) 철확·삼존석불
- 돈암서원(김장생 — 『가례집람』, 예학)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개태사 삼존석불



돈암서원

■ ⑤ 충주 (중원, 남한의 중심)

- 고구려 장수왕 충주(중원) 고구려비 → 국내 유일 고구려 비석
- 통일 신라 5소경 중 중원경
- 몽골 침입: 김윤후의 충주성 방어, 다인철소 주민 항전 (소 = 철 생산 특수 행정 구역)
- 임진왜란 신립의 탄금대 전투
- 충주 미륵리 석조 여래 입상(고려)



미륵리 석조 여래 입상

■ ⑥ 청주

- 통일 신라 5소경 서원경 → 신라 촌락(민정) 문서
- 흥덕사 『직지심체요절』(현존 最古 금속 활자본)
- 용두사지 철당간 / 영조 때 이인좌의 난(청주성 함락)

■ ⑦ 보은 · ⑧ 괴산 · ⑨ 단양

- 보은: 법주사 팔상전(현존 유일 조선 목탑) / 동학 보은 집회(보국안민·제폭구민·척왜양창의)
- 괴산: 송시열 제자들이 세운 만동묘(명 신종 제사) → 흥선대원군이 철폐
- 단양: 단양 팔경(도담삼봉, 옥순봉 — 김홍도 옥순봉도) / 단양 적성비(진흥왕)



법주사 팔상전



도담삼봉



옥순봉도(김홍도)

■ ★ 기타 지역

- **예산**: 수덕사 대웅전(고려 주심포), 남연군 묘(흥선대원군 아버지 — 오페르트 도굴 사건)
- **서산**: 서산 마애 삼존불(백제의 미소)
- **금산**: 칠백의총(임진왜란 조헌·영규 등 금산 전투 700 의병)
- **대전**: 3·8 민주 의거(4·19 혁명의 시발점)



박규수 (1807~1877) 박지원의 손자
1862 임술(진주) 농민 봉기 안핵사 파견
1866 제너럴셔먼호 불태움(평양 대동강)
1872 청에 사신으로 가 양무운동 견학 → 근대화 추진
1875 운요호 사건 → 통상 개화론 주장



최익현 (1834~1907)
1876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서 개항 반대 상소(왜양일체론) → 흑산도 유배
1895 을미사변·단발령 반발 → 을미의병
1905 을사늑약 반대 을사의병(태인) → 쓰시마섬 유배·순국



박정양 (1841~1905)
1881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 파견
1887 초대 주미 공사
1894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참여
1898 관민 공동회 참석 → 헌의 6조 수용, 중추원 관제 개편 추진



김옥균 (1851~1894)
박규수의 제자, 급진 개화파(박영효·홍영식·서광범)
1884 갑신정변 주도 → 14개조 정강
실패 후 일본 망명 → 상하이에서 피살



전봉준 (1855~1895)
1894 고부 군수 조병갑 횡포 → 고부 관아 습격
1차: 안핵사 이용태 탄압 → 백산 봉기·4대 강령 → 황토현·황룡촌 승리 → 전주성 점령 → 전주 화약
2차: 일본군 경복궁 점령 → 삼례 재봉기 → 논산 집결(남접+북접 손병희) → 우금치 전투 패배 → 처형



박은식 (1859~1925, 백암)
양명학 → 『유교구신론』 / 황성신문·독립협회
1915 신한 혁명당(이상설·신규식)
1925 임시 정부 2대 대통령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 (민족의 '혼')



윤희순 (1860~1935)
여성 의병장, '안사람 의병가' 등 의병가 창작
1907 안사람 의병단 조직 / 만주 망명 후 조선 독립단 활동



서재필 (1864~1951)
1884 갑신정변 참여 → 미국 망명
1896 귀국 →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설
1919 3·1 운동 후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 대회



이회영 (1867~1932)
1907 헤이그 특사 파견 추진, 신민회
1910 가족 전 재산 처분 → 서간도 이주,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학교) 설립
1932 다롄에서 체포 → 고문으로 순국



홍범도 (1868~1943)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 1920 봉오동 전투 승리, 청산리 전투 참여 → 간도 참변
1937 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 카자흐스탄에서 사망
(2021 유해 봉환)



이상설 (1870~1917, 보재)
1906 북간도 서전서숙 설립
1907 헤이그 특사(이준·이위종)
1910 연해주 13도 의군·성명회 / 1914 권업회 → 대한 광복군 정부
1915 신한 혁명당



양기탁 (1871~1938)
1904 베델과 대한매일신보 창간
1907 국채 보상 운동 주도, 신민회 조직
1911 105인 사건 / 1920년대 만주 정의부 / 임시 정부 국무령



남자현 (1872~1933)
3·1 운동 후 만주 → 서로군정서 참여
1927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 / 1932 국제 연맹 조사단에 혈서(한국 독립원)
여자 권학회 조직



주시경 (1876~1914, 한힌샘)
독립신문 한글판 교정 / 1907 국문 연구소 위원
『국어문법』, 『말모이』(최초 국어사전 원고), 『말의 소리』 / '한글' 이름 붙임

선사시대 ① 구석기 (70만 년 전~)

사회	① 무리 사회 ② 이동 생활(동굴, 강가 막집) ★
경제	사냥, 어로, 채집
유물	① 뗀석기 ★: 주먹도끼·찍개, 슴베찌르개 → 사냥 / 긁개·밀개 → 조리 ② 골각기(뼈 도구)
무덤	(구석기·신석기 공통 칸) 토묘(관이 아님), 동침신전앙와장 (태양 숭배)
신앙 예술	초기 예술품 출토(주술적 의미): 고래·물고기 조각 →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선사시대 ② 신석기 (B.C.8000~, 한민족의 모체)

사회	① 씨족 사회(족외혼: 모계 사회) → 부족 사회 〈평등〉 ② 정착 생활 시작(움집): 강가, 해안
경제	① 사냥, 어로, 채집 ⇨ 주류 ② 중·후반 농경의 발생(조·피·수수 등 잡곡) ★ →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탄화된 좁쌀 발견) ③ 목축(개, 돼지)
유물	① 간석기: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 농기구 ② 가락바퀴(방추차)·뼈바늘 → 의복, 그물 제작 ★ ③ 그물추 등 낚시 도구
토기	토기의 사용 시작(저장) ①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융기문) 토기, 눌러찍기문(압인문) 토기 ② 빗살무늬 토기(도토리·달걀 모양, 회색): 대표적 ★ ③ 물결무늬(파상문) 토기, 번개무늬(뇌문) 토기
신앙 예술	원시 종교(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 숭배) 조개껍데기 가면,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습

선사시대 ③ 청동기 (B.C.2000/1500~, 한민족의 주류)

사회	① 군장 사회[군장 국가]: 계급의 발생, 가부장 사회 ★ ② 움집의 확대(장방형): 구릉, 산간(배산임수)
경제	※ 사유 재산의 발생, 분업의 발생 ① 농경의 발달(보리, 콩, 벼 재배 시작) ② 목축 증가(소, (말))
유물	① 석기: 반달돌칼·홈자귀(농기구), 바퀴날도끼 ★ ② 청동기: 비파형 동검·거친무늬 거울 → 무기, 제기, 공구 ※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소수만 소유 ③ 그 외 각종 제기들, 선돌(입석)
토기	① 덧띠새김무늬 토기 ② 민무늬 토기(팽이형·화분형, 적갈색): 대표적 ③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홍도]
무덤	① 고인돌: 고창·화순·강화 등 전역에 분포 ★ ② 돌무지무덤(적석총) ③ 돌널무덤(석관묘)
신앙 예술	선민사상 / 울주 반구대 암각화(고래, 배, 그물, 사냥), 천전리(기하학무늬, 서석), 고령(기하학무늬)

선사시대 ④ 초기 철기 (B.C.5C~)

사회	① 연맹 국가(왕: 선출직) ② 점차 지상 가옥화(온돌의 발생), 귀틀집
경제	① 벼농사의 발전 → 저수지의 축조 ② 어로가 다시 발달(※ 패총이 다시 발견)
유물	① 철기 → 무기, 농기구, 기타 연모 ★ ② 청동기 → 주로 의기(儀器)화 됨 · 거푸집 → 독자적 청동기 생산: 토착화 · 세형동검·잔무늬거울 → 한국식 청동기 문화 ★
토기	① 검은 간토기[흑도] ② 김해식 토기 ③ 와질(연질), 경질, 도질 토기
무덤	① 돌덧널무덤(석곽): 청동기 후반~삼국 시대 유행 ② 독무덤(옹관묘): 청동기 후반~5C 유행(주로 남부 지방) ③ 널무덤(토광묘; 나무널): 오늘날까지 보편적

고조선

B.C.2333	**고조선의 건국** (단군왕검)
B.C.700 ~600	『관자』에 고조선과 중국 제나라의 교역 내용 등장
B.C.5C	철기가 처음 전래(전국 시대의 혼란기)
B.C.4C	왕을 칭함(연맹 국가로 발전) / 고조선이 연을 공격하려다 그만둠
B.C.3C	·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으로 서방 영토 2,000여 리 상실 · 부왕의 뒤를 이어 준왕이 왕위 세습
B.C.195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 준왕이 신임하여 박사 관직 부여
B.C.194	·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 · 준왕은 물길로 남쪽으로 내려가 진국에서 한왕(韓王)을 칭함
위만 조선	· 철기 문화의 본격적 보급(위만왕), 임둔·진번 등을 복속(위만왕) · 한과 진 사이 중계 무역(우거왕) · 한의 견제: 창해군 설치(B.C.128)
B.C.109	고조선의 선제공격으로 한과 전쟁 시작(섭하 살해 사건) → 1차전 고조선 대승
B.C.108	**한 무제의 침략으로 고조선 멸망** (수도 왕검성)
B.C.107	한 군현의 설치 / 이후 고조선의 법이 60여 조로 증가 (원래 범금 8조)
A.D.313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 축출 → 한 군현이 한반도에서 소멸

삼국 왕들의 업적 ① 1~4세기 — 고구려

태조왕 53~146 (1C)	형제 상속, 옥저·동예 정복, 기틀 마련
고국천왕 179~197 (2C)	행정적 5부, 부자 상속, 진대법(194) ★
동천왕 227~248 (3C)	오와 통교 / 서안평 공격 → 위 장수 관구검 침입 → 국내성 함락
미천왕 300~331 (4C)	서안평 점령, 낙랑(313)·대방(314) 축출 ★
고국원왕 331~371	전연의 침입 — 모용황(342) / 백제 근초고왕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전사(371)
소수림왕 371~384	불교 수용·공인(전진), 태학 설립 ★, 율령 반포(373), 전진과 수교, 거란족의 침입

1~4세기 — 백제 · 신라

고이왕 234~286 (3C)	기틀 마련, 율령 반포(260), 형제 상속 체제 정비 〈6좌평·16관등·공복 제도〉 ★, 남당 설치, 서진에 사신 파견 〈마한의 주도국으로 성장〉
근초고왕 346~375 (4C)	마한의 병합(369), 고대 국가 완성기 부자 상속, 왕비족 진씨 고정 『서기』(고흥) — 국사 편찬 ★ 동진과 외교 관계(→ 처음으로 공식적 외교 관계 성립) 칠지도 하사(369) (평양성 공격 → 고국원왕 전사)
침류왕 384~385	동진의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 수용(384) ★
신라 내물 마립간 356~402	고대 왕국의 기틀, 형제 상속제 확립〈김씨 왕위 세습〉 고구려를 통하여 전진과 수교 왜구 침입(399) → 광개토왕(왜구 격퇴) → 내정 간섭 → 호우명 그릇

중국 — ※ 한(B.C.206~A.D.220) cf. 왕망 新 건국(9~25) → 이를 기준으로 전한·후한
※ 위·촉·오 3국 시대(220~280) → 당시 고구려는 위와 대립
※ 5호 16국의 혼란 시대(316~439) / ※ 전진이 전연을 멸망시킴 → 이후 고구려는 전진(351~394)과 우호 관계 → 영역 확대 주 방향을 남으로 돌림

삼국 왕들의 업적 ② 5세기 — 고구려

광개토왕 391~413	· 한강선(한강 상류) 진출 · 왜구 격퇴(내물왕; 400) ★ · 후연(선비족)·비려(거란)·숙신(여진) 정벌 → 요동 수복
장수왕 413~491	· 평양 천도(→ 전 한강 점령) · 다면 외교: 남북조 모두 외교, 광개토대왕비 건립 ※ 나제 동맹(비유왕·눌지) 야기 → 북위에 국서(개로왕) → 한강·한성 점령 → 웅진 천도 → 결혼 동맹(동성왕·소지) · 지두우 점령 — 유연과 합세〈북위와 물길의 연결 차단〉
문자왕 491~519	부여 복속(494년 → 5세기 말), 고구려 최대 영토

5세기 — 백제 (한성 → 웅진 시대)

비유왕 427~455	눌지 마립간과 나제 동맹 체결(433)
개로왕 455~475	북위에 국서를 보냈으나, 장수왕에게 전사
문주왕 475~477	〈웅진 시대〉 웅진성 천도 → 문주왕 살해됨
동성왕 479~501	결혼 동맹, 탐라 복속, 백가의 난

5세기 — 신라

눌지 마립간 417~458	· 부자 상속제 확립 · 나제 동맹(+비유왕) · 고구려 묵호자에 의한 불교 수용
자비 마립간 458~479	· 수차례 왜인 격퇴 · 개로왕이 태자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니 마립간이 백제에 원군을 보냈으나, 신라군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무너지고 개로왕을 살해
소지 마립간 479~500	우역 설치, 행정적 6부 마련, 시사 설치(최초의 시장), 결혼 동맹

〈나제 동맹〉 외우기 — 나지유(433): 나제 동맹 = 눌지·비유 / 혼소동(493): 결혼 동맹 = 소지·동성 / 깨진성(553): 동맹 깨짐 = 진흥왕·성왕

삼국 왕들의 업적 ③ 6세기 — 고구려

- 안원왕 사후에 왕위 쟁탈전으로 국내 상황은 귀족 분열기
- 대외 상황은 북위 분열에 따른 북제의 고구려 압박
- 유연을 제거하고 성장한 돌궐의 압박
- 589년 수의 중국 통일 후 고구려와 돌궐의 친교 관계
- 이후 영양왕 때 온달의 한강 유역 회복 시도(590년)
- 598년 요서 지역 선제공격

6세기 — 백제 (웅진 → 사비 시대)

무령왕 501~523	22담로에 왕족 파견 ★ (→ 중앙 집권(왕권) 재정비 → 사비성 천도의 기반 마련) 양에 사신 파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 박사 파견〈단양이, 고안무〉
성왕 523~554	〈사비 시대〉 수도: 5부 — 중앙 22부 설치 / 지방: 5방 — 군·성 사비성 천도 → '남부여' 국호 ★ 불교 진흥 → 일본 전파: ① 겸익(인도에서 돌아옴) ② 노리사치계 일본 불교 전파 나제 동맹 파기(553) → 관산성 전투 ★: 한강 탈환 → 신라 배신 → 관산성(옥천)에서 전사

6세기 — 신라

지증왕 500~514	한(漢)화 정책 → 왕호: '왕'으로, 국호: 사로국 → '신라', 지방: 주·군제 실시 우산국 정벌(이사부) ★ 소경 최초 설치(아시촌 소경), 동시전 설치 우경 장려 → 농업 생산력 / 순장 금지 → 노동력 확보
법흥왕 514~540 중고기	최초의 연호: 건원 / 병부 설치(최초의 관부) 상대등 설치 — 왕·귀족 조화 율령 반포(울진 봉평비 확인), 불교 공인 (이차돈) 백제를 통하여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 (내물 마립간 이후 140년 만에 대중국 교섭) 금관가야 정복(532)
진흥왕 540~576	품주(최고 정부 기구) 설치, 화랑도 공인 ★ 대가야 정복(562) 개국·대창·홍제(연호) / 흥륜사 완공, 황룡사 조성, 불교 교단 정비 〈신라 3보〉 황룡사 장육상, 진평왕의 허리띠, 황룡사 9층 목탑

중국 — ※ 위·진 남북조 시대(439~589) ※ 수 통일(589~618) ※ 고구려: 수나라 요서 선공(598, 영양왕)

삼국 왕들의 업적 ④ 7세기 — 고구려 · 백제

영양왕	※ 수와 전쟁(598, 612 …) (612 살수대첩)
영류왕	→ 연개소문, 당의 침입에 대비 천리장성 축조
보장왕	→ 당 태종 요동성 함락 → 안시성 승리(645)
무왕 600~641	· 미륵사·왕흥사 창건 ★ (익산 경영 → 천도는 실패) · 서동요의 주인공
의자왕 641~660	· 한때 신라 40여 성 탈환 (642 대야성) ·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 탈취(642)

7세기 — 신라 (중고기 → 중대)

진평왕 579~632	위화부·조부·예부 설치 걸사표(수나라 — 원광 법사, 608), 세속오계 ★
선덕여왕 632~647	당과의 통교 황룡사 9층 목탑(자장의 건의) ★, 첨성대
진덕여왕 647~654	품주 → 집사부(기밀 사무), 창부(재정)로 분화 태평송을 지어 당 고종에 바침 좌이방부(형률) 설치, 중국식 복제와 연호 사용 — 영휘
무열왕 654~661 중대	최초의 진골 왕, 갈문왕 제도 폐지 사정부(감찰 기관) 설치, 중국식 시호 사용(태종) ※ **백제 멸망(660)**
문무왕 661~681	· 외사정 처음 지방 파견(주·군) ※ **고구려 멸망(668)** (보덕국 안승 — 문무왕 때) 〈나·당 전쟁〉 천성 전투(675), 매소성 전투(675.9), 기벌포 전투(676) ★ **3국 통일**(676; 대동강~원산만) — 당으로부터 영토 인정은 735년(성덕왕 34년)에 이루어짐
신문왕 681~691	· 김흠돌의 난 평정 ★ → 전제 왕권 확립(만파식적) → 성덕왕·경덕왕 대 전성기 · 달구벌 천도 계획 · 제도 완비 (1) 정치: ① 6전 제도 완비 ② 지방: 9주 5소경(주·군에 외사정 파견) ③ 군사: 9서당 10정 (2) 교육: 국학 설치 (3) 토지: 관료전 지급, 그 후 녹읍 폐지

중국 — ※ 나당 연합(648) (김춘추) ※ 웅진 도독부 설치(660) ※ 계림 도독부 설치(663) ※ 안동 도호부 설치(668)

삼국 왕 순서 외우기 (세기별 → 끝은 중국)
2C 태→고·천→한 / 3C 동→고→삼 / 4C 미→원→소→근→침→내→5호
5C 광→장→비→개→문→동→눌→자→소→위진남 / 6C 문→무→성→지→법→진→위진남→수
7C 양→류→보→무→의→평→선→진→열→무→신→수·당

통일신라와 발해 왕들의 업적 ① 발해

고왕 천통 698~719	· **건국(698)** (대조영) · 건국 후 돌궐·신라에 사신 보내 통교(신라 대아찬 수여) · 발해 군왕
무왕 인안 719~737	· 일본과 친선 관계(일본 통해 신라 견제, 돌궐 통해 당 견제) · 장문휴의 산둥반도 덩저우 선제공격(732, ∵ 대문예 망명 사건) ★ → 당·신라의 협공으로 실패(733)
문왕 대흥 737~793	· 황제 칭호, 전륜성왕, 발해국왕(762), 고려국 표방 · 지배 체제 정비 ※ 천도: 중경 → 상경 → 동경 ① 3성 6부 설치 ② 주자감 설치(국립 대학) ★ ③ 주작대로 설치(당 장안성 모방) 〈대외 관계〉 ① 요동반도까지 진출(당 안록산의 난 계기) ② 당과 국교 수립(762) ③ 신라와 상설 교통로 개설 (신라도)
성왕 중흥	· 다시 상경 용천부로 환도(→ 이후 쭉)
선왕 건흥 818~830	: 중흥기, 최전성기 (1) 지방 행정 조직 정비: 5경 15부 62주 (2) 최전성기(최대 판도) ① 요하 유역까지 진출(요동 지배권 획득) ② 소고구려국까지 편입 ③ 해동성국 칭호
10C	※ **발해 멸망(926)**: 거란과 전쟁 보름 만에 멸망 ※ 발해 유민 부흥 운동: 정안국, 후발해국, 오사국, 흥요국, 대발해국 (cf. 동란국 X) ※ 발해 멸망 후 발해 지배층 대거 고려로 망명(12C 초 예종 대까지): 고려 지배층의 일부를 구성, 왕족으로 대우하기도(대광현)

중국 · 주변

※ 발해와 전쟁(733) ※ 안록산의 난[안사의 난](755~763, 경국지색)
※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 시대[현 교토]; 794~1185)
※ 당 멸망(907) → 5대 10국 → 송 건국(960)
※ 거란 건국(916; 야율아보기) → '요' 개칭(936; 연운 16주 획득) → 전연의 맹 체결(1004; 송 공격 후)
※ 금 건국(1115) → 북송 멸망(1127; 연운 16주 문제)

왕 순서 외우기

① 발해 — 8C 고→무→문→성 / 9C 선 / 10C 망
② 통일신라 — 8C 덕→경→혜→선→원 / 9C 헌→흥→문→진 / 10C 백→구→려→발→신→백→오대→송→요

② 통일신라 — 중대 (8세기)

성덕왕 702~737	정전 지급(722) 발해 영토 확장(무왕) 경계 / 발해·당 전쟁에 적극 참여 → 대동강 이남 신라 땅 인정
경덕왕 742~765	국학 → 태학 개칭 / 석굴암, 불국사(다라니경) 녹읍 부활 ★
혜공왕 765~780	· 대공의 난(768) · 김지정의 반란(780) (→ 김양상이 진압, 스스로 왕이 됨)

통일신라 — 하대 (8세기 말~10세기)

선덕왕 780~785	하대 시작, 내물계 진골
원성왕 785~798	독서삼품과 설치 ★
헌덕왕 809~826	① 김헌창의 난(822) — 장안(국호), 경운(연호) ② 김범문의 난(825)
흥덕왕 826~836	· 청해진 설치(828~851; 장보고, 완도) ★ · 사치 금지령
문성왕 839~857	· 장보고의 난(846) (원본 표기 838·846 — 838년은 장보고가 김우징(신무왕)의 즉위를 도운 해)
진성여왕 887~897	· 『삼대목』 편찬(대구화상, 각간 위홍. 부전) · 전국적 민란의 발생(사벌주[상주] 원종·애노의 난이 시초) ★

후삼국의 성립과 통일 (10세기)

900	**후백제 건국**(완산주): 오월·후당·거란과 고른 외교 (견훤)
901	**후고구려 건국**(송악) (궁예) → 마진(904): 무태·성책, 철원 천도(905) (광평성 설치) → 태봉(911): 수덕만세·정개
918	**고려 건국**(철원) → 송악 천도(919)
927	견훤의 경주 습격: 경애왕 죽이고, 경순왕 옹립 → 왕건의 대구 공산 전투 패전(신숭겸·김락 전사)
930	고창(현 안동) 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 후삼국 통일의 기틀 마련
935	**신라, 고려에 귀부**
936	**후백제 멸망**: 일리천(현 선산) 전투 ★, 황산 전투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 ① 태조 (천수, 918~943)

정치	〈**중앙 집권책**: 왕족, 호족 세력 균형 유지〉 ① 토성의 분정, 본관제 실시〈성씨 일반화(평민도 사용)〉 ② 서경 경영, 분사 제도 시작(예종 때 완성) ③ 호족 통합 정책 — 결혼 정책, 사성 정책, 사심관 제도 ④ 호족 통제 정책 — 기인 제도, 사심관 제도 ★ ⑤ 중앙 관리 임명: 『정계』, 『계백료서』 ★ (→ 중앙 집권화의 정신적 기반) 〈**북진 정책**〉 ① 서경 중시(북진의 전진 기지) ② 거란 강경책: 국교 단절, 만부교 사건(942) ③ 발해 유민 적극적 포섭(12C 초 예종 때까지) ④ 청천강~영흥(왕식렴, 유금필 → 여진 축출)
경제 사회	〈경제 사회 정책〉 ① 조세 감면: 1/10세(취민유도) ② 역분전(일종의 공신전): 인품과 공로에 따라 ③ 지방 부세 수취: 조장·금유, 전운사 파견 ④ 흑창 설치(농민의 재생산 보장) ★
문화	〈문화 정책〉 ① 학보 설치(교육 장학 재단) ② 개태사, 승관 제도 마련 ③ 훈요 10조(박술희가 받아 적음) ★

② 혜종 · 정종

혜종 943~945	· 왕규의 난 등 왕위 쟁탈전(결혼 정책의 부작용 등 때문)
정종 945~949	· 왕식렴(서경 세력)이 왕규의 난 진압 → 서경 천도 계획 · 〈광군 편성(광군사)〉 ★: 거란 대비 특수군, 최초 전국적 군사 조직 → 중앙 정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단서를 엶

③ 광종 (949~975)

대외	※ 송 건국(960) → 송과 수교(962)
정치	〈**왕권 강화책**: 국가 기틀 마련〉 ① 신진 세력 등용: 지방의 군소 호족(비공신 계열: 과거, 귀화인, 가문 기반 없는 사람들) ② 자주성 고취: 황제, 황도(개경), 서도(서경), 연호(광덕, 준풍) ★ ③ 공복 제도 마련(960): 자·단·비·록 (자주적 아님 — 후주의 사신 방문을 계기로 중국식의 복제 마련) (경종 대 전시과의 기준이 되어 줌)
경제 사회	〈경제 사회 정책〉 ① 주현 공부법(즉위년): 주현의 세공액 정함(→ 호족 통제) ② 노비안검법(956) ★: 본래 양인이었던 노비 해방(→ 호족 기반 약화, 국가 수입↑) ③ 과거 제도(958) ★: 후주 귀화인 쌍기 건의 ④ 제위보(963): 빈민 구제 기금
문화	〈문화 정책〉 ① 승과 제도 실시, 귀법사 창건(균여, 화엄종) ② 교종 통합(화엄종으로), 교·선 통합 모색(법안종·천태학 통해) ③ 균여(성상융회, 성속무애), 혜거(국사), 탄문(왕사), 의통(중국 천태종 13조 됨), 제관(『천태사교의』 저술) ※ 『정관정요』 참고(유교 정치)

④ 경종 (975~981)

정치	공신 계열의 반동 정치(광종 대 개혁 세력들 제거되고 공신 세력 재등장)
경제	시정 전시과 ★ · 최초의 국가적 규모의 토지 제도 · 광종 대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함 〈내용 및 한계〉 ① 전·현직 관리[직·산관] ② 전지와 시지 ③ 아직 인품이 반영(역분전 성격 잔존)

대외 (고려 전기 배경)

※ 당 멸망(907) → 5대 10국 → 송 건국(960)

※ 거란 건국(916; 야율아보기) → '요' 개칭(936; 연운 16주 획득) → 전연의 맹 체결(1004; 송 공격 후)

⑤ 성종 (981~997)

정치	*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귀족 정치 마련되면서 서서히 보수화 시작 — 광종 전후의 정치적 혼란(새로운 질서 필요: 개혁 주도 세력은 6두품) ① 김심언의 「자사 6조」 ② 최승로의 「시무 28조」 ★ (※ 5조 정적평: 태조의 치적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고려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고, 유교적 역사 인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출발점 제시) ㄱ. 유교를 정치 운영의 원리로 이해 ㄴ.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 지방 호족 세력 억압(중앙 집권), 왕의 전제 정치는 반대(귀족 관료 정치) ㄷ. 불교, 도교 등 토속 행사 비판 ㄹ. 민족의 자주성 강조: 고려의 토풍 〈**중앙 관제의 정비**〉 ① 3성 6부제(완성은 문종), 중추원·삼사, 도병마사·식목도감 등 중앙 관제 정비 ② 당의 문산계·무산계 29등급 도입(관직 제도상 문무 양반 체계가 갖춰짐) — 다만 중앙의 문무 관리는 문산계, 지방 호족인 향리와 노병·탐라 왕족·여진 추장·공장 등에게는 무산계 지급(관직의 이원화: 향리 격하) ③ 향직 개편: 호장·부호장 호칭(중앙과 차별 명확히) ④ 지방관 파견: 전국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상주 관리 파견 ★ ⑤ 6위 설치, 병마사 설치(이를 통령하는 도병마사 처음 실시), 호족 무기 몰수하여 농기구 제작 ⑥ 분사 제도 실시: 비서성(개경), 수서원(서경) 설치(도서관)

⑦ 현종 (1009~1031)

정치	〈지방 제도의 완비〉 ① 5도 양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 ② 안찰사 파견 시작 ③ 경기 설치 ※ 2군 설치(목종 vs 현종. 6위보다 뒤에 설치) 〈거란 관련 정책〉 ① 감목양마법: 침입 대비〈군마 확보책〉 ② 나성 축조: 전후 강감찬 건의로 개경에 축조(1029년 완성)
경제 사회	① 면군급고법: 노부모가 있을 때 군대 면제, 70세 이상 부모 봉양 시 관리 외직 제한 ② 주창수렴법: 각 주에 주창을 비치〈의창의 설치 확대법〉 ③ 주현공거법: 과거 응시법〈향리 자제 과거 응시 제한 철폐〉
문화	① 불교 진흥: 현화사 창건(법상종), 연등회·팔관회 부활 ② 초조대장경 시작(1011~1087) ★: 거란 격퇴 기원 → 몽골 2차 침입 시 소실 ③ 7대 실록: 거란 침입으로 불탄 실록 편찬
대외	※ **거란 2차 침입(1010)**: 거란 성종 vs 양규 ※ 김훈·최질의 난(1014) — 고려 최초의 무신의 난 ※ **거란 3차 침입(1018)**: 소배압 vs 강감찬 — 귀주대첩(1019) ★

⑧ 덕종 · 정종 (덕-천압도)

1033 ~1044	천리장성 축조: 덕종 2년(1033)~정종 10년(1044) · 압록강~도련포 · 거란 및 여진 대비

성종 경제 사회	① 노비환천법 ② 의창(986): 흑창(태조) 보완 개편 → 전국 주에 설치 상평창(993): 물가 조절 기금 조성 → 개경·서경, 12목에 설치 ③ 재면법: 흉작 따라 세금 감면 ④ 고리대 이식 제한(자모정식법 원본: 모자법): 모(본전) = 자(이자)면 더 이상 이자 징수 금지 ⑤ 건원중보(996): 최초의 철전 화폐
성종 문화	① 문신 월과법(처음), 교육 장려 조서 ② 과거 제도 확대 실시 → 지방 세력들도 급제할 기회 * 지방 세력의 자치적 권력은 축소, 중앙 관리로의 진출 기회는 확대 ③ 유교 교육 기관 지방에도 세워짐 — 중앙: 국자감 설치(원칙: 평민 자제도 입학 가능, 기술학도 가르침) cf. 조선 성균관: 평민 입학 X, 기술학 X(→ 해당 관청에서 교육) — 지방: 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지방에서도 유학·의학 교육) — 도서관 설치: 비서성(개경), 수서원(서경) ④ 전통적 습속·제례 비판 → 유교적 제도 수용, 팔관회·연등회 까지 폐지
성종 대외	※ 압록강 유역 정안국 멸망(986, 거란) ※ **거란 1차 침입(993)**: 소손녕 vs 서희 — 서희의 강동 6주 획득

⑥ 목종 (997~1009)

정치	〈강조의 정변〉 목종의 요청으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거병한 것이 목종 폐위와 현종 즉위로 이어짐 → 거란 성종의 2차 침입의 명분이 됨
경제	〈개정 전시과〉 ① 18등급 따라 지급(인품이 아닌 관등으로 일원화) → 성종 대 문무 산계 바탕 ② 전·현직 관리(현직 위주), 문신 위주 ③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 감소: 한외과는 시지 지급 X ④ 군인전 명시됨

⑨ 문종 (1046~1083) — 인주(경원) 이씨 외척 집권기

정치	〈중대의 정치 상황〉 · 사학의 발달: 사학 12도(최충의 9재 학당 등) ★ · 남경의 설치 · 2성 6부 제도의 완성(내사문하성 → 중서문하성 개편) · 6부 판사제(판사를 2품 이상의 고위 대신이 겸임) · 경기도 통치 체계 일단락: → 성종(개성부 — 5적현·7기현) → 현종(개성부 혁파 — 경기라 칭함 — 상서도성 직할) → 문종 경기부 부활(12현의 통치)
경제	〈경정 전시과〉 ① 현직 관료에 지급(산직자 배제) ② 무반 대우 현저히 상승 ③ 지급 액수 더 감소, 한외과 삭제 ④ 향직, 무산계 전시 병설 ⑤ 공음전시, 공해전시 규정
사회	① 기인선상법: 향리의 자제여야 한다는 규정 없앰, 인질 성격도 사라짐 ② 삼복제 실시: 사형은 3심제 재판 ③ 삼원신수법: 반드시 3인 이상의 인원 갖춘 후 국문 ④ 동서대비원
문화	① 흥왕사(의천 출가) ②『가락국기』(김양감),『고금록』(박인량) ※ 의천: ① 성상겸학(법상종 견제), 균여 비판, 원효 중시(화쟁사상) ②『신편제종교장총록』,『천태사교의주』 등

⑩ 숙종 (1095~1105)

1095	※ 이자의의 난(1095) 진압 후 등극(계림공 — 숙종)
정치	※ 국학 폐지론 나옴 / 관학 진흥책: 서적포(서적원 아님) 설치 남경 궁궐 건설(김위제), 평양에 기자 사당 건립
경제	〈경제 시책〉 · 주전도감(의천의 주전론) · 활구(은병), 삼한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해동중보 ★
문화	· 국청사: 교선 통합 운동 ※ 천태종 개창(1097) ★ ① 교관겸수, 지관 ② 교종 중심의 불완전한 통합 ③ 선종 제3종단으로 밀려남
대외	※ 윤관 패배 ⇨ 별무반 창설(1104; 신기·신보·항마) ★

⑪ 예종 (1105~1122)

정치	〈관학 진흥책〉 ① 국학 7재(무학재 포함) ② 양현고 ★ ③ 과거 응시자 국자감 수학 의무화 ④ 청연각·보문각 〈지방 제도〉 ① 5도 안찰사제 완성〈파견은 현종〉 ② 감무 파견 시작
사회	① 구제도감 ② 혜민국 설치
문화	도이장가 지음, 속편년통재, 해동비록 편찬
대외	※ 동북 9성 축조(1107) ★ → 1년 7개월 지나 반환 ※ 여진과의 긴장 관계 ※ 금 건국(1115; 아골타) → 북송 멸망(1127; 연운 16주 문제)

⑫ 인종 (1122~1146)

정치	※ **이자겸의 난(1126)** ⇨ 유신지교 반포(서경) ※ **묘청의 난(1135)** ★ · 대위, 천개, 천견충의군 · 분사 제도·3경제 폐지 〈관학 진흥책〉 ① 경사 6학 정비(무학재 폐지) ② 향교 설치: 지방 교육 강화
경제 사회	〈인종의 왕권 강화책〉 유신지교 15개 조항: ① 풍수지리 ⇨ 1(서경) ② 관리 비위 척결 ⇨ 4 ③ 민생 안정 ⇨ 10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
문화	①『삼국사기』(김부식 등) ★ ②『상정고금예문』
대외	※ 인종 대 금의 사대 관계 요구 → 이자겸·김부식 수락(1126)

⑬ 의종

1170	**무신정변(1170, 경인의 난)**

무신의 정권 쟁탈전 ① 중방 정치 (1170~1196: 연합 정권)

왕	의종 폐위 → 명종(1170~1197)
집권자	정중부(중방) → 경대승(도방) → 이의민(중방)
문화	· 『동명왕편』(명종, 1193; 이규보): 고구려 계승 의식
반무신란	① 김보당의 난(1173) ② 조위총의 난(1174) ③ 교종 계통 승려들의 봉기
민란 농민·천민	·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명학소) · 전주 군인·관노의 난(1182) · 김사미·효심의 난(1193): 최충헌 정권 등장 배경, 울산

② 최씨 정권 (1196~1258: 1인 독재 정권 — 교정도감)

왕: 명종 → 신종 → 희종 → 강종 → 고종(1213~1259) ※ 문신 보호, 항몽 정권, 조계종 후원(선종 계통)

최충헌 1196~1219 (고종 6)	⑴ 정치 기구: 도방, 교정도감 ① 시무 10조(봉사 10조) ★ ⇨ 실시는 없었음 ② 진강후 책봉 → 흥녕부(진강부) 설치(1206) ③ 교정도감 설치(1209) ★: 최고의 권력 기관, 교정도감(장관)직 최씨 일가가 세습 **문화** · 〈고종 대〉『해동고승전』(1215; 각훈) ※ 조계종 개창(지눌, 송광사), 신앙 결사 운동(수선사, 백련사) ★ **민란** ① 만적의 난(1198) ★: 신분 해방, 정권 탈취 ② 최광수의 난(1217, 고종 4) ※ 강동의 역(1219) ① 대요수국〈거란〉 침입 1217년 ⇨ 김취려에게 격파 ② 몽골에 쫓겨 재침입 ⇨ 몽골군과 몽골을 지원하던 동진국〈여진〉과 연합 격퇴〈1219년〉
최우(이) 1219~1249 (고종 6~36)	⑴ 정치 기구: 정방, 서방, 도방 확대 ① 정방 설치(1225) ★: 사저에 설치한 인사 행정 담당 기구, 책임자인 정색승선은 문신 등용 ② 서방 설치(1227): 문신 숙위(고문 역할) ③ 삼별초 조직(좌·우별초, 신의군) ★ ⑵ 대몽 항쟁 · 강화도로 천도(1232) ★, 팔만대장경(수기) · 황룡사 9층 목탑, 부인사 대장경(초조대장경) 소실 **문화** ⇨『상정고금예문』 금속 활자 인쇄(1234)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발문 ⇨『향약구급방』(1236) ⇨ 혜심의 유불 일치설 ★ **민란** ① 이연년의 난(1237, 고종 24): 백제 부흥
최항 **최의**	정방, 교정도감
몽골 침입	※ 몽골의 침입 시작 ① **1차(1231, 고종 18)**: 다루가치 설치(박서 — 귀주성) ⇨ 강화 천도(1232) ② **2차(1232)**: 김윤후, 살리타 사살(처인성) ③ 6차(1254~59): 차라대(車羅大)의 초토화, 태자 입조

③ 붕괴기 (1258~1270)

왕	원종(1259~1274) ⇨ 개경 환도 (1270)
집권자	김준·유경 → 임연 → 임유무
1258	무오정변(1258년) — 최씨 무신 정권 붕괴(새로운 무신 정권의 성립)
원의 기구	① 쌍성총관부(고종; 1258, 영흥) · 조휘·탁청의 반부 사건(반역자) ② 동녕부(원종; 1270, 서경) ③ 탐라총관부(원종; 1273) · 삼별초 진압 후
대외	※ 왜구 침입 시작(고종 대부터) ※ 몽고 → 원 개칭(1271)

원의 내정 간섭 ① 충렬왕 (1274~1308)

정치	〈정치 개혁〉 · 전민변정도감 · 홍자번의 편민 18사(1296)〈백성들을 위한 대책〉 · 경사교수도감 · 섬학전
문화	· 『삼국유사』(1281; 일연) ⇨ 『제왕운기』(1287; 이승휴)
대외	※ 일본 원정 실패 · 둔전경략사 설치(원종, 1271) ⇨ 1차 원정(1274) · 정동행성 설치(1280) ★ ⇨ 2차 원정(1281) · 동녕부, 탐라총관부 회복 ※ 송 멸망(1279)

② 충선왕 (1298, 1308~1313)

정치	〈정치 개혁〉 · 정방 폐지 · 사림원 설치: 신진 사대부와 결속 · 최초의 반원 개혁 시도(실질적인 반원 개혁은 없었다) · 원의 수시력 채용 ·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
경제	〈경제 개혁〉 · 전농사 · 의염창: 소금의 전매 제도
대외	만권당 설치(연경) ★: 성리학과 조맹부체 수용(조맹부, 이제현 등 교류)

③ 충숙왕 · 충목왕

충숙왕	찰리변위도감 cf. 반전도감(1328) — 개혁 기구 아님 『본조편년강목』: 태조부터 고종까지, 주자의 강목법을 도입한 최초의 사서
충목왕	정치도감

④ 공민왕 (1351~1374)

배경	※ 신진 사대부 성장(그러나 개혁 세력화는 미약) · 원·명 교체기
정치	〈정치 개혁〉 **1차 개혁** · 권문세족의 숙청 · 고려 관제 복구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쌍성총관부 탈환(1356, 유인우) ★ **2차 개혁** · 전민변정도감(1366): 신돈 등용 ★ · 성균관 부흥: 순수 유학 기관으로 개편(잡학 없음), 유교 교육 강화, 신진 사대부 성장 · 요동 공략(지용수, 이성계)
문화	· 『사략』(이제현)
대외	· 홍건적 침입 ① 1차(1359): 서경 함락 ② 2차(1361): 개경 함락, 안동 피난 ※ 명 건국(1368~1644) ※ 왜구 가장 극심 ⇨ 신흥 무인 세력 성장

⑤ 우왕 (1374~1388)

정치	· 권문세족 재발호 · 화통도감 설치(1377, 최무선)
문화	· 『직지심체요절』(1377)
대외	· 왜구 격퇴 ① 홍산 전투(1376, 최영): 부여 ② 진포(1380, 최무선): 금강 ③ 황산(1380, 이성계): 남원 ④ 관음포(1383, 정지): 남해 · **위화도 회군(1388)**

⑥ 창왕 · 공양왕 (1389~1392)

창왕	· 급전도감 / · 대마도 정벌(1389, 박위)
공양왕	· 폐가입진 · 과전법(1391) · 서적원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

태조 1392~1398	**정치** - **한양 천도(1394)** - **1차 왕자의 난(1398)** ⇨ 방석 세자 책봉 < 방석·방번 살해 ⇨ 정도전·남은·심효생 제거 - 의흥삼군부 설치(군무 기능 분립) **정도전 — 조선 건국 전 저서** - 삼봉『심기리편』⇨『심문천답』 -『금남잡영』·『금남잡제』 **정도전 — 조선 건국 후 저서** -『조선경국전』(정도전) : 최초의 법전 -『경제육전』(조준) : 조준과 함께 편찬한 관찬 법전 — 조종성헌의 최초 성문 법전 -『경제문감』: 조선 전기 정치 조직에 대한 초안 ⇨ 감사와 수령의 통할권을 재상이 가져야 한다 -『고려국사』(정도전) : 고려 왕조 멸망의 당위성 - ★『불씨잡변』(불교 비판) - 불교 : 도첩제 실시 **대외** 요동 수복 계획(정도전 ; 진도 작성)
정종 1398~1400	**정치** - **개경 천도(1399)** (원본 빈칸 — 태조 한양 천도 ↔ 태종 한양 재천도 사이) - **2차 왕자의 난(1400)** = 방간의 난(박포의 난) ⇨ 태조 4남 방간 + 1차 왕자의 난 공신 박포의 결합 → 방원이 진압 ⇨ 정종은 방원을 세제(世弟)로 삼고 방원에게 양위 **문화** 집현전의 설치
태종 1400~1418	**정치** - **한양 재천도(1405)** - 사원 토지의 몰수, 사병 혁파 - ★6조 직계제 채택 **경제** - 사섬서(저화 발행, 1401) - 양전 사업 실시 - 과전 하삼도 이급(1417) **사회** - 신문고 제도(의금부 관할, 하극상 불가) - 호패법 실시(노비 포함 모든 남자만) - 서얼차대법, 재가녀 제약 **문화** -『동국사략』(권근) : 일명『삼국사략』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현존 동양 최고(最古) 세계 지도) -『원육전』·『속육전』(하륜) - 주자소 설치(★계미자) **대외** 요동 수복 보류 → 명과의 관계 호전
세종 1418~1450	**정치** - 의정부 서사제 (인사, 군사는 왕이 유지) - 집현전의 재정비 (학문 연구 기관) **경제** - 과전 경기 환원(1431) - 공법 실시 : 공법상정소, 전제상정소(1436) · 연분 9등법 (세종 26. 1444 ~ 영정법) · 전분 6등법 (1444) - ★『농사직설』(정초) · 삼남 지방 농부들 이야기 직접 채취 · 이앙법 소개는 하나 부정적 · 시비법 : 인분, 오줌재, 녹비 등 - 조선통보(1423) **사회** - 금부 삼복법(사형 3심제), 노비 사형 금지법, 태배 금지법 - 여자 종의 출산 휴가 연장 **문화** - 과학 기구 : 측우기, 혼천의 - 역법 :『칠정산』내·외편 - 인쇄술 :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 관습도감 설치 : 아악 정리(박연) - 편찬 :『농사직설』(1429), (신찬)『팔도지리지』(1432),『향약집성방』(1433),『삼강행실도』(1434), ★훈민정음 창제(1443),『의방유취』(1445),『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 - 불교 정책 : 선·교 양종 36개 사로 통합, 내불당 **대외** - ★4군 6진 개척(현재의 국경선) - ★쓰시마 정벌(이종무) - 삼포 개항(1426 ; 부산포, 제포, 염포) - ★계해약조(1443 :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 (이어서)

문종 1450~1452	**정치·편찬** - 『고려사』(세종~문종 ; 기전체) - 『고려사절요』(문종 ; 편년체)
단종 1452~1455	**정치 계유정난(1453)** (원본 빈칸 — 수양대군이 김종서·황보인 제거) **문화** 『세종실록지리지』(독도) **대외·대내** 조선 왕조에 대한 최초의 반란 — **이징옥의 난(1453)** — 함경도 차별의 계기
세조 1455~1468	**정치** - 6조 직계제 부활 (원본 빈칸) /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 5위, 진관 체제, 보법 정비 **경제** - ★직전법 실시(1466) · 현직에만 지급 · 수신전·휼양전 폐지 - 전폐 (팔방통보 ; 유엽전, 1464) **문화** - 불교 진흥 : 간경도감(『월인석보』), 원각사와 10층 석탑 - 규형(인지의, 1466) : 토지 측량 기구 - ★『경국대전』 착수(호전, 형전), 동국지도(양성지, 인지의를 이용한 최초의 실측 지도) **대외·대내** - **이시애의 난(1467)** ⇨ 함경도 차별의 반발 ⇨ 유향소 폐지(성종 때 부활)되고, 호패법 강화됨
예종 1468~1469	**정치** 경연 부활
성종 1469~1494	**정치** -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김종직 등 ; 훈구파 견제) - ★홍문관(옥당) 설치 (집현전 후신) - 독서당(호당) → 연산군 대 폐지 → 중종 대 동호독서당으로 부활 **경제** - 관수관급제 실시(직전법 下 ; 1470) - 『금양잡록』(1475, 강희맹) : 금양(과천·시흥) 지방 **사회** 재가 금지법 채택 **문화** - 도첩제 폐지(승려 출가 일체 금지), 간경도감 폐지, 도성 내 사찰 철거 - ★『경국대전』 반포 - 편찬 : 『삼국사절요』(1476, 노사신·서거정 ; 편년체), 『동문선』(1478, 서거정 ; 시문집), 『동국여지승람』(1481), 『동국통감』(1485 ; 고조선~고려 말), ★『악학궤범』(1493, 성현), ★『국조오례의』(세종~성종)

사림과 사화

연산군 1494~1506	**정치** - **무오사화** - **갑자사화**
중종 1506~1544	**정치** - 조광조의 혁신 정치 (도학 정치) - **기묘사화** **조광조의 개혁 정치** - 소격서 혁파(1518), 유향소 폐지 주장 - 향약 보급 시도(여씨향약), 언문청 설치 - ★현량과 실시, 공납 제도 개선 - 위훈 삭제 → 기묘사화의 직접적 배경 **경제** 군적수포제 **사회** 백운동 서원(안향 ; 최초 서원, 주세붕 건의) **문화** 『이륜행실도』·『주자대전』·『훈몽자회』 **대외** - **삼포왜란(1510)** : ★비변사 처음 설치 **임신약조(1512)** : 제포만 개항, 교역물 반감 - **사량진왜변(1544)**
인종 1544~1545	(원본 표에서 기록 없음)
명종 1545~1567	**정치 을사사화** **경제** - 직전법 폐지(녹봉만 지급) ⇨ 토지 소유욕 자극(지주전호제 확산) **사회** 소수 서원(최초 사액, 이황 건의) **문화** 불교(승과, 보우) **대외** - **정미약조(1547)** - **을묘왜변(1555)** : 국교 단절, 비변사 상설화 **대내 임꺽정의 난** (1559, 황해 구월산)
선조 1567~1608	**정치** - 이조 전랑직 추천 문제 ⇨ 동·서 분당 (을해당론) - 정철의 건저의 사건 ⇨ 동인의 남북 분당 - ★훈련도감 설치(1593), 속오군 편성 **경제** 조식의 서리망국론, 대공수미법 주장(이이, 유성룡 등) → 실시 안 됨 **사회** 향약 실시(이황, 이이) **문화** - 불국사, 경복궁 소실, 사고 소실(전주 사고 보존) -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의 전래 **대외** - **임진왜란(1592)** - **일본과 국교 재개(1607)** **대내** - **정여립 모반 사건** (1589 ; 대동계) → 기축옥사(동인 처벌) - **이몽학의 난** (1596, 임란 중 ; 청주)

붕당의 성립과 발전

선조 1567~1608

붕당의 발생
(1) **을해당론(1575)** : 이조 전랑직 다툼(심의겸 vs 김효원) ⇨ 동·서 분당
- **정여립 모반 사건(1589)** : 기축옥사(정철이 주도, 동인 막대한 피해)
(2) **정철의 건저의 사건(1591)**
⇨ 남·북 분당 ① 북인 : 서경덕·조식 계열 ② 남인 : 이황 계열 (유성룡)

경제·사회
- 불국사, 경복궁, 사고 소실(전주 사고 보존)
- 고추, 담배, 호박 전래

대외
- 일본과 국교 재개·통신사 파견(1607) → 일본의 요청으로 이뤄짐
① 조선이 한 단계 높은 위치 : 왜사 서울 입경 불가, 일왕 친서 예조참의에 전달
② 총 12회 파견(일본이 월등 많이 파견)
③ 통신사 정사 수상 대우, 국빈 대우

광해군 1608~1623

정치
- 대북파가 정권 장악 : 왜란 중 주전파, 의병 활동 적극적 수행
- 사림 지지 기반의 상실
① 회퇴변척(이언적, 이황 문묘 삭제)
② 임해군 살해, 영창대군 살해·인목대비 유폐(계축옥사)

경제·사회
- ★대동법 시행(1608) : 경기도 지역
- ★『동의보감』
- 5대 사고 정비

대외
- **기유약조(1609)** : 20척, 100석 — 동평관 폐쇄, 왜사의 서울 입경 불허
- 실리적 중립 외교 : 강홍립의 투항 (사르후 전투, 1619)

인조 1623~1649

정치
- **인조반정** : 서인 주도 + 남인 참여 → 이후 이들 간의 붕당의 공존이 이뤄짐
- 산림직의 설치

경제·사회
- **★이괄의 난**
- 영정법 실시
- 어영군 최초 설치

대외
- **정묘호란(인조 5, 1627)** — 형제의 맹, 중강·회령 개시, 정봉수
- **병자호란(인조 14, 1636)** — 군신 관계, ★남한산성, 3학사 볼모

효종 1649~1659

정치
- 북벌론(효종 대 가장 왕성 ~ 숙종 대) → 서인들 정권 유지책 + 자존심 회복
- 산림 등용(송시열, 송준길 등)

경제·사회
- 양척동일법
- 『농가집성』(신속)
- 어영청 (북벌의 중심 군영)

대외
- **★나선 정벌** (변급 1654, 신유 1658) (원본 빈칸) — 조선 총수병의 실력 입증
- **하멜 표류(1653~1666)**

현종 1659~1674

예송 논쟁 — 왕사 동례 vs 부동례, 예학 발달
(1) **기해예송** : 기년설(1년) vs 3년설 → 『경국대전』으로 해결 (남인 : 『고례』)
(2) **갑인예송** : 9개월 vs 기년설(1년)

경제·사회
- 종모법 실시(1669) → 존폐 반복
- 훈련별대 신설(1669, 남인 군사력), 만과(萬科) 실행

붕당의 변질 (환국과 탕평)

숙종 1674~1720

정치 ※ 탕평책 실시(명목상 탕평) → ★환국 정치
① **경신환국(1680)** : 남인 역모 모함 → 노·소 분열(강경파 vs 온건파), 허적·윤휴 사사
② **기사환국(1689)** : 장희빈 자 세자 책봉 문제 → 송시열 제거
③ **갑술환국(1694)** : 폐비 민씨 복위 문제
→ 상인 자금도 이용(서얼·역관·노비 등과도 연결)
→ 지방에 서원·사우 남설(서원 발달의 배경)
⇨ 노론·소론의 분당
④ **병신처분(1716)** — 노론 집권
- 5군영의 완성(★금위영)

경제·사회
- 상평통보(1678) : 전국적 유통
- 대동법 전국적 실시(1708)
- **장길산 난(1697)**
- 대보단 설치(창덕궁, 1705)

대외
- **안용복 사건(1696)**
- **★백두산정계비**(숙종 38년, 1712)
- 남구만 노력으로 폐4군 일부 복설

경종 1720~1724

정치 **신임사화** — 노론 탄압, 노론 4대신 처형

붕당의 변질 (환국과 탕평) — 이어서

영조 1724~1776	정치 ※ 탕평책 실시(완론 탕평) **1. 왕권, 중앙 집권력 강화** ① 탕평책 실시 : ★탕평비 건립(성균관 입구), 과거에 탕평과 시행, 동색금혼 ② 이랑통청권 폐지 → 탕평파 재상의 권한 증대(탕평파 대신 중심 비변사 강화) ⇨ 군주권과 재상권의 강화 ③ 용호영(금군, 병조판서 관할) ④ 여론의 중시 : 신문고 부활(병조에서 관할), 상언·격쟁 활성화 ⑤ 수령권 강화, 서원 억제·산림 정치권에서 배제 ⑥ 팔도구관당상제 : 비변사의 지방 지배 장치 ⇨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력 강화 **2. 주요 사건들** - **이인좌의 난**(무신난, 1728), **나주 괘서 사건**(1755) → 두 사건으로 소론 몰락 - **임오화변**(1762, 사도세자 죽음) ⇨ 시파·벽파 분립(남인·소론·일부 노론 vs 노론) **경제·사회** - ★『속대전』(1746) : 대동법, 노비종모법 - ★균역법 시행(1750) - 도성 방어 체제 개편(1751, 수성윤음), 도성 정비 사업(청계천 준설) - 형사 제도 개선 노력 : 『무원록』 편찬(법의학 서적) **편찬 사업** ① ★『동국문헌비고』(한국학 백과사전) ② 『여지도서』 ③ 동국여지도 ④ 『속오례의』 ⑤ 『속병장도설』
정조 1776~1800	정치 ※ 탕평책 실시(준론 탕평) **1. 왕권, 중앙 집권력 강화** - 만천명월주인옹 (초월적 존재로 비유) ① ★규장각 설치(즉위년, 1776) : ★초계문신제도(재교육, 승진 시험) - 서얼허통절목 반포(1777) ② ★장용영 설치(1785 장용위 - 1788 장용영 - 1797 내영·외영 체제) - 무과 실시해 서얼, 평민 등 등용 ③ 새로운 세력의 형성 - 준론 탕평 : 시비 분명한 준론 계열 등용(남·소·노 중) - 서얼 등용 : 규장각 검서관(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 - 자유 상공업 : 금난전권·공장안 철폐 - 서학 세력 온건한 대처 ④ 여론의 중시 : 상언·격쟁 ⑤ 수령권 강화 : 수령이 군현 단위 향약 직접 주관(사족 지배력↓) **경제·사회** - 『대전통편』(정조 9, 1785) - ★**신해통공(1791)** : 6의전 제외 금난전권 철폐(사상의 성장) - **영남 만인소 사건(1792)** : 영남 남인들의 사도세자의 무죄 주장 - **문체반정 운동(1792)** - 화성 건설(1796) - 형사 제도 개선 노력 : 『추관지』(조선 역대 판례), 『심리록』(정조 대 판례), 『흠휼전칙』(형구) **편찬 사업** ① 『증보문헌비고』(대한제국기) ② 『동문휘고』(외교 문서 정리) ③ 『존주휘편』 ④ 『일성록』(세손 때 ~ 1910) ⑤ 『홍재전서』 ⑥ 『탁지지』, 『추관지』 ⑦ 『무예도보통지』(1790)

세도 정치기 (1801~1863)

정치

순조	김조순(안동 김씨)
헌종	조만영(풍양 조씨)
철종	김문근(안동 김씨)

→ 3대 60여 년간 지속, 비변사와 훈련도감을 독점 장악

경제

3정 문란

사회

민란의 발생
① **1811년 홍경래의 난**
② **1860년 동학의 창시**
③ **1862년 진주 민란**(암행어사 파견, 삼정이정청 설치)

문화

① **신유박해(1801년)** — 순조(황사영 백서 사건)
② **기해박해(1839년)** — 헌종(오가작통법)
③ 서민 문학의 전성기 — 판소리, 가곡, 산대놀이
④ 실학적 화풍의 소멸
⑤ 복고적 문인 활동 (김정희, 장승업)

대외 중국

- **난징 조약(1842)** : 남경 개항 cf. 이즈음 『해국도지』 편찬
- **베이징 조약(1860)** : 서양 제국의 중국 수도 점령(황제의 피난행)
  중국의 양무운동 시작(1861 ~ 청·일 전쟁)
  러시아와 한국 처음 국경 접함

대외 일본

- **1854년 개항**(페리)

대외 러시아

-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조선과 국경 접함 → 통상 요구, 연해주 이민 시작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1873)

정치

비변사의 폐지
① 정치 — 의정부
② 군사 — 삼군부 기능 회복

경제

- ★경복궁의 중건(1865년)
- 호포제 실시 — 양반·평민 평등화

사회

- 서원 혁파(47개 외), 만동묘 철폐

문화

- 『대전회통』(최후 법전), 『육전조례』(행정 법전)
※ 동학 창시자 최제우 처형(1864)
- **병인박해** — 고종(1866년)

대외

① **병인박해(1866)**
②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7)
③ **★병인양요**(1866.9, Rose) : 한성근(문수산성)·양헌수(정족산성)
④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4)
⑤ **★신미양요**(1871, Rogers) : 어재연 ⇨ 척화비 건립
⑥ **메이지 유신(1868)** → 서계 문제 발생

개항기 (1876~)

정치

① **1882년 임오군란**
② **1884년 갑신정변**
③ **1889년 방곡령**
④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대외

- **정한론(1873)** → 대만 침공(1874)
- 운요호 사건 → 조선 개항(1876) → 유구국 병합(1879)
※ 이리 분쟁(1871~1881), 「사할린-쿠릴 열도 교환 조약」(1875), 러시아-터키 전쟁(1877~8)
① **1876년 강화도 조약**
② **1882년 미국과의 수교**
③ **★1885년 거문도 사건**
④ **1894년 청·일 전쟁**
⑤ **1895년 삼국 간섭**

1860년대

■ 대원군 집권 전

1860	**동학 창시** — 경주 몰락 양반 최제우에 의해 창시
1860	**베이징 조약** —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
1861	**대동여지도** — 김정호 (10리마다 눈금, 방안도법, 우리나라 전국도 중 최대)
1862	**임술 민란 발생** → 삼정이정청 설치

■ 대원군 집권기 (1863~1873)

1863	**고종 즉위** — 대원군 집권
1865	**★경복궁 중건** — (왕권을) 회복하고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1865~1868)
1865	**서원의 정리** — 고종 2년(1865) 송시열의 유명으로 明 신종·의종을 모시던 만동묘 철폐 → 고종 5년(1868) 서원에 납세 실시 → 고종 8년(1871) 47개 서원을 제외한 600여 곳 철폐
1865	**비변사 혁파** — 세도 가문의 핵심 기구로 군사·정무를 총괄하던 비변사 혁파 → 의정부(정무)와 삼군부(군사) 기능 다시 강화
1865	**『대전회통』 편찬**
1866 음 1월	**병인박해** — 러시아 남하를 막으려 영국·프랑스와 동맹을 구축하고자 프랑스 선교사를 통한 교섭 시도 → 실패 ⇒ 천주교 대탄압 시작
1866 음 7월	**제너럴셔먼호 사건** —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 요구 → 평양 군민과 충돌, 불에 타 침몰 → 신미양요(1871)의 원인
1866 음 9월	**★병인양요** — 병인박해(1866.1) 때 프랑스 신부 처형을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 침공 / 한성근(문수산성), 양헌수(정족산성)가 격퇴 / 외규장각 문서 약탈 (사고는 아님, 직지 역시 아님)
1867	**『육전조례』 간행**
1868	**메이지 유신**(일본) — 에도 막부 타도, 국왕 중심 정치 체제(중앙집권적 입헌군주제) 구축
1868	**오페르트 도굴 사건** — 독일 상인 오페르트 등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묘(충남 덕산) 도굴 시도 → 실패 →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천주교 탄압이 더욱 강화 "덕산 묘소에서 일어난 변은 놀라고 놀랄 일이다 … 반드시 국내의 사류(邪類: 이교도)들이 종용하고 길 안내를 맡은 것이다 … 그물을 빠져나간 사류를 … 남김없이 잡아들여 없애고 …"
1869	**서계 거부** —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수교 요청(1869), 외교 문서에 황실·봉칙 등 용어를 써 일본이 상국(上國)인 양 서계(書契)를 보냄 → 대원군이 국서 형식이 관례에 어긋난다며 거절
1869	**정한론(征韓論)** — 일본 내 조선을 무력 굴복시키자는 주장 → 외교 관계 단절. 일본 정부는 안으로 조선 침략을 준비하면서, 밖으로는 대만을 침공하여 정한론을 억누르고 조선에 종전 관행대로 통상 요구
1869	**광양난 발생** — 이후 71년 이필제의 난 (대원군 시기에도 민란 발생)

1870년대

■ 대원군 집권기

1871	**★신미양요** —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 침공 / 어재연 수자기 약탈 - 이를 계기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한 미국의 의도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실패 → 결국 1882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서양 중 미국이 최초의 외교국
1871	**척화비 건립** — 척화 사상 고조. 기정진 등이 척화 상소에서 결인심(結人心)하여 외적을 제압하자는 주전론(主戰論) 주장 → 국민의 절대적 지지 -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주동자로 잡혀가자 일본 공사관 요구로 전국의 척화비 철거

■ 고종 친정기

1873	**고종 친정 시작** — 흥선대원군 실각, 고종이 직접 통치
1874	**대만 침공**(일본) — 서계 거부로 정한론이 대두했으나 조선 공격은 시기상조로 보고 먼저 대만 침공 결정
1875	**운요호 사건** — 1875년 4월 일본 군함 3척(춘일호·운요호·제이정묘호) 부산 출현 → 8월 운요호가 연안 탐색하며 강화도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 조선 측 포격을 받음 → 일본이 응전, 영종도에 상륙해 약탈 후 물러감
1876 음 2월	**★강화도 조약 체결**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규)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문호 개방 조약 ② 불평등 조약, 조선 주권 침해(조차지 설정·해안 측량의 자유·치외 법권 ⇒ 1858년 영·일 조약 모방) ③ 정치·경제·군사적 거점 마련(부산·원산·인천 개항) ④ 일제의 침략 야욕 내포(청의 종주권 부인) ⑤ 정치·경제적 예속화의 계기(정부 관리의 간섭 배제 ⇒ 자유 무역이라는 한계) → 근대화 아닌 식민지화의 길 ⑥ 일본의 강요된 개항을 수정한 척양적 개항론, 만국공법(국제법) 의식 대두
1876 음 4월	**★제1차 수신사 파견** — 김기수 일행 일본 파견 / 김기수 『일동기유』·『수신사일기』 저술
1876 7월	**조·일 수호 조규 부록** (13개조) - 일본 공사의 수도 상주,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 개항장에서 거주 지역(간행이정: 사방 10리)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1876 7월	**통상 장정** (11개조, 조·일 무역 규칙) - 화물 입출에도 무관세 ⇒ 일본에 자유 무역 보장 - 일본 정부 소속 모든 선박은 무항세 - 일본인은 모든 항구에서 무제한 양곡 유출
1878	**두모포 수세 사건** — 일본의 위협을 두려워한 정부가 수세를 금지시켜 일단락
1879	**종두법 실시** — 지석영이 종두법(천연두 치료법) 실시 / 종두법 채택은 을미개혁(1895)

1880년대

■ 임오군란 전

1880 음 6월	**★2차 수신사 파견** — 김홍집 일행 일본 파견 → 김홍집에 의해 『조선책략』, 『이언』 등 국내 유입
1880 음 8월	**『조선책략』 소개** — 개화사상 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등 개화 정책에 영향 / 위정척사 쪽: 성현 모독 부분 때문에 유생 반발 → 위정척사 운동 강화 "(러시아는) …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中東)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연결함(聯美國)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근원은 같으나 당파가 다르고, 유교에 주자와 육상산이 있는 것과 같다 …"
1880 음 12월	**★통리기무아문 설치** — 개화 정책 추진 위해 청의 제도를 모방한 기구,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군사·산업 등 담당 ① 청 제도 모방 ② 임오군란 후 대원군이 폐지 ③ 대원군 실각 후 기무처 설치 ④ 곧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 ⑤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으로 개편 → 실제 폐지는 갑오개혁
1881 음 1월	**조사 시찰단 파견** (신사 유람단) — 일본의 근대 문물 시찰
1881 음 2월	**★영남 만인소** —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한 유생들의 상소 (이만손 등)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쭌셴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 … 일본은 우리에게 매어 있던 나라 …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 …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
1881 음 4월	**별기군 창설** — 신식 군대 양성.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 군대 → [12월] 5군영을 2영(무위영·장어영)으로 통합·축소 → 구식 군대가 임오군란(1882)을 일으키는 한 원인
1881 음 7월	**홍재학 상소** "이른바 황준헌(黃遵憲)의 책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 '우리 주자와 육상산의 말과 같아서 전하여 가르쳐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어느 하루라도 척사위정(斥邪衛正)의 정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학(邪學)의 무리들을 언제 잡아서 처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국왕까지 비판)
1881 음 8월	**이재선 쿠데타 사건** — 대원군 재집권 쿠데타
1881 음 9월	**★영선사 파견** — 근대 무기 제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청에 영선사 파견 (김윤식) → 국내 최초의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 기기창(1883) 설립
1882 음 5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거중 조정(居中調整)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 최초 규정 제1관 타국이 불공(不公)하고 경멸하는 사건을 일으키면 즉각 통지하여 반드시 상조(相助)한다 (거중 조정) 제2관 양국 병권대신을 각 도성에 주재 제4관 소송 시 피고는 자기 본국 법률로 재판 (치외 법권) 제5관 수세의 권리는 조선의 자주 (관세 조항) 제7관 아편 수입 불허 제8관 식량난 우려 시 양곡 수출 금지 가능(미국 관리에 통지 후 실시), 인천 항구 미곡 수출 금지, 홍삼 수출 금지 제11관 양국 생도가 언어·문자·법률·기술 학습 위해 왕래 제14관 타국에 이익을 부여하면 미국 관민에게도 균점 (최혜국 대우)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사이

1882 음 6월	**★임오군란** — 신식 군대 별기군 우대, 구식 군대 차별에 반발 → 흥선대원군 일시 집권 → 청이 진압, 일본의 군사 개입을 막고자 대원군을 책임자로 규정해 청으로 압송
1882 7월	**제물포 조약 / 조·일 수호 조규 속약** — 임오군란 피해 보상 협의.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허용, 박영효 일행을 3차 수신사로 파견 〈**제물포 조약**〉 제1조 20일 이내 흉도 포획·재판 / 제2조 일본 관리 죽은 자 후장 / 제3조 유족·부상자에게 5만 원 / 제4조 손해 전보액 50만 원(10만 원씩 5년) / 제5조 공사관에 병원(兵員) 약간 명을 두어 경비, 병영 설치는 조선 부담, 1년 후 불필요하면 철병 가능 / 제6조 대관 특파, 국서로 사과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1조 원산·부산·인천 간행이정 50리로 확장, 2년 후 100리, 1년 후 양화진 개시장 / 제2조 일본 공사·영사·수행원의 조선 내지 여행 허용
1882 음 8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①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규정 명시 ② 서울·양화진 개시,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 ⇨ 이후 서울에서 벽촌까지 조선 시장이 외국 상인에게 개방, 조선 상인 큰 타격 ③ 편무적 영사 재판권 ④ 연안 어업권, 연안 무역권, 군함 항행권 ⇨ 청이 조선 내에서 경제적으로 일본과 동등 수준까지 올라섬(일본의 침투는 상대적 위축) (단, 수출면에서는 항시 일본이 압도적) · 타국은 이 권리를 균점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음
1882 음 9월	**3차 수신사 파견** — 임오군란으로 일본 측 인명 피해 → 일본 항의 → 사후 수습을 협의하러 박영효 일행 파견
1882 음 12월	**원산학사 설립** —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 / 유교 교육이 아닌 근대 학문과 무술 교육

1883년 · 1884년

1883 음 6월	**조·일 통상 장정** (개정) ① 어느 정도 관세 자주권 확보 ⇨ 단, 협정 관세. 조청 장정·조미 조약에서도 인정된 개항장 밖 관세가 모두 부정됨 ② 곡물 수출 금지 조항(방곡령) 삽입(단, 방곡 시행 1개월 전 일본 영사관에 통고), 최혜국 대우 조항 삽입
1883 음 7월	**동문학 설립** — 최초의 근대적 영어 강습 기관(관립) ⇨ 묄렌도르프가 통리기무아문 부속 기구로 설치
1883 음 7월 15일	**★박문국 설치** — 한성순보(최초의 근대적 신문 / 최초의 순한문 신문 / 관보적 성격) 간행, 정부의 개화 정책 취지 전달
1883 음 7월 19일	**★보빙사 파견** — 조·미 조약(1882) 체결로 미국 공사가 조선에 오자 답례로 미국에 친선 사절단 파견 (민영익·홍영식·유길준 등) → 신식 우편 제도, 농업 기술 등 신문물 수용(우정국 및 농무목축시험장 설치 - 1884)
1883 음 7월 19일	**기기창 설치** — 최초의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
1883 음 8월	**전환국 설치** — 최초의 근대 화폐 발행 기구
1883 음 10월	**★한성순보 발간** — 순한문 신문, 10일에 한 번 간행. 박문국 화재로 갑신정변 때 간행 중단
1883 음 10월	**조·영 수호 통상 조약** — 아편 문제로 비준 지연 ① 불평등 조약의 완결판 ② 조계지 내 토지·가옥 매매·임차, 주택·창고·공장 설립 허용, 조계 밖 10리까지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 제국주의 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할 길(최혜국 조관으로 청·일·서구 열강 상인·자본이 자유롭게 침투)
1883 음 10월	**조·독 수호 통상 조약**
1884 음 3월	**★우정총국 설치** — 최초의 우체국 /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1884.10)에서 개화당이 수구파 요인을 살해하며 갑신정변 발생
1884 음 7월	**조·러 수호 통상 조약**
1884 음 7월	**청·불 전쟁** — 안남(베트남) 종주권을 놓고 청·프랑스 대립 → 전쟁 발발 → 조선 주둔 청군 절반(1500여 명) 철수 → 일본이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킬 경우 지원 약속
1884 음 10월	**★갑신정변** — 김옥균 등 개화당(급진 개화파)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 **14개조 개혁 요강**『갑신일록』 ① 대원군을 곧 돌려보내고 조공 허례 폐지 ⇨ 청에 대한 자주독립 ② 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 제정, 능력으로 관직 택함 ③ 전국의 지조법 개혁 ⇨ (≠토지 제도 개혁 없음) ④ 내시부 폐지, 재능 있는 자 등용 ⑤ 국가에 해독 끼친 탐관오리 처벌 ⑥ 각 도 환상(還上) 제도 영구 폐지 ⇨ 환곡 폐지 ⑦ 규장각 폐지 ⑧ 순사 제도 시급 실시 ⇨ 순사와 군대 정비(1영, 근위대) 필요 ⑨ 혜상공국 폐지 ⇨ 어용 상공업 폐지, 자유 상공업 ⑩ 유배·금고된 사람 조사·석방 ⑪ 4영을 합해 1영, 근위대 설치 ⑫ 모든 재정은 호조가 관할, 그 밖의 재무 관청 폐지 ⇨ 재정 일원화 ⑬ 대신과 참찬이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해 정사 결정 후 왕에게 품하여 정령 공포 ⇨ 입헌 군주제적 성격 논쟁 부분 ⑭ 육조 외 불필요한 관청 폐지, 대신·참찬이 토의 처리

■ 갑신정변 후

1884 음 11월	**★한성 조약** — 일본은 갑신정변에 개입했음에도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피해가 났다며 책임 추궁 → 조선이 배상금 지불 및 일본 공사관 신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체결 제1조 국서로 일본에 사의 표명 / 제2조 피해 유족·부상자 휼급, 상민 화물 보전 → 11만 원 지불 / 제3조 이소바야시 대위 살해 흉도 체포·처벌 / 제4조 일본 공관 신기지 이축, 터·건물 교부, 수축 비용 2만 원 지불 / 제5조 일본 호위병 영사는 공관 부지를 정하고 임오속약 제5관 시행

1885년 ~ 1889년

1885 음 1월	**톈진(텐진) 조약** — 청·일 양국군의 조선 철수, 장차 조선에 파병할 때 상대국에 사전 통고 → 일본, 청과 동등한 조선 파병권 획득 제1조 중국은 조선 주찰 병을, 일본은 공사관 호위 군사를 철수 / 제2조 중·일 양국은 조선에 교련하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음 / 제3조 조선에 변란 등 중대 사건으로 파병하게 되면 먼저 서로 공문으로 알리고, 안정되면 곧 철회·주둔하지 못함
1885	**중립화론 대두** — 부들러, 유길준 등에 의해 대두
1885 음 2월	**광혜원 설립** — 고종이 알렌(미국 선교 의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에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 / '광혜원' → '제중원'으로 개칭
1885 음 3월	**★거문도 사건** —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이 거문도 점령 ~ 87년 철수
1885	**토문 감계사 파견** — 이중하를 토문 감계사로 파견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
1885 음 8월	**배재 학당 설립** — 사립 학교, 아펜젤러 설립 ⇨ '배재학당' 현판은 고종이 하사 (원문: "8년 고종이 하사")
1885 음 10월	**서울-인천 간 전신 개통** - 조선의 해저 전선: 부산-장기(나가사키) 사이 해저 전선 개통(1883) - 청에 의하여 서울과 인천 간 최초로 개설(1885) - 1885년 이후 청 차관 또는 독일 차관으로 독자적 기술의 근대 통신망 완성
1886	**한성주보 발간**
1886	**노비 세습제 폐지** — 노비 신분 세습은 폐지되었으나 기존 노비 제도는 존속 (노비 제도 자체의 완전 폐지는 갑오개혁 때)
1886 음 5월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조인 — 천주교 포교 인정 (1886년 종교 자유의 해)
1886 음 8월	**★육영 공원 설립** —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 / 미국인 교사(헐버트, 길모어)를 초빙해 상류층 자제 교육(영어·수학·지리학·정치학 등 근대 학문)
1887	**경복궁 전등 설치**
1888	**조·러 육로 통상 조약**
1889	**★함경도 방곡령 실시** — 일본의 경제 침탈로 곡물 유출 증가 → 곡물 가격 폭등 → 함경도·황해도 등지의 지방관이 방곡령 실시 → 조·일 통상 장정 규정 위반이라 하여 일본에 배상금만 지불하고 철회 (근거: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

■ 한눈에 — 1880년대 "최초" 모음 (위 연표에서 뽑음)

최초	이름	연도
근대적 사립 학교	원산학사	1882(음 12월)
근대적 영어 강습 기관	동문학	1883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박문국)	1883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	기기창	1883
근대 화폐 발행 기구	전환국	1883
우체국	우정국(우정총국)	1884
근대식 병원	광혜원 → 제중원	1885
근대적 관립 학교	육영 공원	1886

■ 한눈에 — 개항 후 조약 흐름

1876 **강화도 조약**(부산·원산·인천, 해안 측량·치외 법권) → 부록(일본 화폐, 간행이정 10리) · 통상 장정(무관세·무항세·양곡 무제한 유출)
→ 1882 **조·미**(청 알선, 거중 조정·최혜국 대우 최초) → **제물포**(배상금·공사관 경비병) · 속약(간행이정 50리→100리) → **조·청 장정**(속방, 내지 통상권)
→ 1883 **조·일 통상 장정** 개정(관세·방곡령·최혜국) · 조·영 · 조·독 → 1884 조·러 · **한성 조약** → 1885 **톈진 조약** → 1886 **조·불**(천주교 포교) → 1888 조·러 육로 통상

1890년대

■ 교조 신원 운동기

1892 음 11월	**삼례 집회** (제1차 교조 신원 운동) —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주 최제우의 명예 회복(교조 신원)과 동학 탄압 중지, 탐관오리 처단 등 요구 → 실패 / 종교 운동 성격
1893 음 2월	**서울 복합 상소** (제2차 교조 신원 운동) — 동학 교도들이 서울로 상경, 교조 신원 상소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철수까지 주장 → 실패 / 종교 운동
1893 음 3월	**보은 집회** (제3차 교조 신원 운동) — 탐관오리 처단(반봉건)뿐 아니라 일본·서양 세력 축출(반외세)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등장 / 종교 운동 →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 "이번의 이 **척왜양(斥倭洋)**의 의리는 … 누구도 감히 불가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왜적(倭賊)은 … 불구대천의 원수 …"

■ 동학 1차 봉기

1894 음 1월	**고부 민란** —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발 → 정부가 고부 군수 교체, 진상 조사를 위해 안핵사 이용태 파견 → 농민군 일단 해산
1894 음 3월	**제1차 농민 봉기(전쟁)** — 안핵사 이용태가 도리어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제1차 봉기 시작 · **백산 봉기** (무장 포고문) "… 지금 의기를 들어 보국안민으로 생사의 맹세를 삼는다 …" (백산 격문) "… 백성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하고 강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
1894 음 4월	**황토현 전투** — 전라도 감영군 격파 → **장성 황룡촌 전투** — 홍계훈의 경군 격파 → **전주 점령**
1894 음 5월	**청군 상륙**(음 5월 5일) / **일본군 상륙**(음 5월 9일) ⇨ 톈진 조약에 따른 파병
1894 음 5월 8일	**★전주 화약 체결** — 전주성 농민군 점령 → 정부가 청에 원병 요청 → 청군 파병 → 톈진 조약에 의거 일본군도 인천 상륙 → 청·일 대립 격화 → 외세 간섭을 막기 위해 농민군·정부 협상 → 전주 화약 (→ 이후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 설치) 5월 5일 홍계훈은 폐정 개혁 요구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성문을 열고 해산하라'고 답변 → 5월 6일 농민군은 폐정 개혁과 신변 보장을 전주성 철수 조건으로 제시 →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 홍계훈은 신변 보장 및 폐정 개혁안을 임금께 올린다'로 타협 = 전주 화약 **폐정 개혁 12개조** (오지영의 『동학사』) 1.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 ⇒ 그 전까지 정부가 동학을 심하게 탄압 2. 탐관오리는 죄상을 조사해 엄징 ⇒ 관리 부정부패 3. 횡포한 부호 엄징 ⇒ 봉건 지배층 타파 의지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 징벌 5. 노비 문서 소각 ⇒ 신분제 타파 의지, 갑오개혁 때 그대로 반영 6. 7종의 천인 차별 개선, 백정의 평량갓 폐지 ⇒ 백정·장인, 기생, 노비, 승려, 무당, 판수, 광대 7. 청상과부 개가 허용 ⇒ 봉건 폐습 폐지 8. 무명잡세 일체 폐지 ⇒ 여러 명목의 세금 9. 관리 채용에 지벌 타파, 인재 등용 ⇒ 능력 따른 등용 10. 공·사채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 ⇒ 농가 부채 11. 왜와 통하는 자 엄징 ⇒ 항일 감정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 ⇒ 정부가 들어주기 가장 어려웠을 조건
1894 음 6월 11일	**교정청 설치** —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에 조선 정부가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 설치 / 온건 개화파가 왕명으로 설치, 일본군 철수를 우선 요구, 당상 15명·낭청 2명 임명 → 개혁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
1894 음 6월 21일	**일본군 경복궁 침입** — 대원군을 앞세워 점령
1894 음 6월 23일	**청·일 전쟁 발발** — 전주 화약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 진정됐다며 정부가 청·일 양군 철수 요구 → 일본이 거절하고 조선 주둔 청군 공격

1894 음 6월 25일	**1차 김홍집 내각 성립** → **★제1차 갑오개혁** — 1차 갑오개혁 주도 / 비교적 자주적 성격 **정치** ① 청 연호 폐지('개국' 기년 사용) ②「의정부 관제안」 공포(6월, 의정부 복설) ③「궁내부 관제」 반포(7월): 총리대신, 8아문 설치, 의정부와 궁내부 분리 ④ 과거제 폐지 **경제** ①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 갑신정변 때도 주요 개혁 내용이었음 ② 은 본위제 (당시 세계는 금 본위제로 전환 중, 일본으로의 금 유출 때문) ③ 조세 금납화 ④ 도량형 통일 · 신식 화폐 발행 장정(1894.8): 외국 화폐 혼용 허가 조항 ⇨ 일본 화폐 유통 공인 **사회** ① 반상 차별 폐지 ② 천민 신분 폐지(백정·광대·노비 — 공사 노비법 혁파) ③ 과부 재가 허용 ④ 인신매매 금지 ⑤ 고문과 연좌법 폐지 · 일본 정부의 조선 보호국안 채택 (1894.8)
1894 음 6월 25일	**★군국기무처 설치** —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위해 설치 (1차 갑오개혁 추진 기구)

■ 동학 2차 봉기

1894 음 10월	**2차 농민 봉기(전쟁)** — 폐정 개혁안 불이행 +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 + 일본의 내정 간섭 강화 ⇒ 2차 봉기 (반외세 성격) "…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국민을 어지럽게 함을 어찌 그대로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지금 조정의 대신은 … 왜이(倭夷)와 연결하여 …"
1894 음 10월	**우금치 전투** —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 패배 → 동학 농민 운동 실패

■ 2차 갑오개혁

1894 음 11월	**2차 김홍집 내각 성립** → **★제2차 갑오개혁** —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주도 / 친일적 색채 ① 의정부 8아문을 7부로 개편 ② 지방 관제 8도 → 23부(소지역주의, 그 밑에 337개 군) ③ 사법부 독립: 지방관은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④ 재판 2심제: 1심 지방·개항장 재판소, 2심 고등·순회 재판소 ⑤ 군대 통합·일원화,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립 → 군사 개혁 소홀(왕권 약화), 훈련대·신설대·시위대 설치 **교육** ①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1895, 근대적 학제) →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 등 관립 학교 설립 ② 신교육 실시 ③ 한성 사범 학교 설립, 외국어 학교 관제 마련
1894 음 12월	**★홍범 14조 선포** (2차 갑오개혁의 기본 방향)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외척의 구별을 밝힌다. 3. 대군주는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되,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고 후빈·종척은 간섭을 불허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6. 세금은 법령으로 율을 정하고 함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7.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8. 왕실 비용을 솔선 절감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비와 관부 비용은 1년 예산을 정해 재정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해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 학술·기예를 익힌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 13. 민법·형법을 엄명히 제정하여 감금·징벌을 남용치 못하게 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1895 음 2월	**교육 입국 조서 발표** — 고종 발표 → 근대식 학제 마련 → 소학교·중학교·사범 학교·외국어 학교 등 관립 학교 설립 "… 이제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 덕(德)과 몸(體)과 지(智)를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1895 음 2월	**★『서유견문』 간행** — 유길준 / 최초의 국한문 혼용서 / 서양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학문·교육 등을 총망라해 기술
1895 음 3월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청과 체결 →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 반도와 타이완(대만)을 할양받음

1895 음 4월	**삼국 간섭** —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 반도 등을 차지 →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개입으로 요동 반도를 청에 반환 → 조선 내 친러 세력 대두 1895년 4월 17일 청·일 강화 조약 조인 → 4월 23일 러·프·독 3국이 요동(랴오둥) 반도 반환을 강력 권고 → 일본은 3국과 싸울 전력이 없어 반환, 5월 5일 3국에 통고 → 11월 8일 반환 조약, 청이 보상금 4,500만 원 지불 → 일본 국내 여론에 큰 충격 · 열강의 청 분할 단서: 1898년 3월 독일군 자오저우만 상륙, 프랑스·영국도 조차지 요구, 러시아는 만주 철도 부설권 획득·랴오둥 반도 조차
1895 음 6월	**3차 김홍집 내각 성립** — 삼국 간섭으로 일본 영향력 감소, 상대적으로 러시아 영향력 증대 → 친러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3차 김홍집 내각

■ 3차 개혁(을미개혁)

1895 음 8월 20일	**을미사변** — 삼국 간섭으로 친일 세력 몰락, 친러 세력 득세 → 명성 황후가 친러 정책 추진 →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
1895	**4차 김홍집 내각 성립** — 을미사변으로 친러 성향 3차 내각 붕괴 → 친일적 성격이 강한 4차 김홍집 내각
1895 음 8월 24일	**★을미개혁** — 3차 갑오(·을미)개혁이라고도 하나 보통 을미개혁으로 통칭 / 태양력 사용(음력 폐지 → 양력) / 연호 '건양' 사용 등
1895 음 9월	**을미의병** — 을미사변(명성 황후 시해) + 급진적 을미개혁(단발령 등) ⇒ 을미의병 /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
1895 음 11월	**단발령 공포**
1895 11월	**춘생문 사건** — 연금된 국왕을 궁 밖으로 파천시켜 친일 정권을 제거하려던 사건, 고종이 직접 기획 - 주동: 이범진·이윤용·이완용 등 정동파 인사의 사주를 받은 남만리 등 장교들 - 결과: 친위대 대대장 이진석의 배신으로 사전 발각, 실패 - 영국인 언더우드, 러시아 공사 베베르도 관여

■ 아관 파천기

1896 2월	**★아관 파천** — 을미사변으로 고종 신변 위협 →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 일본이 추진하던 을미개혁 중단 → 친러 내각 수립(이완용·이범진·윤치호 등) / 열강의 이권 침탈 가속화
1896 4월	**★독립신문 창간** — 최초의 민간 신문 / 한글판과 영문판 발행 (서재필) "…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 하고 …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구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
1896 5월	**베베르-고무라 각서** — 러시아·일본군의 동수 주둔 ⇨ 러시아군 주둔권 인정
1896 6월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 ①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체결. 위 각서를 협정화, 러·일 완충 지대 설정(38도선) ② 이때 청과 조선도 방문해 각각 협약: 청(이홍장)은 비밀 군사 동맹, 조선(민영환)은 고종 신변 보호·고문 파견 등 논의 ⇨ 군사 교관·재정 고문 파견, 한러 은행 설립
1896 7월	**★독립 협회 설립** — 아관 파천으로 국가 자주성 훼손 + 열강의 이권 침탈 가속화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

■ 한눈에 — 1894~1896 내각·개혁 흐름

교정청(자주 개혁, 6.11) → 일본군 경복궁 점령(6.21) → 청·일 전쟁(6.23) → **1차 김홍집 내각 · 군국기무처 → 1차 갑오개혁**(개국 기년, 과거제·신분제 폐지, 은 본위·조세 금납)
→ **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 → 2차 갑오개혁**(홍범 14조, 7부·23부, 재판소, 교육 입국 조서)
→ 삼국 간섭 → **3차 김홍집 내각**(친러) → 을미사변 → **4차 김홍집 내각**(친일) → **을미개혁**(태양력, 건양, 단발령) → 을미의병
→ 춘생문 사건 → **아관 파천**(개혁 중단, 친러 내각) → 독립신문 · 독립 협회

1897 ~ 1899 대한 제국기

1897 2월	**경운궁으로 환궁** — 현재 덕수궁 자리로 환궁 (아관파천 1896 → 국내외 여론에 힘입어)
1897 10월	**절영도 조차 요구** — 러시아가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
1897 10월	**★대한 제국 성립** — 연호 : 광무 / 원구단(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제사 황제국의 위용 과시 + 서구 열강에 독립국 위상을 보여 주려는 것 (원본은 즉위식을 12월 칸에 따로 적음)
1898 3월 10일	**★만민 공동회 개최**
1898	**로젠·니시 협정** — ① 일·러가 한국에서의 경제·정치적 이해관계 상호 승인 ⇨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 인정 ② 러시아는 만주 문제에 집중(만한 교환설) ⇨ 군사·재정 고문, 한러은행 모두 자진 철수
1898 10월 말	**★관민 공동회 개최** —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참여시킴 → 헌의 6조 결의 "한 개의 장대로 받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 황권**을 공고히 2. 이권 계약·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 예산·결산 국민에 공포 4. 중대 범죄 공판 시 피고인 인권 존중 5. 칙임관 임명은 정부에 물어 중의에 따름 6. 장정(흥범 14조)을 실천
1899 1월	**★경인선 개통** — 노량진 ~ 인천 / 같은 해 서대문 ~ 청량리 전차 개통, 광제원
1899 8월	**대한국 국제 반포** 제1조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 제2조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 / 제3조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제5조 법률 제정·반포·집행, 대사·특사·감형·복권 / 제7조 행정 각부 관제, 칙령 제9조 사신 파견, 선전·강화, 제반 조약 체결

1900 ~ 1904.1 러일 전쟁 전

1900 10월 25일	**대한 제국 독도 편입** — 일본인이 울릉도 불법 침입 →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를 울릉도에 편입(칙령 제41호)
1900	**한강 철교 준공** (착공 1897 → 준공 1900) / **만국 우편 연합 가입**
1902	**제1차 영·일 동맹** — 일본은 청에서의 영국 이권 인정, 영국은 조선에서의 일본 이권 인정
1902	**간도 관리사 파견** — 이범윤, 간도를 함경도 행정 구역으로 편입
1903	**용암포 사건** — 러시아가 용암포(평북, 압록강 접경) 점령·조차 요구 → 일·영 항의로 좌절 → 러·일 대립 격화, 러일 전쟁의 한 요인
1903	**YMCA 창립**
1904 1월	**국외 중립 선언** —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선언 → 일본이 무시하고 러일 전쟁 중 서울 점령, 한·일 의정서(1904. 2. 23) 강요

1904.2 ~ 1905.9 러일 전쟁 중

1904 2월 8일	**러·일 전쟁** — 러시아 남하 계속 → 영·미가 일본 지원 → 일본이 선전 포고도 없이 뤼순 공격하며 발발
1904 2월 23일	**한·일 의정서** ① 대한 제국은 일본을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② 일본은 대한 제국 황실의 안전 도모 / ③ 독립과 영토 보전 보장 ④ 제3국 침해·내란 시 일본이 필요한 조치 — 한국은 충분한 편의 제공,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함 ⑤ 서로 승인 없이 이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함 ⑥ 세부 내용은 외부대신과 일본 대표자가 협정
1904 7월 13일	**★보안회 설립**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 운동 → 성공
1904 7월 18일	**★대한매일신보 창간** — 영국인 베델이 경영 "여러 신문 중 제일 환영받기는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이 신문 … 관 쓴 노인도 사랑방에서 혀를 차고 학생들은 주먹을 치고 통론하였다."
1904 8월 20일	**일진회 조직** — 친일 단체 (1904 ~ 1910)
1904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한·일 협정서) → 고문 정치 — 재정 고문 메가타(日), 외교 고문 스티븐스(美) ① 일본 추천 일본인 1명 재정 고문 — 재무는 그의 의견대로 ② 일본 추천 외국인 1명 외교 고문 — 외교 주요 업무는 그의 의견대로 ③ 조약 체결·특권 양여 등 중요 외교 안건은 미리 일본과 협의
1905 1월	**★경부선 개통**
1905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 — 안용복이 조선 영토 확인(17C 말, 숙종) → 울릉도에 편입(1900) →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 나카이(시마네현 어업가)의 독도 물개잡이 대부 신청 → 1905. 1. 28 일본 각의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라며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 → 국제 고시 대신 시마네현 관내 고시(지방지에 작게 게재) → 한국은 당시 전혀 몰랐음 (고시일: 1905. 2. 22)
1905 5월	**헌정 연구회 조직** —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 규탄 → 해산 → 대한자강회(1906)로 이어짐
1905 7월	**화폐 정리 사업** — 재정 고문 메가타가 조선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실시

1905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가쓰라)·미국(태프트)의 비밀 조약 → 일본의 조선 지배 ↔ 미국의 필리핀 지배 상호 인정 ① 친일적인 미국이 필리핀 통치, 일본은 필리핀에 침략 의도 없음 ② 극동 평화는 일·미·영의 상호 양해가 유일한 수단 ③ 일본의 한국 보호권 확립은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
1905 8월	**제2차 영·일 동맹** — 일본의 조선 지배 ↔ 영국의 인도 지배 상호 인정
1905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 러일 전쟁(1904. 2 ~ 1905. 9)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와 체결 → 러시아는 한반도 이권 포기, 일본의 조선 독점 지배 인정

1905.11 ~ 1907 러일 전쟁 후 · 을사늑약

1905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 외교권 박탈
1905 11월 20일	**'시일야방성대곡' 게재** —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 "아, 4천 년의 강토와 5백 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 …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 12월	**동학 → 천도교로 개칭** — 친일 동학인 이용구의 시천교와 분리
1906 2월	**통감부 설치** — 을사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을 담당한다는 명분 → 실제로는 내정까지 장악 (지방에 13개 이사청)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 1910 조선 총독부 설치로 폐지
1906 4월	**★대한자강회** — 헌정 연구회(1905) 계승 / 고종 강제 퇴위 반대·정미 7조약 반대 운동 → 강제 해산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있을 따름 … 자강의 방법은 교육을 진작함과 식산흥업에 있다."
1906	**★서전서숙 설립** — 북간도, 이상설 (해외에 세운 최초의 학교)
1907	**★국채 보상 운동** — 대구에서 시작(서상돈, 김광제 등 대구광문사) / 서울에 국채보상기성회(1907. 2)
1907 4월	**★신민회 결성** —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한 비밀 결사 ※ 신민회(비밀 결사) ↔ 신간회(합법 단체)
1907 6월	**헤이그 특사 사건** — 을사조약 무효·주권 수호를 호소하려 고종이 헤이그 평화 회의에 특사 파견 → 일본의 방해로 실패
1907 7월	**국문 연구소 설립** — 주시경, 지석영 등
1907 7월 20일	**고종 강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일본·친일 관료(이완용, 송병준 등)가 협박 → 순종 즉위
1907 7월 24일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 차관 정치(한국인 대신 아래 일본인 차관 → 행정 실권 장악), 통감 권한 확대 ① 시정 개선은 **통감의 지휘** ② 법령 제정·중요 처분은 통감 승인 ③ 사법 사무와 보통 행정 사무 구별 ④ 고등 관리 임명·면직은 통감 동의 ⑤ 통감 추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 ⑥ 통감 동의 없이 외국인 관리 등용 금지 ⑦ 1904. 8. 22 협정서 제1항 폐지 ⇨ 고문 정치 폐지
1907 7월 24일	**보안법·신문지법 공포** — 민족 언론 탄압 (신문지법 1907, 출판법 1909)
1907 8월 1일	**군대 해산** — 박승환의 자결,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의병 전쟁화)
1907	**정미의병** — 고종 강제 퇴위 + 군대 해산이 계기 → 해산 군인 합류로 전투력 강화 →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발전
1907 8월 23일	**간도 파출소 설치** —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간도 관리를 위해 용정촌에 설치
1907 11월	**대한 협회** — 대한자강회(1906)를 이어받음
1907 12월	**오산 학교 설립** — 정주(평북), 이승훈
1907 12월	**★13도 창의군 결성** — 의병 연합 부대, 총대장 이인영·군사장 허위 → 서울 진공 작전 계획

1908 ~ 1910.8 국권 피탈 과정

1908 1월	**서북 학회 결성** — 안창호, 이갑 등 중심의 애국 계몽 단체
1908 1월	**서울 진공 작전** — 선발대가 서울 근교까지 진격 → 일본군 반격 + 후속 부대와 연결 미비 +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상(전열 이탈) → 실패
1908 3월	**장인환·전명운 의거** — 외교 고문 스티븐스(친일 미국인)가 미국에서 을사조약 정당화 연설 →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 장인환의 총탄에 사망
1908 7월	**★원각사 건립** — 우리나라 최초의 신극 공연장(국립 극장) →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를 처음 신극으로 상연
1908 8월	**'독사신론' 연재** —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붓을 쥔 자가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 되는 한 종족을 먼저 찾아 …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리니 …"
1908 9월	**★대성 학교 설립** — 평양, 안창호 보성 학교(1906) : 서울, 이용익 오산 학교(1907) : 정주(평북), 이승훈 대성 학교(1908) : 평양, 안창호
1908 12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 폭탄 투척(나석주, 1926) → 신한공사로 개편(미 군정기)
1909 1월	**대종교 창시** — 단군교로 출발(1909. 1) → 대종교로 개칭(1910. 7)
1909 7월 12일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1909 9월	**남한 대토벌 작전** — 전라도 의병 축출, 일본 정규군 동원 → 의병 전쟁 크게 위축 → 만주·간도·연해주로 이동, 국내는 산악 지대로
1909 9월	**간도 협약** — 일본이 청에게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1909 10월	**★이토 히로부미 사살** — 안중근, 하얼빈 → '하얼빈의 총'
1909 12월	**이재명 의거** —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칼로 찌름 → '종로의 칼'
1910 2월	**대한인 국민회 결성** — 박용만, 안창호, 이승만 등 / 장인환·전명운 의거 계기 →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공립 협회 + 하와이 한인 합성 협회 통합 = 국민회(1909) → 이듬해 대동보국회 흡수, 대한인 국민회로 개칭(1910)
1910 6월	**13도 의군 결성** — 유인석, 홍범도, 이범윤 등,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의 의병 부대 / 고종에게 아령 파천(俄領播遷) 권유 → 망명 정부 수립 시도
1910 6월	**경찰권 박탈** — 경찰 사무에 관한 위탁 각서

1910.8 ~ 식민지기 시작

1910 8월	**★한·일 병합 조약** — 경술국치, 국권 피탈 →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총독부를 두고 총독 정치
1910 8월	**성명회 결성** — 병합 이후 유인석·이상설 등이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
1910 10월 1일	**조선 총독부 설치** — 최고 식민 지배 기구 / 통감부(1906) → 총독부(1910 ~ 45)
1910 10월 1일	**중추원 설치** — 총독부의 자문 기관(1910 ~ 45)
1910 12월	**안악 사건**(안명근 사건) —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 등이 무관 학교 설립 자금 모집 중 체포 →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자금 모집으로 날조, 160여 명 검거
1910 12월	**★회사령 공포** — 민족 기업 억압,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 1920년 신고제로 전환(일본 기업 진출 쉽게) 같은 무렵: 산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

1911 ~ 1914 무단 통치기

1911	**중광단 조직** — 대종교 계열 만주 항일 무장 단체(단장 서일) → 북로 군정서로 개편
1911 4월	**★경학사 조직** — 신민회(1907 ~ 1911) 간부들이 독립운동 기지·독립군 양성을 위해 만주 지린(길림) 삼원보에 조직한 자치 기관
1911 4월	**★신흥 강습소 설립** — 경학사의 부설 기관 / 신흥 강습소 → 신흥 중학교 → 신흥 무관 학교
1911 8월	**제1차 조선 교육령** ① (충량한) 국민 육성과 **일본어 보급** 목표 ② 사립 학교·서당 억제(조선 총독의 허가) ③ 보통·실업 교육에 치중, 전문 교육은 기술 교육이 목표 ④ 수업 연한 축소 — (보통) 6 ⇒ 4, 고등보통 5 ⇒ 4, 여자 고등보통 4 ⇒ 3 ※ 원본 ①·④ 첫 낱말이 비어 있어 괄호로 보충
1911 9월	**★105인 사건** — 안악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로 날조 → 애국 계몽 운동가 검거·고문, 105인 실형 → 신민회 해체
1911 11월	**★권업회 조직** — 이종호, 김익용, 강택희 등,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조직
1912 9월	**★독립 의군부 결성** — 고종의 밀명으로 임병찬이 조직한 비밀 결사 / 복벽주의(왕정 복귀) 표방 / 일제에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1912 12월 20일	**★조선 태형령 시행** —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 / ~ 1919년
1913 5월 13일	**흥사단 결성** — 안창호가 미국에서 결성
1913	**송죽회 조직** — 평양의 항일 여성 단체
1914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 권업회 인사들이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 수립 / 정도령 이상설, 부도령 이동휘
1914 8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14 ~ 1918)
1914	**대조선 국민 군단 결성** — 하와이 무장 단체, 박용만

1915 ~ 1918 무단 통치기

1915 1월	**조선 국권 회복단 조직** —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국권 회복 운동을 편 비밀 결사
1915	**신한 혁명당 결성** — 중국 베이징 / 복벽주의로 출발 → 나중에 공화제 표방
1915	**★'한국통사' 간행** — 박은식
1915 7월	**★대한 광복회 결성** — 박상진, 김좌진, 채기중 등의 무장 독립 단체(경북) / 군자금 모금(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친일파 처단, 독립군 양성 / 1918년 검거되어 해체
1916 3월	**원불교 창시**
1917 1월 1일	**'무정' 연재** — 이광수, 매일신보(총독부 기관지) /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1917	**대동 단결 선언** — 신한 혁명당 인사들 / 임시 정부 탄생의 계기
1917 11월	**러시아 혁명** — 제정 러시아 붕괴, 소련 성립 → 코민테른 결성, 약소 민족 독립운동 지원하며 공산주의 확장
1917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 — 러시아 혁명에 자극받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결성 →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1919. 3)
1918	**민족 자결주의 제창** — 1차 대전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미 대통령)이 14개조 평화 원칙에 포함
1918 8월	**신한 청년당 결성** — 여운형, 김규식 등, 상하이 / 독립 청원서를 김규식을 통해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

1919 3·1 운동 → 문화 통치로 전환

1919 1월	**파리 강화 회의** — 승전국의 1차 대전 뒤처리 회의 → 신한 청년당이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파견
1919 2월 1일	**무오 독립 선언**(대한 독립 선언) — 해외 독립운동가 39명 명의로 만주 지린(길림)에서 발표 (음력 무오년 1918년 12월이라 '무오')
1919 2월 8일	**★2·8 독립 선언** — 민족 자결주의 영향,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 조직 → 선언·시위 (선언서 기초 이광수) → 3·1 운동에 영향
1919 3월	**★3·1 운동** — 계기가 되어 헌병 경찰 통치 → 문화 통치로 바뀜 / 초기 비폭력 → 나중 폭력 투쟁으로 발전 / 영향 :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 중국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무저항 운동
1919 3월 17일	**대한 국민 의회 수립** —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1917,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1919. 3) →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1919. 9)
1919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 상하이
1919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 — 3·1 운동을 무력 탄압하던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 제암리 주민 30여 명을 교회에 가두고 사격·방화, 생존자까지 학살
1919 4월 23일	**한성 정부 수립** — 서울
1919 5월	**5·4 운동** — 3·1 운동 소식 → 천두슈가 중국 민중 분발 촉구 → 5월 4일 지식인·학생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 등 주장·시위
1919 8월	**구미 위원부 설립** — 이승만이 워싱턴에 설립
1919 9월 2일	**강우규 의거** — 노인 동맹단 소속 /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
1919 9월 15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통합)** — 임시 정부(상하이) + 한성 정부(서울) + 대한 국민 의회(연해주) 통합 → 상하이 / 최초의 민주 공화제 /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1919 10월	**경성 방직 주식회사 설립** — 김성수
1919 11월	**★의열단 조직** — 만주 길림(지린)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한눈에 — 국권 피탈 과정

한·일 의정서(1904. 2, 군사 요지 사용) → 제1차 한·일 협약(1904. 8, 고문 정치) → 을사늑약(1905. 11, 외교권, 통감부) → 한·일 신협약(1907. 7, 차관 정치, 군대 해산) → 기유각서(1909. 7, 사법권) → 경찰권 박탈(1910. 6) → 한·일 병합 조약(1910. 8, 국권 피탈)

한눈에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만주 : 서전서숙(북간도), 경학사·신흥 강습소(삼원보), 중광단(대종교)
연해주 : 13도 의군, 성명회, 권업회(신한촌), 대한 광복군 정부,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 → 대한 국민 의회
미주 :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대조선 국민 군단(하와이) / 중국 관내 : 신한 혁명당, 신한 청년당

1920년 — 문화 통치 시기

1920 3~4월	**조선일보 · 동아일보 창간**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강제 폐간(1940)
1920 6월 7일	**봉오동 전투** — 3·1 운동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 무장 투쟁 활발 → 일본이 1920년 5월경부터 토벌 작전 → 봉오동에서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일본군에 맞서 승리 참여 부대 :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의민단 등 * 주의 :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는 참여하지 않음
1920 6월 25일	**『개벽』 창간** — 일제 강점기 월간 종합지 (천도교)
1920 6월 26일	**조선교육회 조직** — 한규설, 이상재 등 / 한국인 본위의 교육 요구가 높아지며 조직 → 조선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나 실패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추진
1920 6월	**구월산대 결성** — 국내 무장 단체 3·1 운동 직후 조직된 국내 독립군 부대(만주 독립군과 연결) : 천마산대(평북, 1919), 보합단(평북, 1920), 구월산대(황해도, 1920)
1920 7월	**물산 장려 운동** — 1920년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결성 → 호응을 얻자 1923년 서울에서도 결성되며 전국 확산 → 더 확산되지 못하고 일제의 방해·탄압으로 흐지부지(1924) → 명맥만 유지하던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선총독부가 해산(1940) 시작(1920) → 본격 전개(1923) / 구호「조선 사람 조선 것」
1920 8월	**보합단 결성** — 국내 무장 단체
1920 10월 2일	**훈춘 사건** —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에 패배 → 간도 토벌을 위해 마적단을 돈으로 매수,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일부러 습격하게 함 → 자국 관공서 보호를 명분으로 간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한국 독립운동가 탄압
1920 10월 21일	**청산리 전투** — 봉오동 전투(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중심) 승리 → 일제가 훈춘 사건으로 만주에 대병력 출병, 간도 독립군과 충돌 →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를 주축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연합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최대의 승리 참여 부대 : 북로군정서 + 봉오동 전투의 연합 부대(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의민단 등)
1920 10월	**간도 참변** — 봉오동·청산리 전투 참패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 및 간도 지역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
1920 12월 경	**산미 증식 계획 실시** —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로 농민이 도시로 몰림 → 일본 농촌의 미곡 생산량 급감 → 조선에서 실시(생산량은 목표 미달, 수탈량은 목표대로 → 조선 농촌 경제 파탄) / 1920~1934
1920 12월	**대한독립군단 결성** — 간도 참변 등으로 흩어진 독립군이 중국·소련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여 조직 (총재 : 서일)

1921년

1921 1월	**자유시 참변** ★ — 대한독립군단이 일본군을 피해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 → 소련 내전(적색군 vs 백색군)에서 적색군을 지원(일본은 백색군 지원) → 지도부 분열 및 적색군(붉은 군대)의 배신으로 무장 해제 → 저항하다 무수한 사상자
1921 9월 12일	**김익상 의거** — 의열단 / 조선총독부에 폭탄 투척
1921 12월 3일	**조선어 연구회 창립** — 이윤재, 최현배 등 / 국문 연구소(주시경, 1907)의 전통 계승 / 잡지 『한글』 간행 / '가갸날' 제정

1922년

1922 2월 4일	**제2차 조선 교육령** — 조선인의 교육 기회 확대 → 그러나 초급·기술 교육 등에 한정 →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한 계기 ① □□ 설치, 대학 교육 허용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② 3면 1교로 확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 원칙 ③ 보통학교 6년, 고등 보통학교 5년으로 연장 ④ □□ 교육 강화와 실업 교육 강화
1922 5월	**'민족 개조론' 기고** — 이광수가 잡지 『개벽』에 기고
1922 11월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이상재 등이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 결성(1922) → 이듬해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결성(1923), 운동 추진 → 일제가 경성 제국 대학을 세워(1924) 방해·탄압 → 실패 모금 구호 :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1922 12월	**안창남의 모국 방문 비행**

1923년

1923 1월 3일	**국민 대표 회의 개최** — 상하이에서 개최 (신채호 발의 → 안창호 호응)
1923 1월 12일	**김상옥 의거** — 의열단 /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3 1월	**조선 혁명 선언** ★ — 일제 타도와 독립을 위한 민중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 발표 * 의열단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집필
1923 3월	**잡지 『어린이』 발행**
1923 4월 25일	**형평 운동** —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 / 1923년 백정 이학찬이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창립 → (1936년 대동사로 개칭)
1923 5월 1일	**어린이날 제정** —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등이 어린이날 공포
1923 9월	**관동 대지진** — 일본 관동 지방 대지진으로 사회 불안 →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 → 일본 자경단이 한국인 등을 무참히 학살(관동 대학살)
1923 9월	**참의부 조직** — 임시 정부 직할 부대로 압록강 건너편 중국 지역에 조직(육군주만 참의부)

1924년 — 문화 통치 시기

1924	**암태도 소작 쟁의** —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전라도 농장에서 벌어진 소작 쟁의 /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소작료 인하 요구 → 성공 (1923~1924)
1924	**'민족적 경륜' 기고** —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기고 (동아일보 불매 운동) → 자치론
1924	**김지섭 의거** — 의열단 / 일본 궁성에 폭탄 투척 (이중교 투척 사건)
1924 1월	**제1차 국·공 합작** —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 민족주의·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 제시 → 우리 민족 유일당 운동(1920년대 중반 이후)에 영향 / 제1차(1924), 제2차(1937)
1924 4월 18일	**조선 노농 총동맹 조직** — 서울에서 조직
1924 4월 21일	**조선 청년 총동맹 조직** —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사상 유입 → 청년 단체가 민족주의·사회주의 계열로 분열 → 통합을 위해 조직(장덕수, 조봉암 등) →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고 민족주의 계열 배척 → 통합 깨짐
1924 5월	**경성 제국 대학 ★** — 일제가 서울(경성)에 설치한 종합 대학 / 5월 2일 칙령 103호 관제로 법문학부·의학부 설치 규정 → 5월 10일 예과 개강으로 개교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방해
1924 11월	**정의부 조직** — 남만주 일대(길림·봉천 중심)

1925년

1925 3월	**신민부 조직** — 북만주 일대(자유시 참변 이후 귀환한 독립군 중심) *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의 성격 = 민정 기관 + 군정 기관
1925 4월	**조선 공산당 조직** — 서울에서 조직된 공산주의 운동 단체
1925 5월	**치안 유지법 시행** — 일제가 사회주의 세력 탄압을 위해 제정 → 실제로는 민족 운동 탄압에 이용
1925 6월	**미쓰야 협정 ★** — 일제가 독립군 탄압을 위해 만주 군벌과 맺은 비밀 협정 → 만주의 독립군 활동 위축
1925 6월	**조선사 편수회 조직** —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1916) → 조선사편찬위원회(1922) → 조선사편수회(1925)
1925	**카프(KAPF) 조직** — 프로 문학의 전위 단체 : 개인적·산발적인 신경향파 문학에서 벗어나 계급 의식에 입각한 조직적 프로 문학과 정치적 계급 운동이 목적 1932년 6월 1차 검거 → 1934년 2차 검거 → 1935년 6월 김팔봉이 해산계에 서명·날인하여 해체 → 박영희 등 많은 카프 문인 전향

1926년

1926	**『님의 침묵』 출간** — 한용운
1926 6월 10일	**6·10 만세 운동 ★** — 순종의 인산일(장례식날)을 계기로 시위 / 학생 + 사회주의 계열이 주축,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두 진영의 공감대 형성) → 민족 유일당인 신간회(1927) 결성에 영향
1926 7월 8일	**조선 민흥회 설립** — 서울청년회와 조선물산장려회가 중심이 되어 발기한 민족 협동 전선 단체 다수의 민족주의 좌파와 조선공산당 등이 참여하지 않아 제한된 규모의 협동 전선 / 창립 총회를 금지당해 활동 못 함 → 그 목표와 경험이 신간회에 수용
1926 10월	**영화 「아리랑」** — 춘사 나운규가 만든 영화, 나라 잃은 통한을 항일 정신으로 표현
1926 11월	**정우회 선언** —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 전선을 제창 → 신간회(1927) 결성의 기폭제
1926 12월	**나석주 의거** — 의열단 /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1927 ~ 1928년

1927 2월	**신간회 결성** — 1927~1931 (민족주의 +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유일당)
1927 5월	**근우회 결성** — 신간회의 자매 단체
1927 9월	**조선 농민 총동맹 · 조선 노동 총동맹 조직** (조선 노농 총동맹이 둘로 나뉨)
1928 10월	**한글날 제정** ('가갸날'의 이름을 바꿈)
1928 11월	**혁신 의회 수립** (3부 통합 운동 — 북만주)

1929년

1929 1월	**원산 노동자 총파업** — 1928년 9월 덕원군 문평리 라이징 선(Rising Sun) 석유 회사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이 계기 → 1929년 1~4월 원산노동연합회 주도, 일제하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 신간회가 지원 /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
1929 4월	**국민부 수립** — 남만주 지역 / 산하에 조선 혁명당과 조선 혁명군 조직
1929 7월	**문자 보급 운동** — 조선일보 /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
1929 10월	(원본 연표는 여기부터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세계 경제 공황** — 미국 주식 시장 대폭락으로 시작 → 선발 자본주의 국가는 블록 경제권(보호 무역)으로 대처 / 일본은 공황 피해가 심해지자 아시아를 침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돌파 시도 → 그 과정에서 만주 사변(1931), 중·일 전쟁(1937)
1929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 / 광주에서 일본 남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 → 한·일 학생 충돌 → 일본 경찰의 편파 수사 →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고 지원 → 전국으로 확대

1930년 — 민족 말살 통치 시기

1930 1월	**한국 독립당 조직** — 중국 상해에서 조직 한국 독립당은 셋이 있음 ① 1930년 1월 상해의 한국 독립당(이동녕, 안창호, 김구) ② 1930년 7월경 만주의 한국 독립당(지청천 등) → 한국 독립군 ③ 1940년 한국 독립당(김구, 조소앙 등 — 1930년 상해 한국 독립당 계승)
1930	**청구 학회 설립** — 경성 제국 대학 법문학부와 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식민 사관에 입각해 조선·만주 중심의 극동 문화를 연구하려고 만든 학술 단체 한국인은 최남선·이능화가 평의원, 이병도·신석호가 위원으로 가입

1931년 — 만주 사변 전

1931	**조선어 학회로 개칭** — 조선어 학회 강제 해산(1942) → 한글 학회로 이어짐(1949)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1933),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 (시험에는 「조선말 큰사전」)
1931	**브나로드 운동** — 동아일보에서 전개한 문맹 퇴치·미신 타파·근검 절약 등 생활 개선 운동 / * 브나로드 :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1931 7월	**만보산 사건** — 중국 지린성 만보산에서 한국 농민과 중국 농민이 농수로(관개 수로 공사) 문제로 충돌 일제가 악의적으로 보도해 한·중 적대감을 높였으나, 만주 사변·상하이 사변에 윤봉길 의거까지 일어나며 한·중 관계 회복

1931 ~ 1932년 — 만주 사변 시기

1931 9월	**만주 사변** — 일본이 만주를 중국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기 위해 일으킴
1931	**한인 애국단 결성** — 김구가 한·중 우의와 임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성
1932 1월 8일	**이봉창 의거** —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일본에서 일왕에게 폭탄 투척
1932 1월 28일	**상하이 사변** — 이봉창의 일왕 암살 기도 실패를 중국 언론이 안타깝게 보도 + 일본인 승려가 중국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 → 이를 빌미로 일제가 일으킴 / 불법 만주 점령에 쏠린 국제 여론을 돌리려고 이용
1932 3월	**만주국 수립** — 만주 사변 + 만주국 수립
1932 4월	**윤봉길 의거** —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일왕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서 일본군 장성들에게 폭탄 투척 →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 / 그러나 배후로 지목된 임시 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이동
1932 ~1933	**한·중 연합 작전** 조선 혁명군 + 중국 의용군 ⇒ 영릉가(성) 전투(1932), 흥경성 전투(1933) ★ 한국 독립군 + 중국 호로군 ⇒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 ★
1932	**농촌 진흥 운동** — 산미 증식 계획으로 수탈당하던 중 세계 경제 공황(1929) 여파로 농산물 가격까지 폭락 → 농민 불만 고조 → 일제가 농민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전개(1932~1940) → 조선 농민 통제 강화

1933년

1933	**『조선 사회 경제사』 저술** — 백남운 : 『조선 사회 경제사』(1933),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1937) → 사회 경제 사학
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조선어 학회)

1934 ~ 1935년 — 만주 사변 시기

1934 5월	**진단 학회 조직** — 이윤재, 이병도, 손진태, 신석호 등이 청구 학회의 한국사 왜곡에 반발하여 조직 → 1942년 진단 학회 사건으로 해산 / 실증 사관
1934	**과학 대중화 운동** — 발명 학회, 과학 문명 보급회 조직 / 1934 발명 학회 → 과학 지식 보급회 조직(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대중화), 『과학 조선』 창간
1934	**조선학 운동 전개** —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 / 1930년대 중반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계기로 시작(1934), 지나치게 국수적·낭만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을 반성 / 민족과 민중을 함께 중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함께 찾음 / 주요 연구 대상은 고대사와 실학 ※ 박은식은 조선학 운동에 참여하지 않음
1935 7월	**민족 혁명당 조직** — 한국 대일 전선 통일 연맹의 후신으로 여러 민족 운동가가 참여, 조선 민족 혁명당 발족(주석 : 김규식, 총서기 : 김원봉) 당의에서 조소앙의 3균주의 채택, 광복 후 세울 나라를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제시
1935	**한국 국민당 조직** — 이동녕, 김구 등 민족 혁명당에 참가하지 않은 임정 고수파 중심의 우익 세력 /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삼균주의 표방,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국민 생활권의 평등화 등을 강령으로 조직

1936년

1936	**조국 광복회 조직** — 동북 항일 연군(공산당 계열)의 조선인 간부 중심
1936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1936	**일장기 삭제 사건** — 동아일보
1936	**신사 참배 강요** — 총독부의 '신사 제도의 개정에 관한 규칙'(1936. 8)에 따라 전국에 신사를 늘리고 한국인에게 신사 참배 강요

1937년 — 만주 사변 시기 → 중·일 전쟁기

1937	**보천보 전투** — 동북 항일 연군 안의 한인 항일 유격대가 조국광복회의 지원을 받아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에 들어가 경찰 주재소·면사무소 등을 습격, 일시 점령(1930년대 후반 조선인 부대의 대표적 국내 진입 작전) → 독립운동이 위축되던 시기에 사기 진작
1937	**중·일 전쟁** — 중국은 제2차 국·공 합작으로 항일전 전개 / 조선에서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
1937	**황국 신민 서사 제정**
1937	**조선 민족 전선 연맹 결성** —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계 항일 민족 연합 전선 (조선)민족 혁명당 + 조선 민족 해방자 동맹 + 조선 혁명자 연맹(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 조선 청년 전위 동맹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1937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 소련 스탈린 정권이 연해주의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1938년 — 중·일 전쟁기

1938	**내선일체 선전**
1938	**제3차 조선 교육령** ① 3대 강령(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② 황국 신민 서사 제정, 암송·제창 강요 ③ □□ 국사를 정규 과목에서 수의(선택) 과목으로, 수업도 일본어, 한국사 교육 금지 ④ 한반도 교육을 일본 본토와 똑같이 운영 : 보통학교 → 심상 소학교, 고등 보통학교 → 중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 → 고등 여학교 ⑤ 1941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국민학교령)
1938	**국가 총동원법 공포** ★ —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수탈을 위해 공포
1938	**지원병 제도 실시** —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시행(지원병 자격을 엄격히 제한)
1938	**조선 의용대 창설** ★ — 중국 한커우에서 창설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군사 조직, 김원봉 →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1939 ~ 1940년 — 중·일 전쟁기

1939	**전국 연합 진선 협회** ① 좌우 통합 운동 추진 : 조선 민족 전선 연맹과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가 중·일 전쟁 확대와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종용 등으로 결성을 추진했으나 실패 ② □□ : 임시 정부 존폐 문제, 조선 의용대 지휘권 문제로 난항
1939 9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1939	**국민 징용령 공포**
1940 2월	**창씨개명 실시** — 창씨개명 공포(1939. 11) → 창씨개명 실시(1940. 2)
1940 4월	**한국 독립당 결성** — 김구, 조소앙 등 / 1930년 상해의 한국 독립당을 계승
1940 9월	**한국 광복군 결성 ★**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규군 (총사령관 지청천) · 1941년 일본에 대일 선전 포고 · 1943년 미얀마·인도 전선에 공작대 파견(포로 심문, 암호문 번역, 회유 방송 등) · 미국 OSS와 연합해 국내 진입 작전 계획(국내 정진군 편성) → 1945년 8월 20일 예정이었으나 8월 15일 광복으로 무산

1941년 — 태평양 전쟁기

1941 7월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 결성** — 충칭까지 이동했던 조선 의용대가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 결정(1940. 11) → 본부는 충칭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화북으로 이동(1941. 3)
1941 11월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조소앙의 삼균주의 바탕)
1941 12월	**태평양 전쟁 발발** — 일본이 하와이(진주만)를 공격 / 미국 등 연합국 ↔ 일본 / 1941~1945
1941 12월	**대일 선전 포고** —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

1942년

1942 5월	**조선 의용대 일부, 한국 광복군에 편입** — 1940년 9월 충칭의 임시 정부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자, 충칭에 남은 조선 의용대 본부 인원 중 광복군 참가자·이탈자 발생 → 조선 의용대 본부가 의용대를 한국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1942. 5) / 의용대 총대장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 취임
1942 7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 — 본부가 광복군에 편입되자 화북 지대는 본부 없는 지대가 됨 →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이름을 조선 의용군으로 바꾸고 조직 개편(1942. 7)
1942 10월	**조선어 학회 사건** —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황국 신민화, 창씨개명, 한국어·한국사 금지 등)에 반하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 관련 인사를 강제 연행, 재판에 넘긴 사건

1943년

1943	**제4차 조선 교육령** ① □□ 대륙 침략에 쓸 병사 준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제 실시(교육의 군사 체제화) ② 조선어, 조선사의 완전 폐지 ③ 제국 대학 예과는 문과 정원을 최소화 ④ 중학교와 고등 여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
1943	**영국군과 연합 작전** —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공동) 작전 전개
1943	**학도 지원병 제도 실시**
1943	**카이로 회담** —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 / 미·영·중 참가

1944 ~ 1945년 (광복)

1944	**미곡 강제 공출제 실시**
1944	**강제 징병제 실시** — 전쟁 막바지의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시
1944 8월 10일	**조선 건국 동맹 결성 ★** — 국내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조선 건국 동맹(위원장 여운형)을 조직, 일제 타도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국 강령 제정 / 농민 동맹(1944. 10)과 군사 위원회(1945. 3)를 산하에 둠
1944 8월 23일	**여자 정신대 근무령 제정** — 여성들을 강제 노역 및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감 〈주의〉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가기 시작
1945 2월	**얄타 회담** — 38도선 분할 논의(밀약) / 신탁 통치 논의(밀약) / 소련 대일전 참전 결정 → 소련 참전 지연 → 미국 원폭 투하(1945. 8. 6) 뒤 소련 참전(1945. 8. 8) → 참전 5일 만에 일본 항복(1945. 8. 15)
1945 7월	**포츠담 선언** — 한국의 독립 재확인 / 미·영·중·소 참가
1945 8월 15일	**8·15 광복**

※ □□ = 원본 연표의 빈칸(채워 넣기 문제). 원본에 적힌 대로 비워 둠.

1945년 — 광복 후 해방 정국

1945 8월 15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 여운형 중심의 ★조선 건국 동맹(1944.8.10)이 광복을 맞아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8.15)로 확대 개편 → 다시 조선 인민 공화국(1945.9.6)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각 지부는 인민 위원회로 개편됨 강령 — 첫째, 완전한 독립 국가 건설 / 둘째, 전 민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 / 셋째,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
1945 8월 24일	**소군정 실시** — 소련은 8월 24일 북한(평양)에 진주하여 친소 정권 수립 → 1948년 12월 북한에서 철수 ※ 미군정에 대비한 편의상 이름. 소련은 미국처럼 군정청을 두지 않음 → 남한 = 군정(미 군정청)에 의한 통치 / 북한 = 군정(소련군 사령부 등) + 민정(북한 정권을 전면에 내세움)
1945 9월 6일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 여운형 중심으로 발족, 주석 이승만 · 부주석 여운형 ※ 1948.8.25 에 수립된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현 북한 정권)
1945 9월 8일	**미군정** 실시 — 남한에 군정청을 설치하여 군정 실시 (기간 1945.9.8 ~ 1948.8.15)
1945 10월 23일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결성 — 총재 이승만, 좌우익 연합적 성격의 정치 단체 → 한 달도 안 되어 분열 조짐(좌익 계열 탈퇴, 우익 임시 정부 계열과도 마찰 → 세력 약화) →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자, 신탁 통치에 반대한 김구 중심의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중앙 위원회와 통합하여 1946년 2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발족(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
1945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참가국 미·영·소 외무 장관 /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하에 둔다는 전제로, 조선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결정 첫째,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 아래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미·영·소·중)이 신탁 통치(공동 관리)한다. 넷째, 2주일 이내에 미·소 사령부의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

1946년

1946 3월 5일	**북한 토지 개혁** — 북한 토지 개혁(1946)이 먼저, 남한 농지 개혁(제정 1949, 실시 1950.3)이 나중. 5정보 이상의 토지·일본인 토지·민족 반역자 토지·모든 부재지주 토지를 무상 몰수 → 농민에게 무상 분배. 분배된 토지는 채무·부담 면제, 매매·소작·저당 금지 ※ 6·25 전쟁 때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도 무상 몰수·무상 분배 실시
1946 3월 20일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미·소 대표자 회의 / 소련: 신탁 통치 지지 단체(결국 공산당)만 협의 대상 vs 미국: 모든 정치 단체 참여 → 입장 차이로 결렬
1946 5월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조선 공산당이 남한의 혼란·당비 조달을 목적으로 위조지폐 발행 → 미군정이 기관지 『해방일보』 폐간 → 조선 공산당의 노선이 미군정 협조 노선 → 투쟁 노선으로 전환
1946 6월 3일	**★정읍 발언** — 제1차 미·소 공위 결렬로 좌익(찬탁)·우익(반탁) 대립 격화 →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 주장, 한국 민주당 등 극우 세력 지지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1946 7월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 — 미·소 공위 결렬 + 찬탁·반탁 좌우 대립 + 정읍 발언 ⇒ 분단 가능성 커짐 ⇒ 이를 막으려 여운형·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 추진 ※ 중국 국공 합작(미국 마셜 중재)에 영향받은 미국이 우호적 정부를 세우려는 구상으로 지원 **좌우 합작 7원칙**(1946.10) — ①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의한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② 미·소 공위 속개 요청 공동 성명 ③ 토지 개혁(몰수·유상 몰수·체감 매상에 의한 무상 분배)과 중요 산업 국유화 ④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리 조례 성안 ⑤ 정치범 석방·테러 중단 ⑥ 입법 기구의 기능·구성 방법을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실행 ⑦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 보장

1947년

1947 3월	**트루먼 독트린** 발표 —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선언한 '반소 반공' 세계 외교 정책 원칙. 공산 세력의 위협을 받던 그리스·터키 반공 정부에 경제적·군사적 원조 →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어 유럽 부흥 계획(마셜 플랜)·북대서양 조약·대외 경제 군사 원조로 이어짐 ※ 미국의 중대한 외교 정책: 먼로주의(고립주의) → 트루먼 독트린(1947) → 닉슨 독트린(1969, 아시아 자주 국방)
1947 5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 신탁 통치 반대 단체 문제로 미·소 대립 지속 → 미국이 협의 대상 문제를 4개국 외상 회담에 위임하자고 제의, 소련 거부 → 결렬(1947.9) →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1947.9)
1947 7월	**여운형 암살**
1947 11월	**유엔 총회 결의**(2차) —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선거를 통한 통일된 독립 정부 수립 결의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여 북한에 파견하려 했으나 소련이 북한 입국 거절(1948.1)

1948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2월 10일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 김구,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성명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는 것이다. …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 2월 26일	**유엔 소총회 결의** — 소련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북한 입국 거절(1948.1)로 북한 선거 불가능 →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 결의
1948 4월 3일	**제주 4·3 사건** — 남한만의 단독 선거(5·10 총선거) 결의 →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 중심으로 봉기 → 5·10 총선거 때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곳 투표 무산
1948 4월 19일	**남북 협상** — 5·10 총선거(단독 정부)에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개최 / 남측 김구·김규식, 북측 김두봉·김일성
1948 5월 10일	**5·10 총선거** —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공산주의자 대거 불참 속에 남한 단독 선거 → 이승만·한민당 계열 압승 / 198명 국회의원 선출 → 5월 31일 국회 개원 = 제1대 국회 = 제헌 국회(임기 2년) → 첫 임무: 국회법 제정, 헌법 제정·정부 수립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 제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48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공화국 · 이승만 정부)

1948년 — 제1공화국

1948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 수립** —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김책·홍명희, 수도(서울)·임시 수도(평양)
1948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공포 — 친일파를 처단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1조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주권 침해 조약에 조인·모의한 자 → **사형 또는 무기**, 재산 전부 또는 1/2 이상 몰수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 의회 의원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재산 몰수 제3조 독립운동가·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제4조 (각호 해당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년 이하 공민권 정지, 재산 몰수 가능 제5조 고등관 3등급 이상·훈 5등 이상 관공리, 헌병·헌병보·고등 경찰 → 공소 시효 전 공무원 임명 불가(기술관 제외) 제9조 반민족 행위 예비 조사를 위해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제29조 공소 시효 = 공포일부터 **2년**
1948 10월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군부대에 제주도 출동 명령 → 부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반대하며 여수·순천 점령, 인근 장악 → 정부군이 진압
1948 12월	**국가 보안법** 제정 — 좌파 정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 1958년 신국가 보안법(2·4 정치 파동)

1949년

1949 1월	**★반민 특위**(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발족 — 반민법에 따라 제헌 국회 안에 설치 (존속 1949.1~1949.8)
1949 4~8월	**국회 프락치 사건** —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국회에 침투했다는 혐의로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 체포. 이들은 외국 군대 철수안·남북 통일 협상안 등을 주장 → 3차에 걸쳐 검거, 2심 중 6·25 전쟁 → 출옥 후 사라짐 / 반민 특위 주도 세력 타격
1949 4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창설 — 냉전 격화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
1949 6월 6일	**반민 특위 습격 사건** — 반민 특위가 친일 경력의 경찰 간부 조사에 들어가자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 습격
1949 6월 21일	**★농지 개혁법** 제정 — 1949 제정 → 1950.3 실시 / 산림·임야는 제외 (북한 토지 개혁(1946)은 전 국토 대상) 1. 정부에 귀속: 법령·조약에 의해 몰수·국유된 토지,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정부가 매수: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한도 초과분 농지, 다년생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그 외 농지
1949 6월 26일	**김구 피살**

1950년 — 6·25 전쟁

1950 1월	**애치슨 선언** — 한국·대만 등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에서 제외 → 북한 남침의 빌미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 일본 열도를 거쳐 류큐(오키나와)로 이어진다. …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1950 6월 25일	**6·25 전쟁** — 1950.6.25 ~ 1953.7.27(정전 협정)
1950 7월 12일	**대전 협정** — 임시 수도 대전에서 서한 교환 형식으로 주한 미군의 지위·재판 관할권에 관해 체결 → 한국의 일방적 양보, 미군 범법 행위에 한국 정부가 아무 조치 불가 → 1966 한미 행정 협정(SOFA)으로 폐기
1950 7월	**국민 보도 연맹 사건** — 좌익 사상 전향을 위해 국민 보도 연맹 조직(1949.6) → 전쟁이 나자 가입자들이 북한군에 동조할 것이라 판단하여 대대적 학살, 무관한 민간인도 다수 희생
1950 7월	**노근리(양민) 학살 사건** — 충청북도 노근리 철교 밑에 피신한 피란민을 적으로 간주, 미군이 300여 명 사살
1950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1950.9.15) → 서울 탈환(9.28) → 압록강 초산까지 전진(10.26) · 중공군 개입(10.25) → 서울 철수(1·4 후퇴, 1951) → 서울 재수복(1951.3.14)

1951년

1951 1월 4일	**1·4 후퇴**
1951 2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1·4 후퇴 후 빨치산 공세 강화 → 거창군 신원면 일대 공비 토벌 중이던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공비와 내통했다"며 2월 10일 청장년 136명, 11일 박산 계곡에서 527명 학살
1951 3월	**국민 방위군 사건** —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의 고급 장교들이 국고금·군수 물자를 착복 → 아사자·동사자 속출(사망 약 9만 명) → 국회 폭로, 진상 조사단 구성
1951 6월 23일	**휴전 제의** — 소련 유엔 대표 말리크의 휴전 제의

1952년

1952 5월	**부산 정치 파동** — 1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2년 2대 대선에서 간선제로는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 → 자신에게 유리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키려 공비 토벌을 구실로 계엄령 선포, 백골단 등 폭력 조직으로 국회 위협, 반대 야당 의원을 국제 공산당 자금 수수 구실로 체포·구속
1952 7월	**★발췌 개헌**(1차 개헌) — 피란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강압적으로 통과 → 첫 직선제 선거에서 이승만 제2대 대통령 당선(1952.8)

1953년

1953 6월	**반공 포로 석방** — 휴전 최대 난제 포로 송환 문제(미국 자유 송환 vs 북한 강제 송환) →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는 중립국 포로 송환 위원회에 넘긴다'로 타결되자, 이승만이 한미 방위 조약 체결 전 휴전 불가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반공 포로 석방
1953 7월 27일	**정전(휴전) 협정** ① 휴전 회담 시작(**개성**, 1951.7.10) ② 휴전 협정 조인(판문점, 1953.7.27): 유엔(해리슨 중장) vs 북한(남일) / 서명: 미국·중국·북한 (한국 서명 X) ③ 중립국 감시 위원국: 스웨덴·스위스·체코·폴란드
1953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조인) ① 한 나라의 독립·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으로 위협받으면 언제든 양국이 협의 ② 상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 ③ 미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 ④ 1년 전 폐기 통고 전까지 무기한 유효

1954년

1954 4월	**제네바 회의** — 휴전 협정 제60항(성립 후 3개월 안에 고위 정치 회담 권고)에 따라 개최 / 남북한이 주요 강대국과 함께 통일 문제를 토의한 처음이자 마지막 회담
1954 11월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 종신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가 핵심 → 재석 203명 중 2/3에서 1표 모자란 135표로 부결 → 며칠 뒤 자유당이 203의 2/3 = 135.3 → 사사오입하면 135라며 번복·통과 선포

1957 ~ 1959년 — 이승만 정부 후기

1957	**『우리말 큰사전』 완간** — 조선어 학회(1931~1942, 한글 학회의 전신)가 편찬을 시도했으나 실패 → 한글 학회가 완간
1958 1월	**★진보당 사건** — 1956년 5·15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조봉암 → 진보당이 북한 주장과 유사한 평화 통일 방안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정치 재판 → 조봉암 사형 / 혁신 정당 활동 크게 위축
1958 12월	**2·4 정치 파동** — 4대 총선(1958.5)에서 민주당 약진에 당황한 자유당이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가 보안법 개정(신국가 보안법) → 야당의 국회 단상 발언까지 봉쇄하려 함, 무술 경관을 동원해 통과
1959	**★경향신문 폐간** — 당시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야당과 언론 탄압

1960년 — 4·19 혁명

1960 3월 15일	**★3·15 부정 선거** — 자유당 이승만·이기붕 vs 민주당 조병옥·장면 → 조병옥이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사망(2.15)하여 이승만 당선 확정 → 12년 장기 집권 연장과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려 대규모 부정 행위
1960 4월 11일	**김주열 사망 사건** —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항의 시위 → 시위에 참가했다 실종된 고1 김주열이 한 달 만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름 → 경찰 소행으로 밝혀져 4·19 혁명의 도화선
1960 4월 19일	**4·19 혁명** 3·15 부정 선거 → 김주열 사망 사건(4.11) → 고대생 피습 사건(4.18) → **4·19 혁명**(4.19)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4.25) → ★이승만 하야(4.26)
1960 4월 27일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이승만 하야 후 허정을 수반으로 과도 정부 수립
1960 6월	**3차 개헌** — 내각 책임제 · 양원제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 제2공화국 장면 정부 성립

제2공화국 (장면 내각)

1960 8월	**제2공화국 시작** — 장면 내각 성립
1960 11월	**4차 개헌** — 부정 축재자 소급 개헌
1961 5월 16일	**5·16 군사 정변** — 박정희 중심 일부 군부 세력 → 장면 내각 9개월여 만에 끝남

박정희 군정 ~ 제3공화국

1961 5월 18일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 5·16 직후 헌정을 중단시키고 설치한 최고 통치 기관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2차(1967~1971) · 3차(1972~1976) · 4차(1977~1981)
1962 12월	**5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 단원제
1963 12월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수립 — 1963년 10월 대선에서 야당 단일 후보 윤보선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 → 12월 취임
1964 6월 3일	**6·3 시위** — 미국(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 + 한국(경제 개발 자금 필요) + 일본(정치·경제적 필요) ⇒ 한일 회담 추진 ⇒ 일본이 확실한 사죄·보상 거부에도 회담 진행 ⇒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1965	**베트남 파병** — 1964년 비전투 부대 파병 →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으로 1965년부터 전투 부대 파병 (보통 베트남 파병 = 1965년부터의 전투 부대 파병)
1965 6월	**한일 협정** 체결(한일 국교 정상화) — 김종필·오히라 메모 기본(무상 3억 달러(명목: 독립 축하금) / 정부 간 차관 2억 달러 /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제1조 양국 간 외교·영사 관계 수립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간 조약·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

1966년

1966 3월	**브라운 각서** 체결 — 베트남 전쟁 격화로 미국이 또 추가 파병 요청 → 한국군 추가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 ·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차관 제공 약속(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 → 야당 반대 속 베트남 파병 계속(1965~1973) 〈군사 원조〉 한국군 현대화에 수년간 상당량의 장비 제공 / 추가 증파 병력 장비 제공, 증파에 따른 추가 원화 경비 부담 〈경제 원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추가 AID 차관 제공 / 주월 한국군 보급 물자·용역·장비를 가능한 한 한국에서 구매, 주월 미군·월남군 물자 일부를 한국에 발주 /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 원조 강화
1966 7월 9일	**한미 행정 협정(SOFA)** 조인 — 1967년 2월 발효,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국 내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전쟁 중 맺어져 일방적이던 대전 협정(1950.7)을 완전히 폐기, 전문 31조 + 부속 문서 4개 / 주한 미군 시설·구역의 제공·반환·유지, 미군·가족의 출입국·관세·외화 관리·재판 등 규정

1968년

1968 1월 21일	**1·21 사태** —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 시도(김신조 사건)
1968	**국민 교육 헌장** 선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1968	**향토 예비군** 창설

1969년

1969 7월	**닉슨 독트린** 발표 — 미국 대통령 닉슨이 아시아에서 과도한 정치·군사적 개입(베트남 전쟁 등)을 피하겠다고 선언 → 베트남 미군 철수 → 베트남 공산화 ⇒ 국내적으로 주한 미군 감축 결정 ①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한다 ② 조약상 약속은 지키되, 핵 위협 외의 내란·침략에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해 대처** ③ '태평양 국가'로서 역할은 계속하되 과잉 개입 없이 자조 의사를 가진 나라를 측면 지원 ④ 원조는 경제 중심·다수국 방식으로 ⑤ 5~10년 안에 아시아 상호 안보 군사 기구 기대
1969 10월	**3선 개헌**(6차 개헌) — 1963 박정희 당선(초선) → 1967 재선 →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자 3선 개헌 강행 → 1971 3선 당선

1970 ~ 1972 ·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말)

1970	**★경부 고속 도로 개통**
1970 8월	**8·15 선언** — 박정희 정부의 평화 통일 구상 ①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 ② 전쟁 도발 행위 중지, 무력 적화 통일 야욕 포기 ③ 북한은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④ 북한이 UN 의 권위·권능을 수락하면 유엔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북한이 수락·실천하면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1970 11월	**전태일 분신 사건** — 서울 동대문 평화 시장 피복 공장 재단사 전태일(22세)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거, 근로 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바보회〉 조직 ·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직원 2만여 명 중 90% 이상인 봉제공 평균 18세·하루 15시간, 시다공 평균 15세·하루 16시간 노동 → 노동자 실상을 알린 계기
1971 8월	**광주 대단지 사건** — 경기도 광주 대단지(철거민 집단 이주지)의 도시 빈민 3만여 명의 폭동으로 시가 마비
1972 7월	**★7·4 남북 공동 성명**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합의 ① 자주적·평화적·민족적 통일 원칙 합의 ② 상대방 중상·비방, 무장 도발 금지 ③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④ 남북 적십자 회담 적극 협조 ⑤ 서울-평양 상설 직통 전화 가설 ⑥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⑦ 합의 사항 성실 이행을 민족 앞에 약속

1972 ~ 1974 · 제4공화국 (유신 체제)

1972 10월	**★유신 헌법 공포** (10월 유신 → 제4공화국 성립) — 대통령 간선제, 단원제 1. 통일을 위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둔다 2.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 선출, 국회 의원 정수 1/3 선출, 국회 발의 개헌안 의결 확정 등을 대행 3. 대의원은 정당 가입·국회 의원 겸직 불가 4. 대통령 임기 6년,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의장 겸임
1972 11월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 7·4 남북 공동 성명(1972.7) 합의 사항 추진, 남북 관계 개선·발전과 통일 문제 해결 목적
1972 12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치** —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며 유신 헌법에 따라 설치
1972 12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채택** — 1948.9 공포한 '인민 민주주의 헌법'을 24년간 시행하다 폐지하고 1972.12.27 '사회주의 신 헌법' 채택
1973 6월	**6·23 평화 통일 선언**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1973) →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 ① 평화 통일은 민족의 지상 과업, 모든 노력 경주 ② 서로 내정 간섭·침략 금지 ③ 남북 대화에 성실과 인내로 노력 ④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반대 안 함 ⑤ 북한과 함께 UN 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가입 전이라도 UN 총회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참석 반대 안 함) ⑥ 호혜 평등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⑦ 대외 정책의 기본은 평화와 선린
1973 ~1974	**제1차 석유 파동** ↔ 제2차 석유 파동(1978~1980)

1974 ~ 1979 · 유신 반대 운동과 유신 체제 붕괴

1974 1월	**긴급 조치 1호 공포** —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 조치 긴급 조치 1호(1974.1) ~ 9호(1975.5)까지 총 9차례 공포 →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
1974 4월	**민청학련 사건** — 김대중 납치 사건(1973.8)으로 반유신 운동 확산 → 긴급 조치 1·2호(1974.1)로 일체의 개헌 논의 금지 → 민청학련(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 불순 세력 조종을 받는다며 긴급 조치 4호(1974.4) 발동, 수업 거부·집단 행동 금지, 180명 구속
1974 8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천명** — ① 남북한 불가침 협정 체결 ②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③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실시
1975 4월	**인혁당 사건**(제2차) —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사건을 조사하며 1차 인혁당 사건(1964.8) 잔여 세력이 '인혁당 재건 위원회'를 만들어 민청학련을 배후 지휘했다고 날조 → 8명 사형 선고, 판결 16시간 만에 집행 → '사법 살인' 비판
1976 3월	**3·1 민주 구국 선언**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 긴급 조치 철폐, 투옥된 민주 인사·학생 석방, 언론·집회·출판의 자유 요구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3) 민족 통일은 겨레의 지상 과업
1976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9 8월	**★YH 무역 사건** —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부도 기업 증가 → 가발 업체 YH 무역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폐업 →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점거 농성 → 경찰 강제 진압으로 여성 노동자 1명 사망 → 박정희 정권 몰락의 한 요인
1979 10.16	**부·마 민주화 운동** — 유신 독재에 반대해 부산·마산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
1979 10.26	**10·26 사태** — 김재규(중앙정보부장)가 박정희 대통령 저격 → 박정희 사망, 유신 체제 붕괴

1979 ~ 1980 · 신군부 등장과 5·18

1979 12월	**12·12 사태** — 10·26 사태 후 비상계엄 선포 → 신군부(전두환·노태우)가 군부 온건파(계엄 사령관 정승화 등)를 제거하고 군부 장악
1980 5.15	**서울의 봄** — 서울에서 학생들이 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1980 5.18	**★5·18 민주화 운동** —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신군부가 계엄령 확대 → 광주의 학생 민주화 시위를 과잉 진압, 사상자 속출 → 분노한 광주 시민 동참(시민군) → 신군부가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 진압(1980.5.27)
1980 5.3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 설치** 국가 재건 최고 회의(1961, 박정희)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1980, 전두환)
1980 10월	**8차 개헌** — 전두환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으로 11대 대통령 취임(1980.9) → 7년 단임 간선제 개헌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폐지,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출 → 이를 통해 12대 대통령 취임(1981.3)

1981 ~ 1987 ·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1981 3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수립** (1981~1987)
1982 1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발표** —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발표 ① 남북 대표로 민족 통일 협의회의 구성 ②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 기초 ③ 통일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 총선거로 통일 국회·정부 구성 → '통일 민주 공화국' 수립
1983 9월	**KAL기 피격 사건** —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승객·승무원 269명이 탄 대한 항공 007편이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
1983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1983 10월	**아웅산 사건** — 미얀마(당시 버마) 수도 양곤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의 폭탄 테러로 한국 외교 사절 다수 사상
1984 9월	**북한, 합영법 제정** — 만성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과의 경제·기술 교류, 합작 투자 목적(조선 합작 경영법) 합영법(1984) → 신합영법(1994)
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최초 이산가족 상봉) — 1985년 전두환 두 번째 상봉 → 2000년 김대중

1987 · 6월 민주 항쟁

1987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경찰이 '민주화 추진 위원회 사건'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후배 박종철(서울대생)을 불법 체포 → 1.14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 → 은폐 시도에도 진상 폭로 → 6월 항쟁의 주요 계기
1987 4.13	**4·13 호헌 조치** — 간선제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정권의 비정통성 비판 속 직선제 개헌 논의 고조 → 전두환이 대통령 직선제를 사실상 거부
1987 6.9	**이한열 사망 사건** — 6·10 국민 평화 대행진 하루 전, 연세대 정문 앞 시위 중 이한열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쓰러짐 →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5 사망
1987 6.10	**★6월 민주 항쟁** — 박종철 고문치사 + 이한열 중태 + 4·13 호헌 조치로 직선제 개헌 좌절 → 정권 불신 심화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1987 6.29	**6·29 선언** —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특별 선언 첫째, 여야 합의로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 →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 둘째, 자유로운 출마·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 개정,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1987 10월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단원제 (6·29 선언을 계기로 현행 헌법)
1987 11월	**KAL기 폭파 사건** —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 항공 858편(보잉 707)이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 공작원(김현희·김승일)에 의해 공중 폭파

1988 ~ 1993 ·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1988 2월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수립** (1988~1993)
1988 7월	**7·7 선언** ① 남북 동포 상호 교류,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② 이산가족 서신 왕래·상호 방문 ③ 남북 간 교역 ④ 비군사적 물자의 우방-북한 교역 불반대 ⑤ 소모적 경쟁·대결 외교 종결 ⑥ 북한-우방 관계 개선,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 측 관계 개선
1989 2월	**헝가리와 수교** — 동구 공산권 국가 최초 수교 (북방 외교)
1989 9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1989.9.11) — 통일 전 과도적 체제로 '남북 연합' 제의 → 최고 결정 기구 '남북 정상 회의', 그 아래 '남북 각료 회의'(정부 대표)·'남북 평의회'(국회 의원) 설치 / 남북 정상 회담을 열어 민족 공동체 헌장 합의 제의
1989 11월	**폴란드와 수교**

1990 ~ 1992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 남북 관계)

1990 1월	**3당 합당** — 민주화 요구 + 1988 총선 야당 압승(여소야대) → 여당 민정당의 노태우가 3당 통합 발표 → 거대 여당 민자당 탄생
1990 9월	**소련과 수교** (북방 외교)
1990 10월	**독일 통일**
1991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6·23 평화 통일 선언(1973)에서 제의
1991 12.13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서울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 재확인 / 민족적 화해, 무력 침략·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다각적 교류·협력 / 쌍방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1991 12.28	**북한,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설치** — 외국 자본·기술 유치를 위해 중국 경제 특구를 모방한 경제 특구 외국인은 북한 승인 아래 합작·합영·외국인 재정 지원 기업 설립·운영, 서비스 부문 참여 허용
1991 12.31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세 차례 남북 대표 접촉 끝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합의 1.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2.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3. 핵 재처리 시설·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4.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을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 절차로 사찰 5.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6.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
1991 12.31	**소련 해체** → 1992.1.1 발트 3국을 뺀 12개 공화국이 독립 국가 연합(CIS) 구성
1992 8월	**중국과 수교** (북방 외교)

1993 ~ 1998 ·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 2월	**김영삼 정부 수립** — 14대 대통령, 문민정부 출범 (1993~1998)
1993 3월	**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선언** — 북한 NPT 가입 (1985) →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최초 핵사찰(1992.5) → 신고한 플루토늄 양 불일치 → IAEA 가 영변 미신고 시설 2곳 특별 사찰 요구 → 북한이 이를 벗어나려 NPT 탈퇴 선언
1993 8월	**★금융 실명제 실시**
1994 1월	**북한, 신합영법 제정** — 합영법(1984)으로도 조총련 투자 외 서방 투자 유치 실패 → 합작법(1992)·외화 관리법(1993) 제정 → 1994년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 결정으로 신합영법 (1984 합영법 개정)
1994 7월	**김일성 사망** → 김정일의 유훈 정치 시작
1994 8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 통일 3단계: ① 화해·협력 → ② 남북 연합 → ③ 통일 국가 완성(1민족·1국가·1체제·1정부) ① 기본 철학: 자유 민주주의, 민족 공동체 건설 ② 통일 원칙: 자주·평화·민주 ③ 통일 과정: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 건설
1994 10월	**제네바 합의** — NPT 탈퇴 선언(1993) 후 북·미 전쟁 직전 긴장 → 핵 문제 협상 → 북·미 제네바 합의로 긴장 일단락
1995 1월	**WTO(세계 무역 기구) 출범** — GATT(1947~) 체제를 구체화·체계화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1986) → 타결(1993) → 자유 무역 강화 기구 설치 합의에 따라 WTO 출범(1995)
1995 6월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노태우 정부 = 부분 실시 → 김영삼 정부 = 전면 실시
1995 7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
1995 11월	**★민주노총(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결성**
1996 12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 원본 연표는 1995년 칸에 둠
1997 12월	**IMF 구제 금융** — 국제 경제 악화, 외환 보유고 부족 → 외환 위기 →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IMF 위기 발생 (1997) → 극복(2001)

1998 ~ 2003 ·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 2월	**김대중 정부 수립** — 15대 대통령, 국민의 정부 출범 (1998~2003), 햇볕 정책 발표
1998	**★노사정 위원회 발족** —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사용자·정부가 노동 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 협의체 실업 대책, 노동 시장 유연성, 기업 구조 조정·부실 기업 정리, 외국 자본 유치 추진
1998 6월	**소 떼 방북** — 실향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
1998	**금강산 관광 시작**(해로 관광) → 육로 관광(2003)
2000 6.15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 — 2000.6.13 분단 이후 최초 남북 정상 회담 → 상호 이해 증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 6·15 공동 선언 발표 ·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 8·15 즈음 이산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 경제 협력으로 민족 경제 균형 발전,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교류 활성화 · 빠른 시일 안에 당국 간 대화 개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초청
2000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 시작**(복원 기공식) — 남측 구간 완료(2003) → 문산-개성 시험 운행(2007) → 문산-봉동 화물 열차 운행 중단(2008)
2000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 최초는 1985년(전두환)
2001 9월	**9·11 테러**
2002 5월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2002 9월	**북한,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2003 ~ 2008 ·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2003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 16대 대통령, 참여 정부 출범 (2003~2008)
2003 6월	**★개성 공단 설치** — 개성 공단 조성 사업 합의(2000) → 설치 공사 시작(착공식, 2003) = 노무현
2005 11월	**APEC 정상 회의 개최**
2007 4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타결**
2007 10.4	**★10·4 남북 공동 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2007.10.2~4 평양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 6·15 공동 선언 정신 재확인, 남북 관계 발전·한반도 평화·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 문제 협의 → 6·15 공동 선언에 기초해 남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로 선언
2007 10.22	**어재연 장군기 장기 임대** — 신미양요(1871) 때 미국에 빼앗긴 어재연 수자기(帥字旗)를 미국으로부터 장기 임대

■ 한눈에 — 정부별 통일 정책 흐름

박정희: 8·15 선언(1970)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6·23 평화 통일 선언(1973)
전두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
노태우: 7·7 선언(1988)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유엔 동시 가입·남북 기본 합의서·비핵화 공동 선언(1991)
김영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김대중: 소 떼 방북·금강산 관광(1998)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노무현: 개성 공단 착공(2003) → 10·4 남북 공동 선언(2007)